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7輯

을산범어유적

兌珉 和憲 珠
虎榮 京度 正
全金 金徐

2000

蔚山大學校博物館
蔚山廣域市綜合建設事業本部

정오표(울산범어유적)

쪽	줄	들림	바로잡음
간행사	11	청자순가락	청동순가락
4	23	하겠다	하짚다.
20	15	整地土와,	整地土와
26	11	정지토나,	정지토나
32	4	樹木移植作業을	樹木移植作業으로
36	17	靑銅순가락(圖面 18-26,	靑銅순가락(圖面 19-26,
40	16	없었다.	없었다.
44	7	補強土 整地土로	補強土, 整地土로
56	22	내부에는	내부에
68	21	殘存長 cm, 匙部最大幅 cm, 자루最大幅 cm, 자 루最大厚 cm, 重量 24g.	殘存長 27.6cm, 匙部最大幅 4cm, 자루最大幅 1.8cm, 자 루最大厚 0.3cm, 重量 24g.
81	주 12)	정지구를	정지구의
147		圖版 53의 7번 관못	圖版 53의 5

* 일러두기

1. 본 보고서의 방위는 磁北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유구의 단면에 표기된 수치는 海拔高度이다.

간행사

고려시대 고분군인 범어유적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체육공원 부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1996년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된 체육공원 조성부지 정밀지표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후 1997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20여 일간의 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말에 만들어진 고분군임이 확인되었다. 이후 2년여의 시일이 흐른 2000년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25일간 이 유적에 대한 정식 발굴이 이루어졌다. 유적의 발견 이후, 인근에서 월드컵경기장 공사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실제 발굴조사가 시행될 때에는 유적 서쪽 경계지역의 형질이 크게 바뀐 상태였다. 때문에 유적 조사과정에서 유적의 입지와 관련한 분석과 연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번 범어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의 무덤 33기, 근대의 묘 1기, 柱穴群 2개소가 확인되었다. 33기의 고려시대 무덤에서는 청자 8점, 청자순가락 9점, 청동젓가락 2조, 청동완 1점, 동곳 1점, 청동과편 1점, 판상철기 6점, 鎌形 철기 2점, 관못 103, 토기 9점 등 모두 142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조사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했음을 고려하면 비교적 많은 수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된 셈이다. 고려시대의 유적, 유물이 울산지역에서는 거의 조사, 발견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번 범어유적의 발굴은 고려시대 울산지역사 연구자료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어유적에서 발견, 수습된 8점의 청자는 최근 울주군 언양읍 하잠리와 태기리 일대에서 발견된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대규모 도요지 유적의 존재를 고려할 때, 울산지역을 포함한 영남일대의 고려 및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사자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청자들이 고려 말 울산지역의 도요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이들 청자와 하잠리 및 태기리 일대의 도요지에서 발견되는 말기 청자 및 초기 분청사기, 백자류의 과편과의 관계가 주목될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범어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류가 지방 도요생산물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울산 범어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와 수습된 유물들은 고려 및 조선시대 울산지역 사회경제상황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어유적의 조사과정에서는 울산광역시종합건설사업본부 관계자의 행정적 후원과 울산문화재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써 준 울산대박물관 김영민 학예사 및 학예연구실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00년 12월

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전 호 태

目 次

I. 머리말	1
II. 遺蹟의 立地와 現況	2
III. 遺構와 遺物	7
IV. 遺構와 遺物의 檢討	76
1. 遺構	77
2. 遺物	82
3. 遺構의 相對編年	87
V. 맺음말	92

□ 圖 面 目 次

圖面 1. 遺蹟位置圖(1/25,000)	3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5
圖面 3. 가지구 遺構 配置圖(1/400)	6
圖面 4. 1호묘 유구	8
圖面 5. 1호묘 출토유물	9
圖面 6. 2호묘 유구	11
圖面 7. 3호묘 유구	13
圖面 8. 4호묘 유구	14
圖面 9. 5호묘 유구	15
圖面10. 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16
圖面11. 7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19
圖面12. 8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21
圖面13. 9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23
圖面14. 10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25
圖面15. 11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28
圖面16. 11호묘 출토유물	30
圖面17. 12호묘 유구	32
圖面18. 13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35
圖面19. 13호묘 출토유물	37
圖面20. 14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39
圖面21. 15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41
圖面22. 1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43
圖面23. 16호묘 출토유물	46
圖面24. 17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49
圖面25. 17호묘 출토유물	51
圖面26. 17호묘 출토유물	52
圖面27. 18호묘 유구	53
圖面28. 19호묘 유구	54
圖面29. 20호묘 유구	54
圖面30. 21호묘 유구	55

圖面31. 22호묘 유구	55
圖面32. 23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57
圖面33. 24호묘 유구	58
圖面34. 25호묘 유구	60
圖面35. 25호묘 유구 출토유물	61
圖面36. 2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63
圖面37. 27호묘 유구	64
圖面38. 28호묘 유구	65
圖面39. 29호묘 유구	66
圖面40. 30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67
圖面41. 31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69
圖面42. 31호묘 출토유물	70
圖面43. 32호묘 유구	71
圖面44. 33호묘 유구	72
圖面45. 34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74
圖面46. 주혈 1 유구	74
圖面47. 주혈 2 유구	75
圖面48. 지표수습유물	75

□ 圖 版 目 次

圖版 1. 遺蹟遠景	95
圖版 2. 작업광경과 유구 노출상태	96
圖版 3. 1호묘 내부 노출 전경	97
圖版 4. 1호묘 내부 토층, 유물출토 및 바닥노출상태	98
圖版 5. 2호묘 전경, 토층, 바닥노출상태	99
圖版 6. 3호묘 전경, 바닥노출상태	100
圖版 7. 3호묘 내부 토층상태와 4호묘 전경 및 토층상태	101
圖版 8. 4호묘 바닥노출상태, 요갱과 5호묘 전경 및 토층상태	102
圖版 9. 5호묘 전경과 6호묘 전경	103
圖版 10. 6호묘 전경, 토층, 유물출토 및 바닥노출상태	104
圖版 11. 7호묘 전경, 토층, 유물출토상태	105
圖版 12. 7호묘 노출상태와 8호묘 전경	106
圖版 13. 8호묘 내부 노출 전경	107
圖版 14. 9호묘 내부 노출, 토층, 유물출토상태	108
圖版 15. 9호묘 내부노출상태와 10호묘 전경	109
圖版 16. 10호묘 내부노출 전경과 유물출토상태	110
圖版 17. 10호묘 바닥노출상태와 11호묘 전경	111
圖版 18. 11호묘 내부 토층, 바닥노출, 유물출토상태	112
圖版 19. 11호묘 요갱과 유물출토상태와 12호묘 전경	113
圖版 20. 12호묘 바닥노출상태, 요갱과 13호묘 전경	114
圖版 21. 13호묘 토층 및 유물출토상태	115
圖版 22. 13호묘 바닥노출, 유물출토상태와 14호묘 전경	116
圖版 23. 14호묘 전경, 유물출토상태와 15호묘 전경	117
圖版 24. 15호묘 토층, 유물출토 상태	118
圖版 25. 15호묘 유물출토, 바닥노출상태와 16호묘 최초 유물 노출상태	119
圖版 26. 16호묘 전경, 토층, 유물출토상태	120
圖版 27. 16호묘 유물출토, 바닥노출 상태와 17호묘 최초상태	121
圖版 28. 17호묘 전경, 토층상태	122
圖版 29. 17호묘 내부 노출 전경	123

圖版 30. 18호묘 전경과 내부노출 상태	124
圖版 31. 19호묘 전경과 내부노출상태, 20호묘 전경	125
圖版 32. 20호묘 내부노출상태와 21호묘 전경 및 내부노출상태	126
圖版 33. 22호묘 전경, 내부노출상태와 23호묘 전경	127
圖版 34. 23호묘 전경, 내부노출상태	128
圖版 35. 24호묘 전경과 토층, 바닥노출상태	129
圖版 36. 25호묘 전경, 토층, 벽감내 유물출토상태	130
圖版 37. 25호묘 바닥노출, 유물출토, 벽감내 유물부장상태, 요갱, 굴지구흔	131
圖版 38. 25호묘 벽면 굴지구흔과 26호묘 전경	132
圖版 39. 26호묘 바닥노출, 토층상태와 27호묘 전경, 토층상태	133
圖版 40. 27호묘 전경, 바닥노출 상태와 28호묘 전경, 토층상태	134
圖版 41. 28호묘 전경, 바닥노출 상태와 29호묘 전경	135
圖版 42. 29호묘 토층, 바닥노출상태와 30호묘 전경, 토층상태	136
圖版 43. 30호묘 유물출토, 바닥노출상태, 요갱과 31호묘 전경	137
圖版 44. 31호묘 토층, 내부 노출 전경	138
圖版 45. 32호묘 전경, 토층, 바닥노출상태와 33호묘 전경	139
圖版 46. 33호묘 전경, 바닥노출, 요갱상태와 34호묘 전 전경, 토층상태	140
圖版 47. 34호묘 전경, 바닥노출, 유물출토, 요갱상태	141
圖版 48. 주혈군 전경, -1,2,3,4 주혈 내부 토층	142
圖版 49. 주혈군 전경, 23호 남쪽 주혈전경, 토층상태	143
圖版 50. 발굴구역 구릉의 정상부 일대 Trench 설치광경	144
圖版 51. 발굴구역 동쪽·서쪽 Trench 조사구역	145
圖版 52. 1호묘 출토유물	146
圖版 53. 6~9호묘 출토유물	147
圖版 54. 10, 11호묘 출토유물	148
圖版 55. 13호묘 출토유물	149
圖版 56. 13~16호묘 출토유물	150
圖版 57. 16호묘와 주변 출토유물	151
圖版 58. 17, 23, 25호묘 출토유물	152
圖版 59. 25~34호, 지표채집 유물	153

I. 머리말

울산 범어유적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체육공원부지내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유적이다. 범어유적이 위치한 주변일대는 1996년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울산체육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울산시종합건설사업소(현 울산광역시종합건설사업본부)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이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의 유존여부 확인조사를 우리박물관에 의뢰해 왔고, 1996년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25일간에 걸쳐 이 지역일대에 대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 결과 유적의 가능성이 있는 5개소를 확인하였으며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1997년 6월 25일부터 20일간에 걸쳐 대상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민묘이장이 지연된 1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한 시굴조사결과 1곳에서 유적의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이곳이 범어유적이다.

범어유적은 시굴조사과정에서 목관묘로 추정되는 묘광내에서 장군형토기와 관정 등이 출토되어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유적을 경계로 서쪽부분은 이미 월드컵구장의 공사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형질이 변경되어 있었다. 시굴조사가 시행되어 유적이 확인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월드컵경기장공사과정에서 유적의 일부가 다소 훼손되기도 하였다. 시굴조사후 유적의 원형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체계적인 관리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高麗墓 33기와 近代墓 1기, 柱穴群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33기의 고려묘에서 靑甞 8점, 土器 9점, 靑銅숟가락 9점, 靑銅젓가락 2조, 靑銅盥 1점, 銅甗 1점, 靑銅破片 1점, 板狀鐵器 6점, 鎌形鐵器 2점, 관못 103점 등 총 14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비록 조사면적은 협소하였으나 많은 수의 유구와 다양한 유물이 검출되었다. 특히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려 말에 해당하는 유구와 유물들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보됨으로서, 최근 확인 예가 많은 조선전기의 자기가마터와 함께 려말선초의 자기제작과 공급의 일면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가마터는 삼동면의 하잠유적¹⁾과 언양읍의 태기리유적이 대표적인데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양상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대규모 자기소로 추측되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울산지역의 자기생산과 유통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속히 이들 지역에 대한 학술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번조사과정에는 최근 설립된 울산문화재연구원의 조사단이 현장조사에 참가하여

1) 威德大·蔚山大博物館, 2000, 『蔚山「彦陽 磁器所」地表調査 報告-蔚州郡 三東面 荷峇里 陶窯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조사과정뿐만아니라 보고서작성에도 참가하여 본보고서가 발간이후 곧 바로 발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었다. 이에 울산문화재연구원의 이겸주원장님이 하 조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범어유적의 조사단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 장 : 전 호 태 (울산대학교박물관장)
조 사 위 원 : 안 재 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조 사 원 : 김 영 민 (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조사보조원 : 김 현 철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이 경 인 (당시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남 연 의 (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권 지 영 (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 경 화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 도 현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서 정 주 (울산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본 보고서의 작성에는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의 김경화, 김도현, 서정주가 원고, 도면, 도판 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도면 및 도판은 김현철과 권지영이 부분적으로 보조하여 완성하였다. 원고는 체제상의 통일을 위해 김영민이 1차적으로 교정하였고, 이를 전호태가 최종적으로 교열하였다.

II. 遺蹟의 立地와 現況

범어유적은 행정구역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 331-1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울산-부산간 7번 국도의 울산지점에서 울산구치소쪽으로 지방도를 따라 700~800m 정도 가면 좌측에 해발 100m 이하의 야트막한 구릉들이 뻗어 있다. 유적은 이들 구릉의 남쪽 斜面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뒤쪽은 구릉으로 둘러 쌓여 있고 앞쪽으로는 小支流가 흐르고 있다.

이 일대에는 北西-南東방향으로 여러 개의 구릉이 발달해 있으며, 구릉 사이에 좁은 平地(谷底平地)가 구릉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범어유적의 동북쪽에는 옥동저수지가, 남쪽에는 두현저수지가 있으며, 이 밖에 靑良川으로 흘러가는 여러 개의 支流가 이 일대를 흐르고 있어, 이곳이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임을 짐작하게 해 준다.

범어유적이 위치한 곳은 구릉 사이에 형성된 평지의 끝자락에 해당된다. 이 평지는 동남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면서, 두현마을 앞에서는 들을 형성하고 있다. 이 들은 현재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범어유적이 造成될 당시에도 耕作地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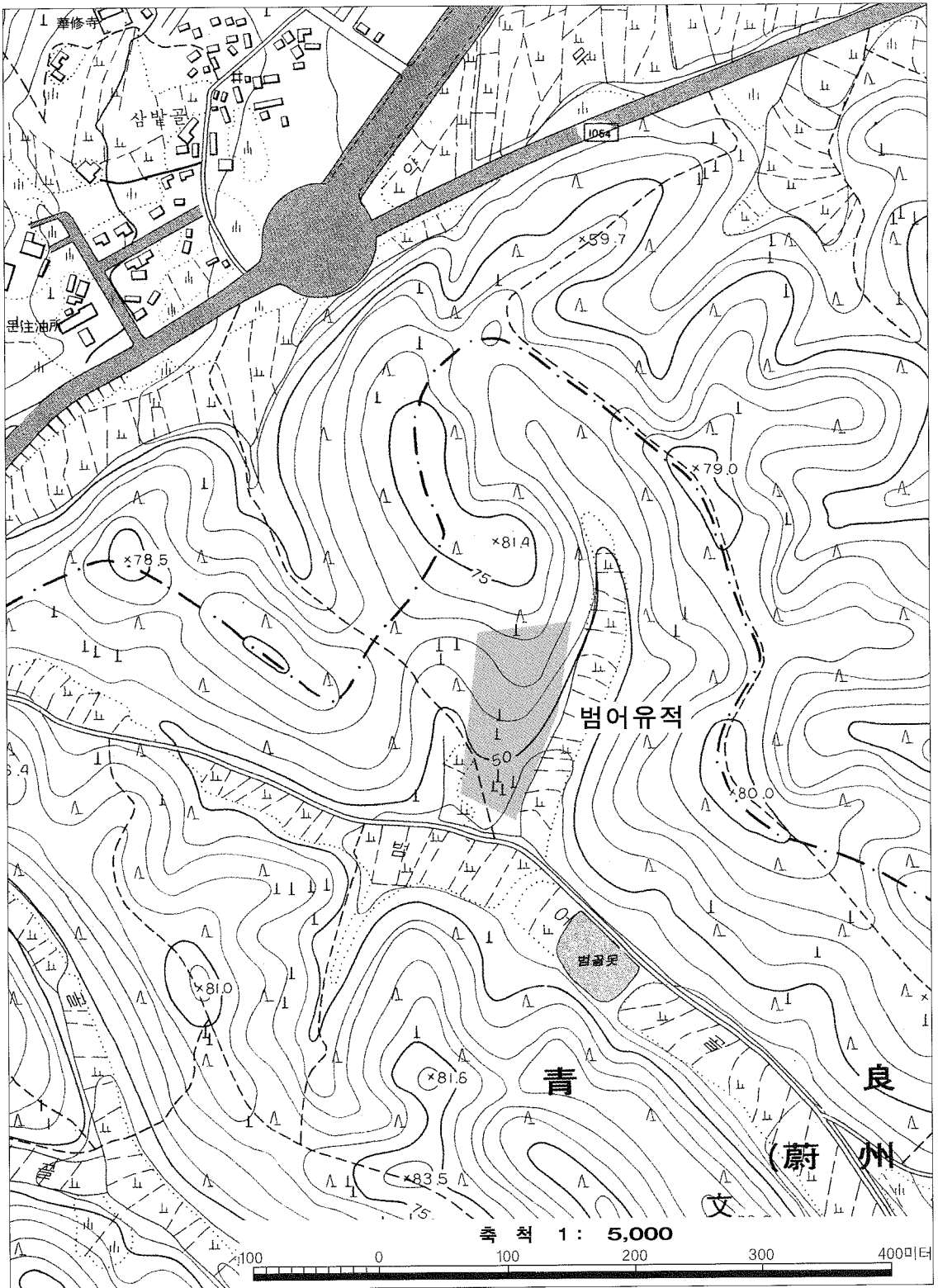
발굴조사 당시, 이곳은 월드컵경기장 건설로 인해 이미 원래의 지형이 많이 변경되어 원지형을 제대로 알 수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유적이 위치한 구릉의 북쪽사면과 북동쪽의 구릉은 완전히 절개되어 없어진 상태였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선 곳의 원지형은 주변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경사가 심한 계곡이 형성된 골짜기지형이었다. 따라서 체육공원부지내에 다른 유적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경 4, 5km내에는 선사시대유적인 무거동 옥현유적을 비롯한 청동기시대유적, 삼국시대의 분묘유적인 무거동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표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죽리일원의 유적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체육공원의 주변에는 대단히 많은 수의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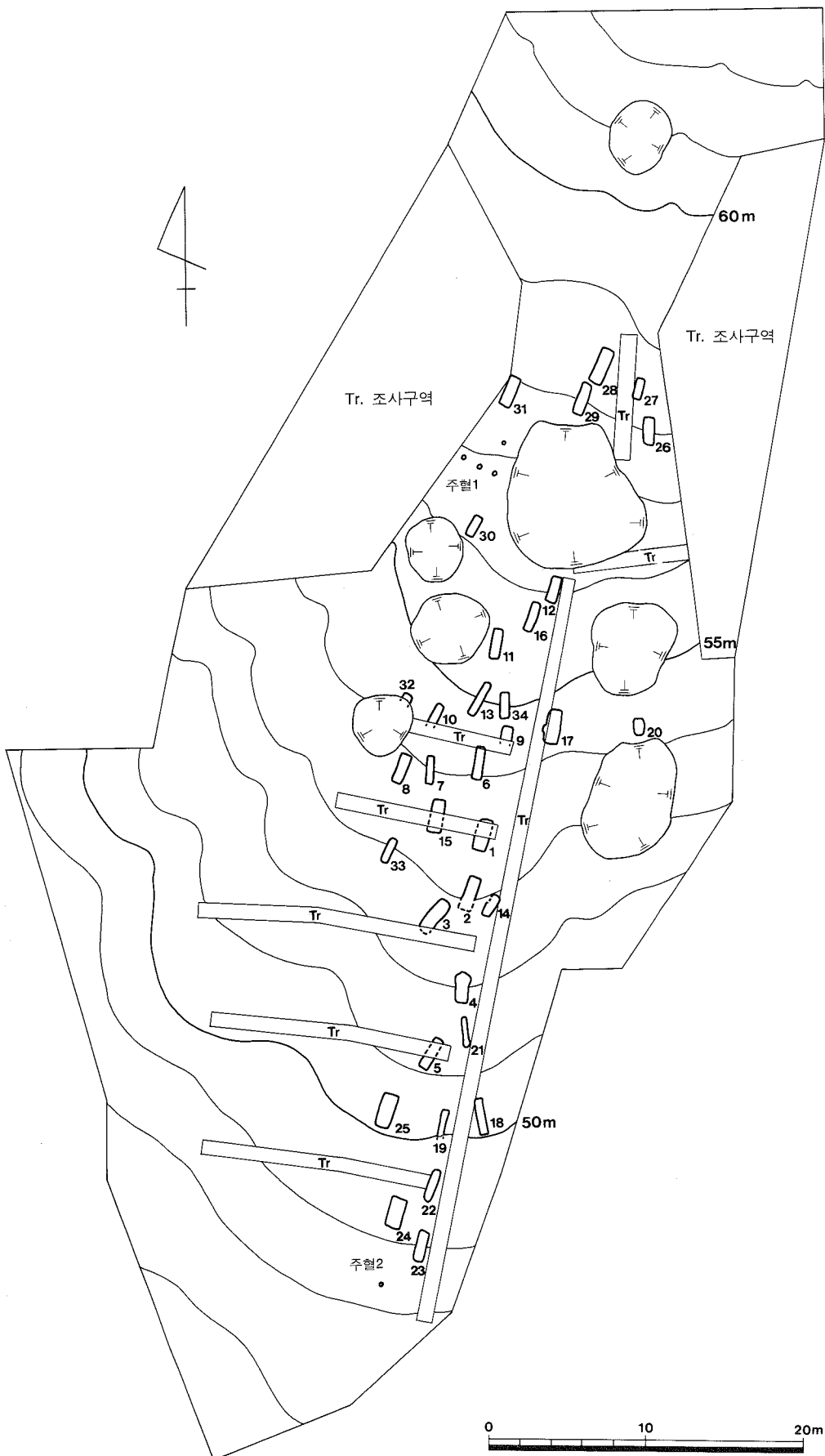
범어유적은 시기적으로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시기의 유적이 조사된 적은 없다. 그러나 지형적인 조건을 살펴본다면 범어유적에서 덕하쪽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1,2km정도만 가면 비교적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크지 않은 소하천이 평지를 가로 질러 흐르고 있어 생활공간으로서 대단히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문죽리일원에는 다수의 토기산포지와 고분군들이 알려져 있어 이 일대에 이른 시기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²⁾. 이러한 점을 볼 때 범어유적의 주인공들의 생활공간은 문죽리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울산지역에서 고려말의 유적이 정식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울산지역에는 선사시대이래의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고려시대의 유적이 확인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오히려 지금까지 고려시대이후의 유적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앞으로 매장문화재의 조사에서는 최소한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昌原大學校 博物館·蔚山市, 1997, 『蔚山市 文化遺蹟原簿(埋藏文化財)』.



圖面 2. 遺蹟 地形圖(1/5,000)



圖面 3. 가지구 遺構 配置圖(1/400)

III. 遺構와 遺物

1. 1號墓

1) 遺構(圖面 4, 圖版 3~4)

발굴구역에서 유구가 분포하는 범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海拔은 53.5m이다. 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구로 조사 당시 土器瓶이 表土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圖版 3-1) 상부가 어느 정도 削平된 것으로 추정된다.

墓壙의 長軸은 等高線과 直交하며, 主軸方向은 N-15°-E이다. 黃褐色 암반을 掘鑿하여 무덤을 조성하였다. 묘광의 네 벽은 안 쪽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여, 깊이가 깊어질수록 면적이 다소 좁아진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1:2.1인 抹角長方形이지만 중앙부가 약간 넓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7cm, 너비 103cm, 잔존깊이는 32cm이다.

토층의 상태(圖版 4-1)로 추정하여 본 무덤의 축조방법은, 묘광을 굴착한 후 明黃褐色 점토를 바닥에 깔아 다져서 整地하고 중앙에 木棺을 안치하였다. 목관과 묘광 사이의 공간은 굴착한 흙을 다시 채워 넣었는데, III' 층은 補强土의 일부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목관 내부의 土層樣相에서 볼 때, 모두 粘質土인 점과 I 층이 다져져서 粘性이 높은 점 등에서, 목관을 덮으면서 封土를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整地土나, 보강토, 봉토의 흙은 모두 굴착한 흙을 그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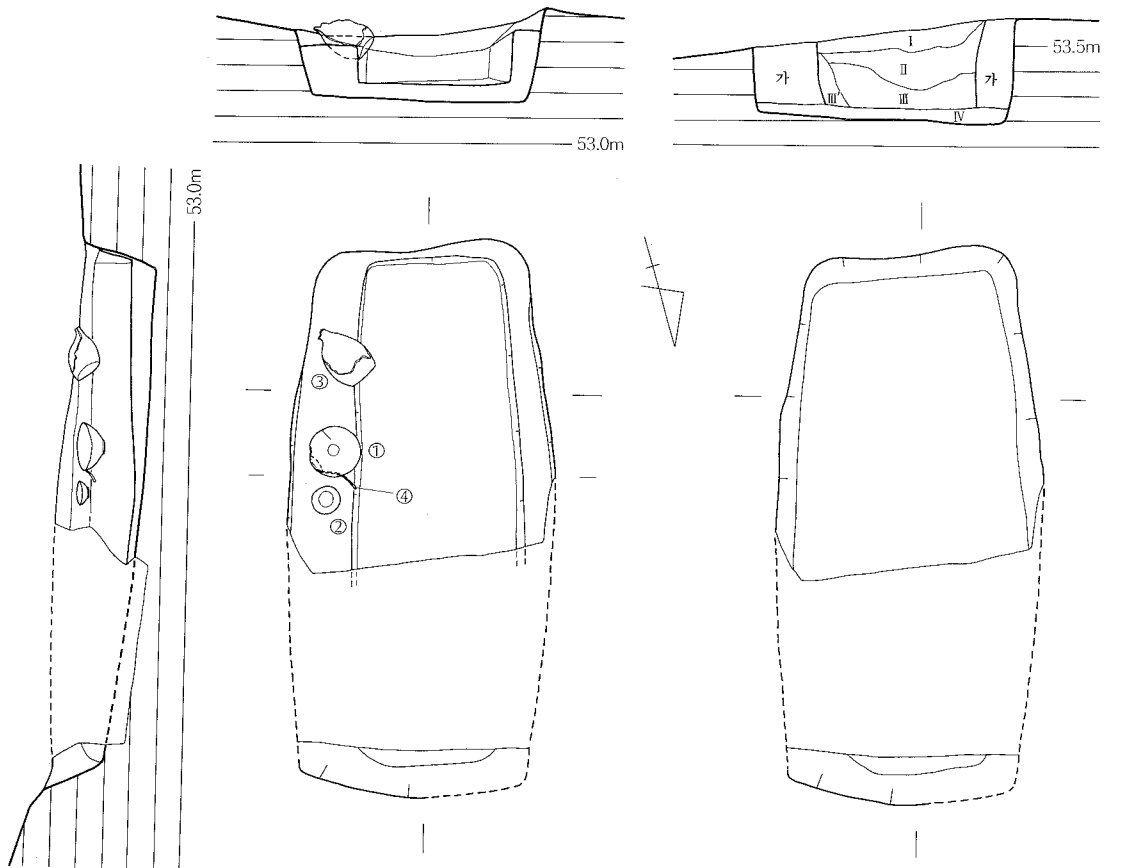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의 규모는 너비 65cm, 잔존길이 102cm 정도이다. 遺物은 모두 보강토 上部에서 출토되었으며(圖版 4-2·4), 磁器 2점과 土器瓶 1점, 靑銅숟가락 1점 등 모두 4점이다.

2) 遺物

(1) 靑磁象嵌雲鶴文대접(圖面 5-1, 圖版 52-3·4, 出土位置 ①)

口緣端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胴部는 底部에서 口緣部로 완만히 外彎하며, 구연단은 直立한다. 두께는 구연단으로 올수록 얇아진다. 底徑과 口徑의 비는 1:3.6으로, 구경이 비교적 넓다. 색조는 綠褐色이며, 굽 接地面과 굽 안 바닥을 제외하고는 全面에 유약이 施釉되었으며, 全面에 氷裂이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內面の 구연 주위에는 간략화된 唐草文이, 동체부에는 전체적으로 雲文이 施文되어 있고, 등간격으로 3곳에 鶴이 한 마리씩 새겨져 있다. 학의 부리와 다리, 발, 깃털 일부는 黑象嵌 기법으로 처리하였다. 內面の 胴下部에는 草花文을, 바닥 중앙부에는 菊花文을 白象嵌기법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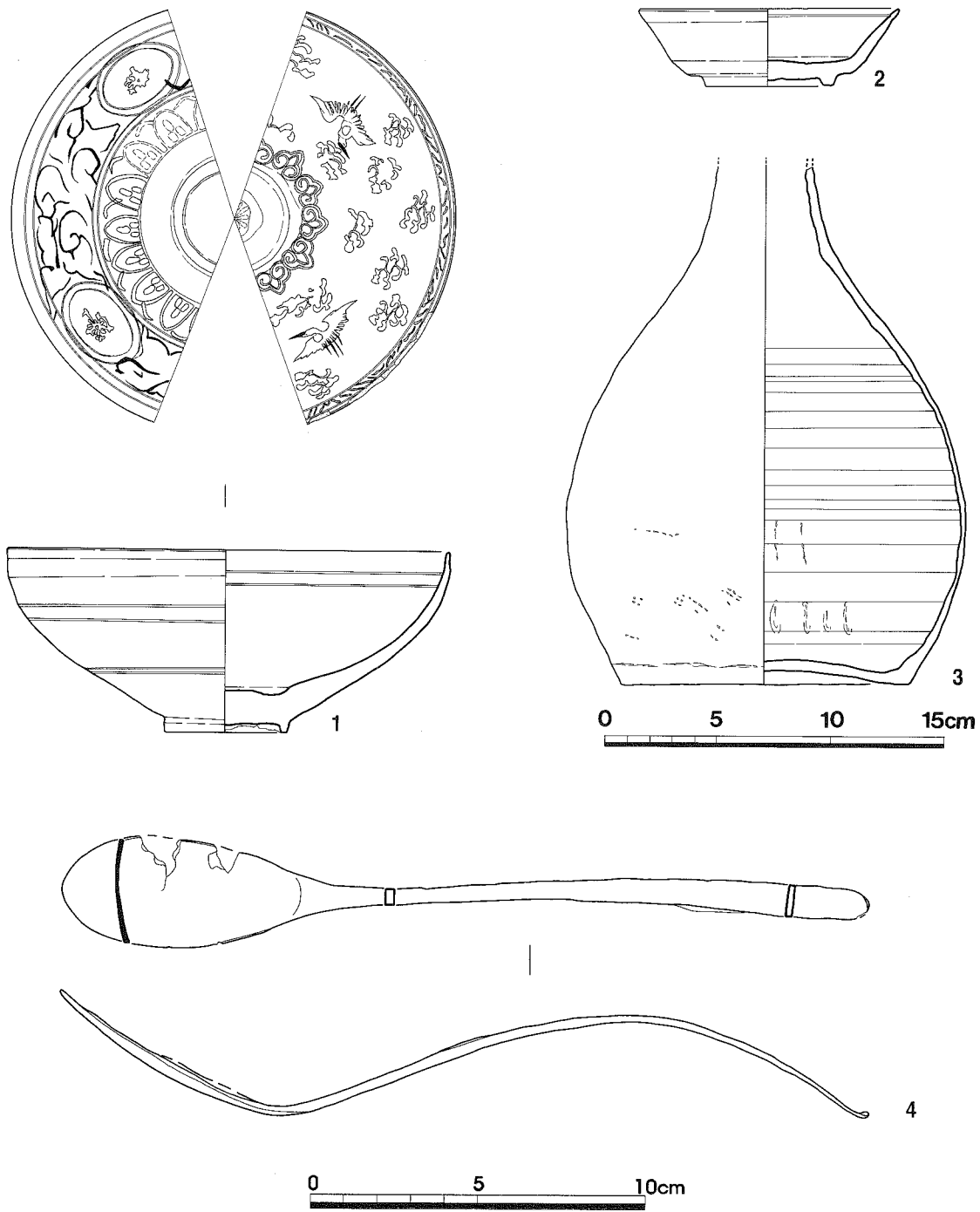
- I-赤褐色. 점성 높음. 黃色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 II-黃褐色. 점성 낮음. 黃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I-褐色. 점성 매우 낮음. 黃色 암반알갱이 포함.
- III'-黃褐色. '가'와 유사.
- IV-明黃褐色. 일부 灰黃色. 점성 높음.
- 가-黃色. 점성 높음. 黃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圖面 4. 1호묘 유구

外面의 동체부에는 圓形 象嵌文내에 국화문을 시문하였는데, 등간격으로 4개가 배치되었으며, 그 사이에 흑상감기법으로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胴下部에는 復蓮瓣文을 시문하였는데, 특히 이 부분의 유약이 많이 酸化되어있다. 굽 안 바닥에는 모래와 잔 자갈(지름 2~3mm)이 다량 부착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窯床에 모래를 깔아 燒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굽의 접지면의 폭은 일정하지 않다. 器高 8.3cm, 口徑 19.7cm, 底徑 5.5cm.

(2) 靑磁陰刻文점시(圖面 5-2, 圖版 52-1·2, 出土位置 ②)

胴體는 下部에서 단이 저서 口緣部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外傾한다. 淡綠灰色으로 전체적으로 색조가 고르며, 유약은 內外 全面에 施釉되었고 氷裂도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內面の 바닥과 口緣에 폭 1mm로 圓形 陰刻文을 시문하였다. 굽 안쪽 바닥면에서 沙粒이 소량 확인되는데,



圖面 5. 1호묘 출토유물

이는 窯床에 모래를 깔고 燒成한 흔적이다. 굽의 接地面 3곳에 耐火土 받침눈이 부착되어 있으며, 굽의 폭은 3~5.5mm로 부정연하다. 器高 3.5cm, 口徑 11.5cm, 底徑 5.7cm.

(3) 土器瓶(圖面 5-3, 圖版 52-5, 出土位置 ③)

胴體의 1/3 가량이 缺失되어 도면으로 복원하였으며, 陶質燒成으로 소성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 외면 바닥을 제외하고는 全面에 自然釉가 부착되어 있어서 綠黃色을 띠는데, 자연유는 부분적으로 두텁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點狀으로 剝離되기도 하였다. 胎土는 0.5mm 내외의 石英과, 長石이 소량 混入된 정선된 泥質粘土이다. 자연유가 박리된 부분은 연한 灰色을, 外面 바닥과 內面 胴下部 이하, 斷面은 暗紫色을 띠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색조에서 차이가 있다. 내면도 1/2 가량은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外面의 底部는 박리가 심하여 세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나, 물손질로 整面되었다. 胴下部에는 底部와 胴體의 접합흔적이 뚜렷이 관찰되고, 胴最大徑 아래에는 格子打捺痕(圖版 52-7)이 일부 남아있다. 全面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內面の 정면 순서는, 동체와 저부를 접합한 후, 胴下部와 底部는 도구를 이용하여 回轉調整하였다. 저부의 중앙에는 물손질흔이 남아있고, 중앙부를 제외한 주변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비교적 부정연하다. 胴下部에서 上部까지는 도구를 이용하여 정연하게 회전물손질하였는데, 胴上部와 口頸部는 회전의 흔적이 없으나, 그 아래로는 도구의 회전흔이 뚜렷이 남아있어서, 상하 정면방법의 차이를 보인다(圖版 52-8). 殘存高 23.4cm, 復原 胴最大徑 17.7cm, 底徑 12.7cm

(4) 靑銅손가락(圖面 5-4, 圖版 52-6, 出土位置 ④)

匙面은 일부 파손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끝이 뾰족한 長橢圓形으로, 내면이 오목하며, 가운데가 얇고 兩側面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양상을 띤다. 자루는 편평한 막대형으로, 斷面形態는 납작한 長方形이나 끝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자루끝은 ‘ㄴ’形으로 구부렸다. 자루는 중간 부분에서 꺾이고 匙部와 자루가 꺾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측면은 ‘S’字形을 이룬다. 全長 24cm, 匙部 幅 3.4cm, 重量 40g.

2. 2號墓

1) 遺構(圖面 6, 圖版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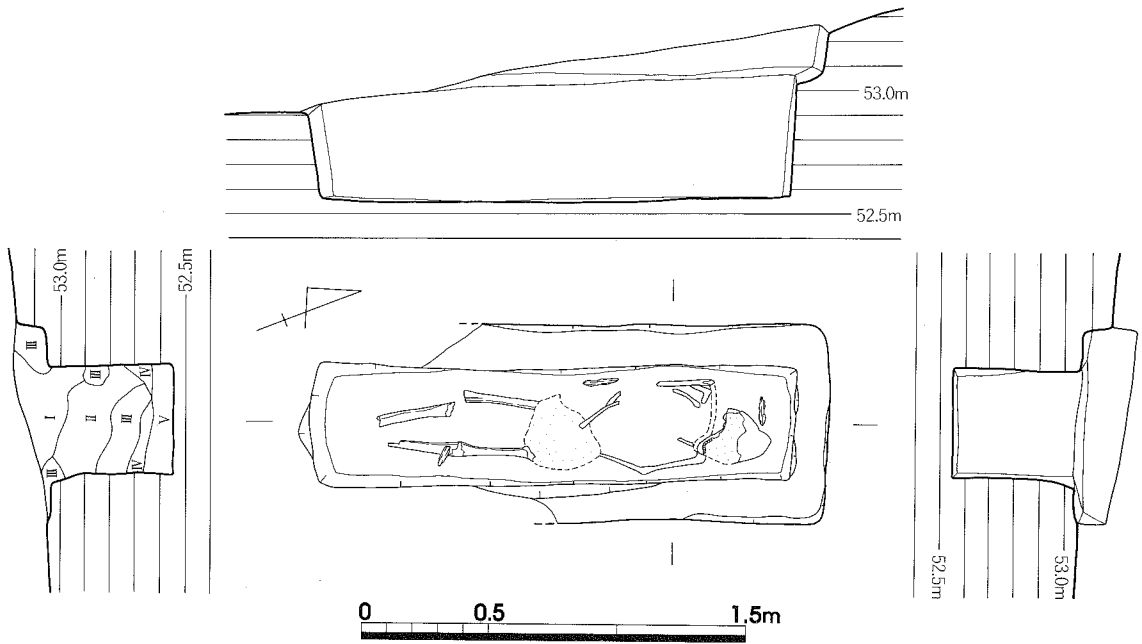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와 海拔 53m에 걸쳐있다. 서남쪽으로 3호가, 동쪽으로 14호가 인접해 있다. 남쪽은 지형적인 경사로 인해 削平되어, 무덤의 상부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內部土의 土質이나 土層의 양상(圖版 5-2)이 다른 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墓壙의 掘鑿方式, 人骨의 殘存狀態 등에서 볼 때, 이 유적의 다른 묘들과는 관련이 없는

後代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묘광은 明褐色 암반을 거의 垂直으로 掘鑿하였는데, 상부에서는 넓게 굴착하였으나 관이 안치될 부분은 'L'字狀으로 단을 지워서 폭이 좁게 만들었다. 묘광의 평면 형태는 長方形으로, 규모는 잔존길이 210cm, 너비 79cm, 깊이 68cm이며, 主軸방향은 N-20°-E이다.

묘광을 굴착한 후 暗褐色 점토를 깔아서 바닥을 整地하고 목관을 안치하였다. 관 내부의 전체적인 토층상태는 대체로 잔 나무뿌리가 매우 많이 섞여 있었는데, 貝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Ⅲ층이 특징적이다. 이는 굴類의 폐각과 흙을 섞어서 목관 위를 덮었던 것으로, 관을 보호하는 의미이며, Ⅲ층 위에 최소한 2층의 封土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관의 규모는 길이 194cm, 너비 48cm, 높이는 50cm이다. 屍身은 北枕으로, 四肢骨과 頭蓋骨, 下顎骨등의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었으며, 팔꿈치 아래의 양팔을 앞으로 모은 상태이다. 이 인골은 조사가 완료된 후에 다른 곳으로 移葬하였다.



- I-暗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포함.
- II-暗褐色. 점성: I < II.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I-黄色. 점성 보통. 貝殼 多量 포함.
- IV-暗褐色. I 과 유사.
- V-暗褐色. II와 유사.

圖面 6. 2호묘 유구

3. 3號墓

1) 遺構(圖面 7, 圖版 6~7-1)

발굴구역의 중앙에 가깝지만, 조금 남서쪽으로 치우쳐서 海拔 52.5m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 2호가 인접하여 있으며, 시굴조사 트렌치에서 남쪽 斷面이 노출되어 확인되었다.

墓壙은 黃褐色 암반을 掘鑿하여 조성하였는데, 네 벽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단면형태는 逆梯形에 가까우며, 東 長壁은 벽면을 더 오목하게 다듬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나, 北 短壁쪽은 정형하지 않다. 主軸방향은 N-37°-E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211cm, 너비 90cm, 깊이는 64cm이다.

토층(圖版 7-1)으로 본 무덤의 축조는, 먼저 묘광을 굴착하고 暗褐色 점토를 바닥에 깔아서 整地한 후 묘광의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였는데, 묘광의 남쪽으로 갈수록 깊게 굴착되어 整地土는 남쪽이 더 두껍다. 목관과 묘광 사이의 공간은 굴착한 흙을 되메웠는데, 赤褐色과 黃色의 암반덩어리들이 다량 混入되어 있다. 정지토나, 補強土, 封土의 조성은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의 규모는 너비 65cm, 잔존길이 200cm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4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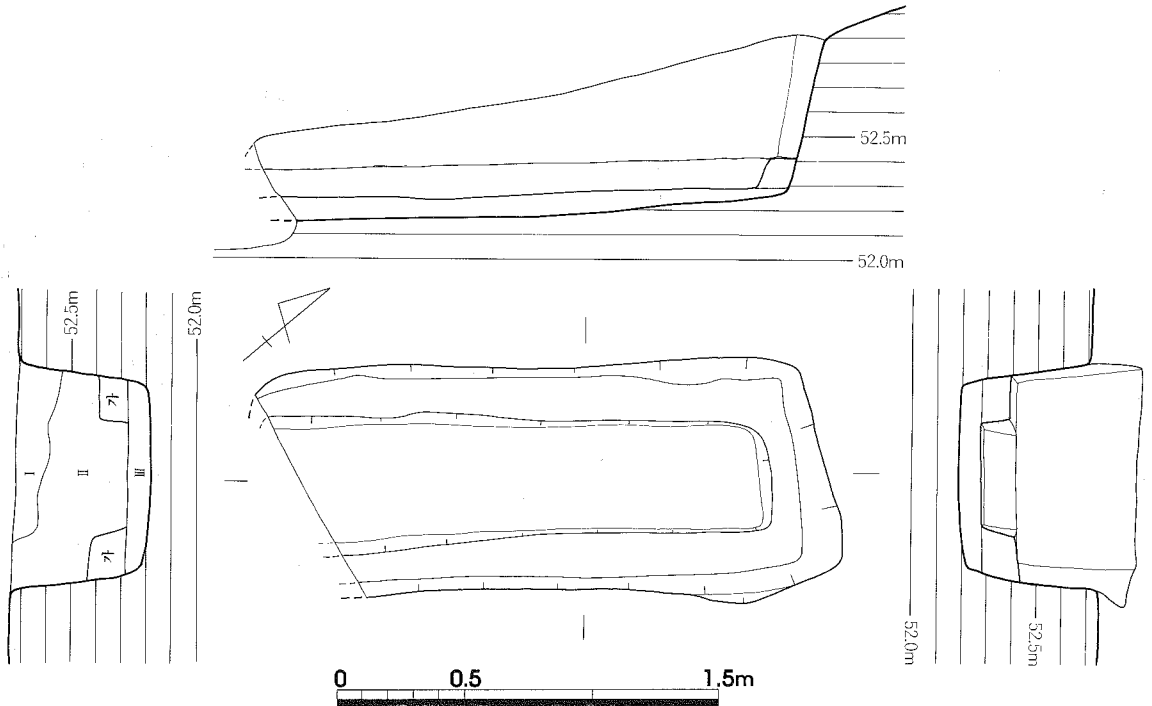
1) 遺構(圖面 8, 圖版 7-2~8-2)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海拔 52m에 걸쳐 있으며, 남쪽에는 21호가 위치한다. 서쪽에 조성된 現代墓(光州 盧氏墓)와 지형적인 削平으로 인해 묘의 2/3 이상이 파괴되어, 북쪽 일부만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닥만 남아있다.

墓壙은 長軸이 等高線과 直交하는데, 主軸방향은 N-2°-E이다. 明黃色 암반을 掘鑿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남아있는 兩 長壁의 북쪽은 이 유적의 다른 묘와는 달리, 완만하게 단을 지워서 폭넓게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抹角長方形일 것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194cm, 너비 108cm, 최대깊이 55cm이다. 묘광을 굴착한 후, 바닥의 중앙보다 남쪽으로 치우쳐서(길이 방향의 북쪽에서 2/3위치) 腰坑을 설치하였는데, 이 유적의 다른 묘들이 대부분 중앙부에 요갱을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다.

內部土(圖版 7-2)는 전체적으로 粘性이 높고 입자가 고운 粘質土로서, 매우 치밀하게 쌓여 있었다. 묘광 바닥에는 黃褐色 점토를 얇게 깔아서 整地하고, 중앙에 목관을 안치한 후 木棺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으로 채웠다. 토층의 함몰양상으로 볼 때, 목관 위에는 封土를 조성하였으며,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의 흙은 모두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8cm, 너비 52cm로, 깊이는 최대 52cm 정도이다. 요갱의 평면형태(圖版 8-2)는 不定形한 圓形으로, 크기는 지름 16cm이다. 단면형태는 완만한 V형이고, 깊이는 9cm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I-暗褐色. 점성 보통.
赤褐色 암반덩어리 포함.
II-暗褐色. 점성 낮음.
赤褐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III-暗褐色. 점성 보통.
赤褐色·黃色 암반알갱이 포함.
가-暗褐色. 점성 보통. II와 유사.
赤褐色·黃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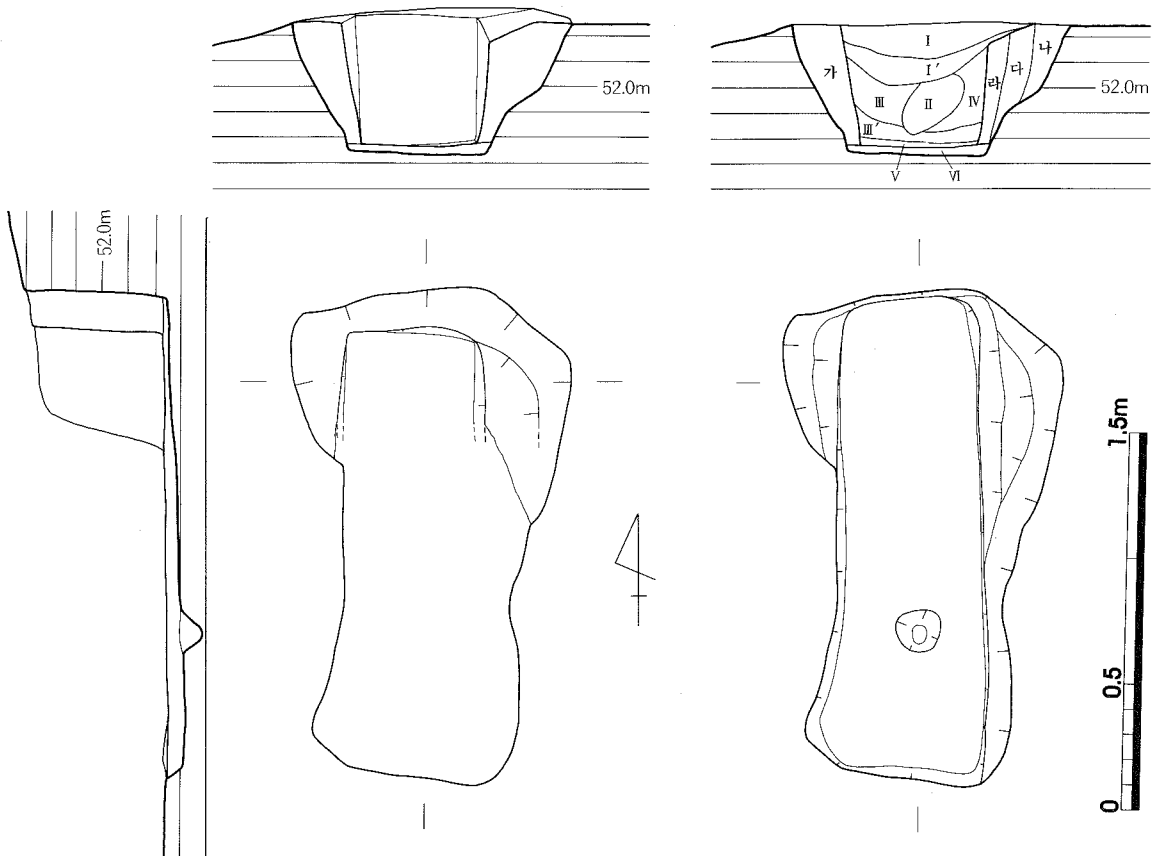
圖面 7. 3호묘 유구

5. 5號墓

1) 遺構(圖面 9, 圖版 8-3~9-2)

밭굴구역의 남쪽에 치우쳐 海拔 51m지점 가까이 위치한다. 시굴 트렌치가 묘광의 중앙부를 관통하여 북쪽의 1/4 가량이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묘의 斷面이 노출되어 있었다.

墓壇은 赤褐色 암반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掘鑿하여, 네 벽은 모두 비스듬하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나 중앙부가 약간 넓다. 主軸방향은 N-33°-E이고, 규모는 길이 228cm, 너비 84cm, 깊이 58cm로, 너비 : 길이의 비가 1 : 2.7이다.



I-黃褐色. 점성 보통. 木炭 多量 포함.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I'-褐色. 점성 보통. 암반알갱이 포함.
 II-灰黃色. 점성 보통. 입자가 매우 고움.
 III-明赤褐色. 점성 보통. 黃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III'-赤褐色. 점성 높음. III과 유사.
 IV-赤褐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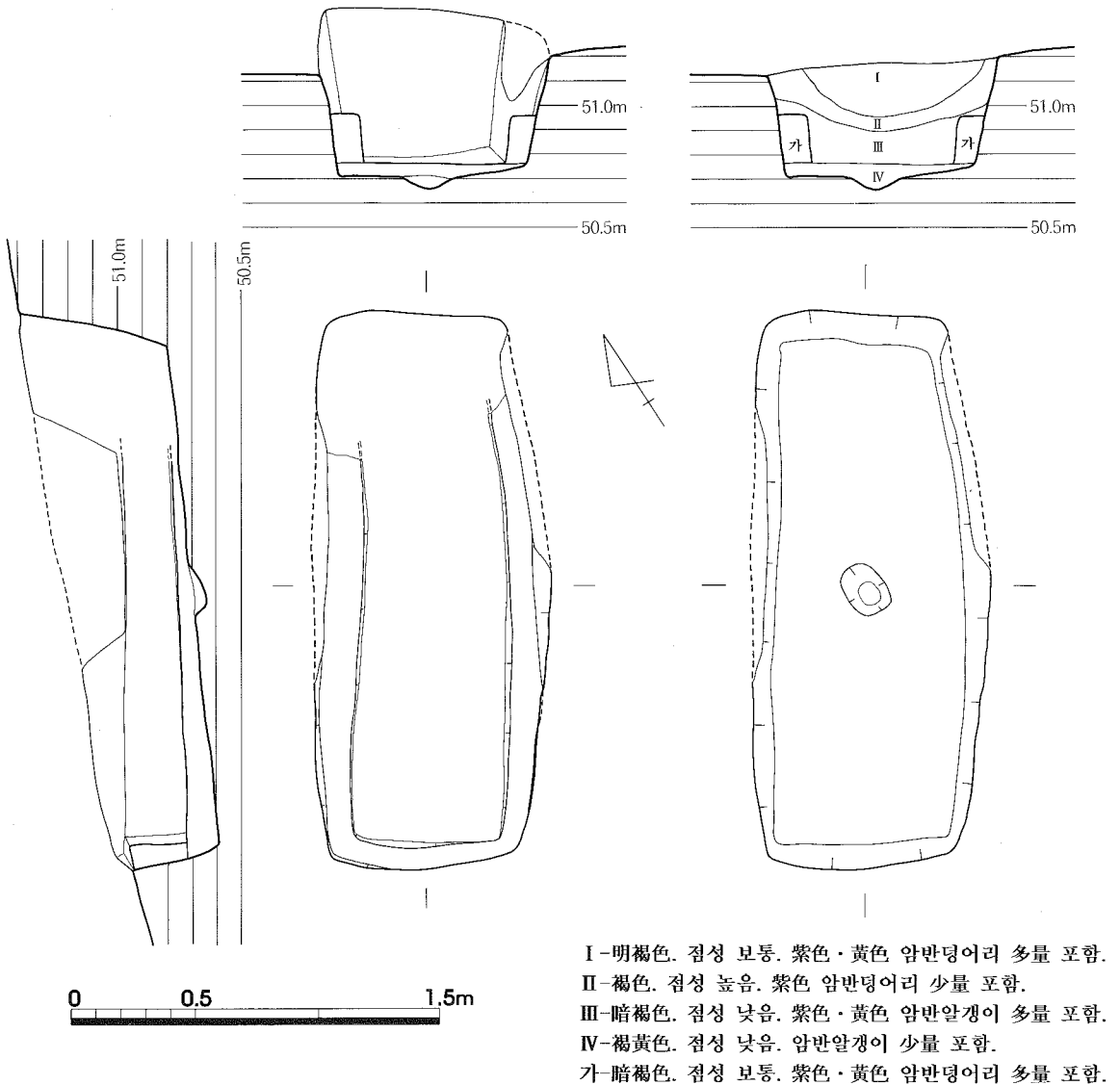
V-黃褐色. 점성 높음. 약간 붉은 기미.
 VI-黃褐色. 점성 높음. 약간 녹색 기미.
 가-明黃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나-暗褐色. 점성 보통. 綠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다-褐色. 점성 보통.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라-褐色. 점성 보통. 암반알갱이 매우 少量 포함.

圖面 8. 4호묘 유구

무덤의 축조는, 먼저 묘광을 굴착한 후 바닥의 중앙부에 腰坑을 설치하고, 黃褐色 점토를 바닥에 깔고 다져서 整地하였다. 整地土는 묘광 바닥의 경사도가 심하여 양단벽(남쪽과 북쪽)이 20cm 가량의 두께 차이가 있다. 바닥의 정지 후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으로 채웠다. 전체적인 토층(圖版 8-4)은 완만한 U자상의 陷沒樣相을 보이는데, 이는 관 위에 封土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整地土나 補強土, 封土는 모두 굴착한 흙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은 너비 63cm, 잔존길이 182cm이고, 보강토의 최대높이는 25cm이다. 腰坑은 평면형태가 정형하지 않은 抹角長方形으로, 길이 22cm, 너비 16cm,

깊이 6cm이다. 요갱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는데, 이 유적의 다른 묘의 요갱에서 주로 板狀 鐵器들이 나온 것을 볼 때, 원래 副葬된 유물이 없었던 것인지 有機質의 유물이 부장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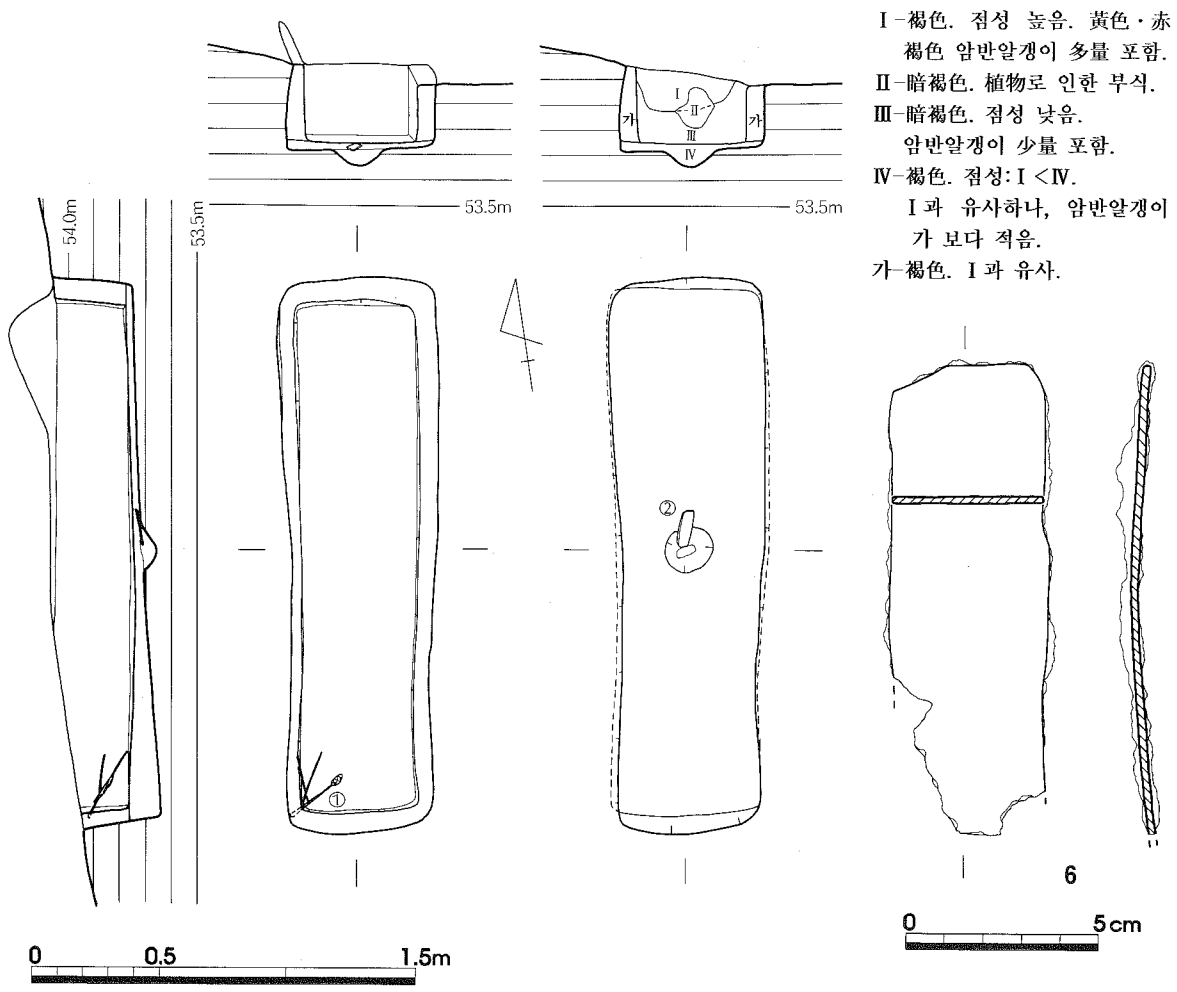


圖面 9. 5호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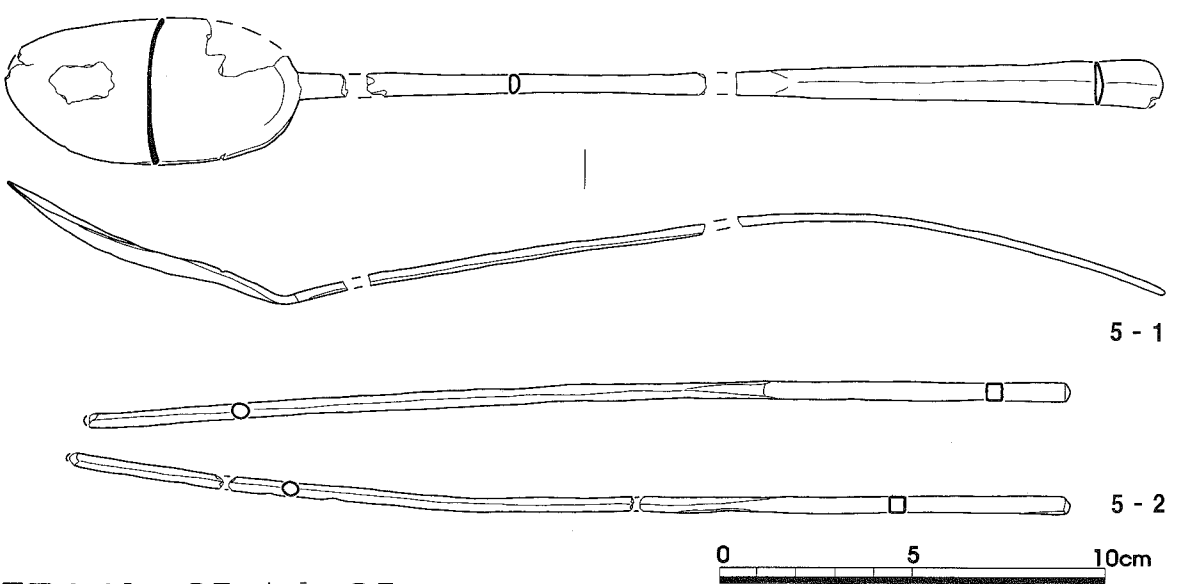
6. 6號墓

1) 遺構(圖面 10, 圖版 9-3~10)

밭갈구역에서 유구가 분포하는 범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海拔 54m에 걸쳐있다. 동쪽 위로 비교적 나란하게 9호가 인접한다.



I-褐色. 점성 높음. 黃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II-暗褐色. 植物로 인한 부식.
 III-暗褐色. 점성 낮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IV-褐色. 점성: I < IV.
 I 과 유사하나, 암반알갱이가 보다 적음.
 가-褐色. I 과 유사.



圖面10. 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墓壙의 長軸은 等高線과 直交하는데, 主軸방향은 N-9°-E이다. 明褐色 암반을 거의 垂直으로 掘鑿하여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양쪽 長壁은 바닥의 폭이 좀 더 넓게 만들어졌다. 바닥의 중앙부에는 腰坑을 설치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너비 : 길이의 비가 1 : 4로 다른 묘에 비해 매우 細長한 細長方形이나 남쪽이 약간 좁다. 규모는 길이 220cm, 너비 55cm, 깊이 49cm이다.

무덤은 먼저 묘광을 굴착한 후, 요갱과 바닥에 걸쳐서 板狀鐵器 한 점을 副葬하였다(圖版 10-5). 그 다음, 褐色 점토를 바닥에 깔고 다져서 整地하였는데 묘광 바닥의 경사도에 따라 남쪽의 整地土가 두껍다. 정지 후 바닥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을 채워 넣었다. 부분적으로 나무뿌리에 의한 腐蝕이 있으나, 전체적인 토층의 함몰양상(圖版 10-2)을 볼 때, 봉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整地土나, 補強土, 목관 위를 덮었던 封土는 모두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다.

남아 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은 길이 204cm, 너비 45cm의 규모(너비 : 길이의 비가 1 : 4.5)로 보강토의 최대높이는 33cm이다. 요갱은 평면형태가 圓形으로 지름 18cm, 단면 형태는 완만한 V형으로 깊이 7cm이다. 출토유물로는 보강토 상부에서 출토된 靑銅수저 1조와 요갱에서 출토된 판상철기 1점이 있다.

2) 遺物

(1) 靑銅수저(圖面 10-5, 圖版 53-1, 出土位置 ①)

① 숟가락 - 손잡이와 匙部가 일부 결실되어 도면으로 추정 복원하였다. 자루는 납작한 막대형으로 斷面형태는 부분적으로 형태가 달라서, 끝부분은 편볼록렌즈형이고 匙面 가까이는 납작한 橢圓形이며, 끝으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진다. 匙面은 전체적으로 타원형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많이 닳아 있어서, 오른손잡이용으로 추정된다. 중앙이 오목하며, 중앙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두터우나 역시 왼쪽보다 오른쪽이 얇다. 측면은 전체적으로 'S'字形이다. 推定長 30cm, 匙部 幅 3.9cm, 重量 30g.

② 젓가락 - 전체형태가 긴 막대형으로, 양쪽 先端의 斷面형태가 다르다. 전체 길이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손잡이부분은 단면이 方形이나, 끝은 圓錐形으로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졌다. 반대편은 단면이 圓形으로, 끝은 둥글게 만들어져 있으며 사용으로 인해 마모되어 있다. 全長 25.5cm, 幅 0.5cm, 厚 0.5cm, 重量 47g

(2) 板狀鐵器(圖面 10-6, 圖版 53-3, 出土位置 ②)

한 쪽 끝부분이 결실되어 있어 전체 형태를 알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녹이 부착되어 있다. 대체로 세장한 長方形을 띠고 있는데, 남아있는 한 쪽 부분은 직선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잔존부분에는 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사용흔적이나 木質 등의 부착도 없다. 殘存長 12.3cm, 幅 4.0cm, 厚 0.2cm, 重量 45g.

7. 7號墓

1) 遺構(圖面 11, 圖版 11~12-4)

海拔 54m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8호와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15호가 위치한다.

墓壙은 明黃褐色 암반을 거의 垂直에 가깝게 掘鑿하였으며, 평면형태나 깊이도 비교적 정연하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너비 : 길이의 비가 1 : 3.6으로서 비교적 細長方形이나 남쪽이 약간 넓다. 규모는 길이 182cm, 너비는 50cm, 깊이는 23cm이고, 主軸방향은 N-5°-E이다. 바닥의 중앙에는 腰坑을 설치하였다.

토층 상태로 볼 때, 무덤은 明褐色 점토를 갈아 단단히 다져서 바닥을 整地하고, 바닥의 중앙에 목관을 안치한 후 목관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을 채웠다. 관 내부 토층의 함몰양상(圖版 11-2)으로 보아서, 관 위에는 封土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整地土나, 補強土, 封土는 모두 굴착한 흙을 그대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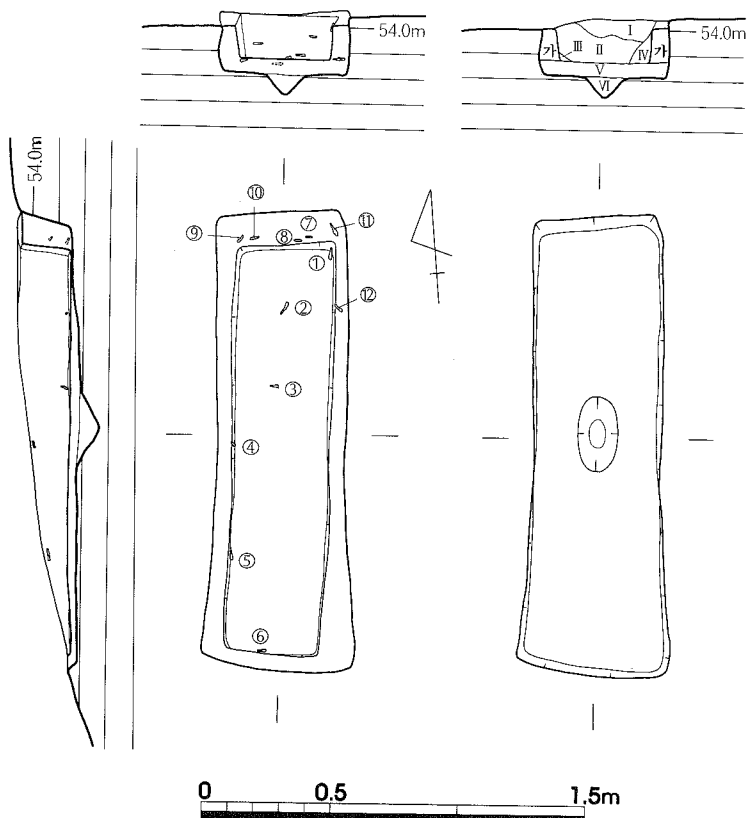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2cm, 너비 38cm(너비 : 길이의 비 1 : 4.3), 최대깊이 19cm이다. 요강은 평면형태가 橢圓形으로 길이 30cm, 너비 16cm이고, 단면형태는 V형으로 깊이 8cm이다. 출토유물은 목관에 이용된 관못 14점이며, 부장유물은 없다.

2)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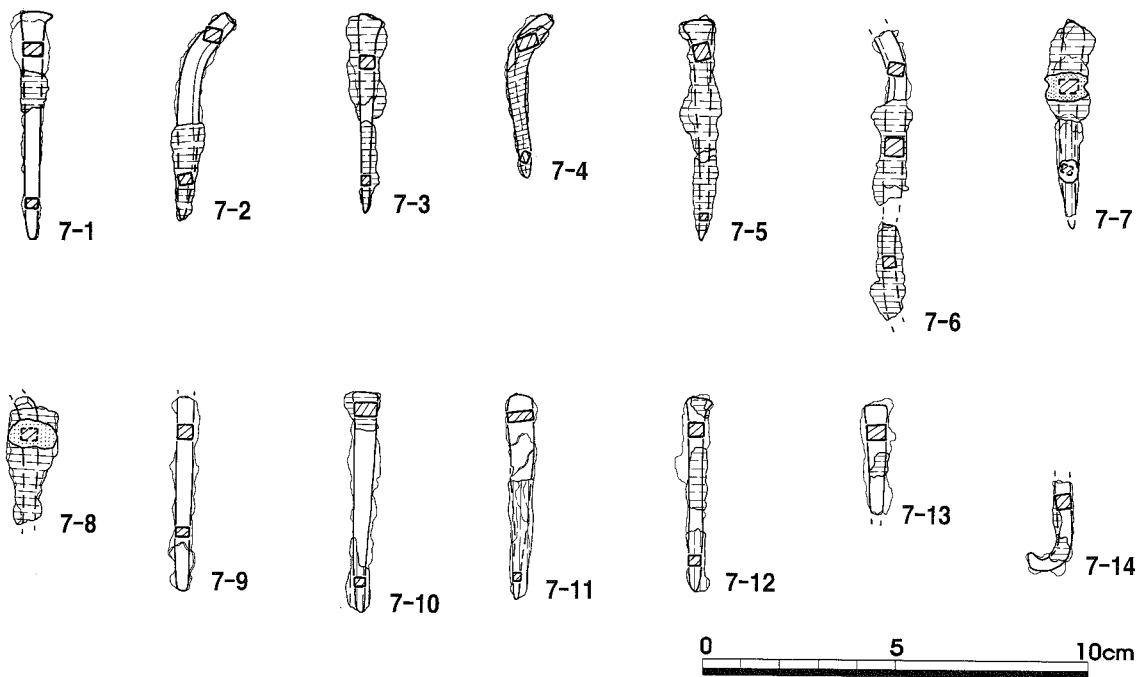
(1) 관못(圖面 11-7, 圖版 53-5)

모두 14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7점은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된 상태이다. 기본적인 크기와 형태는 대체로 동일하다. 1점 외에는 모두 木質이 부착되어 있는데, 圖面 11-7-7에 부착된 목질은 방향과 범위에서 2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圖面 11-7-11의 관못은 목질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 확인된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11-7-1	53-5	①	6.0	0.8	0.4	3	완형. 목질 부착.
-7-2		②	5.5	0.5	0.4	4	완형. 머리 휨. 목질 부착.
-7-3		③	5.2	0.6	0.4	3	완형. 목질 부착.
-7-4		④	4.3	0.6	0.3	3	완형. 머리 휨. 목질 부착.
-7-5		⑤	5.8	0.8	0.4	5	완형. 목질 부착.
-7-6		⑥	(7.1)	0.5	0.5	5	2片으로 분리. 목질 부착.
-7-7		⑦	(5.1)	0.6	0.4	4	뿌리 결실. 목질 부착.
-7-8		⑧	(3.3)	0.4	0.3	3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 부착.



- I-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포함.
- II-褐色. 부분적으로 灰色. 점성 보통.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포함.
- III-褐色. II와 유사, 좀 더 밝음.
- IV-褐色. II와 유사, 좀 더 어두움.
- V-明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VI-黄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가-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圖面11. 7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7-9	53-5	㉑	5.0	0.4	0.4	3	머리 결실.
-7-10		㉒	5.7	0.6	0.4	4	완형. 목질 부착.
-7-11		㉓	5.4	0.7	0.3	3	부분적으로 결실. 목질 부착.
-7-12		㉔	5.1	0.7	0.4	3	완형. 목질 부착.
-7-13		내부 Tr.	(2.8)	0.6	0.4	2	뿌리 결실. 목질 부착.
-7-14			(2.3)	0.4	0.4	1	머리 결실. 목질 부착.

* ()는 잔존치

8. 8號墓

1) 遺構(圖面 12, 圖版 12-5~13)

발굴구역의 중앙부에서는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海拔 54m지점에 가깝다. 동쪽으로는 7호와 인접한다.

墓壙은 黃褐色 암반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掘鑿하여 4벽은 모두 비스듬하며, 묘광의 중앙부가 네 모서리쪽보다 약간 깊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너비 : 길이의 비가 1 : 2.6인 抹角長方形으로, 北 短壁은 정연하지 않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77cm, 깊이 60cm이며, 主軸방향은 N-22°-E이다. 묘광의 북벽에는 묘광을 굴착한 도구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는데, 도구의 잔존 폭은 3~4cm가량이며 先端은 직선적이지 않고 둥근 형태이다. 위에서 아래로 길게 내려온 형태로 볼 때 지금의 곡괭이와 같은 형태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땅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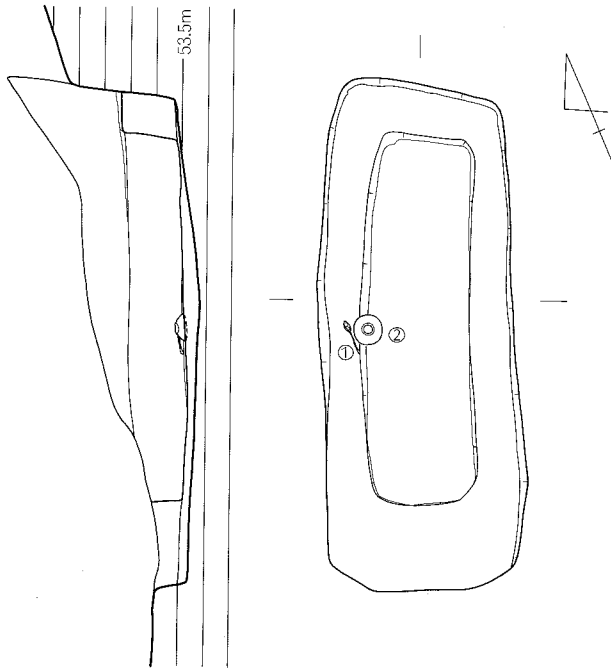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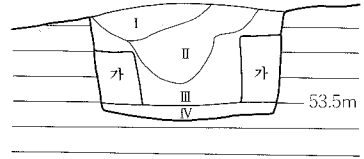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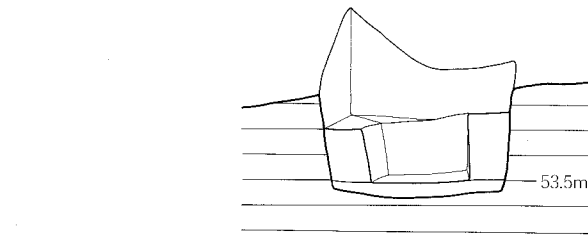
토층의 상태(圖版 13-1)로 본 무덤의 축조는, 묘광을 굴착한 후, 暗褐色 점토를 바닥에 깔아서 整地하고, 중앙에 목관을 안치한 다음, 목관과 묘광 사이의 공간은 굴착한 흙을 채웠는데, 補強土의 높이는 최대 26cm이다. I~III층의 함몰양상으로 보았을 때, 관 위를 덮으면서 封土를 조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整地土와, 보강토, 봉토는 모두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은 너비 43cm, 길이는 147cm(너비 : 길이의 비가 1 : 3.4)이다. 유물은 보강토 내부에서 靑磁접시 1점과 靑銅숟가락 1점이 출토되었는데, 청동숟가락은 출토 당시부터 腐蝕이 심하여 상태가 좋지 않다(圖版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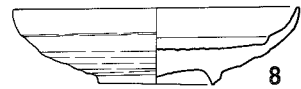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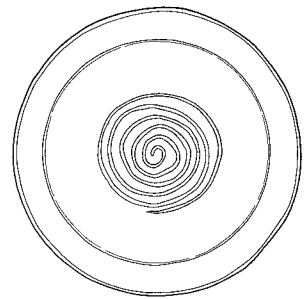
2) 遺物

(1) 靑磁象嵌螺旋文접시(圖面 12-8, 圖版 53-7·8, 出土位置 ㉒)

綠灰色이나 전체적으로 색이 투명하지 못하고, 색조가 고르지 못하다. 口緣端이 부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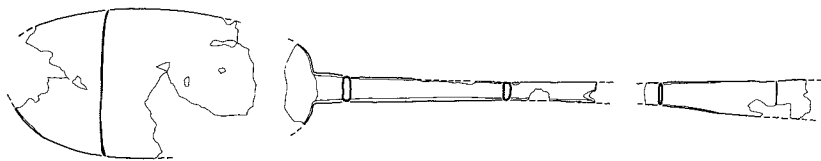


- I-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褐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II-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赤褐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III-赤褐色. 점성 보통.
黄色·赤褐色 암반덩어리 少量 포함.
- IV-暗褐色. 점성 낮음. 암반덩어리 거의 없음.
- 가-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赤褐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0 0.5 1.5m

0 5cm



9

0 5 10cm

圖面12. 8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缺失되어 있다.

內面 바닥에 시계방향의 螺旋狀 문양이 白象嵌기법으로 施文되어 있으며, 편평한 바닥과 內彎하는 口緣部는 바닥에 1줄의 홈을 내어 구분하였다. 外面의 굽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고르지 않아서, 약간 비대칭적으로 깎여 있다. 굽 접지면과 굽 안 바닥면에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았다. 器高 3.0cm, 口徑 11.2cm, 底徑 4.6cm.

(2) 靑銅손가락(圖面 12-9, 圖版 53-2, 出土位置 ①)

자루와 匙部가 많이 결실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 자루는 납작한 막대형으로 단면 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끝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두께가 매우 얇아져서 1mm가 못 되는 板狀을 이룬다. 匙面은 평면형태가 대체로 橢圓形으로 추정되는데, 결실된 부분이 많기는 하나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匙面의 왼쪽 아래부분은 곡선적으로 뺀어 있으나 오른쪽 부분은 둥글게 각이 살아있다. 단면형태는 중앙이 약간 오목하며, 가운데가 얇고 양측면으로 갈수록 두터워지는 양상으로, 오른쪽보다 왼쪽의 두께가 더 얇아서, 왼손잡이용으로 추정된다. 자루 殘存長 4.3, 8.1cm, 匙部 殘存長 6.2cm, 匙部 幅 3.9cm, 重量 11g.

9. 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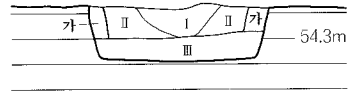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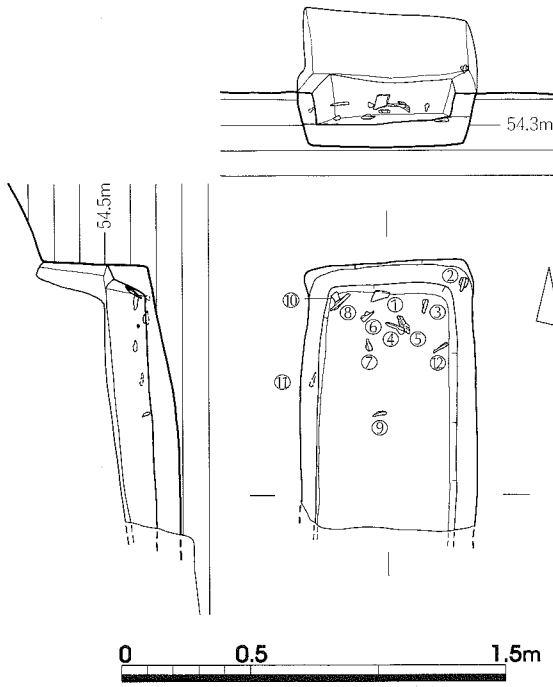
1) 遺構(圖面 13, 圖版 14, 15-1~4)

海拔 54.5m에 위치하며, 시굴 트렌치에 의해 斷面이 노출되어 확인되었다. 묘광의 남쪽은 트렌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북쪽은 현대묘의 護石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아(圖版 14-1), 묘의 상부는 현대묘(水安 金氏墓) 조성시 削平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으로는 34호와, 남으로는 6호와 인접하여 묘들이 비교적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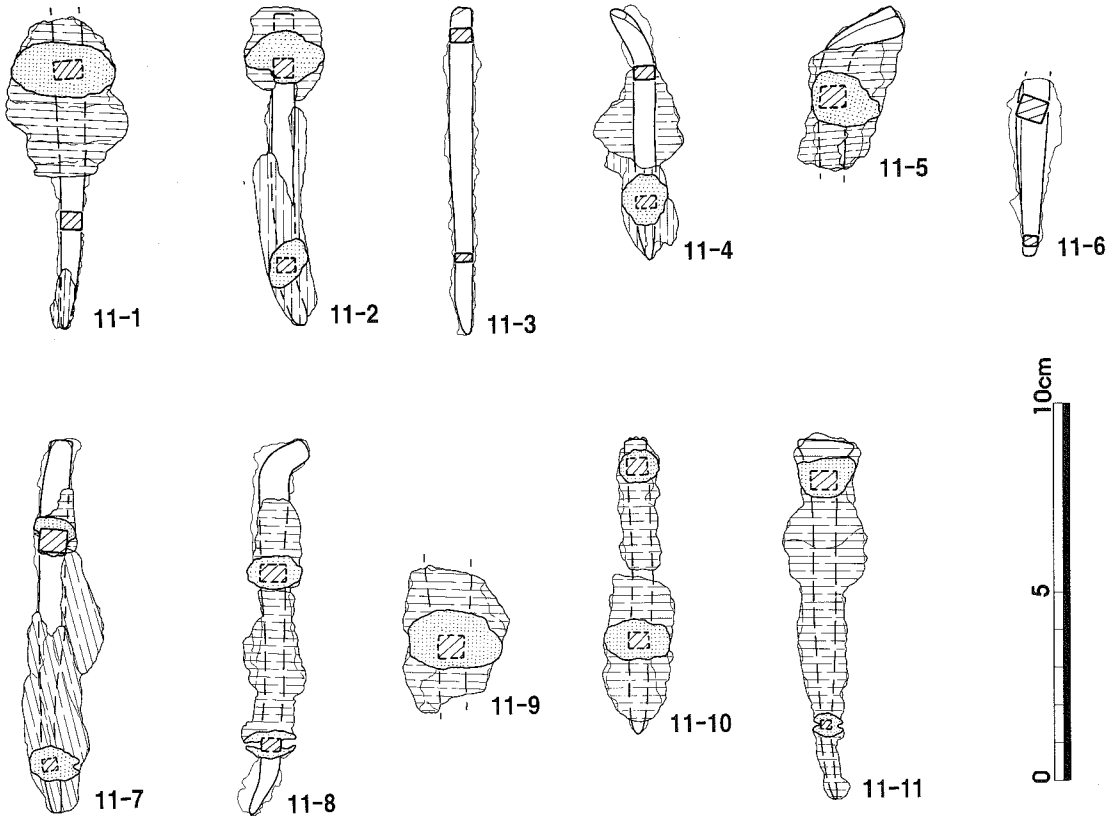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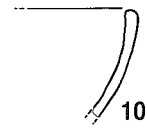
墓壙은 明褐色 암반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掘鑿하였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깊게 파서 잔존한 부분의 가장 북쪽과 남쪽 바닥의 높이 차이가 15cm 가량 난다. 남아있는 평면형태로 보아서 묘광은 長方形으로 추정되며, 잔존규모는 길이 109cm, 너비 68cm, 깊이 43cm이고, 主軸방향은 N-11°-E이다.

묘광을 굴착한 후, 褐色 점토를 10cm의 두께로 바닥에 깔아서 整地하였는데, 整地土가 다른 묘의 경우보다 비교적 두껍다. 바닥의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을 다시 채웠는데, 남아있는 補強土의 최대높이는 18cm이다. 현대묘의 조성으로 인해 상부가 많이 삭평되었으나 남아있는 I·II층의 함몰양상(圖版 14-2)으로 보아서 목관 위에는 封土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지토나, 보강토, 봉토는 모두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은 55cm의 너비로, 잔존길이는 98cm이다. 출토유물로는 목관에 이용된 관못과 정지토 위에서 靑磁片 1점이 확인되었으나(圖版 15-1), 형태를



- I-暗褐色. 점성 낮음.
植物로 인한 부식.
- II-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綠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I-褐色. 점성 높음.
黄色·赤綠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가-暗褐色. 점성 낮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圖面13. 9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갖추지 못하고 片으로 출토된 점이나 이 유적에서 목관 내부의 북쪽에서는 출토된 유물이 없는 것에 비춰 본다면, 이 청자편의 원래 위치는 목관 외부일 것이며, 목관 상부의 봉토 등에 埋納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遺物

(1) 靑磁대접(圖面 13-10, 圖版 53-4, 出土位置 ①)

깊이가 깊지 않은 대접의 口緣部片으로, 구연단 일부만 남아있어서 도면으로 추정복원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施釉되어 연한 綠灰色을 띠고 있으며, 구연단 일부는 유약이 시유되지 않아 赤褐色이 드러나 있다. 구연단으로 오면서 약간 도톰해지면서 內彎한다. 推定 殘存高 4.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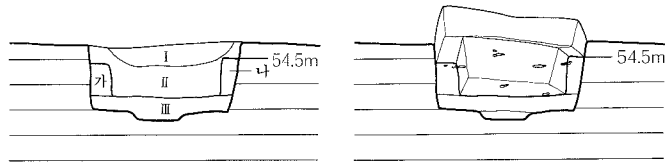
(2) 관못(圖面 13-11, 圖版 53-6)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7점은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된 상태이다. 기본적인 크기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못머리와 못뿌리, 두께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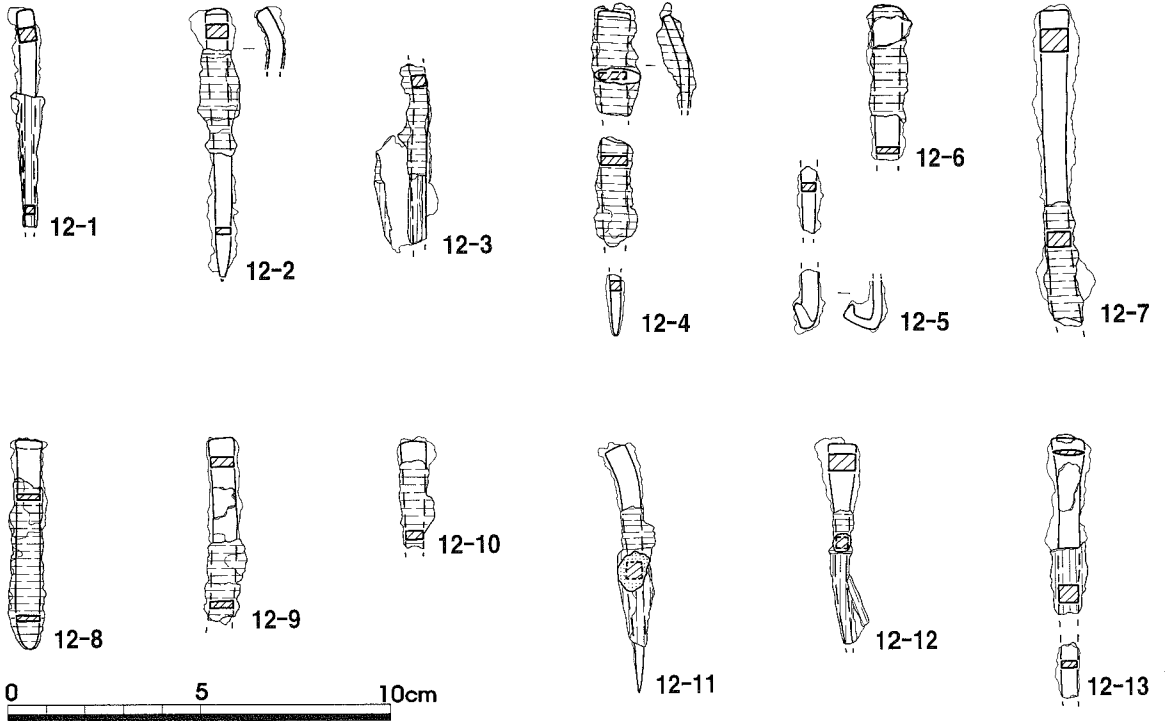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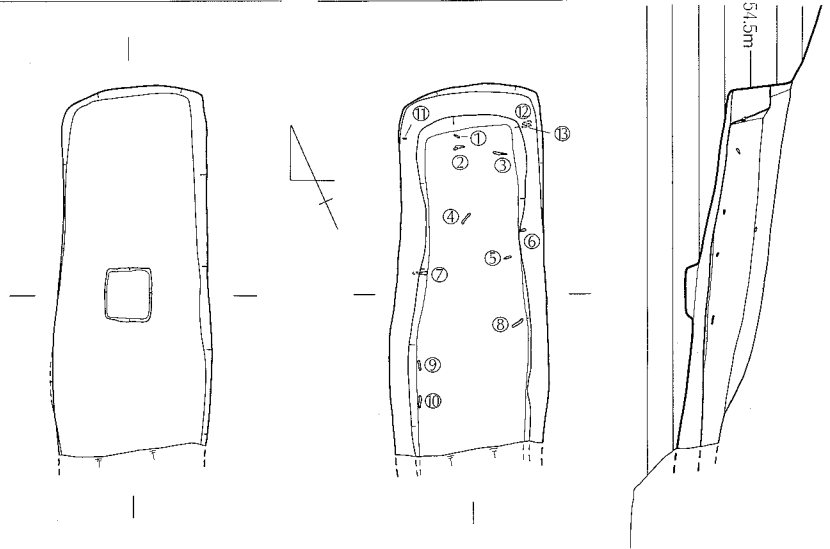
2점을 제외하고 모두 木質이 부착되어 있는데, 圖面 13-11-2와 圖面 13-11-4에 부착된 목질은, 방향과 범위에 따라 2부분으로 구별된다. 圖面 13-11-10에 부착된 목질은, 방향은 같으나 범위에서 2부분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圖面 13-11-11에 부착된 목질은, 방향이 같고 범위는 넓으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부분이 없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 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13-11-1	53-6	①	(8.1)	0.8	0.5	17	머리 결실. 목질 부착.
-11-2		②	8.1	0.5	0.5	15	완형. 목질 부착.
-11-3		③	8.5	0.6	0.4	6	완형.
-11-4		④	6.5	0.6	0.4	10	완형. 머리 휨. 목질 부착.
-11-5		⑤	(4.5)	0.7	0.6	12	뿌리 결실. 머리 휨. 목질 부착.
-11-6		⑥	(4.7)	0.8	0.6	5	머리 결실.
-11-7		⑦	9.7	0.7	0.6	21	완형. 목질 부착.
-11-8		⑧	9.8	0.7	0.5	13	완형. 머리 휨. 목질 부착.
-11-9		⑨	(3.4)	1.2	0.69	12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1-10		⑩	7.7	0.6	0.4	13	완형. 목질 부착.
-11-11		⑪	9.5	1.4	0.5	19	완형. 목질 부착.

* ()는 잔존치



- I-暗黃褐色. 점성 높음.
암반덩어리 포함.
- II-黃褐色. 점성 보통.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III-明黃褐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 가-暗褐色. 점성 낮음.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나-褐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圖面14. 10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10. 10號墓

1) 遺構(圖面 14, 圖版 15-5~17-1)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치우쳐 海拔 54.5m에 위치하며, 시굴 트렌치로 인해 남쪽이 파괴되었다. 東으로는 13호가 있고, 南으로는 7, 8호와 인접한다.

墓壙은 明黃褐色 암반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掘鑿하여 벽면은 모두 비스듬하다. 묘광은 南으로 갈수록 경사져서, 남아있는 부분에서만 바닥이 20cm정도 높이차가 있다. 남아있는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으로, 主軸방향은 N-24°-E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144cm, 너비 58cm, 깊이 23cm이다.

묘광을 굴착한 후 明黃褐色 점토를 깔아서 바닥을 整地하였는데, 整地土는 묘광의 경사도에 따라 남쪽이 더 두껍다. 바닥 중앙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과 묘광 사이는 굴착한 흙을 다시 채웠는데, 補強土의 높이는 15~18cm이다. 정지토나, 보강토, 목관 위의 封土는 굴착한 흙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았을 때, 목관은 48cm의 너비로, 잔존 길이는 134cm 정도로 추정된다. 腰坑은 평면형태가 長方形으로, 크기는 길이 22cm, 너비 17cm, 깊이 5cm이다. 요갱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으나, 원래 부장되지 않았던 것인지 有機質로 만들어져 부식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유물로는 목관에 사용된 관못 13점이 있다.

2) 遺物

(1) 관못(圖面 14-12, 圖版 54-1)

모두 13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3점만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되었다. 圖面 14-12-11·12에 부착된 木質은, 방향과 범위에서 2부분으로 구분된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番號	圖版番號	出土位置	規格(cm, g)				形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14-12-1	54-1	①	(5.7)	0.4	0.4	3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2		②	(6.9)	0.6	0.4	5	뿌리 결실. 머리 휨. 목질 부착.
-12-3		③	(4.6)	0.4	0.4	4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4		④	(7.3)	0.9	0.2	5	3片으로 분리. 목질 부착.
-12-5		⑤	(3.4)	0.5	0.3	1	2片으로 분리.
-12-6		⑥	(4.1)	0.8	0.2	3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7		⑦	(8.3)	0.8	0.6	17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8		⑧	5.5	0.7	0.2	4	완형. 목질 부착.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 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12-9	54-1	㉑	(4.8)	0.7	0.3	3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10		㉒	(3.8)	0.7	0.2	2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11		㉓	6.5	0.6	0.4	5	완형. 목질 부착.
-12-12		㉔	(5.3)	0.8	0.5	4	뿌리 결실. 목질 부착.
-12-13		㉕	(6.1)	0.8	0.5	4	2片으로 분리. 목질 부착.

11. 11號墓

1) 遺構(圖面 15, 圖版 17-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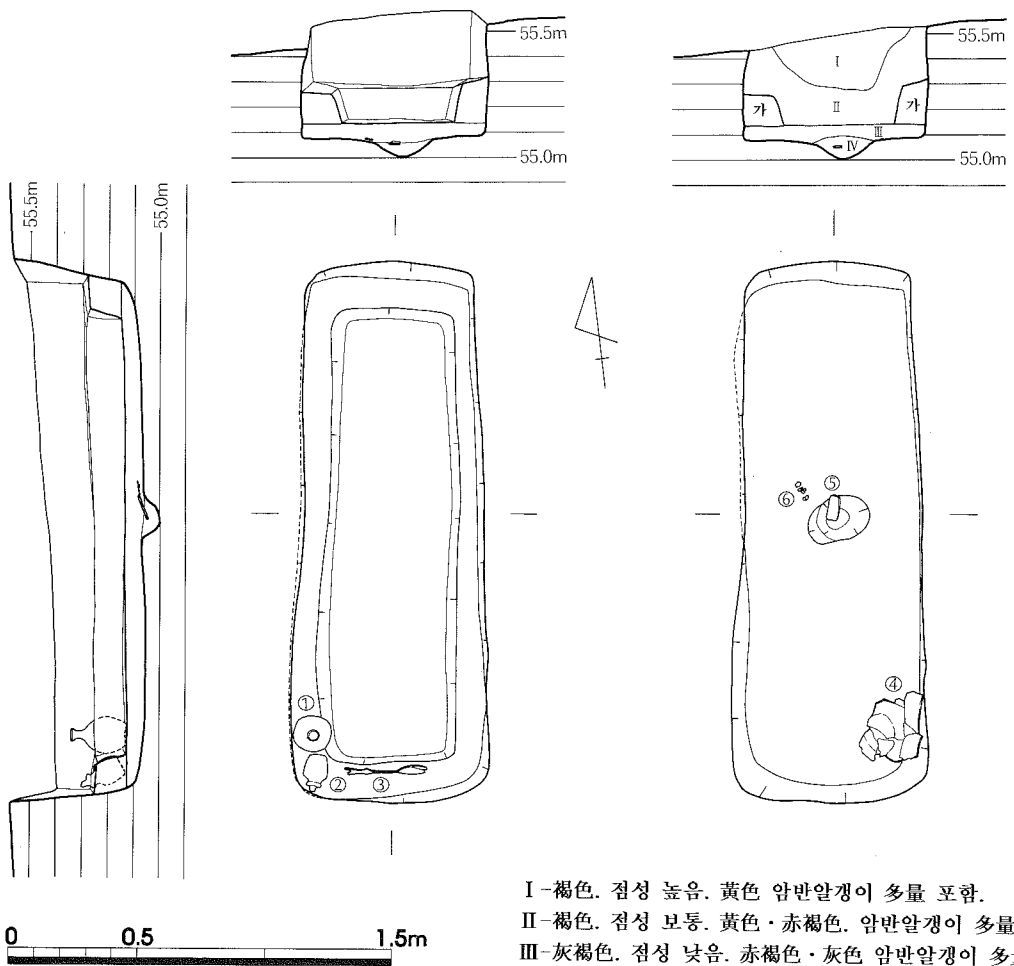
현대묘인 水安 金氏墓(1967년 조성)의 封墳을 제거하는 과정에 확인되었다.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올라간 海拔 55.5m 지점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16호묘가, 남쪽으로 13호묘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長軸이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墓壙의 平面形態는 抹角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7°-E이다. 墓壙의 規模는 길이 214cm, 너비 69cm, 깊이 4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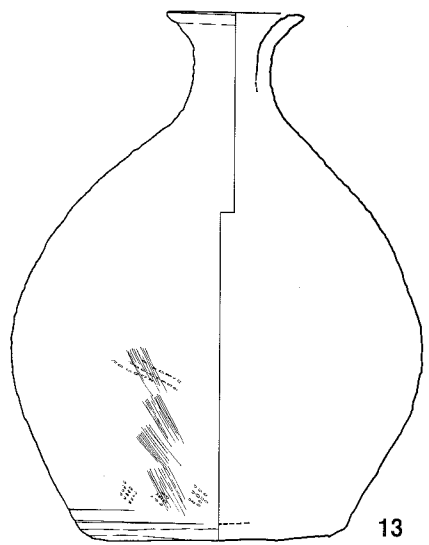
土層(圖版 18-1)은 내부 陷沒土, 補強土, 整地土로 구분된다. 내부 함몰토는 木棺을 安置한 후 그 위에 盛土한 흙이 목관이 부식되면서 U字狀으로 陷沒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I層은 암반 덩어리가 소량 혼입되고 粘性和 堅度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아 封墳을 성토하면서 다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강토는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묘광을 掘鑿할 때 나온 흙을 채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회갈색의 점토를 7cm 정도의 두께로 깔아 整地하였는데, 이 整地面에 長壁쪽에서는 15cm 정도, 短壁쪽에서는 20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묘광 가운데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토층에서 목관의 痕迹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보강토의 범위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44cm, 깊이 19cm(잔존)이다.

墓壙 壁面은 서장벽 일부는 奧壁, 동장벽은 直壁, 북단벽과 남단벽은 斜壁이다. 묘광 바닥의 가운데에서 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타원형의 腰坑(圖版 19-1)이 있는데, 그 규모는 길이 25cm, 너비 17cm, 깊이 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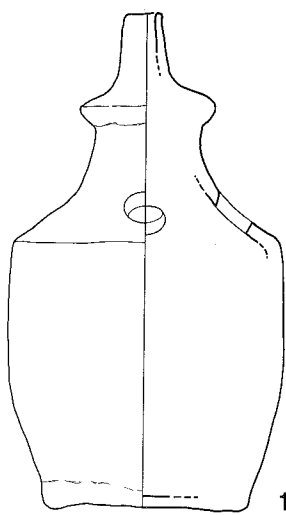
묘광 벽면을 整地할 때 사용한 도구의 흔적은 네 벽면에서 확인되었는데, 도구의 종류는 2가지로 구분되었다. 兩短壁쪽에는 整地具의 刃幅이 4.0cm 내외이며, 整地具痕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그리고 兩長壁쪽에는 刃幅이 10cm 정도이며, 인부의 양끝이 각진 것이다. 정지구흔으로 보아 양단벽은 자루가 길고 身部가 둥근 곡괭이류, 양장벽은 자루가 짧고 刃部 모서리가 각진 鐵斧 종류로 추정된다.



I-褐色. 점성 높음. 黄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II-褐色. 점성 보통.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III-灰褐色. 점성 낮음. 赤褐色·灰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IV-III과 유사하나, 부식이 더 심함.
 가-赤褐色. 점성 낮음. 黄色·赤褐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13



14

圖面15. 11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遺物은 보강토와 바닥 그리고 요갱에서 출토되었다. 보강토 내에서는 서장벽과 남단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土器瓶과 靜瓶이 각 1점씩 출토되었고, 남단벽과 나란한 방향으로 靑銅순가락 1점이 출토되었다. 바닥에서는 동장벽의 남쪽에 치우쳐 軟質平底甕이 출토되었고, 바닥에서 약간 뜬 상태로 소형의 靑銅片 7점이 출토되었다. 요갱 내에서는 板狀鐵器 1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1) 土器瓶(圖面 15-13, 圖版 54-4, 出土位置 ①)

暗灰靑色の 陶質 토기병이다. 구연은 頸部에서 직선적으로 올라오다 口緣端에서 약간 外反하는데, 扁平口緣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胴部는 胴最大徑이 胴中位에 있고, 底部는 편평하다. 胴最下端과 底部 가장자리에서 胴體部와 粘土板을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器外面에는 胴中位에서 下位까지 格子로 打捺하여 1차 정면한 다음, 기외면 전면을 목리로 回傳整面하였다. 목리회전정면에 의해 器面에 凹凸이 뚜렷하고, 타날흔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器面 整面은 최종적으로 左上右下의 사선방향으로 빗질정면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燒成은 양호하며,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극소량 혼입된 고운 粘土이다. 器高 20.9cm, 口徑 5.3cm, 胴最大徑 15.9cm, 底徑 9.2cm.

(2) 靜瓶(圖面 15-14, 圖版 54-6·7, 出土位置 ②)

口緣部가 일부 缺失된 精瓶이다. 口頸部의 길이가 짧으며, 거의 直立한다. 頸部 中位에 돌출부가 있으며, 동부에서 肩部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角이 진다. 肩部에는 직경 1.8cm 정도의 구멍이 1개 透孔되어 있다. 胴體는 거의 원통형에 가까우나 胴下位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진다. 底部는 편평하며, 동최하단과 저부 가장자리에서 저부와 동체부를 접합한 흔적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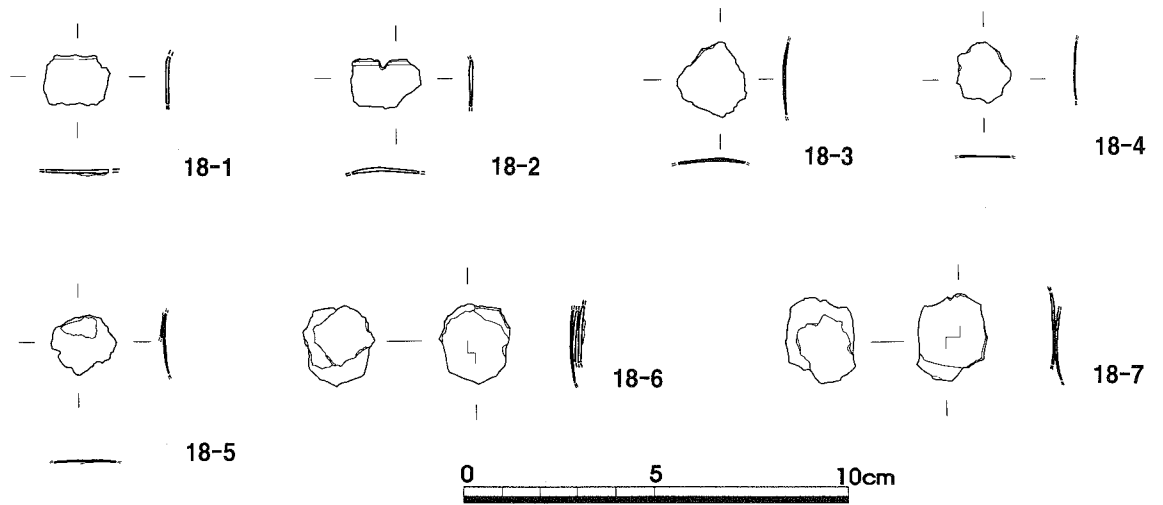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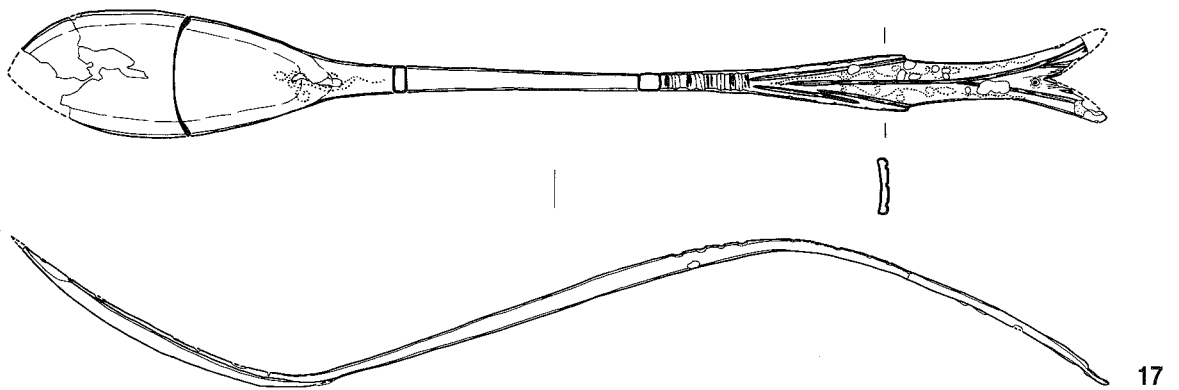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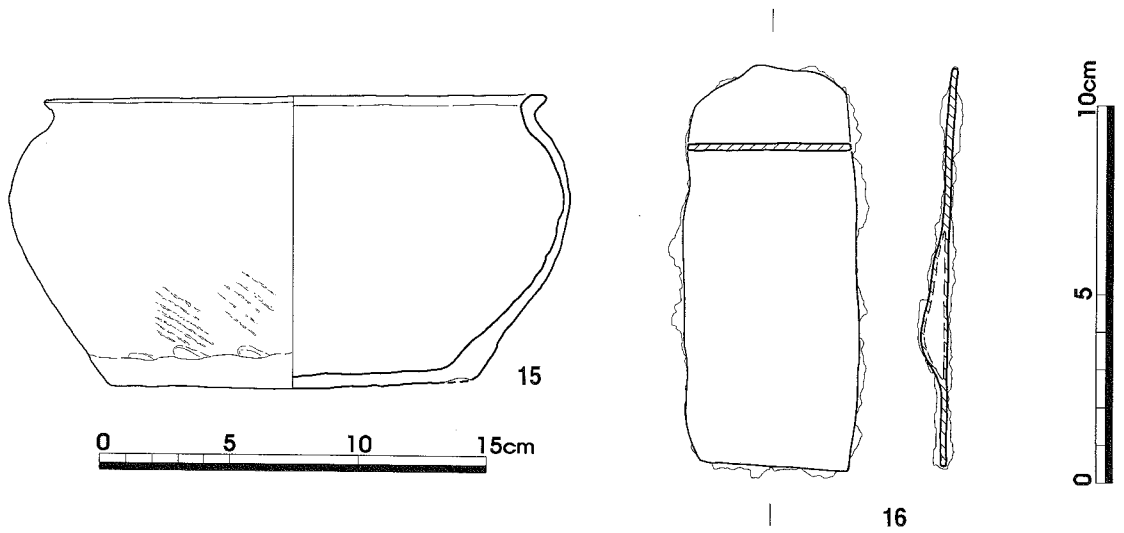
器外面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관찰되나, 口緣端에서 胴中位까지의 기외면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어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頸部에는 指頭痕이 있으나 희미하게 관찰된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석영과 장석, 운모 등의 세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다. 色調는 전체적으로 暗灰色을 띤다, 표면이 剝離된 부분과 斷面은 淡灰褐色을 띤다. 燒成은 瓦質 소성에 가깝다. 器高 19.5cm, 胴最大徑 21.9cm, 底徑 7.7cm.

(3) 靑銅순가락(圖面 16-17, 圖版 54-2·3, 出土位置 ③)

匙部와 자루부 끝단의 일부가 缺失되었다. 시부는 끝이 결실되었으나 柳葉形으로 추정되며, 자루부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져, 자루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루부는 시부에서 폭이 넓게 연결되어 가운데로 갈수록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져 단을 이룬 후, 끝부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燕尾形의 형태이다. 자루 中下半部에 4개의 큰 홈이 있고, 그 홈 사이의 4개 면에는 1組씩의 가는 홈이 새겨져 있다. 자루부의 段이 지는 부분의 양 가장자리에는 種方向으로 針線을 배치하였는데, 한쪽은 약간 어긋나 있다. 그리고 두 침선 사



圖面16. 11호묘 출토유물

이에서 자루 양끝단까지 침선을 배치하였으며, 양쪽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부분에는 가는 선이 여러 개 새겨져 있고, 그 위쪽에 직경 2m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다. 시부와 자루부가 연결되는 부분과 자루부 중간에서 끝단까지에는 뾰족한 것으로 쪼아서 시문한 고사리(?) 문양이 있다.

側面의 형태는 'S'字形이다. 斷面形態는 匙面은 양 가장자리 쪽이 약간 두껍고 날카로우며, 가운데에는 얇은 板狀의 형태를 띤다. 자루부는 시부와 연결부는 장방형, 가운데 부분은 방형에 가깝다. 그리고 자루 끝부분은 세장방형이고 침선의 凹凸이 있으며, 자루 뒷면은 오목하게 들어간다.

시면의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가는 선이 여러 개 관찰되는데, 磨研痕으로 추정된다. 殘存長 28.1cm, 匙部最大幅 3.35cm, 重量 53g.

(4) 軟質平底甕(圖面 16-15, 圖版 54-9·10, 出土位置 ④)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된 연질평저용이다. 구경부는 짧게 外反하며, 동체는 저부에서 斜線方向으로 벌어지다 胴中上位에서 內傾하는데, 즉 동최대경이 동중상위에 있다. 저부는 편평하며, 동체부와 저부는 따로 만들어 접합하였다. 즉 동체부가 저부 점토편의 가장자리를 감싸듯이 접합한 후 동체하단에 점토띠를 보강하였다. 점토띠를 보강할 때 指頭로 누른 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점토띠 상단과 저부의 가장자리, 저부 내면 바닥에 指頭痕이 관찰된다.

器内外面의 일부가 박리되었고, 기내면과 외면 동상위는 전체적으로 凹凸이 심한데, 물레로 성형한 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물레흔이 뚜렷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동중하위에는 打捺로 器壁을 정면한 다음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바닥외면은 정면을 하지 않아 울퉁불퉁하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장석과 흑운모 등의 세사립이 극소량 혼입되어 있다. 色調는 기내외면은 담갈회색을, 단면 및 박리된 면은 담황갈색을 띤다. 燒成은 瓦質 소성에 가깝다. 器高 11.4cm, 口徑 18.3cm, 胴最大徑 21.7cm, 底徑 13.9cm.

(5) 板狀鐵器(圖面 16-16, 圖版 54-8, 出土位置 ⑤)

전체적으로 두께 0.2cm 정도의 얇은 판상철기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며, 폭이 좁은 부분의 한쪽은 모서리가 말각의 형태를 띤다. 동체의 가운데 부분은 부식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상태이다.

全長 10.6cm, 最大幅 4.5cm, 厚 0.2cm, 重量 52g.

(6) 異形青銅器(圖面 16-1~7, 圖版 54-5, 出土位置 ⑥)

墓壇 중간쯤의 바닥에서 出土된 異形青銅片이다. 형태는 不定形하며, 크기는 직경이 2cm 내외이고, 두께는 1mm 정도이다. 총 7점이지만 그 중 2점은 2개의 편이, 1점은 3개의 편이 붙은 상태이다. 청동편의 용도와 기능은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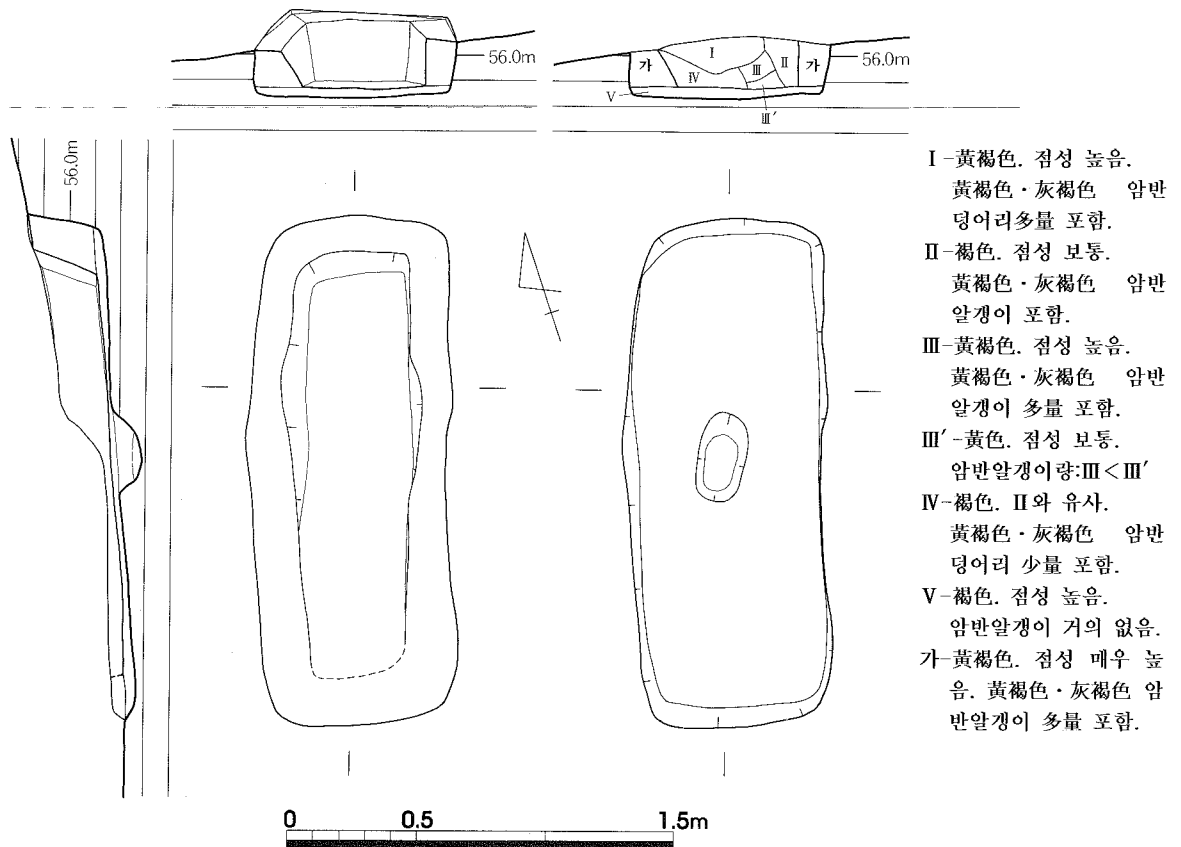
12. 12號墓

1) 遺構(圖面 17, 圖版 19-2~20-2)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올라간 海拔 56.0m 지점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16호묘, 서쪽으로 30호묘가 인접해 있다. 樹木移植作業을 당시 南短壁의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墓壙은 장축이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掘鑿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18°-E,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1cm, 너비 77cm, 깊이 23cm(잔존)이다.

土層(圖版 19-2)은 封土로 추정되는 내부 陷沒土, 補强土, 整地土로 구분된다. 내부 함몰토는 묘광의 깊이가 얇게 남아있지만 함몰 양상이 관찰되는데, 木棺 安置 후 성토한 흙이 목관이 부식되면서 내부로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함몰토가 粘性과 堅度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아 崩分 성토시 다진 것으로 추정된다.



圖面17. 12호묘 유구

함몰토와 보강토에는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는데, 이는 묘광을 굴착할 때 나온 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황갈색 점토를 5.0cm 두께로 깔아 整地하였고, 이 整地 面에 사방 15cm 정도 띄워 묘광 가운데에 목관을 안치하였다.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바닥 정지면에서 회색기미가 일부 확인되었다. 목관의 규모는 보강토의 범위로 보아 길이 158cm, 너비 40cm, 깊이 30cm(잔존)이다.

묘광 벽면은 兩短壁은 斜壁, 兩長壁은 直壁에 가깝고, 바닥은 경사가 저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데, 그 차이는 약 10cm 정도이다. 묘광 바닥에는 가운데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長 橢圓形의 腰坑이 있는데, 그 규모는 길이 35cm, 너비 29cm, 깊이 10cm이다. 묘광을 굴착할 때 사용한 도구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遺物은 출토되지 않았다.

13. 13號墓

1) 遺構(圖面 18, 圖版 21, 22)

평면조사 당시 묘광의 북동쪽 모서리 윗부분에 현대묘인 水安 金氏墓(1967년에 조성)의 護石이 얹혀 있는 상태였으며, 남서쪽 모서리에 土器瓶이 일부 노출되어 있었다. 13호묘는 발굴 구역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간 해발 55.0m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34호묘, 남서쪽에는 10호묘, 북쪽에는 11호묘가 인접해 있다.

墓壙의 長軸은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21°-E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60cm, 깊이 51cm이다.

土層(圖版 21-1)은 봉토로 추정되는 내부 陷沒土, 補強土, 整地土로 구분된다. 내부 함몰토는 木棺을 安置한 후 그 위에 盛土한 흙이 목관이 부식되면서 U字狀으로 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함몰토와 보강토에는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는데, 묘광을 굴착할 때 나온 흙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에는 褐色 粘土를 5cm 정도의 두께로 깔아 整地하였다. 이 정지면에 양장벽쪽에서는 12cm 정도, 양단벽쪽에서는 20cm 정도의 간격을 띄워 묘광 가운데에 木棺을 安置하였다.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보강토의 범위와 관뚫의 출토 위치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62cm, 너비 35cm, 깊이 21cm(잔존)로 추정된다. 死者의 頭向은 銅곳이 출토된 위치로 보아 북쪽으로 추정되는데, 본 유적에서 유일하게 頭向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묘광 벽면은 네 벽 모두 輿壁이다. 묘광 바닥의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원형의 腰坑(圖版 21-3)이 있는데, 그 규모는 지름 21cm, 깊이 9cm이다.

묘광을 整地할 때 사용한 도구흔은 네 벽면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도구의 종류는 2가지로 구분되었다. 양단벽쪽에는 정지구의 刃幅이 4.0cm 내외이며, 정지구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그리

고 양장벽쪽에는 刃幅이 10cm 정도이며, 인부의 양끝이 각진 것이다.

遺物은 보강토 상부와 정지면, 바닥 그리고 요갱에서 출토되었다. 보강토 상부에서는 남서쪽 모서리에서 土器瓶 底部가, 서장벽의 남쪽에서 靑銅盃과 靑磁 대접, 靑銅숟가락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整地面에서는 銅곳이 북단벽쪽의 보강토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이 밖에 목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못이 여러 점 출토되었다. 바닥에서는 南短壁에 붙여서 土器瓶이 구경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요갱 내에서는 板狀鐵器 1점이 출토되었다.

2) 遺物

(1) 靑磁象嵌菊花文대접(圖面 19-23, 圖版 55-1·2, 出土位置 ①)

口緣部가 일부 결실된 淡綠灰色의 靑磁대접이다. 胴體는 굽에서 사선방향으로 벌어지다 口緣端에서 각이져 거의 直立하는 형태이다. 內底面의 폭이 굽의 직경에 비해 좁다. 굽 接地面은 0.8cm 정도로 폭이 넓고, 逆V字形의 홈이 1개 뚫려있다. 굽의 접지면과 바닥에 모래알갱이가 다량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성시 모래받침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文樣은 내면에만 施文되어 있는데, 구연단이 직립하는 부분의 내면에 圓文이 1줄 陰刻되어 있고, 內側斜面에는 國花문이 白象嵌 기법으로 3곳에 시문되어 있다. 外側斜面에는 문양은 없으나 내면에 國花문을 시문하기 위해서 기벽을 잡았던 指頭痕이 國花문의 위치와 일치하게 3곳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벽에는 물레성형흔이 있다.

굽 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유약이 시유되어 있고, 빙열은 기내외면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 빙열의 틈사이로 흙성분이 침투되어 담갈색을 띤다. 器高 8.6cm, 口徑 19.0cm, 底徑 5.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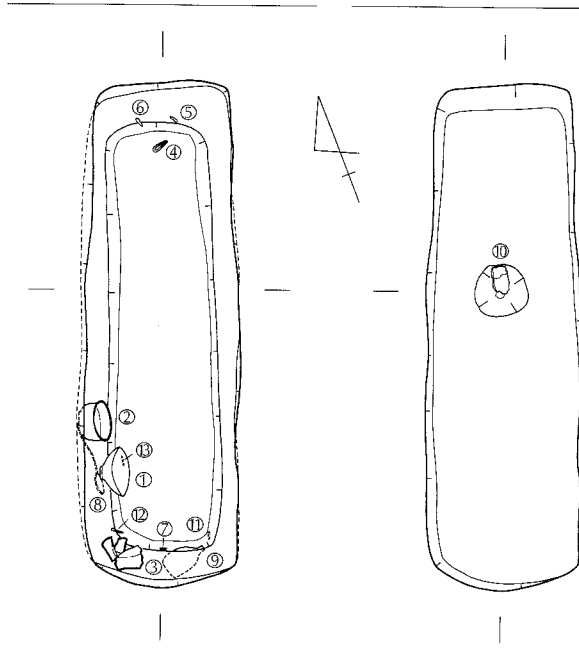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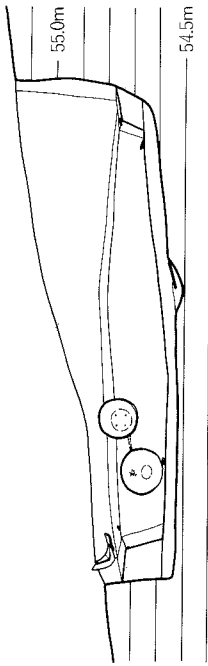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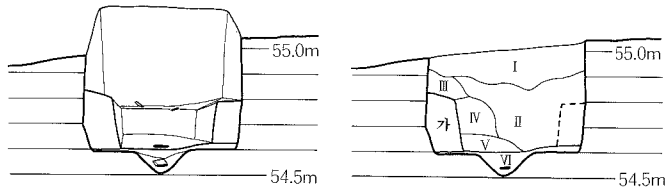
(2) 靑銅盃(圖面 18-19, 圖版 55-5·9, 出土位置 ②)

일부에 녹이 부착되어 있고, 출토 당시 土壓에 의해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底面은 거의 수평이나 가장자리에서 각을 이루며 동체로 연결된다. 동체는 완만하게 벌어지다 胴中位에서 거의 垂直으로 올라가며, 구연단에서 짧게 外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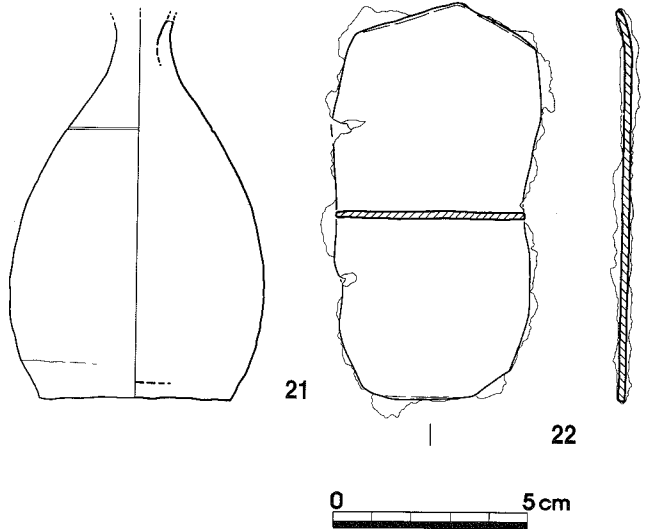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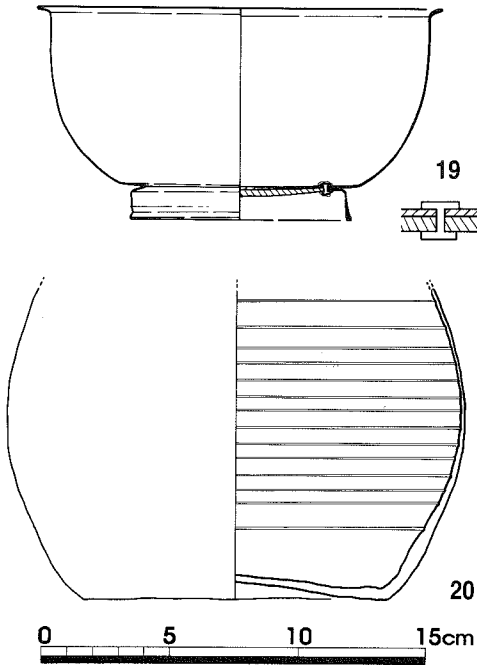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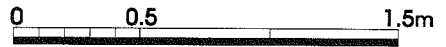
盃部와 굽부는 따로 만들어 못으로 접합하였다. 즉, 내지면과 굽의 4곳에 구멍을 뚫어 못머리를 내지면에 고정시키고 동체와 굽을 관통시킨 후 굽바닥면에서 못뿌리 부분을 두드려 퍼 동체와 굽을 고정시켰다(고정된 후의 못의 단면 형태는 ‘工’자형을 띤). 못머리의 형태는 원형이며, 머리의 지름은 0.5cm이다.

굽은 접지면으로 갈수록 살짝 외반하며, 끝이 둥근 형태이다. 굽의 중간에 突帶와 유사한 장식이 있으나 일부분에서만 확인된다. 器壁의 두께는 0.2cm 내외로 아주 얇다. 復元器高 8.3cm, 口徑 15.9cm, 底徑 8.5cm, 重量245g.

(3) 土器瓶(圖面 18-20, 圖版 55-4, 出土位置 ③)



- I-褐色. 점성 높음. 黄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II-暗褐色. 植物로 인한 교란. III, IV와 유사.
- III-褐色. I과 유사하나, 점성 낮음. 黄色 암반알갱이 포함.
- IV-黄褐色. 점성 보통. I, II와 유사
- V-褐色. 점성 보통. 암반 알갱이 포함.
- VI-明褐色. 점성 보통. 黄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가-褐色. III과 유사하나, 부식이 심함.



圖面18. 13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胴體部와 底部의 1/4 정도가 잔존하는 토기병으로 圖面復元하였다. 胴最大徑은 胴中下位에 있고, 底部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다. 器壁의 두께는 1.5~6mm 정도로 매우 얇다.

器外面은 전체적으로 回傳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일부에는 自然釉가 酸化剝離되었다. 胴下位는 동체와 저부를 접합한 후 동최하단부를 각기한 다음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저부의 바깥 바닥면은 整面痕이 관찰되지 않는다. 器內面은 胴體面과 底面을 整面한 방법이 각각 다르다. 즉, 동체면에는 폭 1mm 정도의 도구로 회전하여 器壁을 1차로 정면한 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 하였다. 기벽에는 0.5~1.0cm 간격으로 침선과 유사한 형태의 凹面이 뚜렷이 관찰된다. 內底面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만 관찰된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장식, 석영, 운모의 순으로 세사립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燒成은 陶質 소성이다. 色調는 외면은 暗紫色을, 내면은 軟紫色을, 단면 바깥쪽은 暗靑灰色을, 단면 안쪽은 紫色을 띤다. 殘存高 12.2cm, 復元胴最大徑 17.7cm, 復元底徑 11.8cm.

(4) 銅甗(圖面 19-25, 圖版 55-7, 出土位置 ④)

길이 14cm 정도 되는 靑銅絲의 중앙을 구부려 ㄷ字形으로 양 가지를 만든 동곳이다. 양끝은 뾰족하며, 붙은 상태이다. 단면의 형태는 구부린 부분은 안쪽을 두드려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며, 몸체는 종방향으로 여러 번 마연을 하여 거의 원형에 가깝다. 청동사 전면에 길이 방향으로 마연한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全長 7cm, 厚 0.5cm, 重量 14g.

(5) 靑銅傘가락(圖面 18-26, 圖版 55-6, 出土位置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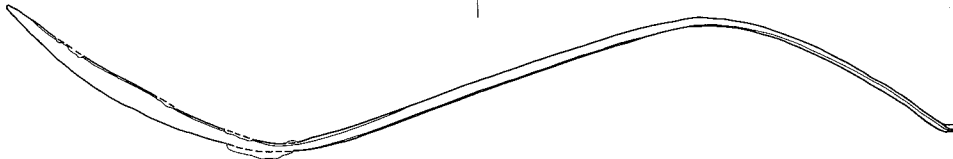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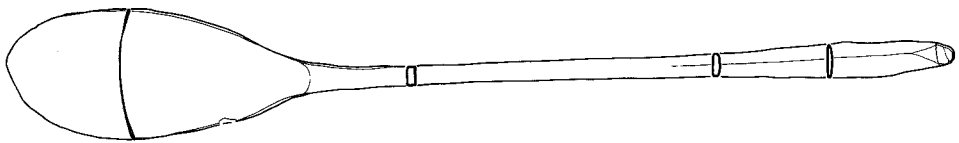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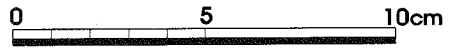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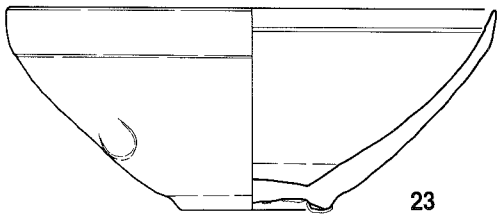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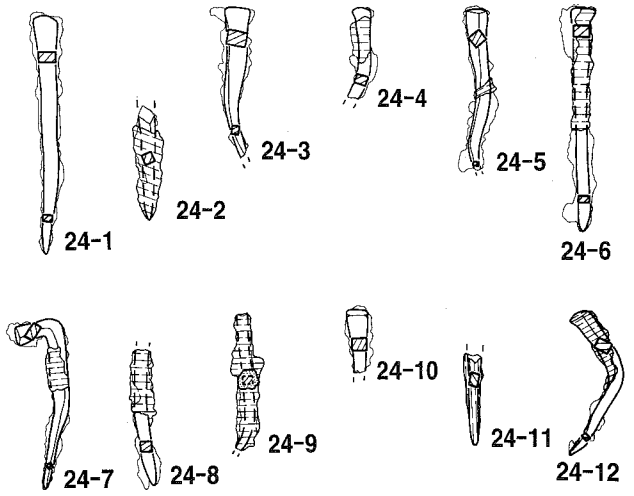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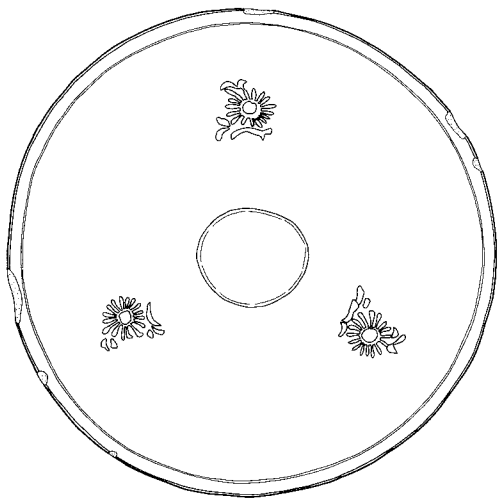
匙部の 극히 일부가 결실된 청동순가락이다. 시부의 형태는 長橢圓形에 가까우며, 시부가 좁아지면서 자루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루부는 자루끝으로 갈수록 넓어지나 끝부분에서는 좁아지면서 끝이 살짝 말려 있다.

자루의 측면형태는 'S'字形이다. 시면의 단면형태는 양끝쪽이 약간 두꺼우며 가운데는 아주 얇은 板狀의 형태이며, 자루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지만 자루끝으로 갈수록 얇아져 판상이 된다. 자루부의 중하반부에는 가는 줄이 1줄 확인된다.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全長 24.4cm, 匙部最大幅 3.5cm, 重量 30g.

(6) 土器瓶(圖面 18-21, 圖版 56-2, 出土位置 ⑨)

口頸部 및 底部 일부가 缺失된 토기병이다. 胴最大徑은 胴中下位에 있으나 뚜렷한 구분이 없다. 동체에서 경부로 이어지는 肩部에 침선이 한줄 배치되어 있다. 底部는 편평하며, 동하단에 동체부와의 접합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즉, 동체부를 따로 만들어 저부 점토관을 감싸듯이 저부 가장자리를 따라 접합하였다. 동체와 저부를 접합한 다음 동체 최하단부를 회전각기한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을 하였다.

器外面에는 회전물손질정면을 하였으나 저부 바닥면은 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口徑이 좁아 내면은 관찰할 수 없다. 胎土는 고운 점토에 장식과 석영 등의 사립이 다량 혼입되어 있



圖面19. 13호묘 출토유물

고, 燒成은 양호하다. 色調는 전체적으로 暗灰色을 띠는데, 단면은 紫灰色이다. 殘存高 14.9cm, 底徑 7.4cm, 胴最大徑 9.9cm

(7) 板狀鐵器(圖面 18-22, 圖版 55-8, 出土位置 ⑩)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은 판상의 철기로, 평면형태는 短邊 중 한쪽은 삼각형의 형태를, 다른 한쪽은 모서리가 말각인 형태를 띤다. 동체의 일부분은 부식되어 결실되었다. 全長 10.5cm, 最大幅 5.3cm, 厚 0.2cm, 重量 41g.

(8) 관못(圖面 19-24, 圖版56-1)

총 12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6점은 내부 트랜치에서 출토되었다. 12점 가운데 5점만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된 상태이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19-24-1	56-1	⑤	6.2	0.6	0.3	3	완형.
-24-2		⑥	(3.0)	0.3	0.3	1	머리 결실. 목질부착.
-24-3		⑦	(4.6)	0.7	0.5	2	뿌리 결실.
-24-4			(2.4)	0.5	0.3	1	뿌리 결실. 목질부착. 못뿌리 휩.
-24-5		⑪	(4.3)	0.4	0.3	2	뿌리 결실. 목질부착. 못뿌리 휩.
-24-6		⑫	5.9	0.6	0.3	2	완형. 목질부착.
-24-7		·	4.5	0.4	0.3	2	완형. 목질부착. 못머리 휩.
-24-8		·	(3.6)	0.4	0.3	2	머리 결실. 목질부착.
-24-9		·	(3.6)	0.3	0.3	1	뿌리 결실. 목질부착.
-24-10		·	(1.7)	0.6	0.4	1	몸통과 뿌리 결실.
-24-11		·	(2.5)	0.3	0.3	1	머리 결실. 목질부착.
-24-12		·	3.8	0.4	0.3	1	완형. 목질부착. 몸통 휩.

* ()는 잔존치

14. 14호묘

1) 遺構(圖面 20, 圖版 22-4~23-2)

밭갈구역의 중앙에서 약간 남동쪽에 치우쳐 海拔 53.0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2호가 인접해 있다. 樹木移植작업을 위한 도로개설로 상부가 削平되었으며, 바닥도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동쪽 일부와 남쪽은 유실되어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본 유적의 경우 다른 묘의 腰坑이 중앙에 있는 예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墓壙의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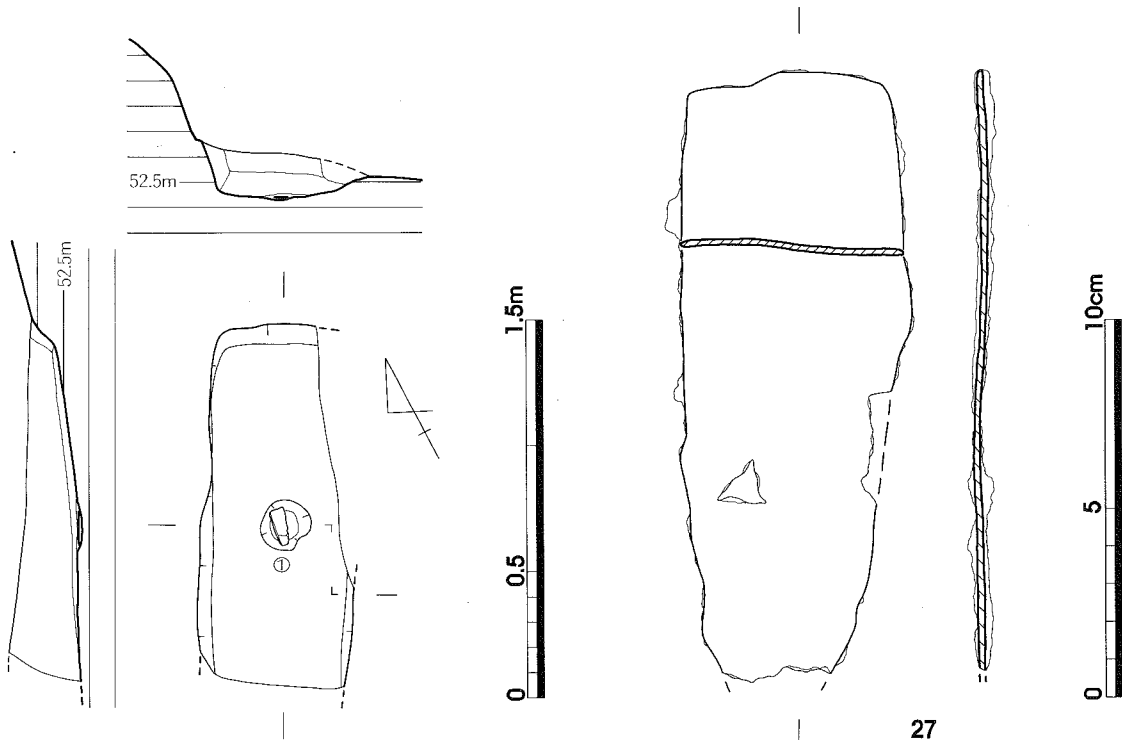
묘광은 明黃褐色 암반을 안 쪽으로 경사지게 掘鑿하여, 벽면이 비스듬하게 만들어졌다. 남 쪽으로 오면서 묘광의 깊이가 깊어져서 바닥의 높이가 15cm정도 차이가 있다. 부분적으로 유

실되기는 했어도 남아있는 묘광의 평면 형태는 抹角長方形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잔존 길이는 143cm, 너비는 61cm, 잔존 최대깊이는 27cm로, 主軸방향은 N-28°-E이다. 요갱은 평면형태가 일그러진 圓形으로, 지름은 약 20cm이고, 깊이는 3cm로 비교적 얇으며, 요갱 내에 板狀鐵器가 副葬되었다(圖版 23-2).

2) 遺物

(1) 板狀鐵器(圖面 20-27, 圖版 56-3, 出土位置 ①)

한 쪽 끝부분과 양측면이 부분적으로 결실되어 전체 형태를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녹이 부착되어 있으며, 두께가 매우 얇아서 缺失된 부분이 많고 殘存狀態도 좋지 않다.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폭이 좁아서 평면형태는 대체로 긴 逆梯形에 가깝다. 잔존부분에서는 刃部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흔적이나 목질의 부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장용 물품으로 판단된다. 殘存長 16.2cm 幅 5.9cm 厚 0.2cm, 重量 66g.



圖面20. 14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15. 15號墓

1) 遺構(圖面 21, 圖版 23-3~25-4)

발굴구역 중앙의 해발 53.5m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1호묘, 남쪽으로 33호묘, 북서쪽으로 8호묘가 인접해 있다. 시굴트렌치를 확인조사하는 중에 트렌치의 단면에서 수혈선이 확인되었고, 평면을 확인한 결과 시굴트렌치에 의해 15호묘의 중간 부분이 파괴된 상태였다.

墓壙은 장축이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토의 암반을 掘鑿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8°-E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8cm, 너비 80cm, 깊이 39cm이다.

土層(圖版 24-1)은 봉토로 추정되는 內部土와 補強土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褐色의 粘土에 풍화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된 單一層이며, 보강토는 暗褐色의 점토에 풍화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15호묘는 다른 유구와는 달리 바닥에 整地土가 없는데, 이는 바닥을 정지하지 않고 바로 木棺을 安置하였음을 의미한다.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보강토의 범위와 관못의 출토위치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3cm, 너비 48cm, 깊이 32cm(잔존)로 추정된다.

묘광 벽면은 北短壁만 奧壁을 띠고, 나머지 세 벽은 直壁이다. 腰坑은 시굴트렌치에 의해 묘광의 중간부분이 파괴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굴조사 당시 이 부분에서 파낸 흙에서 일반적으로 요갱에서 출토되는 鎌形鐵器 1점이 수습되었다. 이로 보아 15호묘 내부에 요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遺物은 靑銅순가락 1점과 관못 14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순가락은 남단벽의 서쪽 모서리 보강토 범위내에서 자루부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관못은 목관의 南短板과 北短板의 위치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출토된 관못 중에는 목질이 관못 몸체를 둘러싼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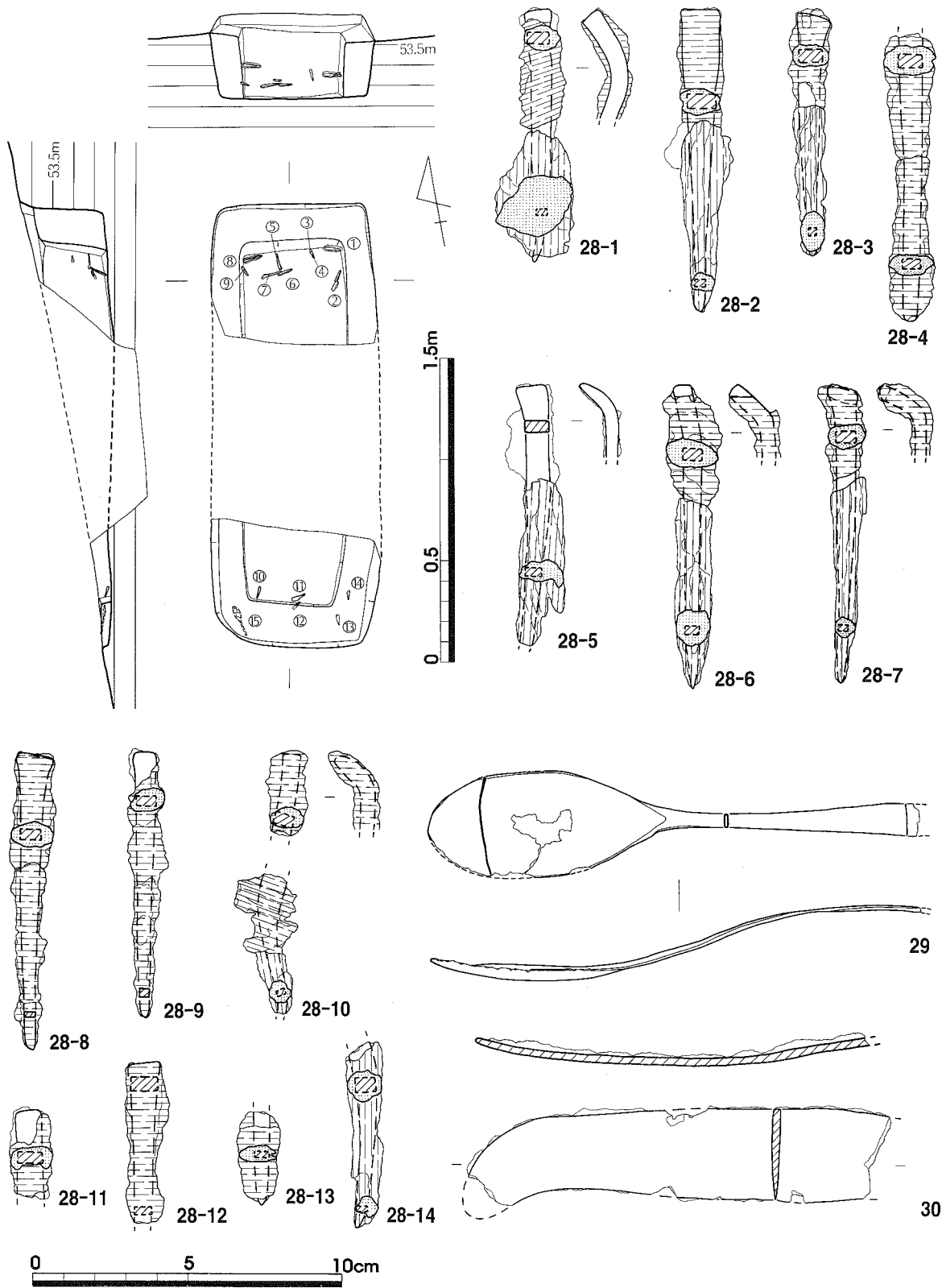
2) 遺物

(1) 靑銅순가락(圖面 21-29, 圖版 56-6, 出土位置 ⑮)

匙部の 일부와 자루부 끝단이 缺失된 靑銅製 순가락이다. 시부의 형태는 長橢圓形에 가까우며, 시면이 좁아지면서 자루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루부는 자루끝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나, 끝부분이 결실되어 그 형태를 알 수 없다. 자루의 측면 형태는 曲率이 약한 'S'字形을 띤다.

匙部の 단면형태는 가장자리가 약간 두껍고 가운데가 얇은 板狀이다. 자루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나, 자루끝으로 갈수록 板狀으로 얇아진다.

匙面에는 마연흔 혹은 사용흔으로 추정되는 가는 선이 관찰되는데, 내면에는 중방향, 외면



圖面21. 15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에는 여러 방향으로 관찰된다. 殘存長 15.8cm, 匙部最大幅 3.45cm, 重量 9g.

(2) 관못(圖面 21-28, 圖版 56-4)

총 14個體分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7점만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된 상태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나, 못머리와 못뿌리, 두께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4개체분 모두 木質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圖面 21-28-1~3·6·7·10 등 6점은 각각 부착된 목질의 범위와 방향에서 2부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板材의 방향이 다른 부분에 고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圖面 21-28-4·8·9 등 3점은 각각 부착된 목질의 방향은 같으나 범위가 2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板材의 방향이 같은 부분에 고정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개 명세는 아래 表와 같다.

圖面	圖版	出土位置	規格(cm, g)				形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21-28-1	56-4	①	8.4	0.8	0.4	19	완형. 목질부착. 머리 휨.
-28-2		④	10.0	1.2	0.6	17	완형. 목질부착.
-28-3		⑤	8.0	1.1	0.5	13	완형. 목질부착.
-28-4		⑨	(9.4)	0.8	0.5	13	머리 결실. 목질부착.
-28-5		⑧	(8.6)	1.0	0.4	13	못뿌리 결실. 목질부착. 머리 휨.
-28-6		⑦	10.0	0.6	0.4	16	완형. 목질부착. 머리 휨.
-28-7		⑫	9.8	0.9	0.4	9	완형. 목질부착. 머리 휨.
-28-8		⑩	9.7	1.2	0.4	13	완형. 목질부착.
-28-9		⑪	8.7	0.9	0.3	10	완형. 목질부착.
-28-10		⑬	(7.3)	0.8	0.4	9	몸통 결실. 2片으로 분리. 목질부착. 머리 휨.
-28-11		⑭	(2.9)	0.8	0.4	4	못뿌리 결실. 목질부착.
-28-12		②	(5.3)	1.1	0.5	6	못뿌리 결실. 목질부착.
-28-13		③	(3.2)	0.5	0.3	3	못머리 결실. 목질부착.
-28-14		⑥	(6.1)	0.8	0.5	7	못머리 결실. 목질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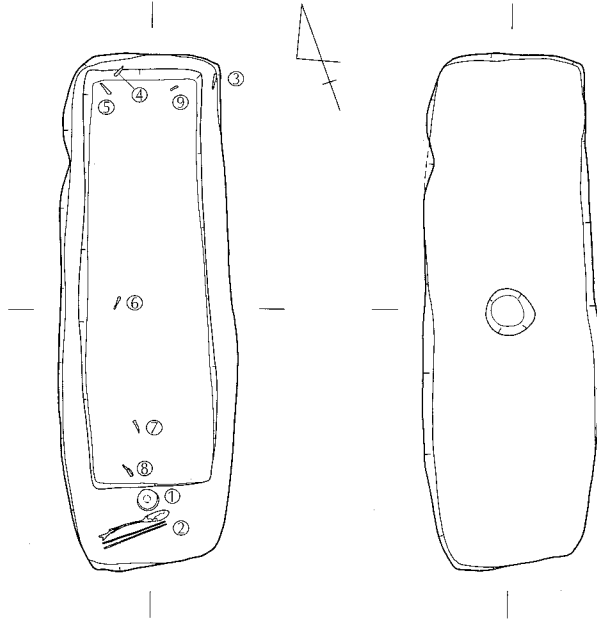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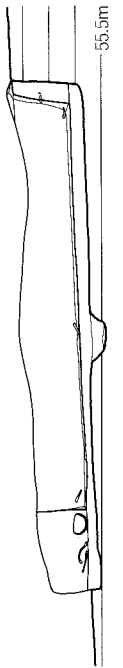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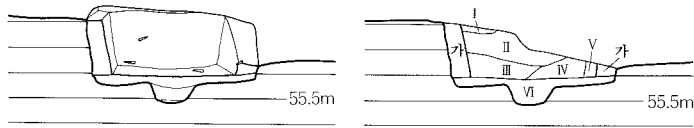
* ()는 잔존치

(3) 鎌形鐵器(圖面 21-30, 圖版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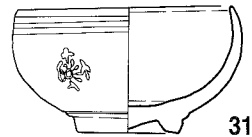
三國時代의 鐵鎌과 형태가 유사하다. 先端部和 基部 그리고 身部 一部分이 결실되어 있다. 刃部和 背部가 뚜렷이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녹이 많이 부착되어 있고, 목질이나 유기물의 흔적은 없다. 殘存長 13.6cm, 刃部最大幅 3.0cm, 背部厚 0.3cm, 重量 47g.

16. 16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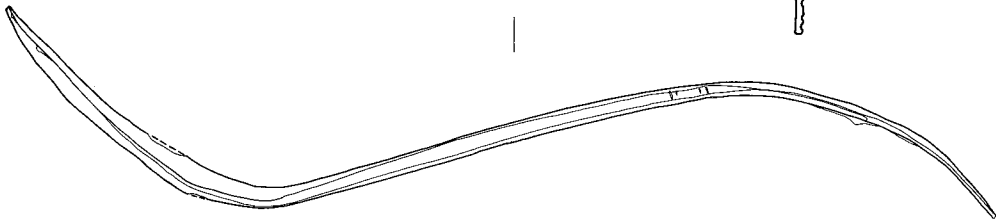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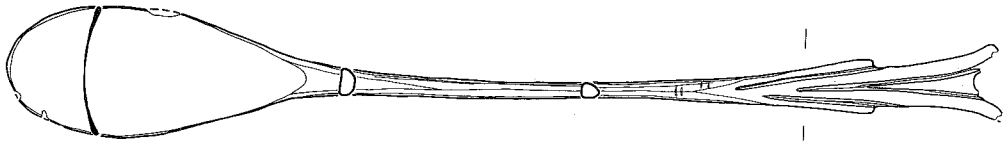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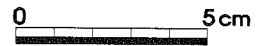
1) 遺構(圖面 22, 圖版 25-5~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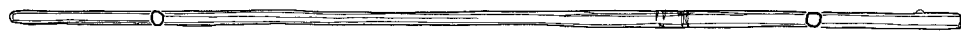
- I-黃色. 암반덩어리.
- II-赤黃褐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 III-黃赤褐色. 점성 높음.
黃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V-暗黃褐色. 점성 보통.
黃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V-褐黃色. 점성 낮음.
- VI-灰黃褐色. 점성 높음.
黃色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 가-明黃褐色. 점성 높음.
黃色 암반알갱이 少量 포함



31



32-1



32-2



圖面22. 1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밭굴구역의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해발 55.5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11호묘가, 북쪽으로 12호묘가 인접해 있다. 樹木移植作業으로 인해 남단벽 일부가 파괴되었고, 그 주변에 靑磁片이 흩어져 있었다.

墓壙은 長軸이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掘鑿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20°-E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2cm, 너비 67cm, 깊이 29cm이다.

土層(圖版 26-2)은 봉토로 추정되는 內部土, 補強土 整地土로 구분된다. 봉토는 점성과 견도가 매우 강하며, 묘광 잔존 깊이가 얕아 陷沒樣相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강토는 황갈색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다. 바닥에는 灰黃褐色의 점토를 얇게 깔아 整地하였다. 이 정지면에 木棺을 安置하였는데, 東西長壁과 北短壁쪽에서는 묘광과 10cm 정도를 띄우고, 南短壁쪽에서는 묘광과 40cm 정도를 띄워서 안치하였다. 남단벽과 목관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遺物을 副葬하였다. 이 부장공간의 상부에 木蓋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묘광 벽면은, 네 벽 모두 斜壁이며, 묘광 바닥의 가운데에 원형의 腰坑이 있는데, 그 규모는 지름 20cm, 깊이 5cm이다.

遺物은 목관에 사용되었던 못 9점과 남단벽과 목관 사이에서 靑磁 盞 1점과 靑銅수저 1組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최초 평면조사 당시 남단벽 주변에서 수습한 靑磁(3개체분)片도 원래는 16호묘 내에 부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범어유적에서 한 유구에서 가장 많은 양의 靑磁가 출토된 것이 된다.

2) 遺物

(1) 靑磁象嵌菊花文盞(圖面 22-31, 圖版 56-9, 出土位置 ①)

구연 일부가 결실된 暗綠褐色의 청자잔이다. 동체는 거의 球形에 가까우며, 外側斜面の 口緣端에는 白象嵌으로 2줄의 圓文이, 그 아래에는 3곳에 菊花文이 施文되어 있다. 외측사면에 국화문을 시문하는 과정에 기벽이 內面으로 튀어 나와 있다(押印의 가능성이 있음). 동체부와 저부가 연결되는 부위에는 陰刻의 원문이 1줄 배치되어 있다. 굽은 接地面이 안쪽이 들린 형태이며, 접지면 일부에는 모래가 극소량 부착되어 있다. 굽안바닥은 가운데 부분이 뽕족한 형태이며, 굽받침의 흔적은 없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빙열도 고르게 형성되어 있으나, 빙열의 틈 사이로 흙성분(?)이 침투되어 褐色을 띤다. 器高 4.95cm, 口徑 8.3cm, 底徑 3.9cm

(2) 靑銅수저(圖面 32-1·2, 圖版 56-7·8, 出土位置 ②)

① 靑銅순가락(圖面 32-1) - 匙部와 자루부 끝단의 극히 일부가 결실된 靑銅製 순가락이다. 匙部の 형태는 끝이 둥글며, 자루부 쪽으로 갈수록 좁아져 자루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자루부는 자루끝으로 갈수록 넓어져 단을 이룬 후, 다시 끝부분에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燕尾形

의 형태이다. 자루부의 중하반부에는 4곳에 약한 홈이 새겨져 있고, 단이 지는 부분의 양끝에는 종방향으로 침선을 두 줄 배치하였다. 그리고 두 침선 사이의 중간부분에서 양끝단까지 침선을 배치하였다. 연미형의 두 가지 사이의 중앙은 반원형의 형태를 띤다.

자루의 측면 형태는 'S'자형이다. 시면의 단면형태는 양끝쪽이 약간 두껍고 가운데가 판상의 형태를 띤다. 자루부의 단면형태는, 시부와 연결부는 梯形에 가깝고, 가운데 부분은 삼각형에 가깝다. 그리고 자루 끝부분은, 단면 장방형에 침선의凹凸이 있다. 시면의 내면에는 종방향으로 가는 선이 여러개 관찰되는데, 마연흔으로 추정된다. 殘存長 25.6cm, 匙部最大幅 3.4cm, 重量 43g.

② 靑銅젓가락(圖面 32-2) - 일부에 청동녹이 부착되어 있으나 상태가 양호한 靑銅製 젓가락이다. 젓가락 두 개의 길이는 3mm 정도 차이가 있다. 젓가락은 단면 사각형의 靑銅絲를, 先端部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後端部는 말각방형에 가깝게 마연하여 만들었다. 중하반부에는 3~4줄의 가는 홈이 새겨져 있는데, 청동녹 때문에 그 개수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全長 24.6cm, 24.9cm, 厚 0.4cm, 重量 49g.

(3) 관못(圖面 23-33, 圖版 57-4)

총 7개체분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4점이 完形이다. 단면형태는 長方形과 方形으로 나누어진다. 1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木質이 부착되어 있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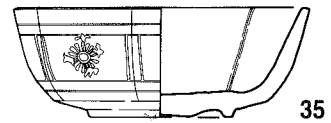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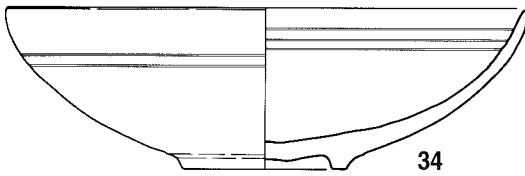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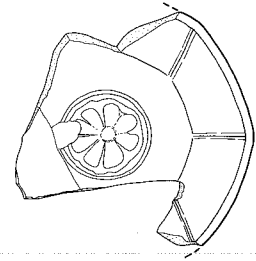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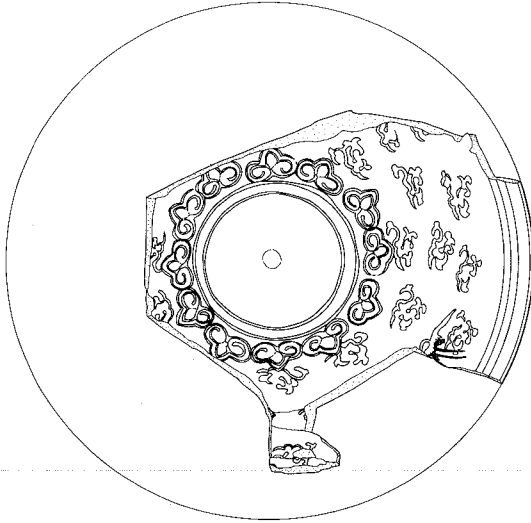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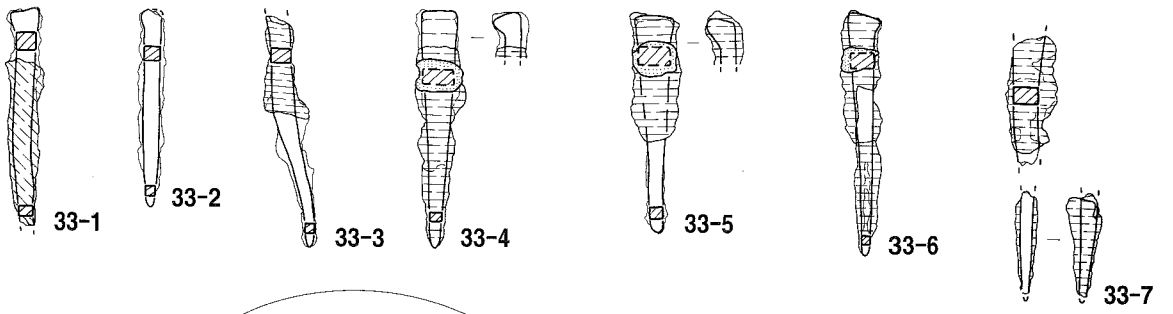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23-33-1	57-4	③	(5.7)	0.7	0.5	5	뿌리 결실. 목질부착.
-33-2		④	5.2	(0.6)	0.4	3	머리 일부 결실.
-33-3		⑤	(5.9)	0.96	0.4	4	머리 결실. 목질부착. 몸통 휨.
-33-4		⑥	6.1	0.9	0.7	7	완형. 목질부착.
-33-5		⑦	5.7	1.0	0.8	7	완형. 목질부착.
-33-6		⑧	6.3	0.9	0.4	6	완형. 목질부착.
-33-7		⑨	(6.1)	0.8	0.5	5	몸통 결실. 2片으로 분리. 목질부착.

* ()는 잔존치

3) 16호 주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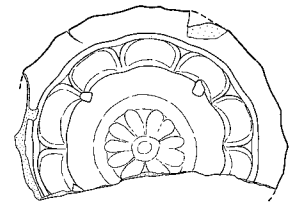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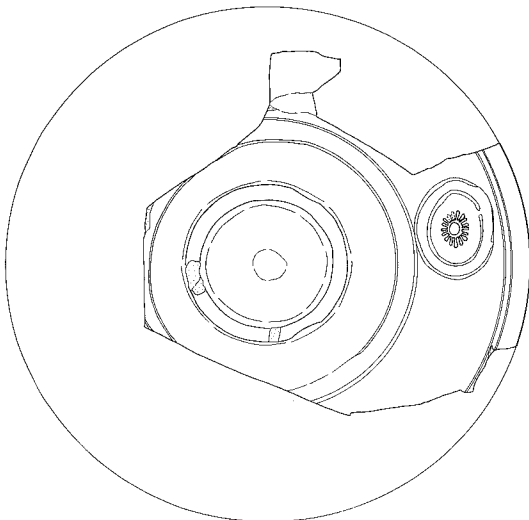
(1) 靑磁象嵌雲鶴菊花文대접(圖面 23-34, 圖版 57-2·3)

口緣 및 胴體가 5/6 정도 결실된 淡綠褐色의 靑磁대접이다. 동체는 굽에서부터 완만하게 둥근 형태이며, 口緣端에서 약간 內傾한다. 굽 접지면의 폭은 6mm 정도로 넓으며, 소성시 사용한



34

35



36



圖面23. 16호묘 출토유물

받침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문양은 내외면에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는 구연단에 圓文이 3줄 시문되어 있고, 그 아래로 鶴文이 3곳에 시문되어 있고, 鶴文 사이의 공간에는 雲文이 시문되어 있다. 雲鶴紋帶 아래에는 草花文이 시문되어 있다. 내저면에는 2줄의 원문이 배치되어 있다. 문양은 鶴文의 다리와 깃털 일부만 黑象嵌으로 시문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白象嵌으로 시문되어 있다. 외면에는 구연단과 동하단에 2줄의 원문을 시문하고, 그 사이에 2줄의 圓圈 안에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모두 백상감으로 시문되어 있다.

유약은 굽집지면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어 있으나, 저부에는 유약이 일부 酸化剝離되었다. 빙열은 전면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器高 6.4cm, 推定口徑 22.0cm, 底徑 6.2cm

(2) 靑磁象嵌菊花文八角접시(圖面 23-35, 圖版 57-7·8)

2/3 정도 결실된 暗綠褐色의 청자팔각접시인데 圖面復元하였다. 동체는 동하단부에서 角이 져 거의 直線으로 이어진다. 특히 동체의 측사면 형태가 각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확인되는 것은 4개의 면이나 각 면의 幅으로 보아 八角으로 추정된다. 內底面은 편평하고, 陽角으로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즉, 圓圈을 시문하고, 그 안에 8개 잎의 菊花文이 시문되어 있는데, 양각의 정도가 약하여 일부 희미하게 관찰된다. 外側斜面에는 구연단과 동하단부에 2줄의 圓文이 시문되어 있고, 각 면의 모서리에는 2줄의 세로선으로 분할하여 그 안에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모두 白象嵌으로 시문되어 있다.

굽은 接地面의 폭이 좁으며, 높이도 낮다. 굽안바닥의 가운데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바닥에 닿일 정도이다. 소성시 사용된 받침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약은 굽집지면과 바닥일부를 제외한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빙열은 전면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器高 4.35cm, 推定口徑 4.5cm, 底徑 5.5cm

(3) 靑磁陽角菊花文花形접시(圖面 23-36, 圖版 57-5·6)

1/3 정도 결실된 淡綠灰色의 청자접시이다. 口緣端은 面을 이루며 外反하는데, 끝단의 모양은 꽃잎의 형상을 띤다. 동체의 하단은 각이 지고, 內側斜面에는 잔존 상태에서 연꽃잎이 7개 확인되나 꽃잎 하나의 크기로 복원해 볼 때 10개로 추정된다. 內底面은 편평하며, 陽角으로 圓圈 안에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으나 양각의 정도가 약하여 희미하게 관찰된다. 그리고 내저면 가장자리의 3곳에 태토비집받침눈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간격으로 보아 1개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저면에 받침눈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성시 다른 것과 포개어서 소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굽은 속굽의 형태이고, 굽안바닥에 모래가 부착되어 있다. 유약은 전면에 시유되어 있고, 빙열은 일부에서만 관찰된다. 외면 일부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며, 소형기포들이 형성되어 있다. 器高 2.75cm, 推定口徑 10.9cm, 底徑 5.2cm.

17. 17號墓

1) 遺構(圖面 24, 圖版 27-5~29)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북동쪽으로 약간 올라간 해발 54.5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9호, 34호묘, 동쪽으로 20호묘가 인접해 있다. 시굴 조사 당시 설치한 트렌치에서 土器장군이 노출되어 수습하였고, 이 때 西長壁의 묘광 일부가 파괴되었다(圖版 27-5, 6).

墓壇은 長軸이 등고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토의 암반을 掘鑿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서장벽에 돌출되어 監室이 있다. 主軸方向은 N-10°-E, 묘광의 규모는 길이 231cm, 너비 92cm, 깊이 50cm이다.

土層(圖版 28-2)은 봉토로 추정되는 내부 陷沒土, 木棺痕, 補強土, 整地土로 구분된다. 內部土는 함몰양상이 관찰되나 뚜렷하지는 않다. 봉토와 보강토 사이에 세로 방향으로 폭 4cm 정도의 회색 점토가 관찰되는데, 이는 木棺의 腐蝕痕으로 추정된다. 토층에서 側板이 고정된 채로 부식되었는데, 蓋板의 흔적은 토층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보강토는 紫黃褐色 粘土에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되어 있고, 堅度도 높다. 바닥에는 明黃褐色 점토를 3cm 정도의 두께로 깔아 整地하였고, 이 정지면 상부에서 두께 4cm의 목관흔이 ‘ㄷ’字狀(圖版 29-3)으로 확인되었는데, 원래는 ‘口’자상이나 시굴조사 당시 관흔적이 일부 파괴되었기 때문에 ‘ㄷ’字狀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 정지면에서 확인된 목관의 흔적 및 관못의 출토 위치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길이 179cm, 너비 45cm, 깊이 55cm(잔존)이며, 板材의 두께는 최소한 4cm 이상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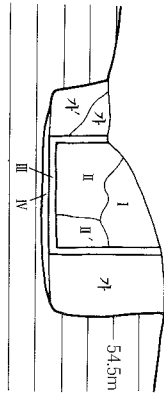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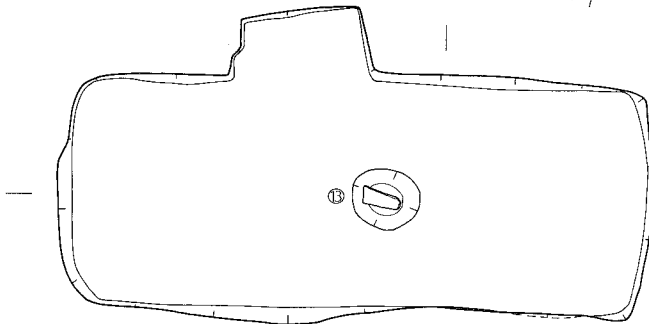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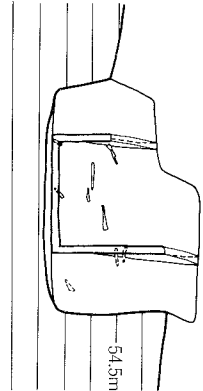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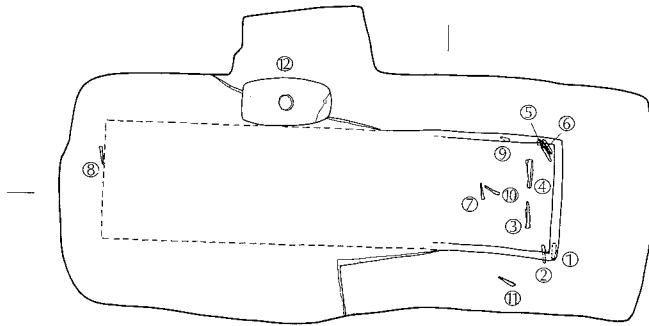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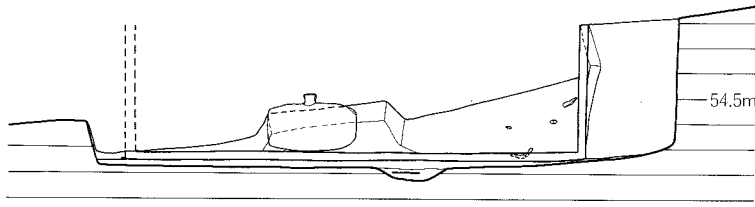
묘광 벽면은 서장벽과 남단벽은 斜壁, 동장벽과 북단벽은 直壁이다. 묘광 바닥 중앙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타원형의 腰坑이 있는데, 그 규모는 길이 27cm, 너비 24cm, 깊이 4cm이다. 서장벽의 남쪽에 치우쳐 監室이 있는데, 상부가 파괴되어 상부 구조는 알 수 없지만, 바닥은 편평하지 않고 묘광 내부쪽으로 비스듬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土器장군이 감실안에서 출토되지 않고 감실 앞 묘광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감실의 규모는 길이 54cm, 너비 30cm, 깊이 6cm(잔존)이다.

遺物은 목관에 사용된 못 11점, 감실 앞 묘광 바닥에서 토기장군 1점과 요갱에서 판상철기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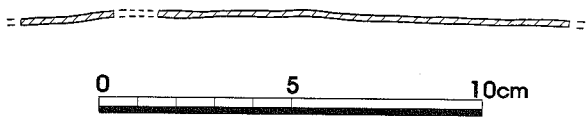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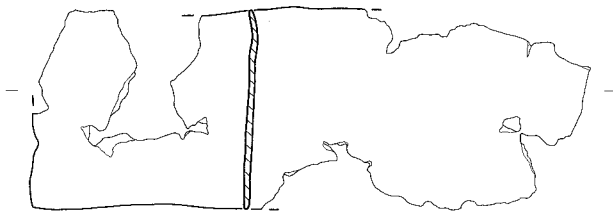
2) 遺物

(1) 관못(圖面 25-39, 圖版 58-3)

11개체분이 出土되었고, 試掘調査 당시 수습된 6점을 포함하면 총 17개체분이 확인되었다.



0 0.5 1.5m



37

0 5 10cm

- I-赤褐色. 점성 보통.
赤褐色·黄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褐色. 점성 보통.
赤褐色·黄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褐色. II와 유사하나, 점성이 높음.
- III-灰色 粘土. 점성 높음. 木棺 흔적
- IV-明褐色. 점성 높음. 黄色·灰色·赤褐色의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가-赤褐色. 점성 약간 높음.
赤褐色·黄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가'-가'와 유사하나, 점성이 높음 (다져진 상태).

圖面24. 17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이 가운데 7점만 完形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缺失된 상태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나, 못머리와 못뿌리, 두께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개개 명세는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25-39-1	58-3	①	8.8	1.0	0.5	10	完形. 木質附着. 뿌리 휨.
-39-2		②	8.8	1.0	0.5	18	완형. 목질부착. 뿌리 휨.
-39-3		③	10.5	1.0	0.5	19	완형. 목질부착.
-39-4		④	(10.1)	1.3	0.5	24	못뿌리 缺失. 목질부착.
-39-5		⑤	8.9	1.2	0.6	20	완형. 목질부착. 뿌리 휨.
-39-6		⑥	(10.0)	1.1	0.5	18	몸통 결실. 2片으로 분리. 목질부착.
-39-7		⑦	7.3	1.0	0.5	11	완형. 목질부착. 뿌리 휨.
-39-8		⑧	(9.1)	1.1	0.4	10	뿌리 결실. 목질부착. 뿌리 휨.
-39-9		⑨	(5.9)	0.8	0.5	10	뿌리와 머리 결실. 목질부착.
-39-10		⑩	(7.8)	0.8	0.5	11	뿌리 결실. 목질부착.
-39-11		⑪	8.7	0.9	0.6	19	완형. 목질부착.
-29-12		試掘	(10.0)	0.7	0.6	17	뿌리 결실. 목질 부착.
-29-13			(8.9)	0.8	0.6	11	머리 결실. 목질 부착.
-29-14			(8.2)	0.9	0.5	11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 부착.
-29-15			8.5	0.4	0.4	13	완형. 목질 부착.
-29-16			(11.3)	1.0	0.7	21	2片으로 분리. 목질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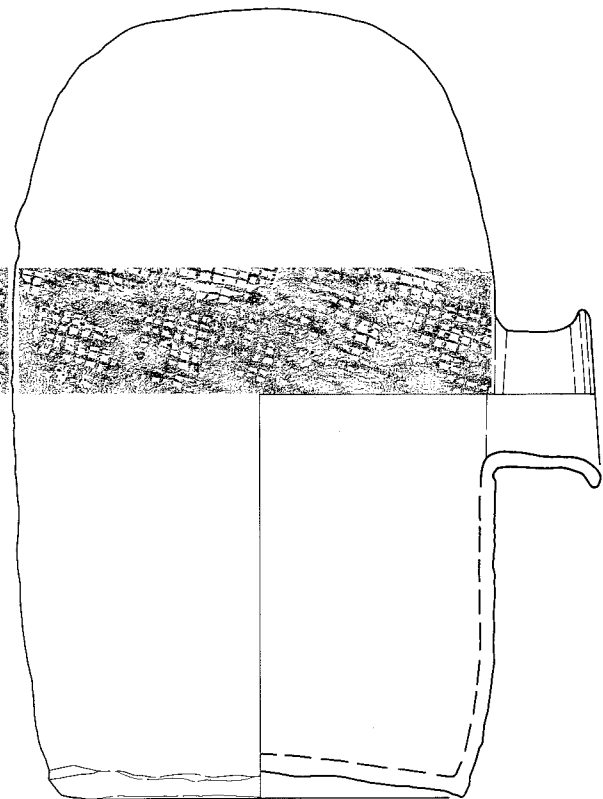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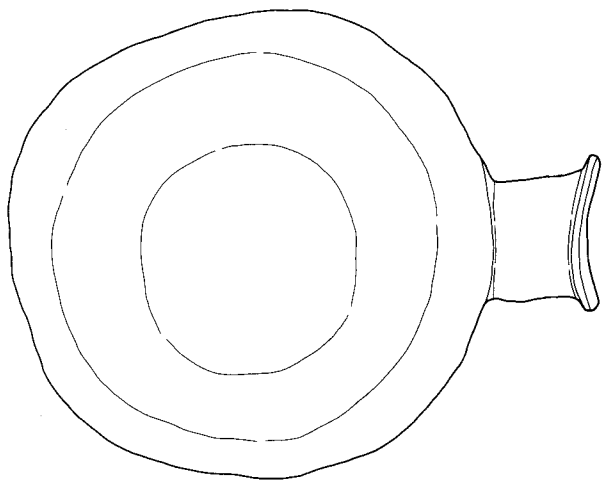
* ()는 잔존치

(2) 土器장군(圖面 25-38, 圖版 58-1·4, 出土位置 ⑫)

口頸部가 일부 缺失된 土器장군이다. 頸部는 直立하다 口緣端에서 약간 外反한다. 胴部の 측면 중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지만 기본적으로 편평한 형태이다.

구경부를 제외한 胴體外面 전면에 格子狀의 打捺文(圖版 58-4)이 施文되어 있고, 구경부에는 회전물손질 정면흔이 있다. 胎土는 석영과 장석이 극소량 혼입된 고운 粘土이며, 燒成은 양호하다. 胴部の 편평한 側面의 가장자리에 모래가 소량 부착되어 있는 것과 편평한 면이 열을 적게 받아 회색에 가까운 색조를 띠는 것 등으로 보아 소성시 편평한 측면을 바닥에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부분은 소성시 열을 적게 받아 회색에 가까운 색조를 띤다. 外面의 전체적인 色調는 灰青色이며, 斷面은 紫色을 띤다. 器高 22.6cm, 推定口徑 5.3cm, 胴最大幅 3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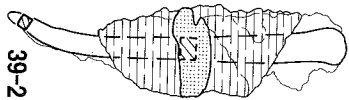
(3) 板狀鐵器(圖面 24-37, 圖版 58-2, 出土位置 ⑬)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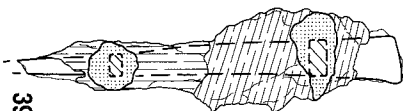
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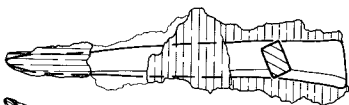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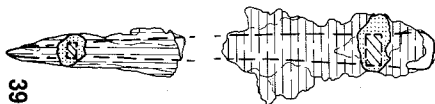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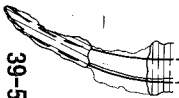
39-3



39-4



39-5



39-6



39-7



39-8



39-9



3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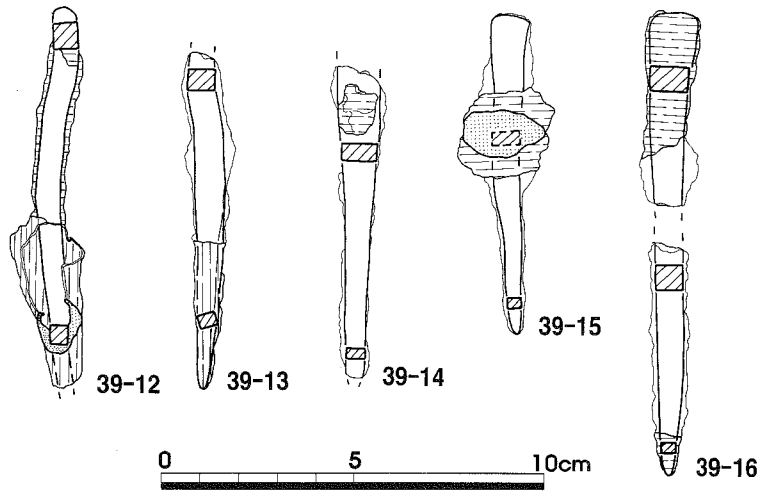


39-11



圖面25. 17호묘 출토유물

전체적으로 두께가 얇은 관상의 철기로서, 平面形態는 長方形으로 추정되나 缺失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表面에 철녹이 다량 부착되어 있다. 全長 15.0cm, 最大幅 5.4cm, 厚 0.2cm. 重量 29g.



圖面26. 17호묘 출토유물

18. 18號墓

1) 遺構(圖面 27, 圖版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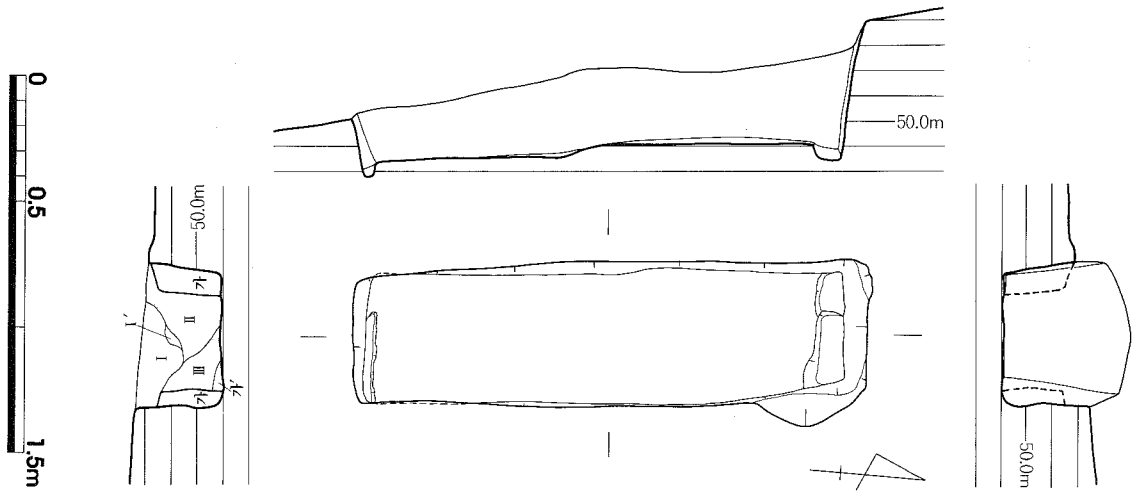
밭길구역의 중앙에서 남동쪽으로 치우쳐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19호묘, 북쪽으로 21호묘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長軸이 登高선에 直交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掘鑿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細長方形이며, 主軸方向은 N-5°-W, 묘광의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57cm, 깊이 50cm(잔존)이다.

土層(圖版 30-2)은 봉토로 추정되는 내부 陷沒土와 補強土로 구분된다. 내부 함몰토는 갈색 점토에 자색 암반덩어리가 다량 혼입된 I, II층과 황색암반 덩어리가 소량 혼입된 III층의 3개의 층으로 구분되는데 함몰양상을 띤다. 보강토는 내부토와 색깔이 유사하나 紫色과 黄色의 암반덩어리가 섞여 있는 褐色 粘土이다. 바닥에는 다른 유구와는 달리 整地를 하지 않았고, 바닥에 바로 木棺을 安置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층에서 木棺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보강토의 범위로 보아 목관의 규모는 폭과 높이가 추정이 가능하고 길이는 알 수 없는데, 길이 ? cm, 너비 45cm, 깊이 55cm(잔존)이다.

墓壙 壁面은 東長壁만 일부에서 奧壁을 띠고, 나머지 세 벽은 斜壁이다. 묘광 北短壁 아래의 바닥에 폭 10cm 정도의 흠이 파여져 있으나 그 용도는 알 수 없다.

묘광 굴착에 사용한 도구의 흔은 西長壁面(圖版 30-3)이 가장 잘 남아있는데, 서장벽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리고 左上右下 방향으로 掘鑿하였다. 掘鑿具(整地具)는 刃部의 폭이 10cm 정도이고, 모서리가 각진 형태이다. 遺物은 출토되지 않았다.



I-褐色. 점성 높음. 紫色·黃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I'-褐色 점성 높음. 암반알갱이 없음.

II-明褐色. 점성 보통. 黃色·紫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III-暗褐色. 점성 보통. I'와 유사. 암반덩어리 少量 포함.

가-褐色. 점성 보통. 黃色·紫色 암반덩어리 포함.

가'-褐色. 점성 보통. '가'와 유사.

圖面27. 18호묘 유구

19. 19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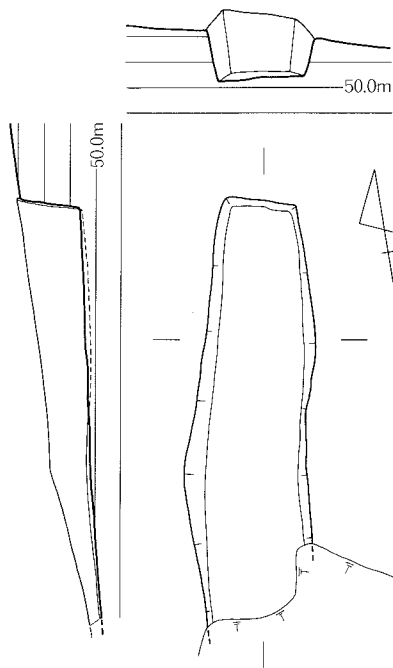
1) 遺構(圖面 28, 圖版 31-1~3)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18호묘, 서쪽으로 25호묘, 남쪽으로 22호묘, 북쪽으로 5호묘, 21호묘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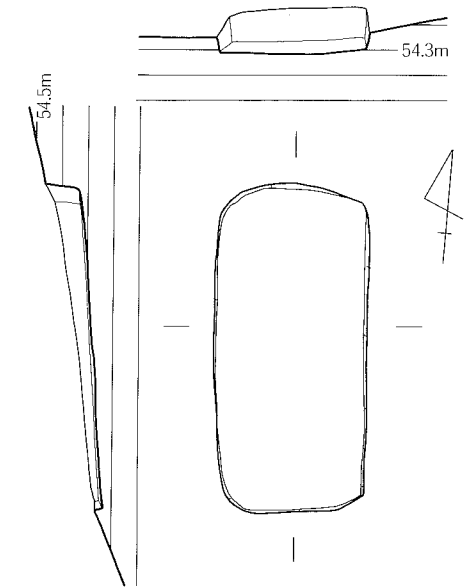
墓壙은 장축이 등고선에 직교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기본적으로 細長方形이나, 19호묘가 위치하는 부분의 지형이 경사가 저 南短壁은 파괴된 상태였다. 主軸方向은 N-9°-E, 묘광의 규모는 길이 165cm(잔존), 너비 43cm, 깊이 24cm이다.

土層(圖版 31-2)은 褐色 粘土의 單一層이며, 堅度가 매우 높다. 토층에서 補強土 및 木棺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내부토의 단단함 정도 등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屍身을 묘광 바닥에 바로 安置한 후 흙을 다져넣은 直葬의 가능성이 높다. 발굴구역 내에 이와 유사한 분묘로는 21호묘, 22호묘가 있다.

묘광 벽면은 세 벽 모두 斜壁이며,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圖面28. 19호묘 유구



圖面29. 20호묘 유구

20. 20號墓

1) 遺構(圖面 29, 圖版 31-4, 32-1)

조사지역의 가장 동쪽 해발 54.5m 지점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17호묘가 인접해 있다. 上部는 自然的, 人爲的으로 削平되어 깊이가 얇게 남아있다.

墓壙은 장축이 등고선에 직교하며, 황갈색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長方形이고, 주축방향은 N-4°-W, 묘광의 규모는 길이 130cm, 너비 59cm, 깊이 13cm이다.

土層은 암반 알갱이가 소량 혼입된 褐色 粘土의 單一層이며, 토층에서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 벽면은 네 벽 모두 斜壁이며, 바닥은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비스듬하다. 묘광의 길이는 조사지역 내에서 가장 짧은데, 피장자가 成人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遺物은 출토되지 않았다.

21. 21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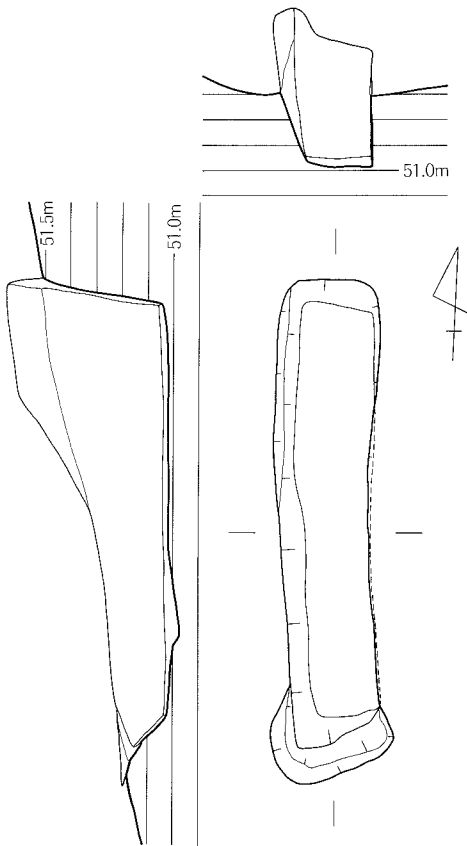
1) 遺構(圖面 30, 圖版 32-2~4)

발굴구역의 중앙에서 남쪽에 치우쳐 해발 51.0m 지점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5호묘, 북쪽으로 4호묘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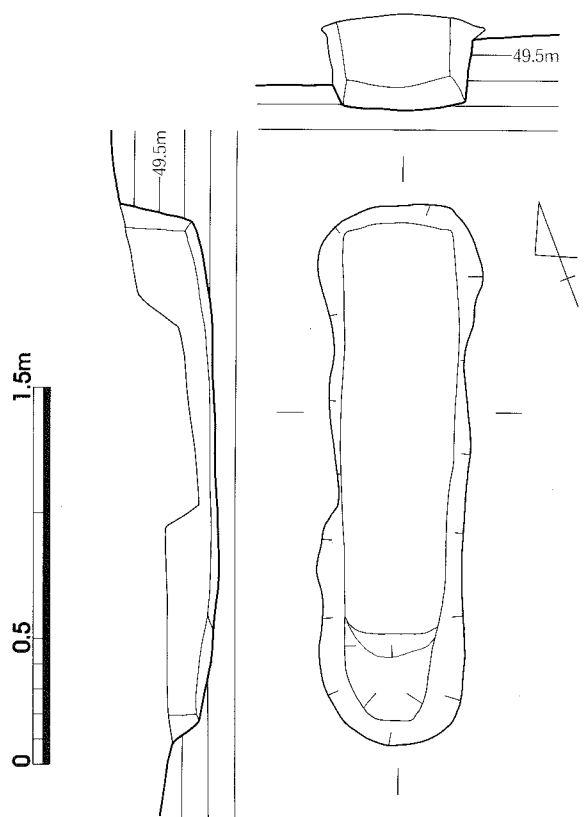
묘광은 장축이 등고선에 직교하며, 황갈색 점질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細長方形이며, 주축방향은 N-3°-E,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6cm, 너비 35cm, 깊이 50cm이다.

土層(圖版 32-3)은 갈색 점토의 單一層이며, 堅度가 매우 높다. 토층에서 補強土 및 木棺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과 내부토의 단단함 정도 등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屍身을 묘광 바닥에 바로 安置한 후 흙을 다져넣은 直葬의 가능성이 높다. 발굴구역내에 이와 유사한 분묘로는 19호묘, 22호묘가 있다.

묘광 벽면은 東長壁은 直壁, 나머지 세 벽은 斜壁이다. 특히 南短壁은 階段狀의 완만한 斜壁을 이룬다. 遺物은 출토되지 않았다.



圖面30. 21호묘 유구



圖面31. 22호묘 유구

22. 22號墓

1) 遺構(圖面 31, 圖版 33-1~3)

발굴구역의 남쪽 해발 50.0m 지점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5호묘, 북쪽으로 4호묘가 인접해 있다. 시굴트렌치에 의해 서장벽 일부가 파괴된 상태였다.

묘광은 장축이 등고선에 직교하며, 황갈색의 암반을 굴착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細長方形이며, 주축방향은 N-20°-E,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6cm, 너비 35cm, 깊이 50cm이다.

土層(圖版 33-3)은 褐色 粘土의 單一層이며, 堅度가 매우 높다. 토층에서 補強土 및 木棺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과 내부토의 단단함 정도 등으로 보아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屍身을 바로 安置한 후 흙을 다져넣은 直葬의 가능성이 높다. 발굴구역 내에서 이와 유사한 분묘로는 19호묘, 21호묘가 있다.

묘광 벽면은 네 벽 모두 直壁이며, 묘광 바닥은 가장자리가 높고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다. 遺物은 출토되지 않았다.

23. 23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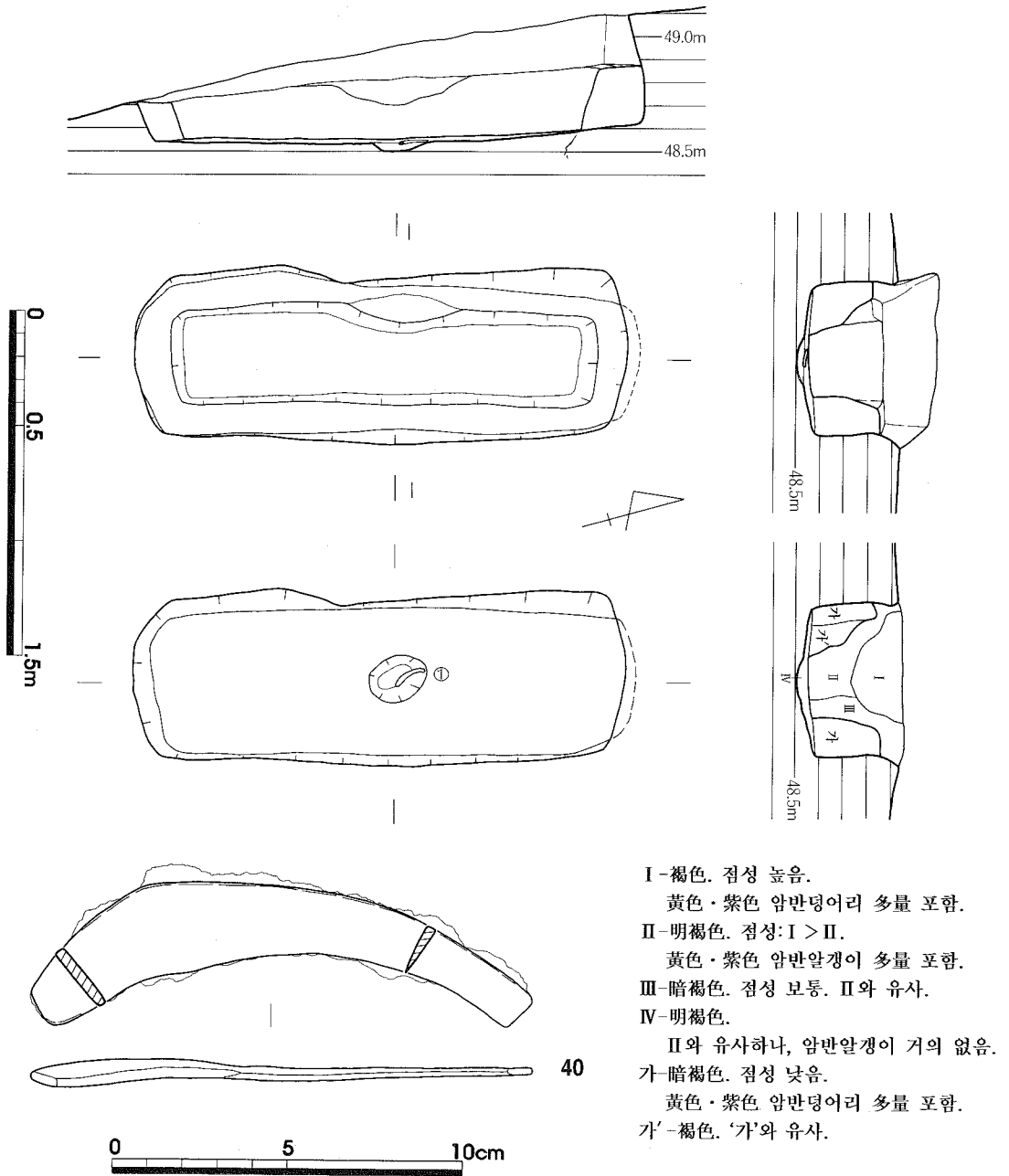
1) 遺構(圖面 32, 圖版 33-4~34)

발굴구역의 남쪽 끝 지점(해발 49m 정도)에 위치하며, 북쪽에 인접하여 22·24호가 있다. 表土를 제거하자 바로 墓壙이 확인(圖版 33-4)되었는데, 墓壙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묘광의 규격은 길이 209cm, 너비 72cm, 깊이 48cm이고, 主軸方向은 N-16°-E이다.

土層(圖版 34-2)에서 확인된 내부토는, 크게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구분된다. 정지토와 보강토, 봉토는, 모두 墓壙을 掘鑿할 때 나온 흙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토는 비교적 얇게 깔은 편이며, 보강토의 높이는 대체로 30cm 이하이다. 서쪽 장벽의 보강토는 木棺이 부식되어 붕괴되면서 일부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봉토는 U자상의 함몰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는 안치된 木棺의 크기는 180×40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北短壁의 아랫부분은 벽면의 整地과정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깊게 파여졌으며, 兩長壁은 가운데 부분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오목렌즈 형태, 奧壁)로 마감되었다. 北短壁에서 掘鑿具痕이 일부 확인(圖版 34-3)되었는데, 幅은 4cm 前後이고 斷面形態는 半圓形이다. 굴착구흔의 방향은 대체로 수직이며, 일부는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묘광의 바닥은 대체로 수평이나, 북쪽이 조금 높은 편이다. 묘광의 가운데 부분에는 길이 25cm, 너비 19cm, 깊이 5cm 정도의 腰坑(圖版 34-5)이 설치되어 있다. 요갱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내부에서 鎌形鐵器 1점이 출토되었다. 요갱에서 출토된 유물을 제외하면, 출토유물은 1점도 없다.



- I-褐色. 점성 높음.
 黄色·紫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II-明褐色. 점성: I > II.
 黄色·紫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 III-暗褐色. 점성 보통. II와 유사.
- IV-明褐色.
 II와 유사하나, 암반알갱이 거의 없음.
- 가-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紫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 가'-褐色. '가'와 유사.

圖面32. 23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2) 遺物

(1) 鎌形鐵器(圖面 32-40, 圖版58-5, 出土位置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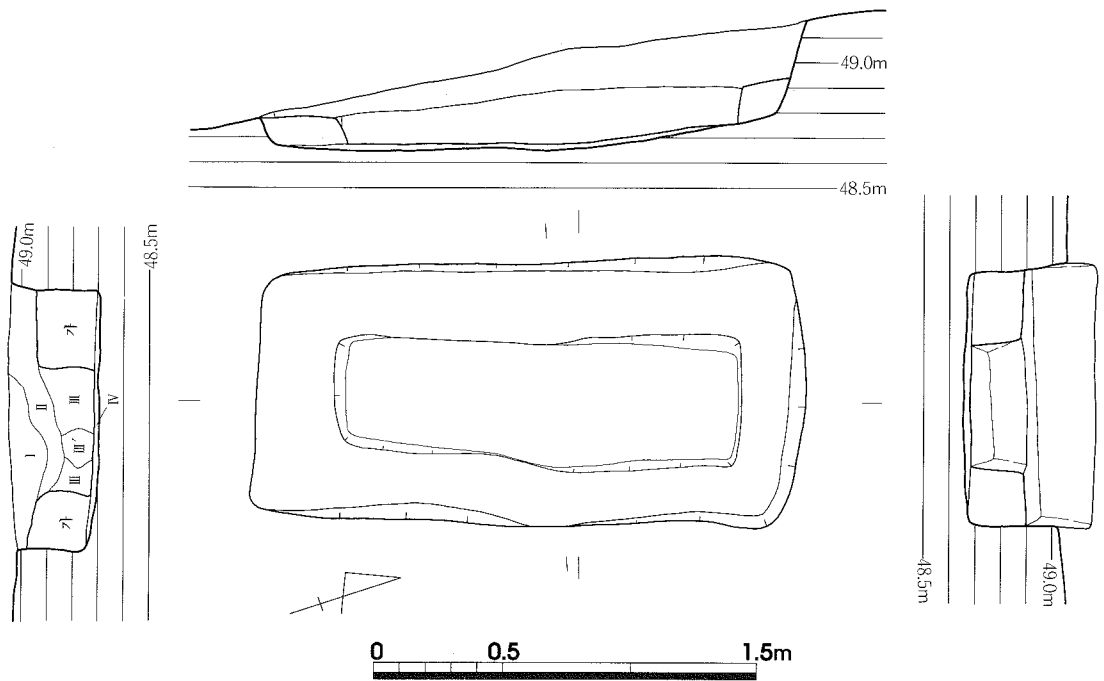
출토 당시에는 4편으로 파손된 상태였으나, 完形으로 복원되었다. 철녹이 多數 형성되어 있으며, 木質이나 有機物 등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다. 刃部의 형태로 볼 때 삼국시대 墳墓에서 확인되는 鐵鎌과 유사하다. 基部의 형태와 先端部の 형태는 鐵鎌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全長 14.3cm, 刃部最大幅 2.1cm, 背厚 0.3cm, 重量 48g.

24. 24號墓

1) 遺構(圖面 33, 圖版 35)

밭굴구역의 남쪽 끝 가까운 지점(해발 49m 정도)에 위치하며, 동쪽에 인접하여 22·23호가 있다.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墓壙이 확인(圖版 35-1)되었는데,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묘광의 길이는 215cm, 너비는 105cm, 깊이는 40cm이고, 主軸方向은 N-18°-E이다.

內部土(圖版 35-2)는 크게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구분되는데, 모두 묘광의 굴착 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토는 비교적 얇게 깔 편이며, 보강토의 높이는 대부분 25cm 이하이다.



I-暗褐色. 점성 보통. 黃色·紫色 암반덩어리 다량 포함.

II-褐色. 점성 높음. 黃色·紫色 암반알갱이 다량 포함.

III-褐色. II와 유사하나, 점성이 보다 높음.

III'-褐色. III과 유사하나, 더 밝음.

IV-褐色. III과 유사하나 점성이 보다 높음.

가-暗褐色. 점성 낮음. 黃色·紫色 암반알갱이 다량 포함.

圖面33. 24호묘 유구

서쪽 보강토의 폭이 동쪽보다 넓으며, 봉토는 U자상의 함몰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는 木棺을 안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의 크기는 160×50cm 정도로 추정된다.

墓壙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안쪽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으며, 東長壁 아래쪽의 일부는 바깥쪽으로 조금 들어간 형태로 정리되었다. 묘광의 바닥은 북쪽이 높고, 아래쪽으로 오면서 점점 낮아진다. 출토유물은 없다.

25. 25號墓

1) 遺構(圖面 34, 圖版 36~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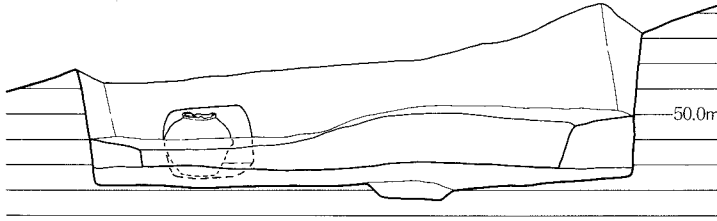
발굴구역의 남쪽 지점(해발 50m 정도)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5호가, 남쪽에는 22·24호가, 동쪽에는 19호가 인접해 있다. 墓壙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218cm, 너비 83cm, 깊이 69cm이다. 主軸方向은 N-17°-E이다.

土層(圖版 36-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內部土는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모두 묘광의 굴착 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토와 보강토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정지토는 10cm 이하의 두께로 고르게 깔았으며, 보강토의 높이는 대체로 25cm 이하이다. 봉토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함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는 木棺을 안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의 크기는 170×45cm 정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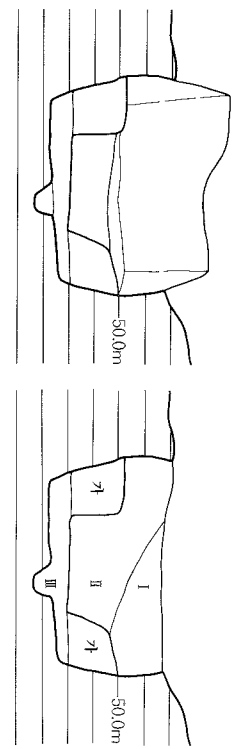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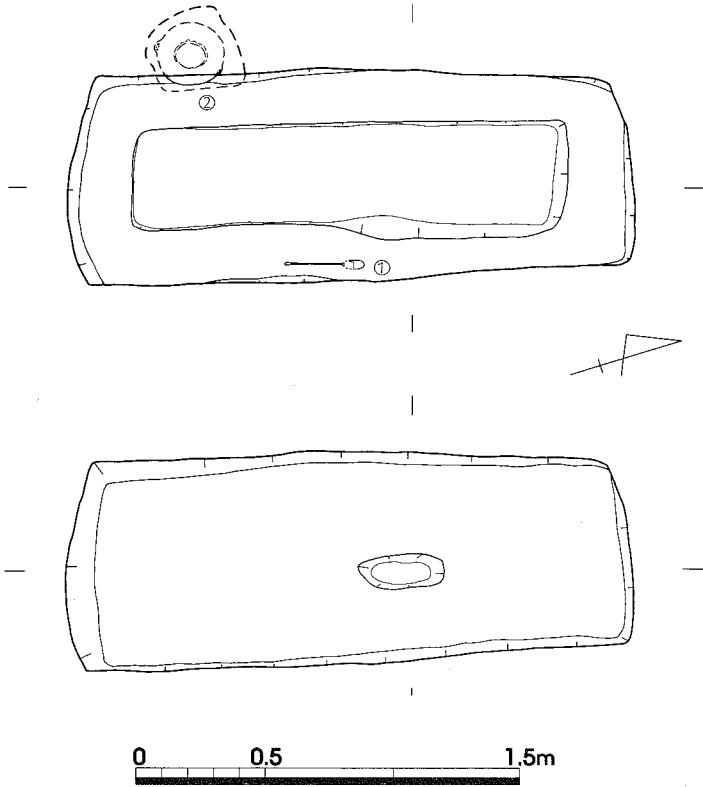
묘광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안쪽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바닥은 비교적 수평으로 정리하였으나,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묘광의 굴착과 정지과정에서 사용된 도구흔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는 편이었다. 北短壁(圖版 37-5)에서는 掘鑿具痕이, 南短壁(圖版 38-3)에서는 굴착구흔과 整地具痕이, 兩長壁(圖版 38-1·2·4)에서는 정지구흔이 확인되었다. 굴착구흔의 폭은 4cm 前後이고, 단면형태는 半圓形이다. 굴착구흔의 방향은 대체로 수직이나 일부는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정지구흔의 폭은 7cm 前後이고, 평면형태는 양끝의 각을 죽인 장방형이다. 정지구흔의 방향은 대체로 斜方向이다.

묘광의 가운데 부분에는 길이 34cm, 너비 13cm, 깊이 7cm 정도의 腰坑(圖版 37-4)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西長壁의 남쪽 편에는 壁龕(圖版 36-4)이 설치되어 있다. 벽감의 규모는 높이 28cm, 너비 33cm, 깊이 27cm 정도이다. 벽감에는 把手附短頸壺 1점이 안치되어 있었다.

출토유물은, 東長壁 補強土 內部에서 출토된 靑銅순가락 1점과 壁龕에서 출토된 把手附短頸壺 1점 등 총 2점이다.



I-黑褐色. 점성 낮음. 부식이 심함.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II-黑褐色. I 과 유사하나, 점성이 높음.
 III-暗黑褐色. 점성 보통.
 가-黑褐色.
 I 과 유사하나, 암반덩어리가 보다 큼.



圖面34. 25호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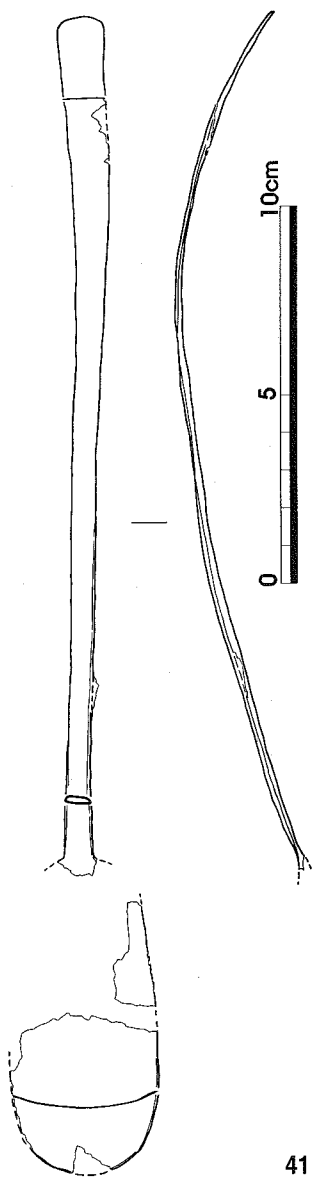
2) 遺物

(1) 把手附短頸壺(圖面35-42, 圖版 58-6, 出土位置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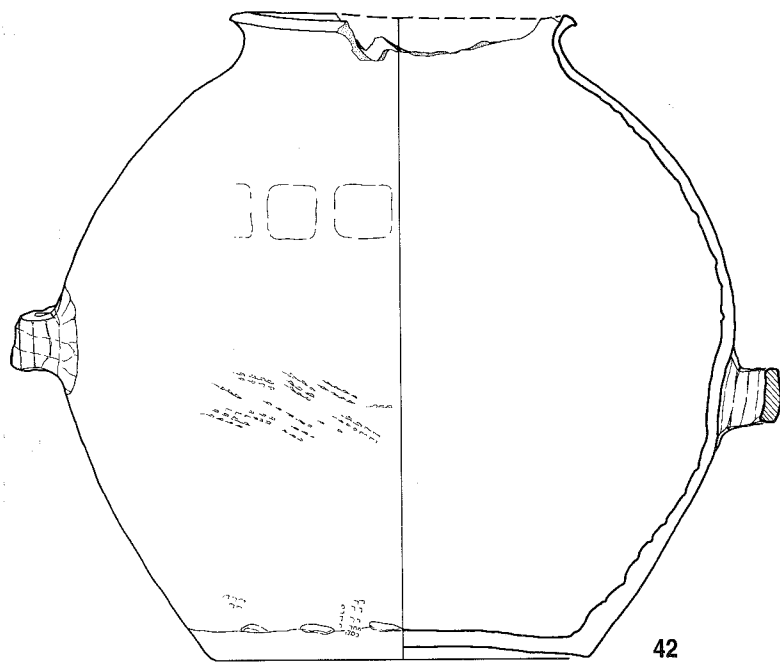
淡灰青色의 陶質土器 把手附短頸壺로, 口頸部만 일부 결실되었다. 胴最大徑이 胴체의 中位에 있어, 胴체는 거의 圓形이다. 口緣은 짧게 外反하며, 底部는 平底로,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把手는 양쪽에 각각 1개씩 부착되어 있는데, 점토띠를 外面에 눌러서 接합하였다. 胴體 下方에는 格子打捺痕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器高 25.3cm, 口徑 13.4cm, 底徑 14.5cm.

(2) 靑銅숟가락(圖面 35-41, 圖版 59-1, 出土位置①)

東長壁 보강토 내부의 바닥 가까이에서 출토(圖版 37-2)되었다. 출토 당시부터 匙部와 자루



41



42



圖面35. 25호묘 유구 출토유물

가 분리된 상태였고, 녹이 많이 형성되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자루는 완만한 곡선을 가지며, 끝부분은 半圓形에 가깝게 처리되었다. 匙部の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가운데가 얇고 兩端으로 갈수록 조금 두껍워진다. 자루의 斷面形態는, 匙部쪽에서는 반원형에 가깝고 자루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 板狀으로 변화한다. 殘存長 29.8cm, 匙部最大幅 3.8cm, 자루最大幅 1.3cm. 重量 23g.

26. 26號墓

1) 遺構(圖面 36, 圖版 38-5~39-3)

발굴구역의 북쪽 지점(해발 58m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27호가, 서쪽에는 28·29호가 인접해 있다. 조사 당시 상부에 나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뿌리로 인해 內部土가 심하게 교란된 상태였다. 墓壙은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확인되었는데, 南短壁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으로 추정되며, 묘광의 규모는 현길이 181cm, 너비 72cm, 깊이 45cm이고, 主軸方向은 N-5°-E이다.

토층(圖版 39-2)에서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못이 출토되어 목관이 안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관못의 출토상태로 볼 때 목관의 폭은 4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北短壁과 西長壁은 거의 수직으로, 南短壁과 東長壁은 안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바닥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데,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요강의 有無는 확인할 수 없었다. 副葬遺物은 없으며, 관못 9점만 출토되었다.

2)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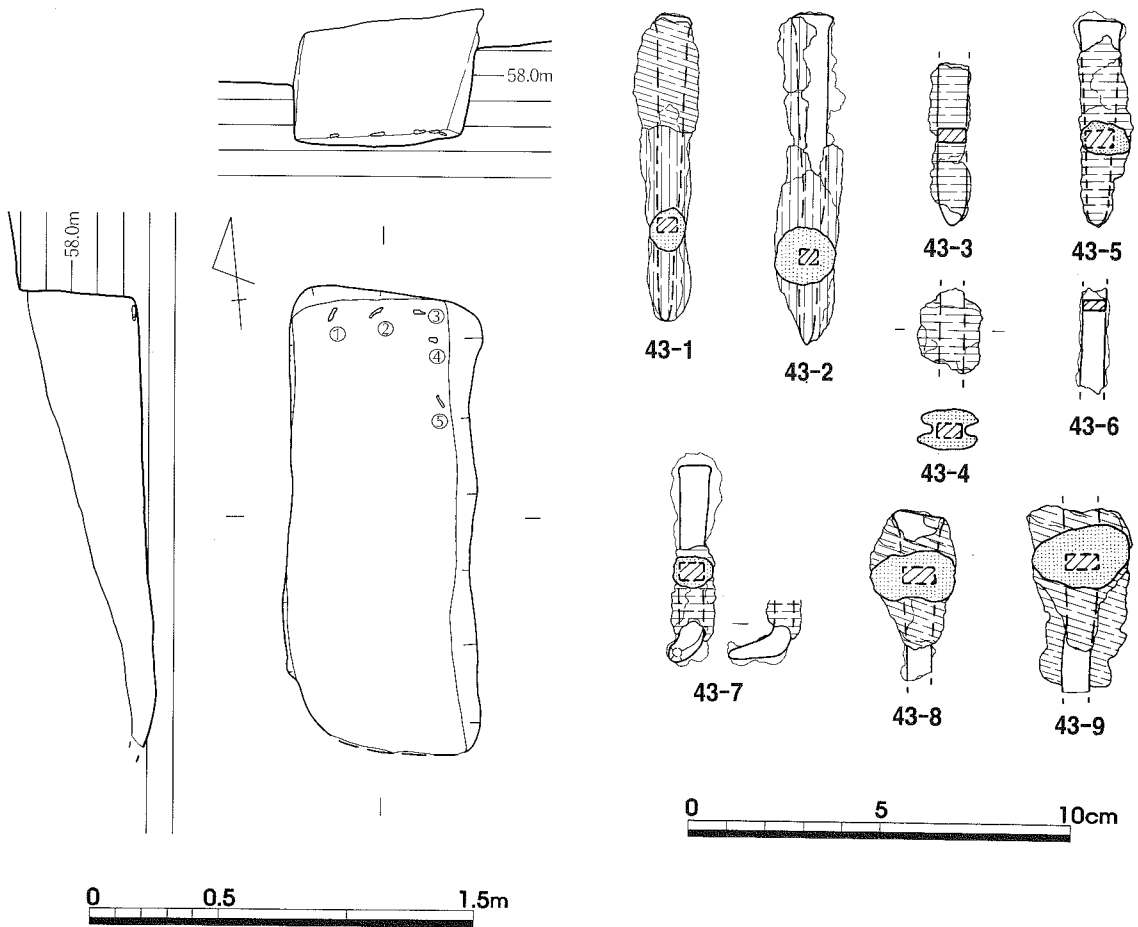
(1) 관못(圖面36-43, 圖版 59-2)

총 9점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4점만 완형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결실된 상태이다. 목질은 1점을 제외하고 모두 부착되어 있다. 圖面 36-43-1과 圖面 36-43-2에 부착된 목질은, 방향과 범위에서 각각 2부분으로 구분된다. 관못의 세부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36-43-1	59-2	①	8.0	1.0	0.5	13	완형. 목질부착.
-43-2		②	8.6	1.1	0.5	15	완형. 목질부착.
-43-3		③	(4.2)	0.8	0.4	3	머리 결실. 목질부착.
-43-4			(2.2)	0.6	0.4	3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부착.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43-5	59-2	④	5.4	1.1	0.5	9	완형. 목질부착.
-43-6			(2.8)	0.6	0.3	2	머리와 뿌리 결실.
-43-7		⑤	5.2	0.8	0.5	7	완형. 목질부착. 뿌리 부분이 휜.
-43-8		내부 Tr.	(4.9)	0.9	0.5	16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부착.
-43-9			(4.4)	1.3	0.5	10	뿌리 결실. 목질부착.

* ()는 잔존치



圖面36. 26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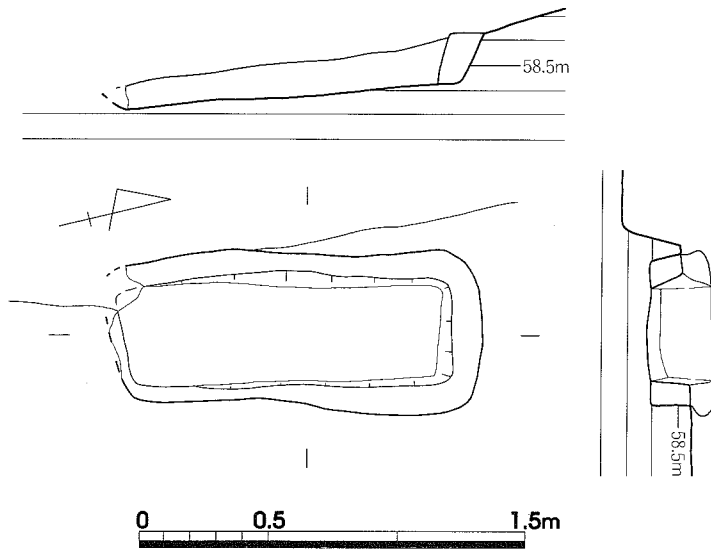
27. 27號墓

1) 遺構(圖面 37, 圖版 39-4~40-2)

발굴구역의 북쪽 끝 지점(해발 58m 정도)에 위치하며, 서쪽에는 28·29호가, 남쪽에는 26호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삭평과 시굴 trench로 인해 南短壁이 일부 유실되었다. 墓壙線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강토의 범위도 함께 확인되었기 때문에, 묘광의 上部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삭평되었다고 판단된다. 묘광의 길이는 145cm, 너비는 60cm, 깊이는 20cm이고, 主軸方向은 N-13°-E이다.

内部土(圖版 39-3)는 補强土와 封土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지토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얇게 깔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토는,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는 木棺을 안치하였으며,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의 크기는 125×4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하였고, 바닥도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圖面37. 27호묘 유구

28. 28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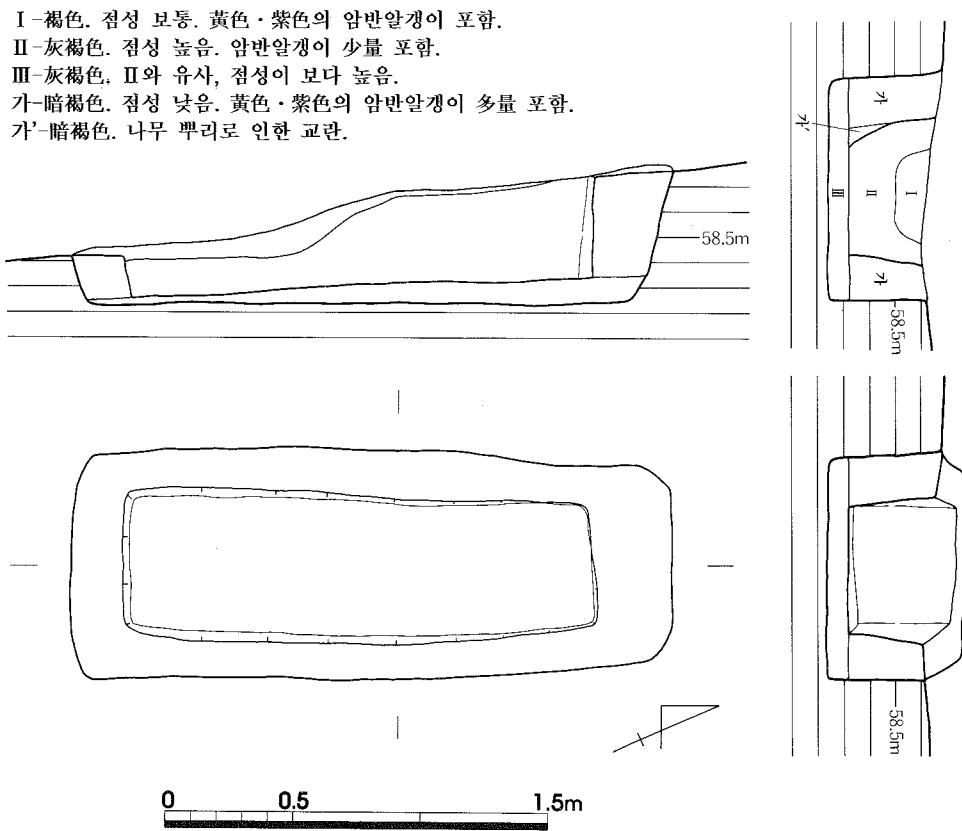
1) 遺構(圖面 38, 圖版 40-3~41-2)

발굴구역의 북쪽 끝 지점(해발 58m 정도)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29호가, 동쪽에는 26·27호가 인접해 있다. 表土를 제거하자 바로 묘광이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묘

광의 길이는 234cm, 너비는 90cm, 깊이는 51cm이고, 主軸方向은 N-24°-E이다.

토층(圖版 40-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内部土는 크게 整地土와 補强土, 封土로 구분된다. 내부토는, 모두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토는 10cm 이하의 두께로 깔았는데, 북쪽이 약간 두껍게 깔렸다. 보강토의 높이는 대체로 35cm 이하이고, 봉토는 함몰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부에는 목관을 안치하였으며, 보강토로 볼 때 목관의 크기는 185×5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長壁은 거의 수직으로, 短壁은 약간 안쪽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였다. 바닥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출토유물은 없다.



圖面38. 28호묘 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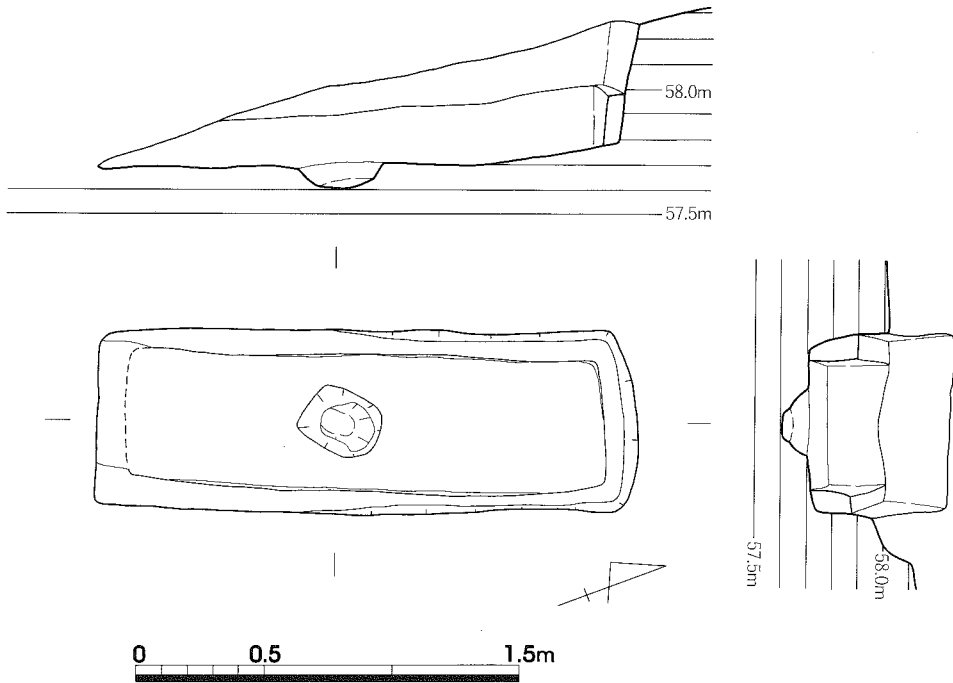
29. 29號墓

1) 遺構(圖面 39, 圖版 41-3~42-2)

발굴구역의 북쪽 지점(해발 58m 정도)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28호가, 동쪽에는 26·27호가, 서쪽에는 31호가 인접해 있다. 墓塋은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73cm, 깊이 47cm이고, 主軸方向은 N-21°-E이다.

内部土(圖版 42-1)는 크게 補强土와 封土로 구분되며, 모두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층에서는 整地土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얇게 깔았을 가능성도 있다. 내부에는 木棺을 안치하였으며,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의 크기는 185×5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거의 수직으로 掘鑿하였다. 바닥은 대체로 수평을 이루나, 북쪽이 약간 높은 편이다. 南短壁은 사평으로 인해 일부 유실되었다. 묘광의 가운데에는 길이 30cm, 너비 25cm, 깊이 10cm 규모의 腰坑이 설치되어 있다. 요갱의 평면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출토유물은 없다.



圖面39. 29호묘 유구

30. 30號墓

1) 遺構(圖面 40, 圖版 42-3~43-3)

말굴구역의 북서쪽 지점(해발 56m 지점)에 위치하며, 북쪽에는 柱穴群1과 31호가, 동남쪽에는 16·17호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묘광의 아래쪽(남쪽)은 나무뿌리 등으로 인해 완전히 교란된 상태였으나, 위쪽(북쪽)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72cm, 너비 72cm, 깊이 19cm이고, 주축방향은 N-32°-E이다.

土層에서, 内部土는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크게 구분되며, 모두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지토는 10cm 이하의 두께로 깔았으며, 북쪽이 낮고 남쪽으로 오면서 두꺼워진다. 보강토의 높이는 10cm 이하이며,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내부에 안치된 목관의 크기는 145×50cm 정도로 추정된다.

남아 있는 묘광의 깊이가 알아 단정할 순 없지만, 墓壙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굴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데, 북쪽이 높고 남쪽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진다. 묘광의 가운데에는 길이 21cm, 너비 14cm, 깊이 5cm 정도의 腰坑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요갱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부장유물은 1점도 없으며, 관못만 3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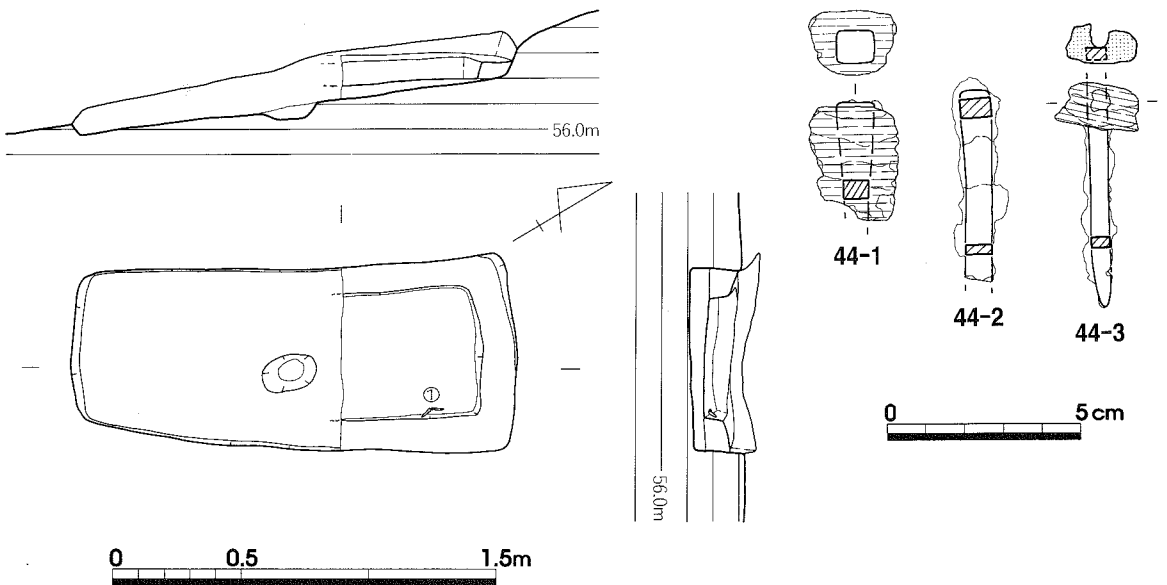
2) 遺物

(1) 관못(圖面 40-44, 圖版 59-3)

총 3점이 출토되었는데, 3점 모두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 番號	圖版 番號	出土 位置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40-44-1	59-3	①	(3.0)	1.0	0.9	6	뿌리 결실. 목질부착.
-44-2			(5.0)	0.8	0.5	6	뿌리 결실.
-44-3			5.7	0.5	0.4	4	완형. 목질부착.

* ()는 잔존치



圖面40. 30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31. 31號墓

1) 遺構(圖面 41, 圖版 43-5~44)

발굴구역의 북서쪽 지점(해발 58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는 28·29호가, 남쪽에는 주혈 군1과 30호가 인접해 있다.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墓壙이 확인되었으며,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묘광의 규격은 길이 205cm, 너비 90cm, 깊이 83cm이고, 主軸方向은 N-23°-E이다.

土層에서 확인된 内部土는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크게 구분된다. 봉토에는 割石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쪽에서만 확인되었다. 割石의 크기는 대체로 20×20cm 정도이다. 정지토는 두께 10cm 정도로 깔려 있는데, 북쪽보다 남쪽이 두껍다. 보강토의 높이는 35cm 이하이며, 내부에 안치된 목관의 크기는 170×4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은 안쪽으로 완만히 경사지는 형태로 굴착하였으며, 北短壁의 아래쪽은 整地과정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깊게 파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의 가운데에는 길이 35cm, 너비 18cm, 깊이 5cm 정도의 腰坑이 설치되어 있다. 요강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내부에서 板狀鐵器 1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청동손가락 1점과 관못 4점, 관상철기 1점 등 총 6점이다.

2) 遺物

(1) 靑銅손가락(圖面 42-45, 圖版 59-1, 出土位置 ①)

東長壁의 보강토 상부에서 출토되었는데, 장벽의 가운데 부분에서 남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곳에 있었다. 출토될 때부터 匙部의 절반 이상이 결실된 상태였으며,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자루는 직선적이며, 끝부분은 완만한 곡선을 가지게 처리되었다. 시부의 단면형태는 半圓形이며, 가운데가 얇고 兩端으로 갈수록 두꺼운 편이다. 자루의 단면형태는, 匙部쪽에서는 장방형이나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 板狀으로 변화한다. 殘存長 cm, 匙部最大幅 cm, 자루最大幅 cm, 자루最大厚 cm, 重量 24g.

(2) 板狀鐵器(圖面 42-46, 圖版 59-5, 出土位置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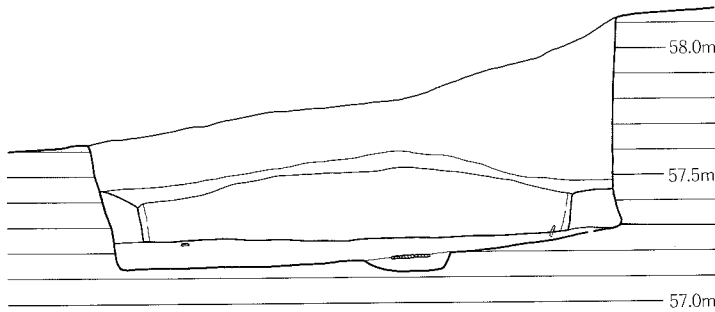
腰坑에서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3片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完形으로 복원되었다. 철녹이 일부 형성되어 있으며, 목질과 유기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평면형태는 細長方形이고, 양쪽 長邊은 직선적이다. 한쪽 短邊은 원형으로 처리되었으며, 다른쪽 短邊은 凹자상으로 처리되었다. 두께는 전체적으로 균일하다. 全長 17.2cm, 最大幅 3.5cm, 厚 0.3cm, 重量 100g.

(3) 관못(圖面 42-47, 圖版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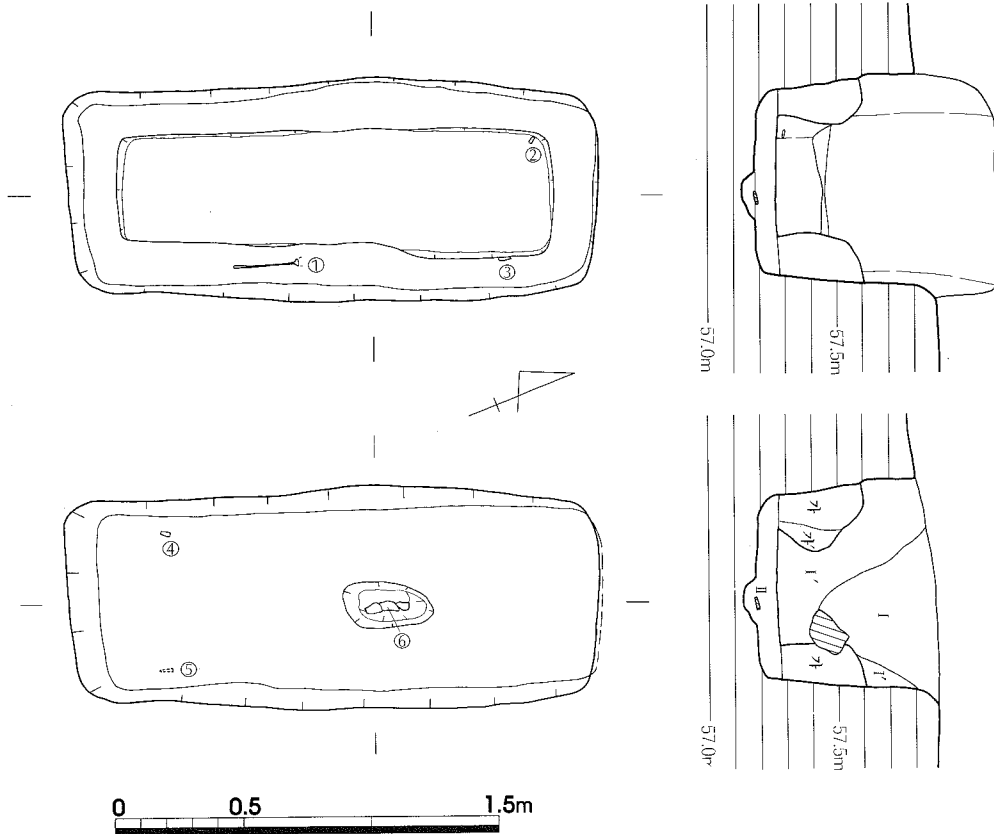
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1점만 완형이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番號	圖版番號	出土位置	規格(cm, g)				形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42-48-1	59-2	②	10.5	0.9	0.6	22	완형. 목질부착. 뿌리 부분이 휜.
-48-2		③	(5.3)	0.9	0.7	12	뿌리 결실. 목질부착.
-48-3		⑤	(4.6)	1.0	0.6	12	뿌리 결실.
-48-4		④	(6.3)	0.8	0.7	13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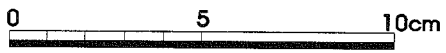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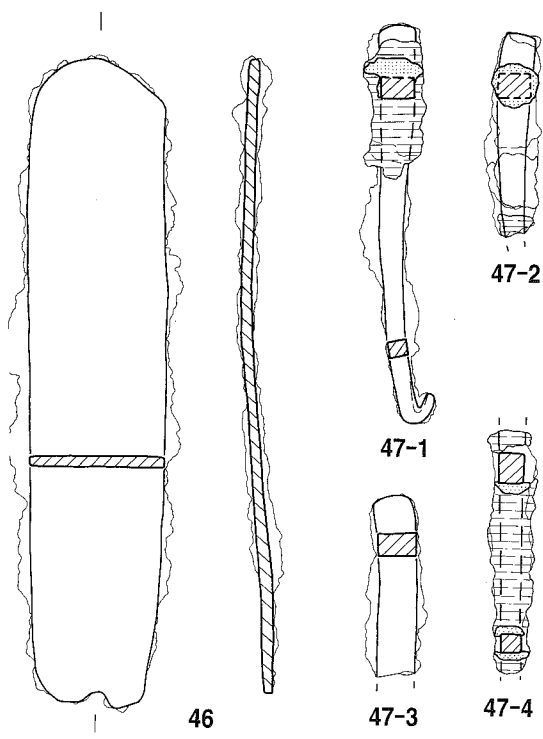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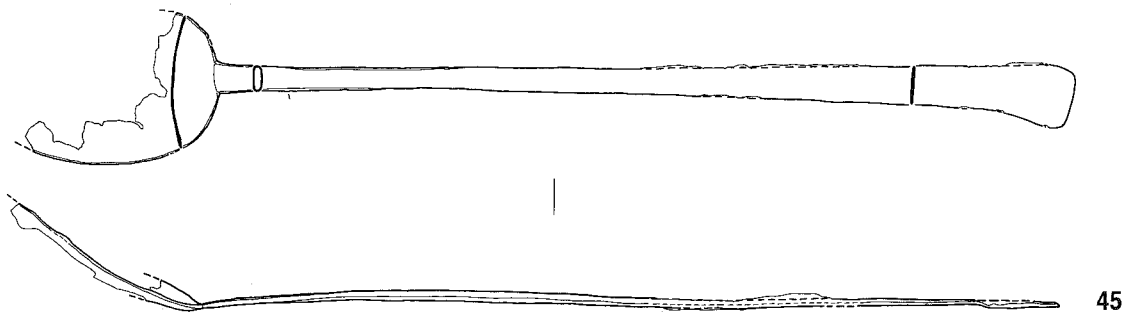
* ()는 잔존치



I-黑褐色. 점성 낮음.
 黄色·紫色 암반덩어리 多量 포함.
 20×25cm정도 크기의 割石 포함.
 I'-I 과 유사. 암반알갱이 포함.
 II-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紫色 암반알갱이 포함.
 가-暗褐色. 점성 낮음.
 黄色·紫色 암반알갱이 多量 포함.
 가'-暗褐色. '가'와 유사하나, 약간 밝고, 암반알갱이가 적음.



圖面41. 31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圖面42. 31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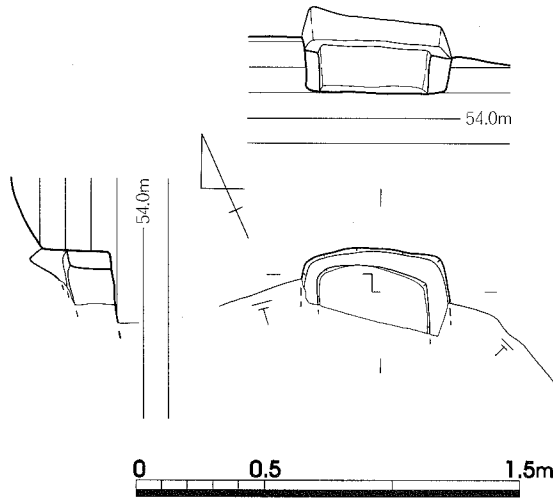
32. 32號墓

1) 遺構(圖面 43, 圖版 45-1~4)

발굴구역의 서북쪽 지점(해발 54m 정도)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10호가, 남동쪽에는 7·18호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나무의 이식작업으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다. 묘광은 北短壁 쪽만 일부 남아 있었는데, 抹角長方形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규모는, 현재길이 29cm, 너비 57cm, 깊이 31cm이며, 主軸方向은 N-23°-E이다.

土層에서 整地土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補強土와 封土만 확인되었다. 보강토의 높이는 20cm 정도이고, 보강토로 추정할 수 있는 木棺의 너비는 45cm 정도이다.

묘광은 거의 수직으로 掘鑿하였으며, 바닥은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圖面43. 32호묘 유구

33. 33號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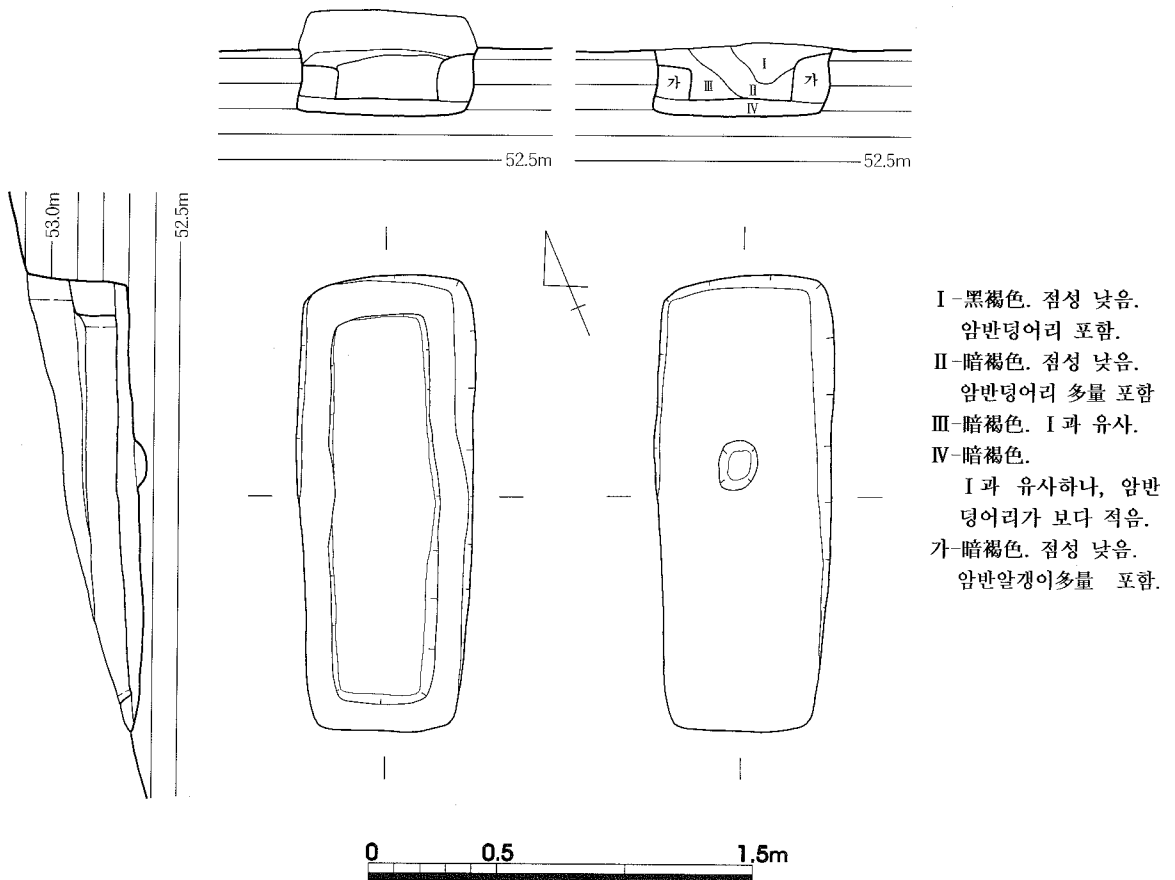
1) 遺構(圖面 44, 圖版 45-5~46-3)

발굴구역의 서쪽에 위치하며, 동북쪽에 15호가, 동남쪽에 2·3호가 인접해 있다.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墓壙이 확인되었는데,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다. 南短壁의 上部는 비교적 많이 삭평된 상태였다. 묘광의 길이는 180cm, 너비는 68cm, 깊이는 40cm이고, 主軸方向은 N-22°-E이다.

內部土는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크게 구분된다. 정지토는 10cm 이하의 두께로 비교적 고르게 깔았으며, 봉토는 목관의 붕괴로 인한 함몰양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강토는 대체로

20cm 이하의 높이를 가진다.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목관은 155×40cm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묘광은 거의 수직으로 굴착하였으나, 兩長壁은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어가는 형태(오목렌즈, 奧壁)이다. 묘광의 가운데에는 길이 20cm, 너비 15cm, 깊이 5cm 정도의 腰坑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출토된 유물은 없다.



圖面44. 33호묘 유구

34. 34號墓

1) 遺構(圖面 45, 圖版 46-5~47)

발굴구역의 가운데 지점에서 북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위치한다. 서쪽에는 13호가, 동쪽에는 17호가 인접해 있다. 墓壙은 표토를 제거하자 바로 확인되었는데, 上部와 北短壁쪽은 現代墓(水安 金氏墓)로 인해 파괴된 상태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抹角長方形이며, 묘광의 추정

길이는 190cm, 너비는 69cm, 깊이는 50cm이고, 主軸方向은 N-4°-E이다.

土層에서 확인된 内部土는 整地土와 補強土, 封土로 크게 구분된다. 내부토는, 모두 묘광의 掘鑿과정에서 파낸 흙을 다시 이용하였는데, 정지토와 보강토·봉토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정지토는 대체로 10cm 이하의 두께로 비교적 고르게 깔았으며, 보강토의 높이는 대체로 15cm 이하이다. 보강토의 범위로 볼 때, 안치된 木棺의 規模는 150×35cm 정도로 추정된다.

묘광의 兩長壁은 거의 수직으로, 南短壁은 완만하게 內傾하는 형태로 굴착되었다. 묘광의 가운데에는 길이 21cm, 너비 20cm, 깊이 7cm 규모의 腰坑이 설치되어 있었다. 요갱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없다. 출토유물은 土器瓶 1점 뿐이다.

2) 遺物

(1) 土器瓶(圖面 45-48, 圖版 59-7, 出土位置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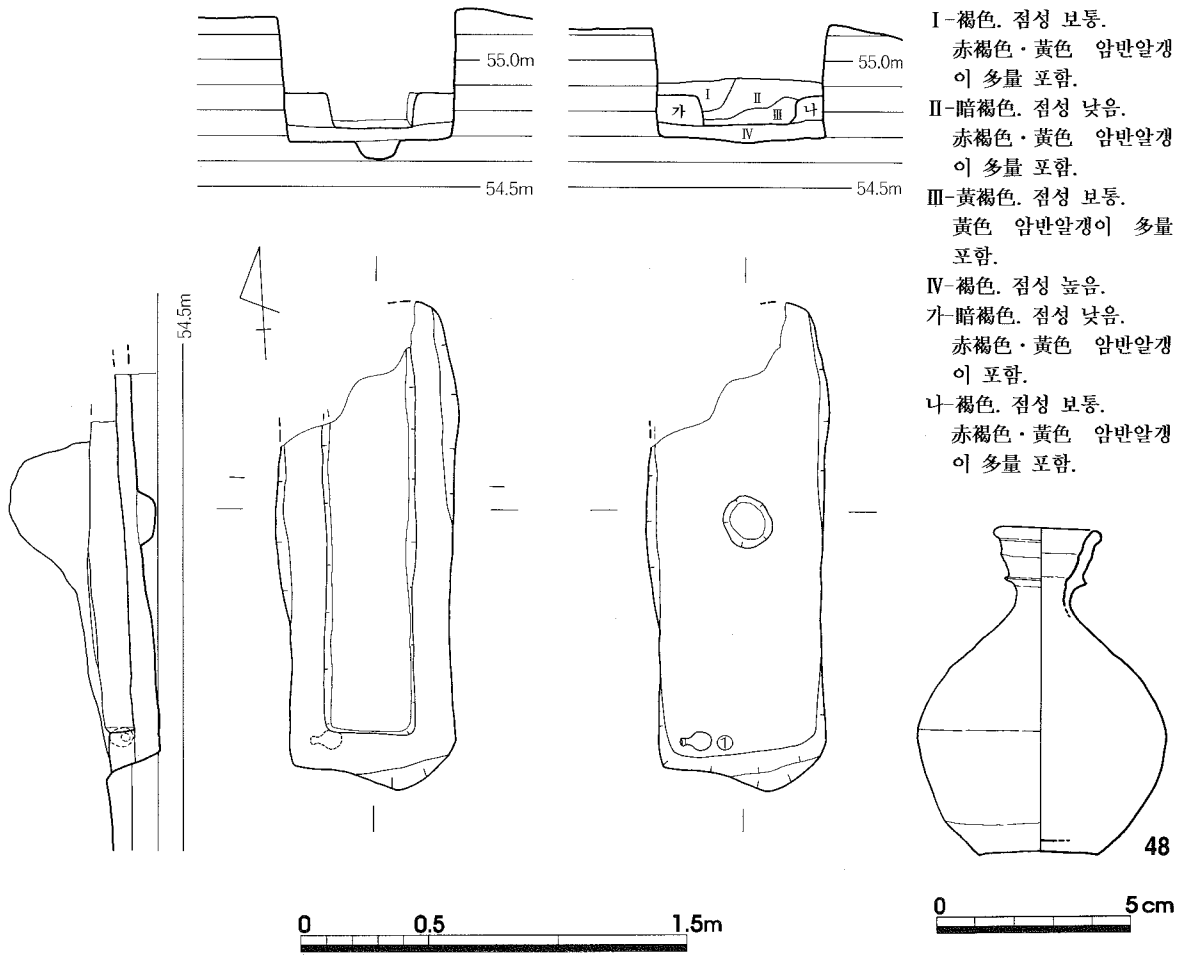
暗灰色의 陶質土器로 完形이다. 口緣은 두툼하게 처리되었으며, 頸部에는 1조의 狹窄한 突帶가 돌아간다. 胴體는 球形에 가까우며, 바닥은 平底이다. 外面은 부분적으로 박리되었는데, 박리된 부분은 명회색을 띤다. 외면은 회전물손질로 整面하였으며, 동체 하방에서는 깎기의 흔적도 확인된다. 胎土에는 석영과 운모가 소량 혼입되었다. 器高 12.8cm, 口徑 3.7cm, 底徑 4.5cm, 胴最大徑 9.6cm.

35. 柱穴群 1(圖面 46, 圖版 48~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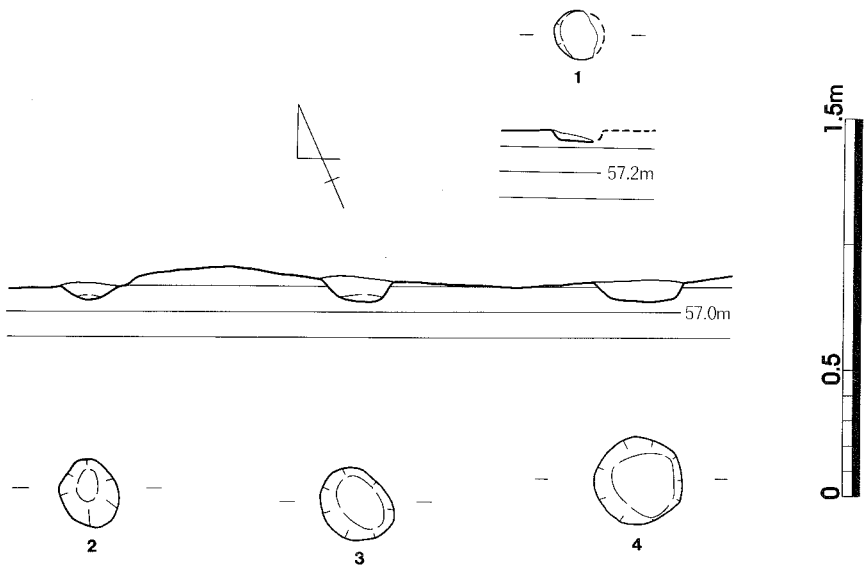
밭굴구역의 북서쪽 지점(57m)에 위치한다. 북쪽에는 31호가, 남쪽에는 30호가 인접해 있다. 서쪽은 谷部이고, 동쪽은 수목의 이식작업으로 파괴된 지점이다.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총 4개의 柱穴이 확인되었는데, 4개의 주혈 모두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에 가깝다.

圖面46-2~4의 柱穴은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혈 사이의 간격은 1~1.1m 정도이다. 圖面46-1 주혈은 다른 주혈들과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배치상태로 볼 때, 다른 주혈들과는 시기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만약, 동일한 시기라고 한다면, 건축물의 평면형태는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주혈만으로는 정확한 양상을 추정할 수 없지만, 이 주혈군은 2개의 건축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혈의 내부토는, 모두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圖面 46-1은 일부가 교란된 상태로, 현재규모는 16×20cm 정도이고, 깊이는 5cm 이하이다. 圖面 46-2는 24×28cm 정도의 크기로 깊이는 6cm 이하이다. 圖面 46-3은 25×30cm 정도의 크기로 깊이는 10cm 정도이다. 圖面 46-4는 34×34cm 정도의 크기로, 깊이는 8c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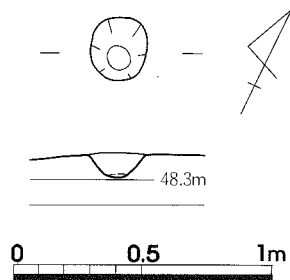
圖面45. 34호묘 유구 및 출토유물



圖面46. 주혈 1 유구

36. 柱穴群 2(圖面 47, 圖版 49-2~4)

발굴구역의 남쪽 끝 지점(해발 48m 정도)에 위치하며, 북동쪽에는 23·24호가 인접해 있다. 표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주혈 1개만 확인되었다. 주혈의 내부토는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된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22×26cm이고 깊이는 9cm 정도이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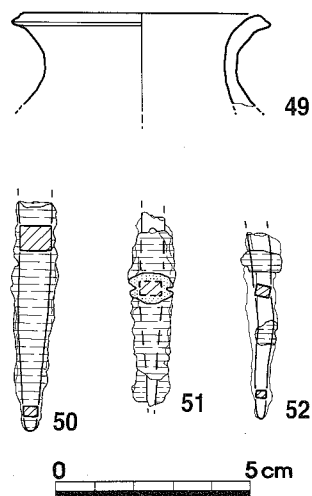


圖面47. 주혈 2 유구

37. 地表採集 遺物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은 土器 1점과 관못 3점 등 총 4점이다. 먼저, 채집된 土器(圖面 48-49, 圖版 59-9)는 土器瓶의 口頸部片으로, 약 1/3 정도만 잔존한다. 口緣은 완만하게 외반하며, 口脣은 '凹'자상으로 처리되었다. 外面에는 황녹색의 자연유가 두텁게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산화박리되었다.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태토에는 미세한 석영과 장석이 소량 혼입되었다. 소성은 보통이다. 殘存高 2.4cm, 復元口徑 5.9cm.

관못은 3점으로, 3점 모두 부분적으로 결실되었다. 개개 명세는 아래의 표와 같다.



圖面48. 지표수습유물

圖面 番號	圖版 番號	規格(cm, g)				形 狀
		全長	最大幅	最大厚	重量	
48-50	59-10	(6.0)	0.9	0.7	7	머리 결실. 목질부착.
48-51		(5.0)	0.6	0.4	5	머리와 뿌리 결실. 목질부착.
48-52		(4.8)	0.5	0.7	3	머리 결실. 목질부착.

* ()는 잔존치

IV. 遺構와 遺物의 檢討

범어유적에서 조사된 遺構 가운데, 柱穴群 2개소를 제외한 34기의 규격과 출토유물을 제시한 것이 아래의 表-1이다.

유구 번호	규격	주축 방향	자기류			토기류				청동기류				철기류				
			발	접시	중지	병	단경호	옹	장군	손가락	첫가락	완	못	과편	관상철기	검형철기	관못	
1	217×103×32	N15E	1	1		1				1								
2	(210)×79×68	N20E																
3	(211)×90×64	N37E																
4	194×108×55	N2E																
5	228×84×58	N33E																
6	220×55×49	N9E								1	1조				1			
7	182×50×23	N5E															14	
8	200×77×60	N22E		1						1								
9	(109)×68×43	N11E															11	
10	(144)×58×23	N24E															13	
11	214×69×48	N7E				2		1		1				1	1			
12	201×77×23	N18E																
13	200×60×51	N21E	1			2				1		1	1		1		12	
14	(143)×61×27	N28E													1			
15	218×80×39	N8E								1						(1)	14	
16	202×67×29	N20E	(1)	(2)	1					1	1조						7	
17	231×92×50	N10E							1						1		16	
18	200×57×50	N5W																
19	(165)×43×24	N9E																
20	130×59×13	N4W																
21	196×35×60	N3W																
22	214×53×29	N20E																
23	209×72×48	N16E																
24	215×105×40	N18E															1	
25	218×83×69	N17E					1			1								
26	215×105×40	N17E															9	
27	(181)×72×45	N5E																
28	234×90×51	N24E																
29	210×73×47	N21E																
30	172×72×19	N32E															3	
31	205×90×83	N23E								1					1		4	
32	(29)×(57)×31	N23E																
33	180×68×40	N22E																
34	190×69×50	N4E				1												
계			2(1)	2(2)	1	6	1	1	1	9	2조	1	1	1	1	6	1(1)	103

表-1. 高麗墓의 規格과 出土遺物. ()는 추정.

이 34기 가운데 33기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造營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1기(2호)는 墓壙의 形態와 掘鑿方法, 封土에 조개(굴)를 혼입한 점, 人骨이 출토된 점 등에서 다른 유구와는 상당한 시기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출토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2호묘의 정확

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호는, 잠정적으로 近代墓로 분류하기로 하며, 검토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考古學界에서 高麗墓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고, 범어유적에서 조사된 유구와 출토된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검토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遺構와 遺物로 나누어 간단히 분류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遺構의 상대연대를 추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遺構

유구의 속성으로는 墓壙의 面積과 平面形態, 主軸方向, 腰坑과 壁龕, 木棺의 有無, 墓壙의 掘鑿方法, 遺物의 副葬形態 등이 있다.

1) 墓壙의 面積과 平面形態

墓壙의 面積(크기)은 길이와 너비로 결정³⁾된다. 33기 가운데, 계측 가능한 유구의 길이×너비의 값을 나타낸 것이 表-2이다. 표에 나타낸 것처럼, 0.9m² 이하를 가 그룹으로, 1.0~1.9m²를 나 그룹, 2.0m² 이상을 다 그룹으로 설정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길이/너비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계측하여 나타낸 것이 表-3이다. 표와 같이, 길이/너비의 값 3.2를 기준으로, 3.3이상을 A그룹으로, 3.2이하를 B그룹으로 설정한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길이/너비의 값이 클수록 세장하기 때문에, A그룹이 B그룹보다 묘광의 길이가 긴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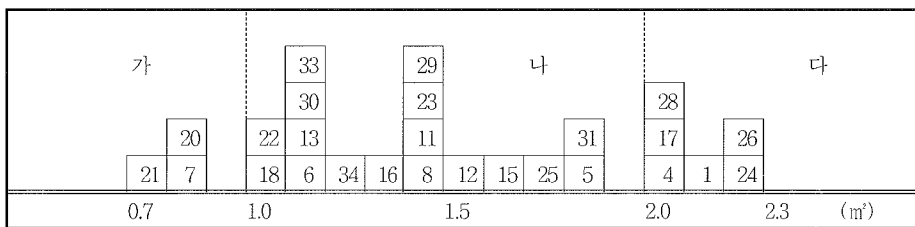


表-2. 묘광면적에 따른 분류(□안의 숫자는 유구번호)

묘광의 면적에 따른 분류와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를 조합한 것이 表-4이다. 이 가운데 20호는, 묘광의 규모와 발굴구역에서의 위치로 볼 때, 小兒用 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며, 묘광의 면적과 평면형태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묘광의 면적이 넓은 것은 길이/너비의 값이 작고, 묘광의 면적이 좁은 것은 대체로

3) 물론, 깊이도 묘광의 크기를 결정하는 속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연적·인위적인 삭평으로 인해 정확한 형상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깊이는 보조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겠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속성을 조합하여 A가類를 I式으로, A나類를 II式으로, B나類를 III式으로, B다類를 IV式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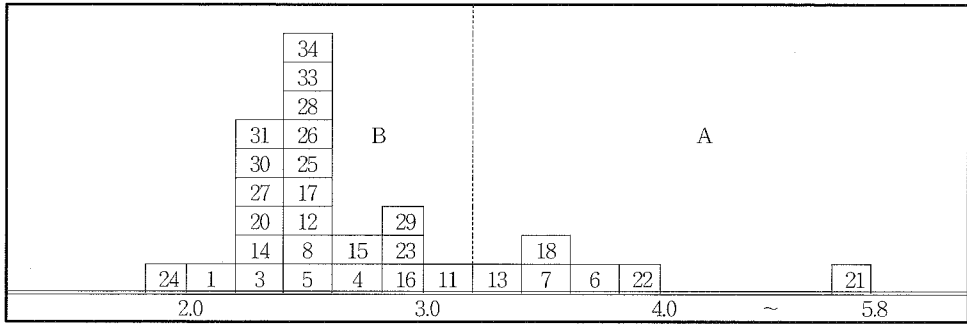


表-3. 길이/너비에 따른 분류(□안의 숫자는 유구번호)

	가	나	다
A	7호, 21호	6호, 13호, 18호, 22호,	
B	20호	5호, 8호, 11호, 12호, 15호, 16호, 23호, 25호, 29호, 30호, 31호, 33호, 34호	1호, 4호, 17호, 24호, 26호, 28호

表-4. 면적과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

2) 主軸方向

주축방향은 枕向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된 33기 가운데 침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동곳이 출토된 13호가 유일한데, 동곳이 출토된 위치로 볼 때 北枕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다른 유구에서는 침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이 대체로 동일하게 남쪽에 부장되어 있다는 점과 경사면에서 아래쪽으로 머리를 안치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북침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크게 보면 모든 유구의 침향이 북쪽을 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유구에 따라 북쪽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조금씩 틀려있음을 알 수 있다. 33기의 주축방향을 계측하여 제시한 것이 表-5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축방향은 현재의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북쪽을 중심으로 N5° W와 N37° E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분류하면, 크게 3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즉, N5° W~N10° E를 가 그룹으로, N11° E~N25° E를 나 그룹으로, N26° 이상을 다 그룹으로 설정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유구는 3호와 18호로, 42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도차이를 단순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 큰 차이라고 생각된다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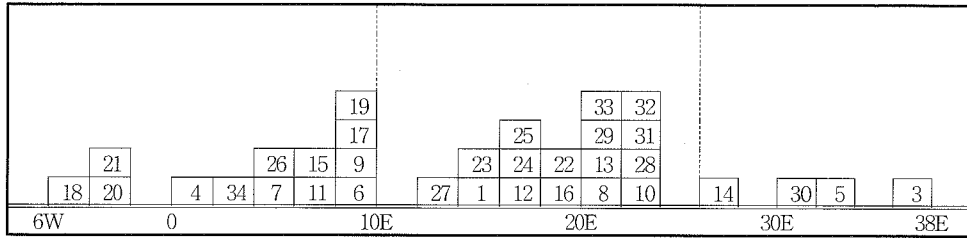


表-5. 주축방향에 따른 분류(□안의 숫자는 유구번호)

당시 침향을 북쪽으로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크게 2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나침반을 사용하여 침향을 결정하였을 경우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기장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연동하여 자북도 일정하게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墓의 축조 시기에 따라, 자북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나침반이 없을 경우인데, 나침반이 없다 하더라도 태양의 일출방향을 기준으로 북쪽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태양의 일출방향이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북쪽도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축의 경사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변화는 없게 된다.

이 가운데 後者の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울산지역의 현재 磁北은 眞北에서 서쪽으로 7도 정도 기울어 있다⁶⁾. 따라서, 자북을 기준으로 한 주축방향을 진북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진북을 중심으로 N12° W와 N30° E 사이에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태양의 일출방향은, 춘분과 추분에는 正東이고, 하지와 동지에는 남·북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하나, 그 각도가 20도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⁷⁾된다. 그런데, 주축방향이 진북에서 20도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다수 있으며, 주축방향이 동쪽으로 치우친 유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중국에서 나침반이 발명된 시점이 기원전 1세기대인 점⁸⁾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에는 어

- 4) 장사를 치를 때 棺이 놓이는 방향을 가르키는 용어로 坐向이 있다. 좌향은 16방위에서 36방위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좌향이 그만큼 정확성을 요구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卞光錫, 1999, 『禦侮將軍 前 萬戶 鄭應甲 墓誌石과 관련 인물 기록』, 『蔚山史學』 8.
- 5) 한국지구과학회 편저, 1998, 『지구과학개론』, 교학연구사. pp 78-80.
- 6) 지자기의 편각은 측정지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휴전선 부근에서는 西偏 7° 30' 이고, 제주도 남단에서는 西偏 5° 30' 이다. 그런데 울산 부근은 대체로 西偏 7° 정도이므로, 여기서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겠다.
- 7) 建設部 國立地理院, 1990, 『地磁氣測量에 關한 研究』. p64의 磁器偏角圖 참조.
- 8) 보고자의 능력부족으로 하지와 동지때의 일출방향이 동쪽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침반을 이용해 간단히 측정해 본 결과 대체로 正東에서 20도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정도 나침반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의 침향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축방향의 차이는 시기차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3) 木棺과 腰坑·壁龕

먼저, 목관의 사용유무는 土層에서 확인되는 보강토의 존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며, 관뭇이 출토될 경우 더욱 명확해진다. 토층과 관뭇을 통해 목관이 안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유구는 총 30기이고, 목관이 안치되지 않은 유구는 3기(19·21·22호)에 불과하다.

그런데, 목관을 안치한 묘와 안치하지 않은 묘는, 内部土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목관을 안치한 묘는, 대부분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파낸 흙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목관을 안치하지 않은 묘의 내부토는, 굴착과정에서 파낸 풍화암반이 아니라 비교적 입자가 고운 흙이었다. 또한, 목관을 안치하지 않은 유구에서는 부장품이 1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굴구역의 아래쪽(남쪽)에 위치하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腰坑은 모두 묘광의 가운데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평면형태에 따라 원형, 타원형, 마름모형, 사각형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요갱의 평면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정형화된 형태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세분하지는 않기로 하겠다.

또한, 요갱에서 판상철기 혹은 검형철기가 출토된 경우와 출토되지 않은 경우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요갱에 부장품이 없는 것은 원래 부장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부식되어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요갱의 有無와 요갱에서 출토된 부장품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벽감은 2기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모두 서쪽 장벽의 남쪽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17호의 벽감(?)은 시굴트렌치로 인해 상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25호와 형태적으로 동일한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벽감도 有無만으로 분류하기로 하겠다.

4) 墓壙의 掘鑿方法

묘광의 굴착방법은, 묘광의 벽면에 남아 있는 掘鑿具痕⁹⁾과 整地具痕¹⁰⁾을 통해서 추정해 볼

8) 그리스에서는 BC. 6C에 천연자석을 발견하였고, 중국에서는 BC. 1C 以前에 平板 위에서 회전하는 순가락 모양의 천연자석을 이용하여 간단한 나침반을 고안하였다고 한다.

李裕大 外, 1994, 『教養地球科學』, 學文社, p. 51.

9) 묘광의 벽면에 남아 있는 도구의 흔적은, 일반적으로 일괄하여 掘地具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굴지구관 용어는 범칭이기 때문에,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掘地作業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무덤과 주거지 등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掘鑿作業과 농경지의 확보를 위해 땅을 파는 開墾作業,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파는 起耕作業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掘地具도 굴착구와 개간구, 기경구를 포괄하는 범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덤을 축조하기 위한 掘鑿作業에 사용되는 도구를 掘鑿具로 지칭하고자 한다.

수 있다. 물론, 조사된 33기의 유구에서 모두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유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일부 유구에서는 도구흔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먼저, 묘광의 전체적인 굴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묘광은 대체로 兩短壁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굴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묘광의 너비가 대체로 1m 이하란 점과 평면형태가 대체로 세장한 편이라는 점, 경사면에 위치한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묘광의 벽면에 남아 있는 도구흔에 대해서 살펴보자. 묘광에 남아 있는 도구의 흔적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단벽에서만 확인되는 것으로, 폭이 4cm 정도이면서 단면형태가 ‘△’ 모양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폭이 7cm 정도이면서, 평면형태가 ‘U’ 모양인 도구흔이다. 이 가운데 後者는 장벽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단벽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이 두가지 도구흔 가운데 폭이 좁은 것은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남은 것으로, 폭이 넓은 것은 1차적으로 묘광을 굴착한 다음, 벽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¹¹⁾. 따라서, 前者를 掘鑿具痕으로, 後者를 整地具痕으로 명명하기로 하겠다¹²⁾.

마지막으로 굴착과 정면과정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굴착구흔을 통해 볼 때, 묘광의 굴착작업에 사용된 도구는 폭(4cm 前後)이 좁고 길면서, 단면형태가 圓形 또는 半圓形인 날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의 곡괭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구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지구흔은 폭이 7cm 정도이면서 斜方向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귀와 같은 형태의 도구가 벽면의 정리작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묘광의 굴착방법도 굴착과 정면과정을 기준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굴착구를 이용해 묘광을 파는 과정은 대체로 동일하나, 이후 벽면을 정리하는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벽면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와 장벽만을 정리한 경우, 장벽과 한쪽 단벽 혹은 모든 벽면을 정리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양호한 자료가 많지 않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상만 파악해 두기로 하겠다.

5) 副葬形態

관뭇을 제외한 부장품이 확인된 유구는 총 10기이다. 부장품은 동뭇을 제외한 모두가 묘광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쪽에서만 출토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침향이 북쪽으로 판단되

10) 여기서는 掘鑿具痕과 整地具痕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땅을 파는 작업에서 생긴 흔적을 굴착구흔으로, 1차적으로 땅을 판 다음 벽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정지구흔으로 보고자 한다. 양자를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後述하는 것처럼 사용된 도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11) 현장에서 굴착구흔과 정지구흔은, 폭과 길이, 방향 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12) 굴착구흔 가운데 일부는, 정지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掘鑿具를 이용해 기본적으로 묘광을 판 다음에, 벽면을 굴착구로서도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굴착구와 정지구를 구분은, 사용된 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므로, 유물은 발치쪽에 부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부장되는 위치는 동일하지만 부장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분하기에는 개체수가 너무 적으므로, 여기서는 보강토 상부에 부장된 경우(1·6·13·31호)와 보강토 내부(8·11·15·16·17·34호)에 부장된 경우로만 분류하기로 하겠다. 이 가운데 13호는 「보강토 내부+보강토 상부」일 가능성도 있으나, 잠정적으로 보강토 상부로 분류하였다.

2. 遺物

출토된 유물은 재질에 따라, 磁器와 土器, 靑銅器, 鐵器로 나누어진다.

1) 磁 器

출토된 자기류는 모두 靑磁인데, 대접 3점, 접시 4점, 잔 1점으로 총 8점이다. 유구로 보면 전체 유구수가 33기(2호묘 제외)이고, 그 중 청자가 출토된 유구는 4(1호묘, 8호묘, 13호묘, 16호묘)기 이므로 전체에서 청자가 출토된 유구의 비율은 12%를 차지한다.

청자의 시기를 구분하는 속성으로 器形과 文樣, 色調, 記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발굴구역에서 출토된 청자 중 대접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각 유구에서 출토된 청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호묘에서는 대접과 접시가 1점씩 출토되었다. 대접은 동체가 사선으로 벌어지다 구연단에 서 직립하는 기형이다. 문양은 내면에 간략한 唐草文帶, 雲鶴文, 草花文이, 외면에는 圓文, 菊花文, 唐草文, 複蓮瓣文이 시문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기형 및 문양대를 가지는 유물로서는 靑磁象嵌雲鶴文己巳銘대접이 있는데, 유물에 기록되어 있는 己巳年을 두고 1269년¹³⁾과 1329년¹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접시는 무문양에 동하단부에서 각이져 사선방향으로 벌어지면서 구연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내면에 음각의 원문이 시문되어 있고, 유색은 푸른 빛을 띤다. 1호에서 출토된 대접과 접시가 지닌 이러한 특징들은 1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⁵⁾.

8호묘에서는 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접시의 내저면에는 螺旋形 문양이 백상감으로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조잡하고, 기내외면에는 빙열이 전혀 없으며, 기면이 고르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은 청자가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14세기 중반 이후라고 본다¹⁶⁾.

13호묘에서는 대접이 1점 출토되었다. 그 기형은 1호의 대접과 유사하나 문양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내면에만 국화문이 3곳에 시문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형이 유사한 것으

13) 鄭良謨, 1997,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p. 220.

14) 尹龍二, 1986, 「高麗陶磁의 變遷」, 『澗松文化』 3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pp. 89~90.

15) 鄭良謨, 1997, 註11) 앞의 책. pp. 270~272.

16) 정양모, 1998, 『고려청자』, 대원사. pp. 87~97.

정양모, 1997, 註11) 앞의 책. pp. 219~226.

로 보아 그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16호에서는 잔 1점이 내부에서 출토되었고, 16호묘 부장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3점 수습되었다. 즉, 대접 1점, 화형접시 1점, 각형접시 1점이 그것이다. 대접은 1호묘에서 출토된 대접과 기형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동체의 모양이 반원형에 가깝고, 내저원각도 없는 형태이다. 그러나 두 대접의 기형이 시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닌데, 더욱이 문양대가 유사하게 시문되어 있다. 각형접시는 靑磁象嵌菊花文己巳銘八角접시¹⁷⁾와 유사한데, 이러한 각형 접시는 일반적으로 13세기말에서 14세기초에 등장하였다고 본다¹⁸⁾.

청자의 시기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대접이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대접의 기형은 그 구연부가 직립 또는 약간 내경한다. 그리고 문양의 시문에서는 정교함이 떨어지고, 유색 또한 비색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으로 보아 본 유적의 시기가 청자문화의 전성기가 아닌 고려 후기 청자문화의 쇠퇴기인 13세기 후반 이후에서 14세기대로 추정된다. 기존의 발굴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시기로 추정되는 것은 충주 단월동의 토광묘 유적¹⁹⁾과 김해 화목동의 건물지 유적이 있다²⁰⁾.

2) 土 器

고려토기는 일반적으로 무늬가 없거나 단순화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청자가 고려 귀족들이 향유하던 문화라면, 토기는 서민이 생활용기로 주로 사용하였던 것이다²¹⁾.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인 청자문화에 가려 토기에 대한 형식분류, 제작기법 등 여러 부분에서의 연구가 미진하다.

발굴구역에서 출토된 토기는 병, 연질옹형토기, 파수부단경호, 장군 등 총 9점이다. 특히 瓶類는 구경부의 기형, 기벽의 두께, 동최대경의 위치 그리고 동최대경과 저경의 비율 등의 속성으로 편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유구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묘에서는 병이 1점 출토되었는데, 그 기형은 동중하위에 동최대경이 있으며, 동최대경과 저경의 차이가 크지 않다. 기벽에는 물레흔(?)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11호묘에서는 청자는 출토되지 않고 병, 精瓶, 연질평저옹 등 토기류만 출토되었다. 그 중 연질옹형토기는 충주 단월동(2차, 충주박물관)의 토광 1호묘에서 출토된 것과 구연단을 제외한 전체적인 기형이 유사하다. 그리고 병도 기벽이 두꺼우며, 동중하위에 동최대경이 있는 점 등 충주단월동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²²⁾. 정병은 와질 소성에 경부가 짧으며, 주구 위치에 구멍이 투공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병류는 고려 중기에는 청자와 청동기로 제작되었으

17) 鄭良謨, 1997, 주11) 앞의 책. p. 220.

18) 鄭良謨, 1997, 註11) 앞의 책. pp. 219~226.

19) 吉徑澤·李善喆,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忠州博物館. pp. 52~63.

20) 李映周·沈載龍·金一圭·金秀桓, 2000, 『金海 花木洞 遺蹟』, 慶星大學校博物館. pp. 21~28.

21) 윤용이, 1986, 註12) 앞의 책. p. 366.

22) 吉徑澤·李善喆, 1996, 註17) 앞의 책. p. 54.

나, 13~14세기에는 회백색의 연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²³⁾. 병은 구경부가 결실되어 확실하지 않으나 잔존형태는 1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17호묘에서는 장군이 1점 출토되었다. 장군의 형태는 측면 중 한쪽은 편평하여 세울 수 있으며, 다른 한쪽은 둥글다. 그리고 동외면 전면에 격자상의 타날문이 뚜렷하게 시문되어 있다. 이러한 토기장군은 주로 고려 후기에 제작되어 朝鮮 장군의 모체를 이룬다²⁴⁾.

25호묘에서는 파수부평저단경호 1점이 감실에서 출토되었다. 동중위에 파수가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고,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있으며, 동최대경과 저경의 비율이 2:1에 가깝다. 그리고 동중하위에는 타날흔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양이호는 고려말기 이후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다²⁵⁾.

34호에서는 소형병 1점이 출토되었다. 경부에 돌대가 1조 있으며,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있고, 동최대경과 저경과의 비율은 2:1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토기병의 일반적인 편년은 동최대경이 동상위에서 동하위로 내려올수록, 저경과 동최대경의 비율이 높을 수록 연대가 늦다. 이것을 바탕으로 본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병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기형이 있으나 공반유물과 비교해 보면 그 시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3) 靑銅器

출토된 청동유물은 청동순가락과 청동젓가락, 동곳, 청동완, 불명파편 등 5종류에 불과하고, 동곳과 완, 불명파편은 각각 1점씩, 젓가락은 2조만 출토되었다. 따라서, 청동유물의 분류는, 상대적으로 출토수량이 많은 순가락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동순가락은 끝부분의 형태를 기준으로 燕尾形과 半圓形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연미형을 A類로, 반원형을 B類로 설정한다. 그리고, 자루의 만곡도에 따라 세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A	B
가	11호, 16호	1호, 6호, 13호, 25호
나		8호(?), 15호(?), 31호

表-6. 청동순가락의 屬性 組合

개체수가 적으므로 곡선적인 것을 가類로, 직선적인 것을 나類로 설정한다. 이를 조합한 것이 表-6이다. 表에 나타난 것처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A가類를 I式으로, B가類를 II式으로, 나B類를 III式으로 설정한다.

다음은, 청동순가락의 제작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청동순가락은 일반적으로 鍛造品으로 설명²⁶⁾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외면에 남아 있는 鍛打痕이다. 아직까지 청동제품의 제

23) 윤용이, 1986, 註12) 앞의 책. p. 363.

24) 윤용이, 1986, 註12) 앞의 책. p. 364.

25) 윤용이, 1986, 註12) 앞의 책. pp. 370~377.

26) 吉徑澤·李善喆, 1996, 『忠州 丹月洞 高麗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博物館. pp. 62-63.

박순호·김경화·김일규·이수홍, 1998, 『咸陽 白川里 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大普高速道路遺蹟合

작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연미형의 자루와 시부, S자상으로 흰 자루 등을 鍛造로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당시의 청동제품 제작 기술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鍛打痕 만으로 제작방법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조로 제작한 다음 표면을 단타로 마감할 경우에도 단타흔이 표면에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동손가락이 단조의 기법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만, 명확한 결론은 앞으로 관련분야의 연구성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동곳은 일반적으로 ㄷ子狀으로 제작된 것²⁷⁾이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13호 출토품처럼 양끝이 닳아 있는 형태는, 출토된 예가 드물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동과편은, 형태와 용도를 전혀 추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비슷한 형태의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청동완은 리벳기법으로 대각을 접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罅의 두께를 고려한다면, 못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멍을 뚫은 다음 못을 끼우고, 양쪽을 뭉통하게 만들어 고정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4) 鐵 器

출토된 철기는 판상철기와 검형철기, 관못 등 3종류에 불과하다. 먼저, 板狀鐵器는 두께와 제작방법은 동일하나 평면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판상철기의 두께는 대체로 0.5cm 前後이고, 철판을 잘라 간단하게 제작한 것이다. 물론, 평면형태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유물 상호간에 정형성과 관련성이 추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상철기는 분류하지 않기로 하겠다.

鎌形鐵器는 23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시굴조사 당시 출토된 것은 15호 부장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5호 부장 검형철기는 基部와 身部の 1/2 정도가 결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23호 출토품과 형태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다.

판상철기와 검형철기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요갱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장된 의미는 대체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판상철기와 검형철기가 부장²⁸⁾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地金の 의미로 부장된 것이 아니가 한다. 당시에 화폐가 주조되기는 하였으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²⁹⁾에, 화폐 대신에 地

同發掘調査團. pp. 21-22.

李漢祥, 1995, 『天安 南山里 高麗墓』, 國立公州博物館. pp. 35-37.

27) 이러한 형태의 동곳으로는 단월동 B-3호 출토품과 백천리 3호 출토품 등이 있다.

崔茂藏, 1995, 『忠州 丹月洞 古墳群 -2次發掘調査報告書』, 建國大學校博物館. pp. 76-78.

박순호·김경화·김일규·이수홍, 1998, 註24) 앞의 책. pp. 20-22.

28) 판상철기와 비슷한 형태의 철판이 부장된 예로는 의령 예둔리 59호묘와 천안 남산리 1·5호묘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보고서가 아직 간행되지 않았으나, 김해 대청유적에서도 확인된 예가 있다.

趙榮濟·朴升圭·柳昌煥·李瓊子, 1994, 『宜寧 禮屯里墳墓群』, 慶尙大學校博物館. pp. 135-136.

李漢祥, 1996, 註24) 앞의 책. pp. 21-25.

29)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널리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常平通寶가 발행된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金의 의미로 鐵版을 부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³⁰⁾.

관못은 길이와 단면형태 등을 기준으로 세분이 가능하나, 여기서는 길이를 기준으로 7.0cm 이하를 A류로, 7.1cm 이상을 B류로 설정한다. 관못의 출토양상은 A류만 출토되는 경우(가式)와 A類와 B類가 모두 출토되는 경우(나式), B類만 출토되는 경우(다式)로 나누어진다.

관못의 길이와 두께는, 목관에 사용되는 板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관못은 棺에 사용된 板材를 結構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판재가 두꺼울 경우 긴 못이 필요했을 것이고, 반대로 얇다고 한다면 작은 못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유구번호	묘광형태	주축방향	목관유무	요갱유무	벽감유무	부장양상	청동술가락	관못
1	Ⅳ	나	有	?	無	上	Ⅱ	.
3	.	다	"	"	"	.	.	.
4	Ⅳ	가	"	有	"	.	.	.
5	Ⅲ	다	"	"	"	.	.	.
6	Ⅱ	가	"	"	"	上	Ⅱ	.
7	Ⅰ	가	"	"	"	.	.	나
8	Ⅲ	나	"	無	"	內	Ⅲ	.
9	.	가	"	?	"	.	.	다
10	.	나	"	有	"	.	.	나
11	Ⅲ	가	"	"	"	內	Ⅰ	.
12	Ⅲ	나	"	"	"	.	.	.
13	Ⅱ	나	"	"	"	上	Ⅱ	가
14	.	다	"	"	"	.	.	.
15	Ⅲ	가	"	?	"	內	Ⅲ	다
16	Ⅲ	나	"	有	"	內	Ⅰ	가
17	Ⅳ	가	"	"	有	內	.	다
18	Ⅱ	가	"	無	無	.	.	.
19	.	가	無	"	"	.	.	.
20	.	가	有	"	"	.	.	.
21	Ⅰ	가	無	"	"	.	.	.
22	Ⅱ	나	"	"	"	.	.	.

高麗墓에서 화폐가 출토된 예로는 천안 남산리 1호묘가 대표적인데, 22종 120여점이 출토되었다. 이 밖에 현재까지 高麗·朝鮮墓에서 화폐가 출토된 지역은 대체로 당시의 京畿지방에 한정되고 있다. 이러한 출토양상은 고고학적으로도 화폐가 널리 유통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李漢祥, 1995, 註24) 앞의 책. pp. 19-24.

- 30) 남산리 고려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첩판을 死者를 殮하는 과정과 관련된 유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다른 유적과는 달리 남산리 1호묘에서는 첩판이 死者의 머리 아래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산리를 제외한 다른 유적에서는 대부분이 묘광의 가운데 설치된 요갱에서 출토되거나, 묘광바닥의 가운데에서 출토되고 있다. 또한, 남산리 1호묘에서는 다수의 동전이 부장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토된 첩판은 다른 유적과는 다른 의미로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李漢祥, 1996, 註24) 앞의 책. p. 24.

유구번호	묘광형태	주축방향	목관유무	요갱유무	벽감유무	부장양상	청동순가락	관못
23	Ⅲ	나	有	有	〃	·	·	·
24	Ⅳ	나	〃	無	〃	·	·	·
25	Ⅲ	나	〃	有	有	·	Ⅱ	·
26	Ⅳ	가	〃	?	無	·	·	나
27	·	나	〃	無	〃	·	·	·
28	Ⅳ	나	〃	〃	〃	·	·	·
29	Ⅲ	나	〃	有	〃	·	·	·
30	Ⅲ	다	〃	〃	〃	·	·	(가)
31	Ⅲ	나	〃	〃	〃	上	Ⅲ	다
32	·	나	〃	?	〃	·	·	·
33	Ⅲ	나	〃	有	〃	·	·	·
34	Ⅲ	가	〃	〃	〃	內	·	·

表 7. 高麗墓의 遺構와 遺物 屬性

3. 遺構의 相對編年

이상에서 분류한 속성을 제시한 것이 表-7이다. 이 가운데 시간에 따른 변화상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청동순가락이 유일한데, I → II → III 순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³¹⁾. 따라서, 청동순가락과의 조합을 통해, 다른 속성도 시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자.

묘광 \ 순가락	Ⅰ	Ⅱ	Ⅲ	Ⅳ
Ⅰ			2	
Ⅱ		2	1	1
Ⅲ			3	

表-8. 청동순가락과 묘광형태

먼저, 묘광의 형태가 시간성을 가진다면, 表-4에 제시한 것처럼 I→IV 혹은 IV→I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동순가락과 묘광형태의 형식을 조합하여 나타낸 것이 表-8이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묘광형태는 시간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

렵다.

다음은, 주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동순가락과 주축방향의 분류를 조합한 것이 表-9이다. 앞에서 주축방향이 시간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표에서는 시간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이

31) 고려의 순가락은 자루의 끝부분이 제비꼬리처럼 갈라져 있으면서 S자상으로 크게 휘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곡선이 완만해지고 제비꼬리도 간결해지면서 조선시대의 순가락으로 변해간다고 한다.

장경희 외, 1994,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 p. 299.

순가락 \ 주축방향	가	나	다
I	1	1	
II	1	3	
III	1	2	

表-9. 청동순가락과 주축방향

순가락 \ 부장양상	上部	内部
I		2
II	3	·
III	1	2

表-10. 청동순가락과 부장양상

마지막으로, 관못과 청동순가락의 형식을 조합한 것이 表-11이다. 자료가 적으나, 관못의 길이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 → 나 → 다 순으로 볼 수 있다.

순가락 \ 관못	가	나	다
I	1	·	
II	1	·	
III		·	2

表-11. 청동순가락과 관못

동순가락 I·II式과 모두 공반하고 있다. 그리고, 관못 나式과 공반된 청동순가락은 없으며, 관못 다式은 청동순가락 III式과 공반되고 있다. 따라서, 관못 나式的 편년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A類 관못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청동순가락 III식과 평행하게 설정하기로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유구의 상대편년을 나타낸 것이 表-12이다. 이 가운데 30호는 관못 가式만

없다는 점³²⁾과 자기장이 가지는 변수³³⁾를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어떤 결과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고 싶다.

목관과 요갱의 유무, 벽감의 유무는, 청동순가락과 조합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하겠다.

다음은, 부장양상과 청동순가락의 형식을 조합한 것이 表-10이다. 자료가 적어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上部에 부장하는 형태가 조금 늦게 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부장양상의 시간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간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청동순가락과 관못 뿐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遺構의 상대편년을 설정해 보기로 하겠다.

表-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관못 가式은 청

3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8세기 이후부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편각이 서쪽으로 치우쳐 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문헌기록(東醫寶鑑)에 나타나 있는 우리나라의 편각에 대한 기록도 일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고지자기 영년변화곡선이 작성되어야만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伊藤晴明 外, 1995, 「檢丹里遺蹟 横口附窯址의 考古地磁氣法에 의한 年代測定」,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p. 466.

成亨美, 2000, 「한국에 있어서 고고지자기 변동의 측정과 고고학적 응용」, 『고고학이 찾은 선사와 가야』, 특별전도록, 국립김해박물관·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p. 130.

33) 자기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로는, 일변화와 자기폭풍 등이 있다.

한국지구과학회, 1998, 『지구과학개론』, 교학연구사. p. 77.

시기	유 구	
I	11, 16	30
II	1, 6, 13, 25	
III	8, 9, 15, 17, 31, (7, 10, 26)	

表-12. 청동순가락과 관못에 의한 유구의 상대편년

출토되었기 때문에, I기에 속하는지 II기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음은, 靑磁와 土器, 遺構의 配置狀態 등을 근거로 유구의 상대편년을 보완하고 절대연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출토된 청자의 시기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13세기 後葉에서 14세기 前葉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8호 출토품은 상대적으로 늦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1호와 13호, 16호 출토품은 거의 同時期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청동순가락과 관못을 기준으로 분류한 I·II기를 묶어서 범어 I기로, III기를 범어 II기로 설정하기로 하겠다. 범어 I기와 II기를 구분하는 획기의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130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범어 I기는 13세기 후엽으로, 범어 II기는 14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토기가 출토된 유구 가운데, 연대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34호가 있다. 34호에서 출토된 토제병의 정확한 연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13세기 중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1호와 11호, 13호 등에서 출토된 土製瓶은 동최대경이 동체의 하방에 있는 반면에, 34호 출토품은 동최대경이 동체 가운데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구의 배치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34호와 인접해 있는 유구로는 9호와 13호가 있다. 이 유구들은 묘광이 중복되지는 않았으나, 봉분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봉분끼리는 중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3기의 유구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13호는 범어 I기에 9호는 범어 II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13호와 9호의 연대차이가 크게 보아도 50년 정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사이에 34호가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34호는 13호보다 먼저 조성되던가, 아니면 9호보다 늦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출토된 토제병을 고려한다면 34호보다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34호는 범어 I기보다 약간 빠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 범어 I기 가운데 가장 빠른 유구로 파악해 두기로 하겠다.

34호 외에도 봉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유구로는 12호와 16호, 28호와 29호, 7호와 8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8호와 29호는 출토된 유물이 없어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고, 7호와 8호는 출토유물로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12호와 16호는, 12호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불분명한 점이 있지만, 12호가 16호보다 늦게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발굴구역 가운데 남북으로 1호에서 16호까지의 범위에서만 磁器와

土器(25호 출토품 제외)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墓域의 中心³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도 16호부터 1호까지의 구간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16호 북쪽과 1호 남쪽은, 각각 경사가 조금씩 급해지고 있다. 그런데, 12호가 이러한 중심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16호보다 뒤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12호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보면, 3호와 14호, 32호, 33호도 범어 II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5호의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자. 청동순가락과 관못을 기준으로 보면, 25호는 범어 I 기의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유구의 구조로 보면, 범어 II 기의 17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龕室이 있다는 점과 묘광의 평면형태 등에서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5호 출토 청동순가락의 자루가 곡선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끝부분이 반원형이면서 匙部의 형태가 청동순가락 III 식과 비슷하다. 이 밖에 25호에서 출토된 把手附短頸壺도 시기적으로 늦은 형태³⁵⁾로 판단된다. 따라서, 25호는, 청동순가락으로 보면 범어 I 기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묘광의 형태, 단경호를 기준으로 범어 II 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로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33기의 상대편년을 제시한 것이 表-13이다. 이 상대편년을 기준으로 묘역의 중심지에서 확인되는 遺構의 축조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南北으로 12호와 3호까지를 墓域의 中心으로 보았을 때, 이 범위 내에서 범어 I 기에 해당되는 16호와 11호, 13호, 34호, 6호, 1호가 南北으로 능선을 따라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묘역 중심을 지나는 능선의 남쪽 끝에 해당되는 곳에 近代墓인 2호가 있으며, 범어 I 기에 해당되는 유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으로 16호부터 1호까지의 범위가 범어 I 기의 墓域 中心軸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기	유구	불명
범어 I 기	1, 6, 7, 10, 11, 13, 16, 26, 30, 34	4, 5, 18, 19, 20, 21,
범어 II 기	3, 8, 9, 12, 14, 15, 17, 25, 31, 32, 33	22, 23, 24, 27, 28, 29

表-13. 유구의 상대편년

범어 II 기에 해당되는 유구들은 16호부터 1호까지 이어지는 軸을 중심으로 좌우(東西)에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다른 墓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묘역의 중심 가까이 墓를 축조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10호와

34) 발굴조사 당시 울산대학교 이경주선생님께서 34호가 위치한 부분이 風水地理에서 말하는 ‘혈자리’임을 지적해 주었다.

35) 아래의 책 p. 377에 실린 187번 사진의 陶器兩耳壺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형태적으로 25호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 책에 실린 陶器兩耳壺는 연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 16세기로 편년되는 것이라고 한다.

윤용이, 1996,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p. 377.

7호, 15호보다 9호와 33호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어느 정도의 시기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9호와 17호도, 9호가 17호보다 먼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호와 14호, 12호는 묘역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늦은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을 정리해 보면, 34호 → 16·11·13·6·1호 → 10·7·15·9호 → 9·33·17호 → 12·3·14호 순으로 조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축조순서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高麗墓에 대한 연구성과의 축적을 기대하고 싶다.

(김도현)

V. 맺음말

울산 범어유적의 발굴조사에서 高麗墓 33기와 近代墓 1기, 柱穴群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고려묘 33기에서는, 靑瓷 8점, 土器 9점, 靑銅순가락 9점, 靑銅젓가락 2조, 靑銅盥 1점, 銅甗 1점, 靑銅破片 1점, 板狀鐵器 6점, 鎌形鐵器 2점, 관못 103점 등 총 142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자료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출토된 유물과 유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高麗墓 33기에 대한 상대편년, 즉 범어Ⅰ기와 범어Ⅱ기를 설정할 수 있었다. 각 기의 절대 연대는 각각 13世紀 後葉과 14世紀 前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어유적의 발굴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靑瓷와 공반된 土器와 靑銅製品이 확인되어, 고려시대 토기(질그릇)와 청동제품의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비교적 빠른 시기의 龕室(벽감)이 확인됨으로써, 감실의 출현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본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고 싶다. 셋째, 高麗墓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청동순가락과 관못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유물만으로도 遺構의 상대연대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고학의 연구분야가 통일신라시대까지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高麗·朝鮮墓에 대한 자료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문연구자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고려시대 고고학의 기초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물론,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양호한 결과가 나온 것이 많지 않고, 보고자의 능력부족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의 증가와 함께 연구성과의 축적을 기대하고 싶다.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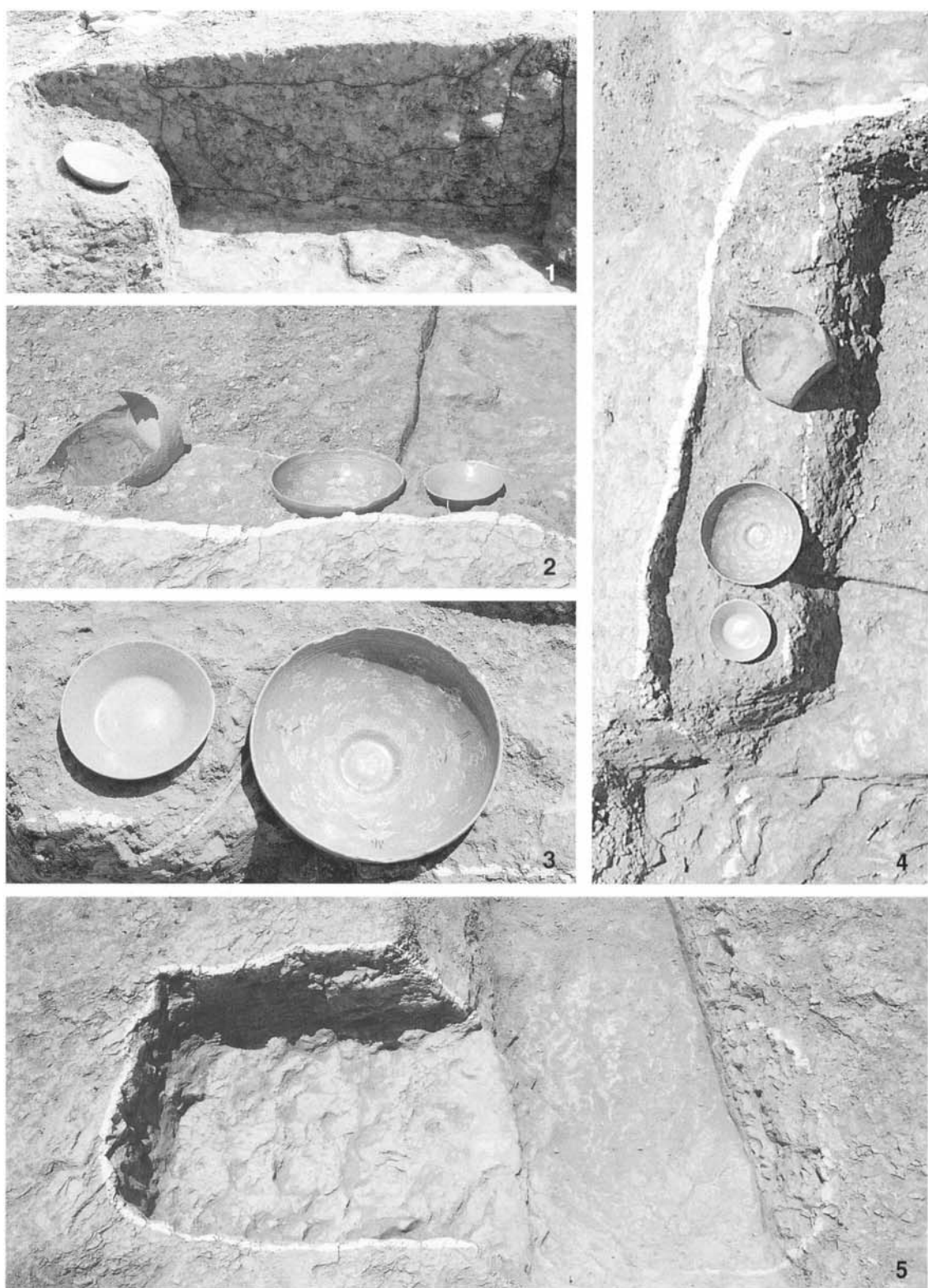
圖版 1. 遺蹟遠景(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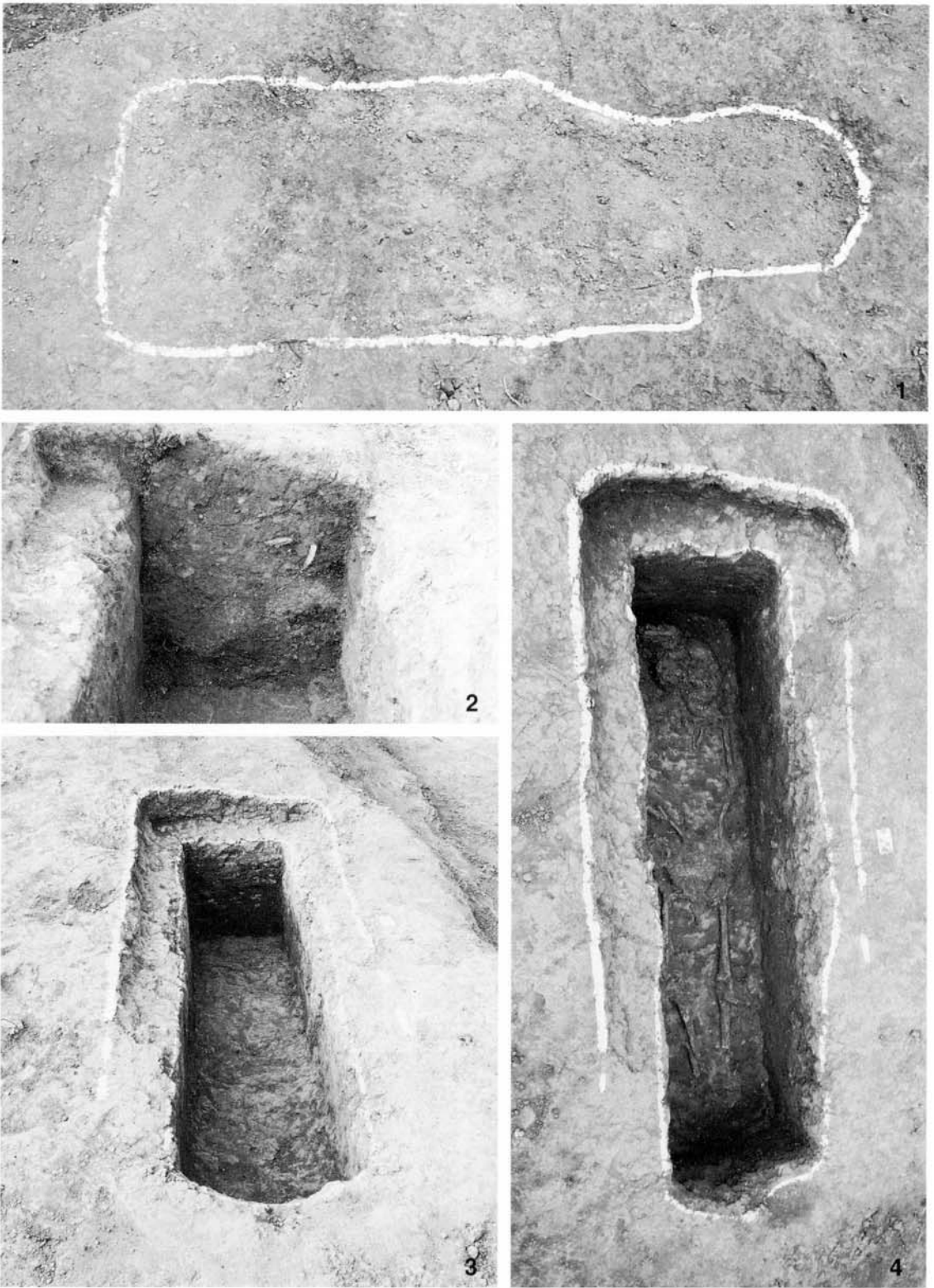
圖版 2. 작업광경(1), 유구 노출상태(2)-南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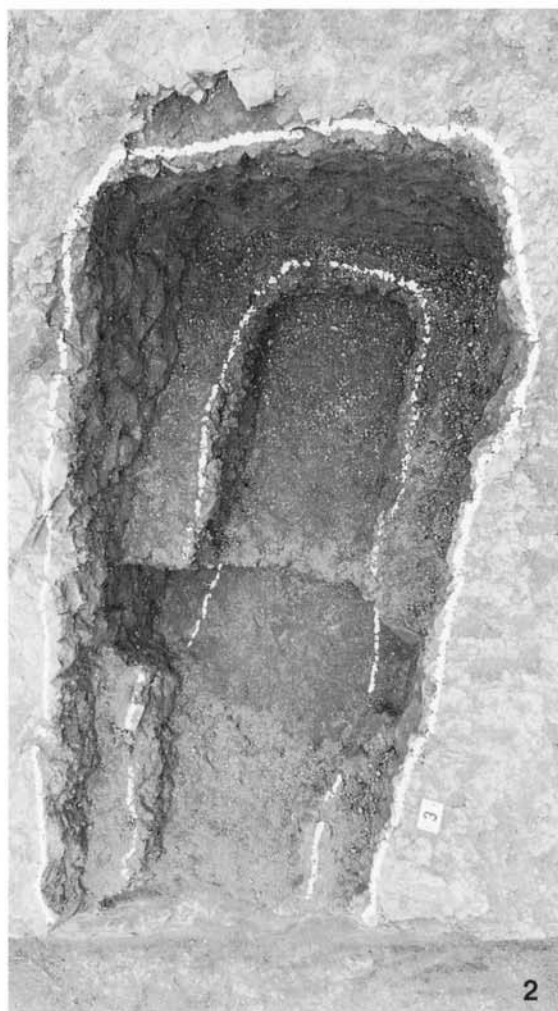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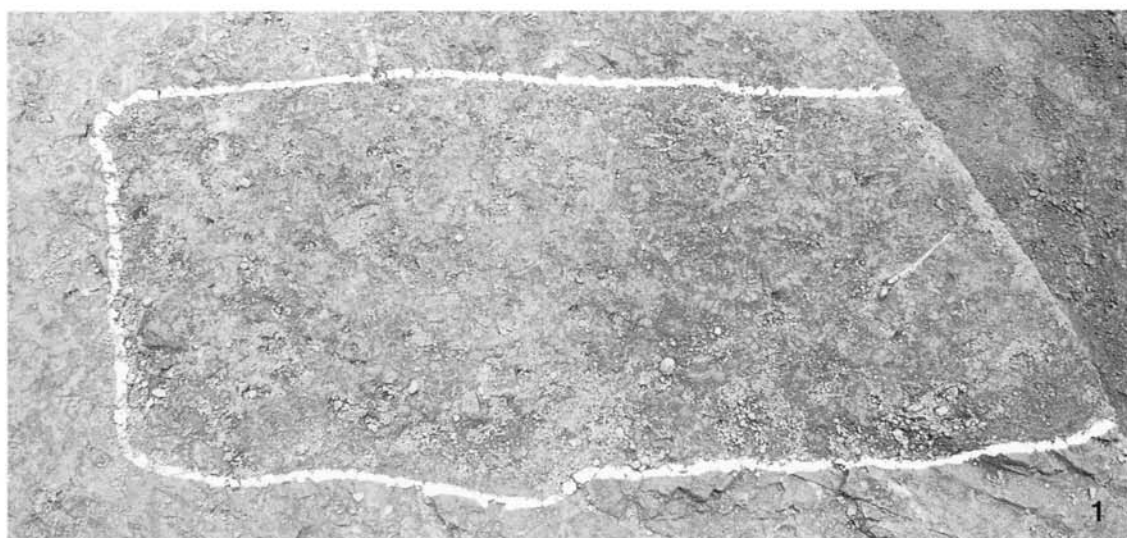
圖版 3. 1호묘 내부 노출 전(1)·후(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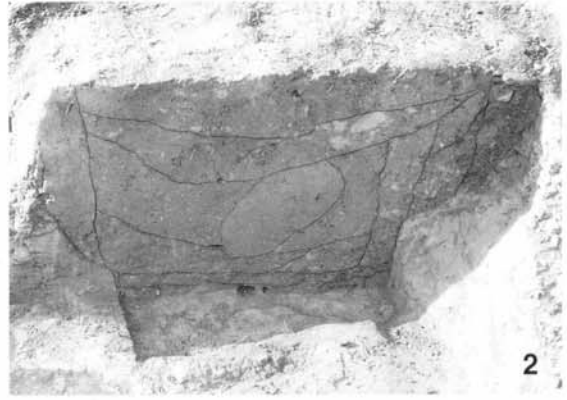
圖版 4. 1호묘 내부 토층(1), 유물출토(2~4), 바닥노출(5)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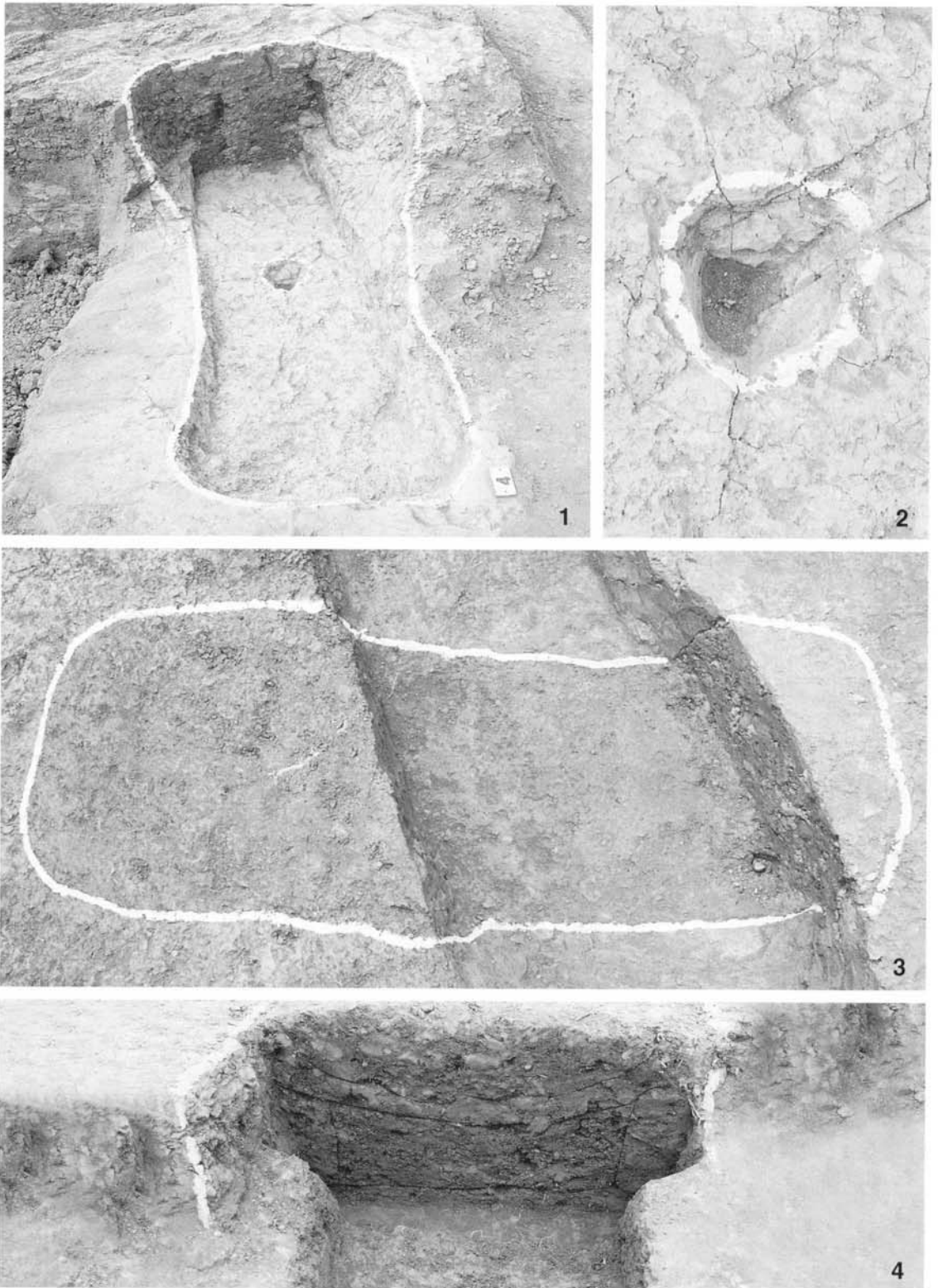
圖版 5. 2호묘 내부 노출 전(1)·후(4) 전경, 토층(2), 바닥노출(3)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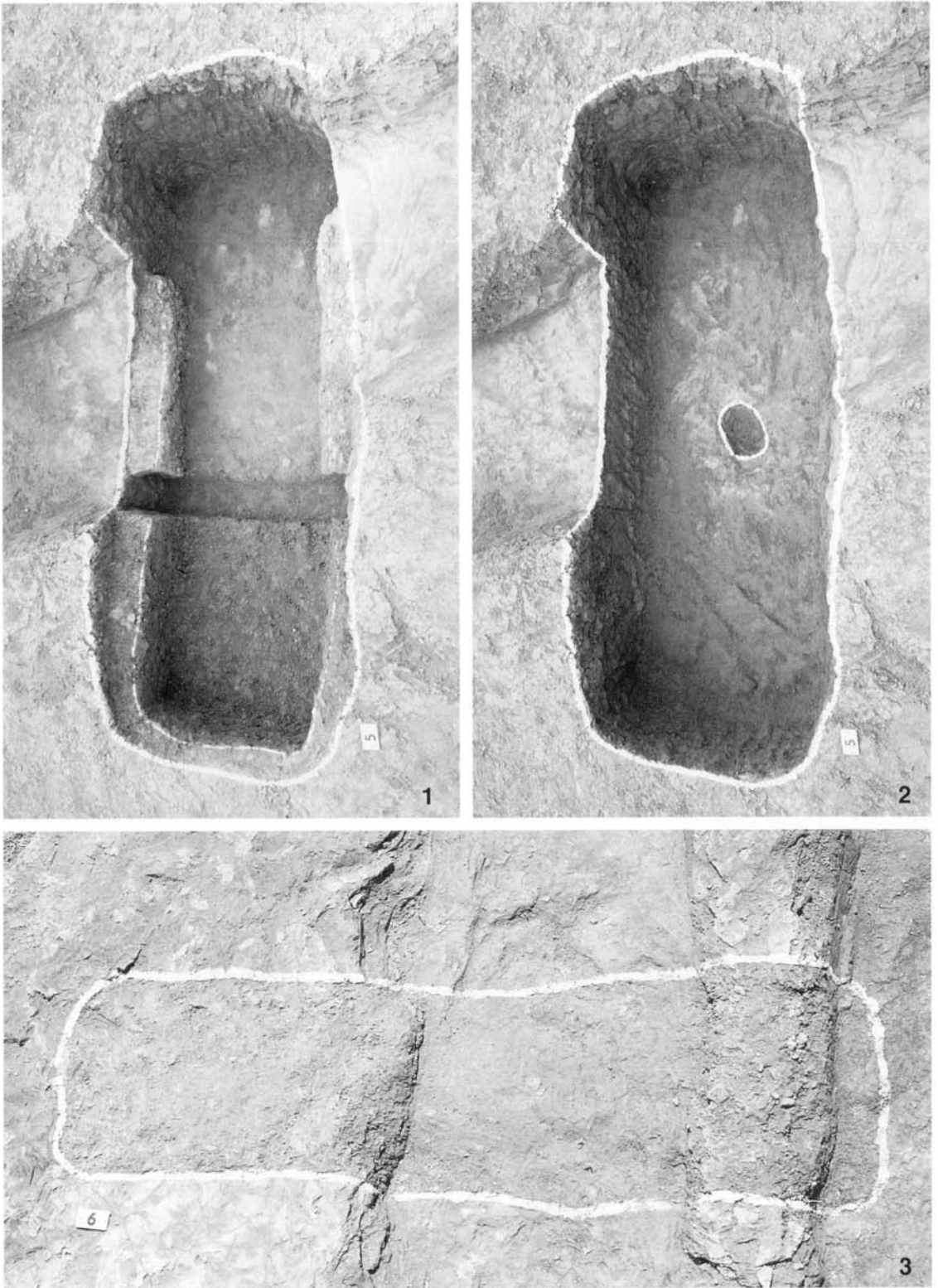
圖版 6. 3호묘 내부 노출 전(1) · 후(2) 전경, 바닥노출상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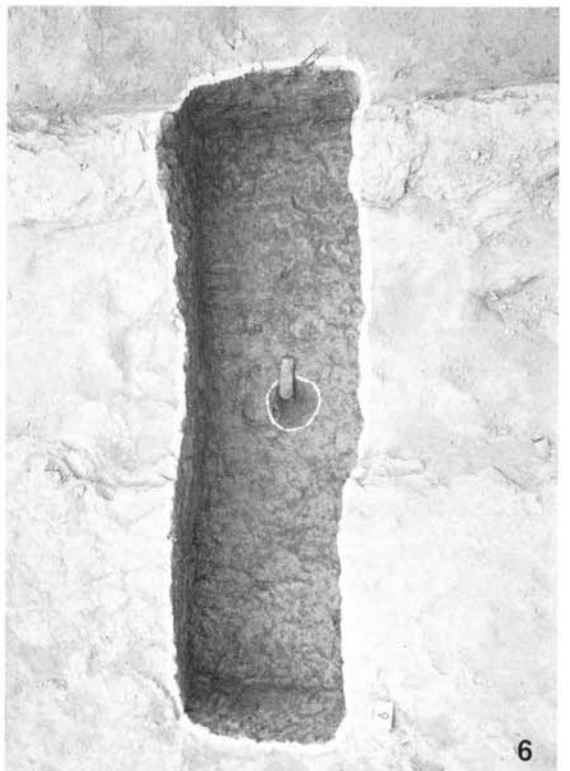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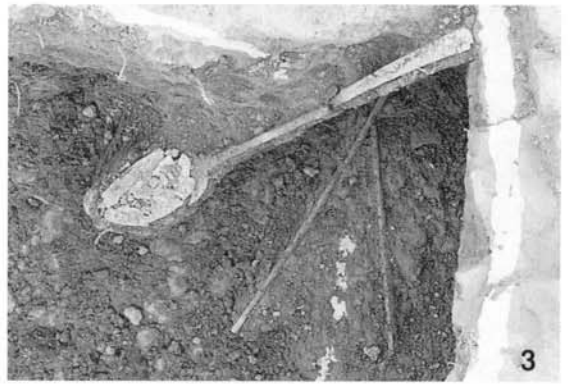
圖版 7. 3호묘 내부 토층상태(1). 4호묘 내부 노출 전(3)·후(4) 전경, 토층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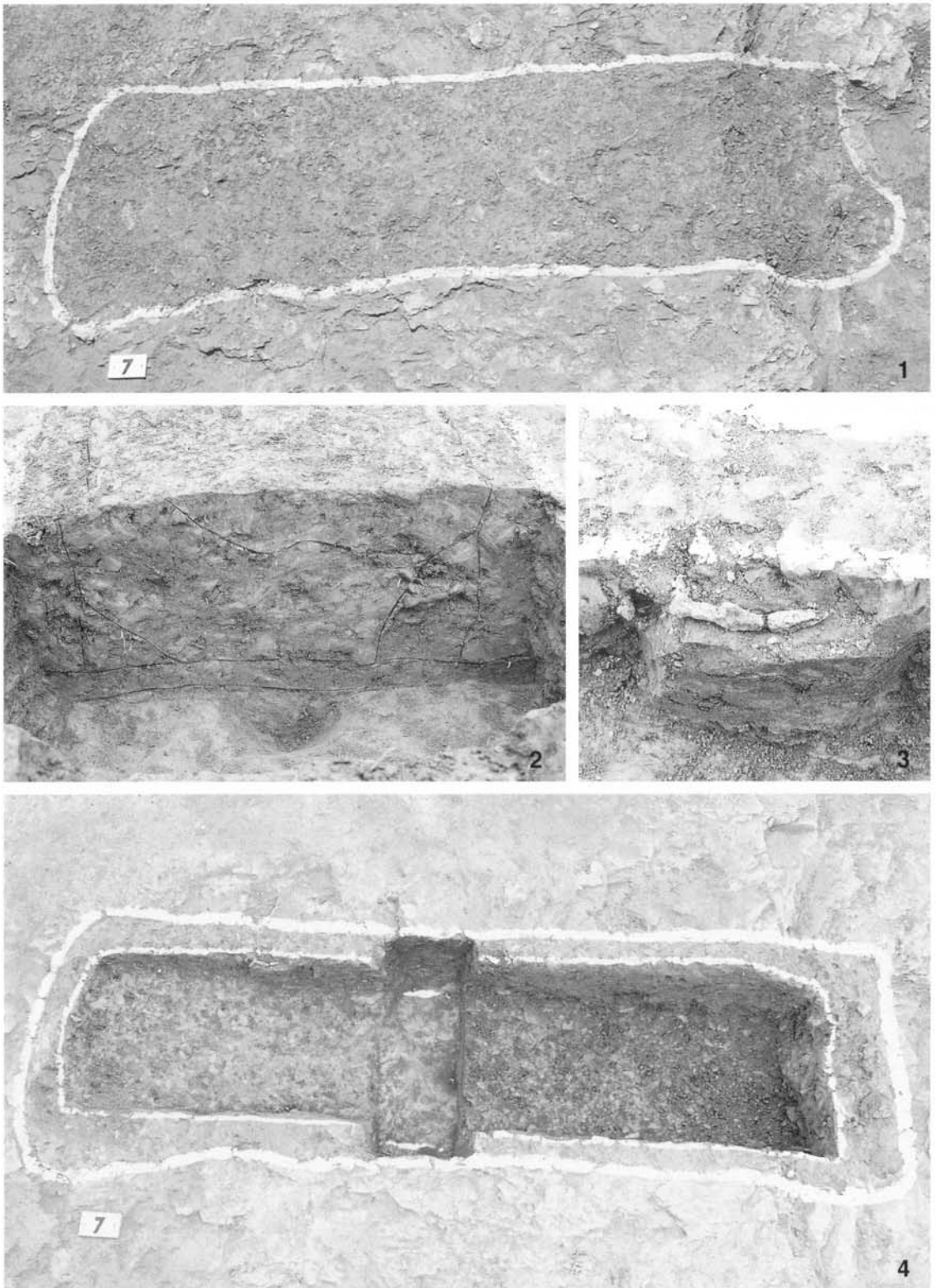
圖版 8. 4호묘 바닥노출상태(1), 요갱(2), 5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3), 토층상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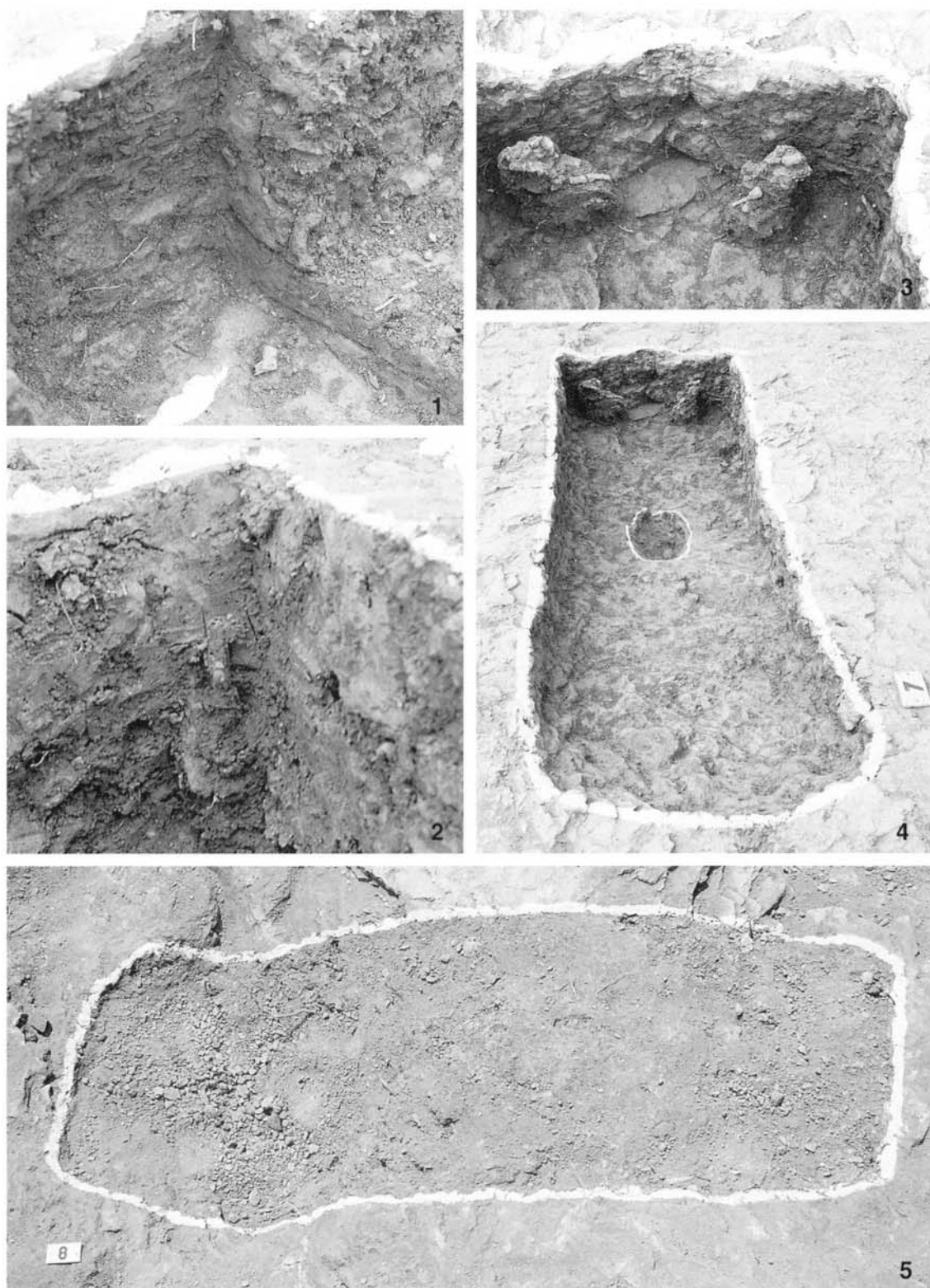
圖版 9. 5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상태(2). 6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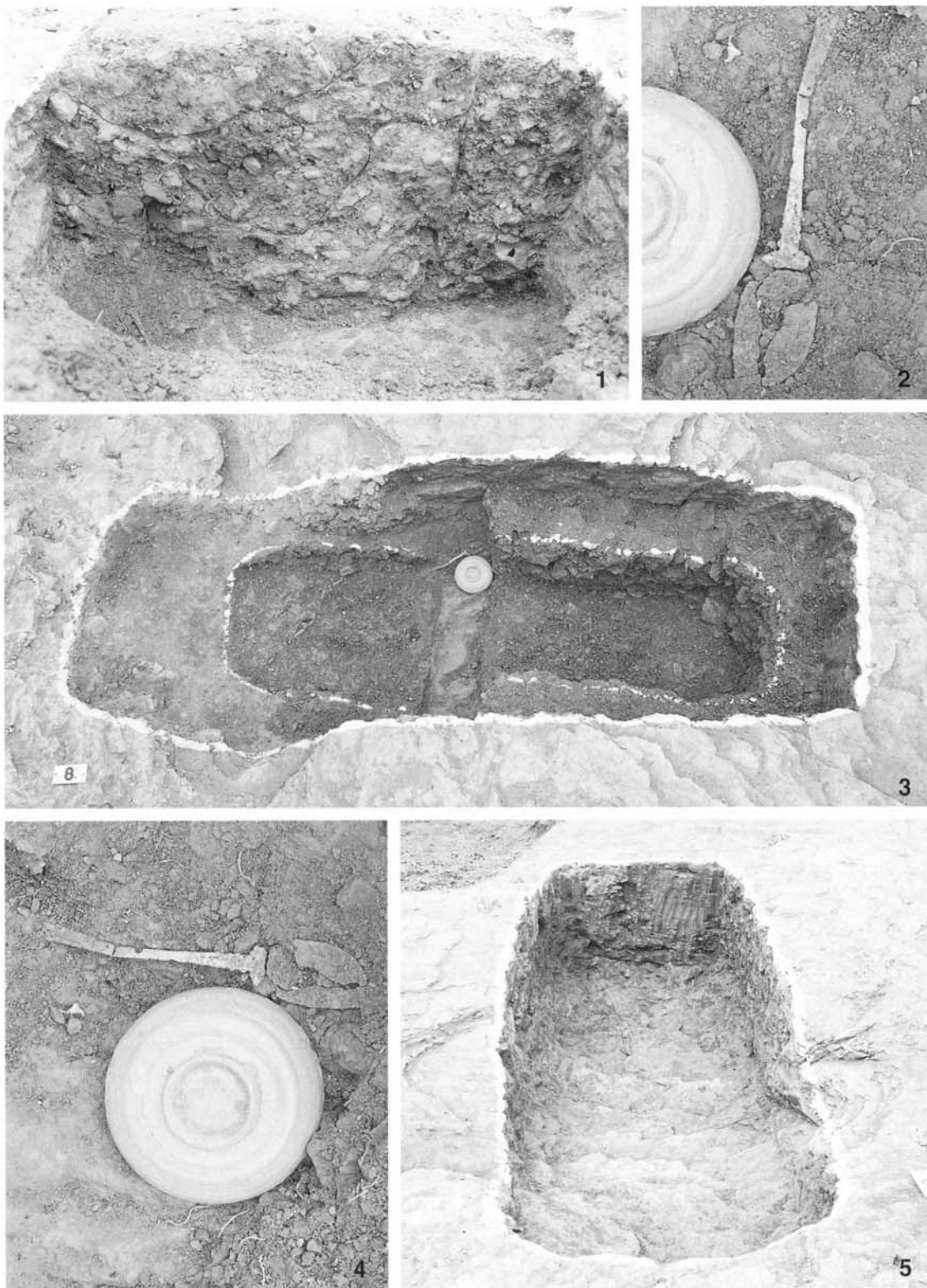
圖版 10. 6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토층(2), 유물출토(3, 4), 바닥노출(6) 상태, 요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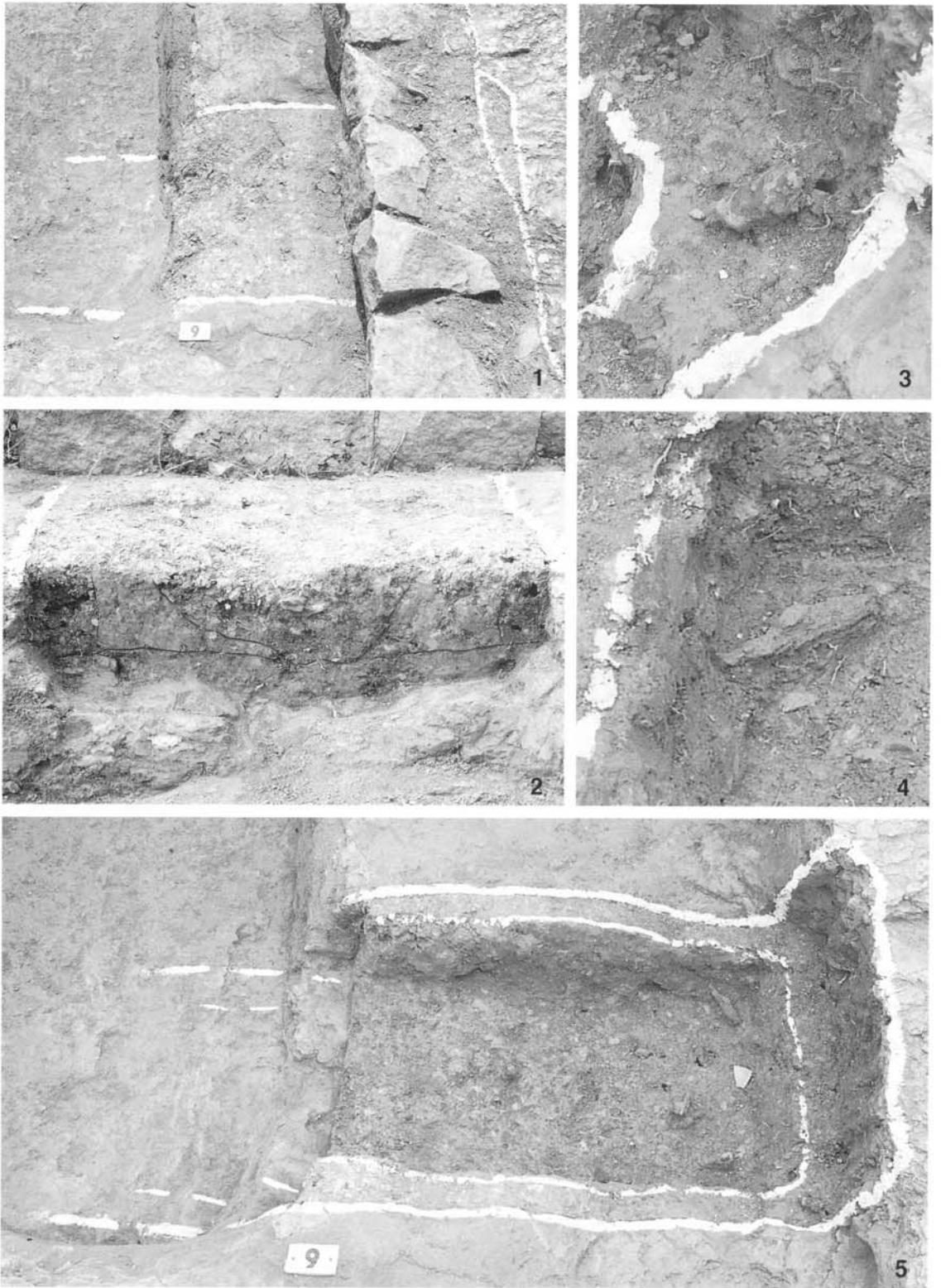
圖版 11. 7호묘 내부 노출 전(1)·후(4) 전경, 토층(2), 유물출토(3)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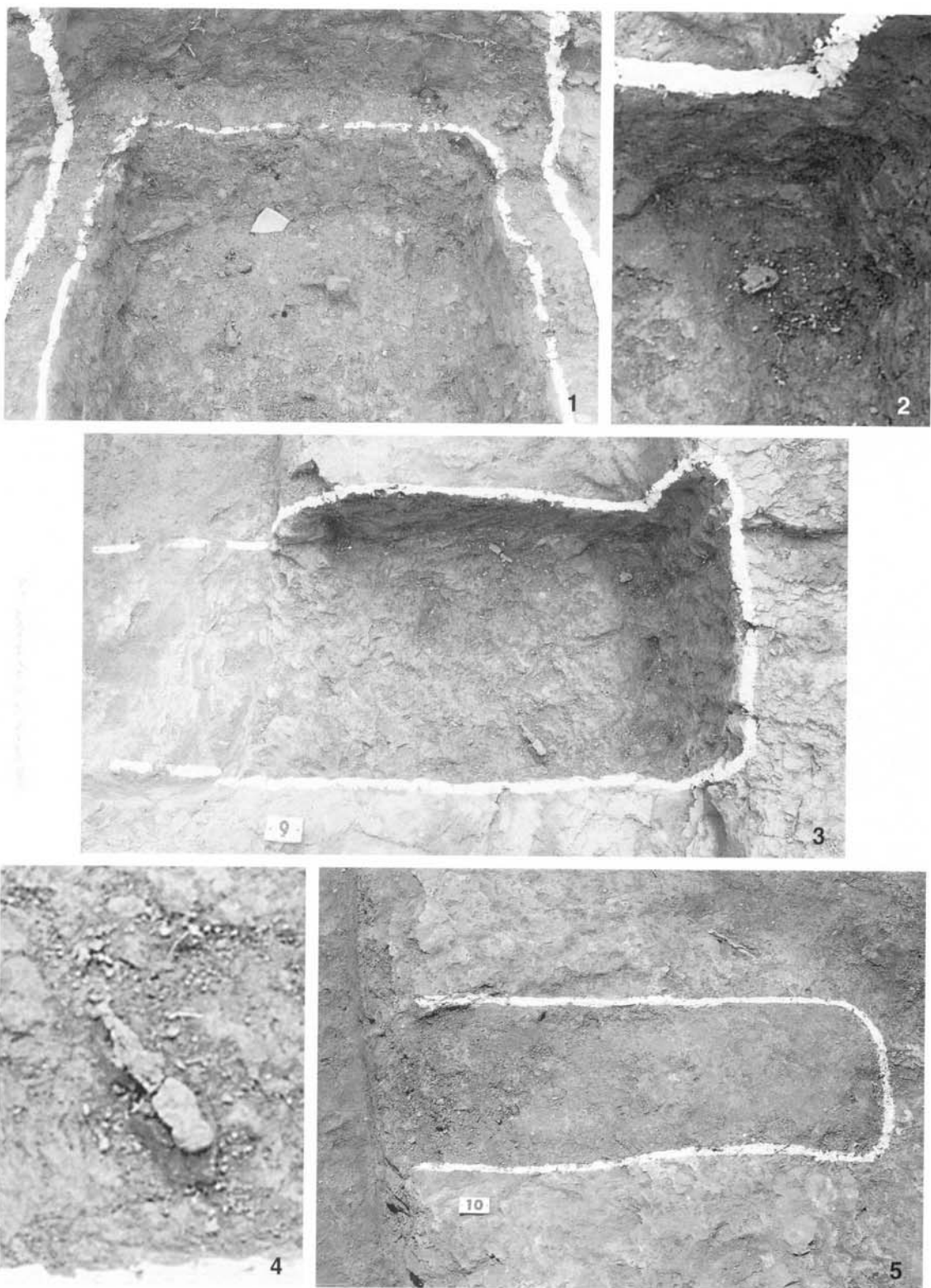
圖版 12. 7호묘 유물출토(1~3), 바닥노출(4) 상태. 8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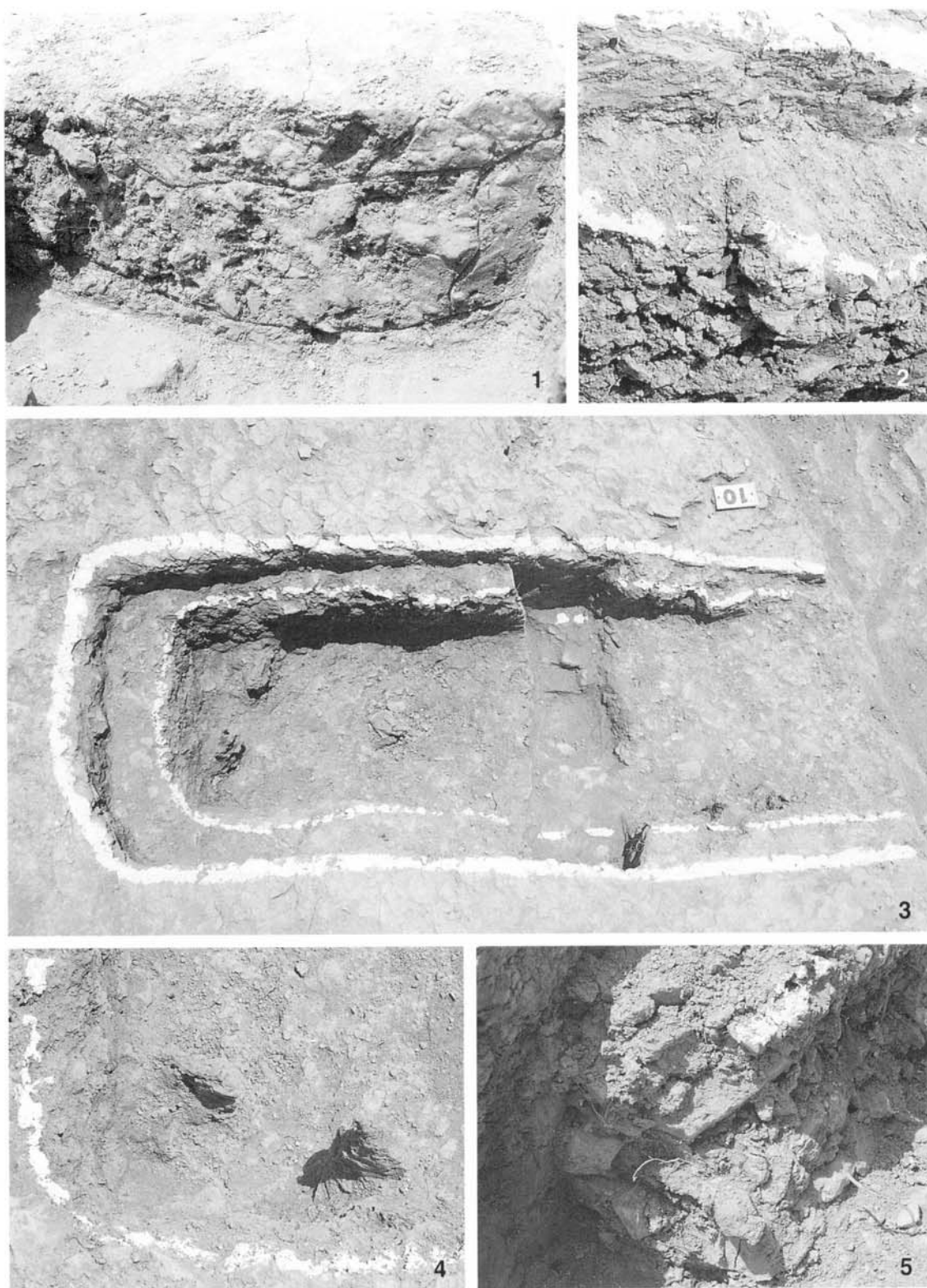
圖版 13. 8호묘 내부 토층(1), 노출 후(3) 전경, 유물출토(2, 4), 바닥노출 상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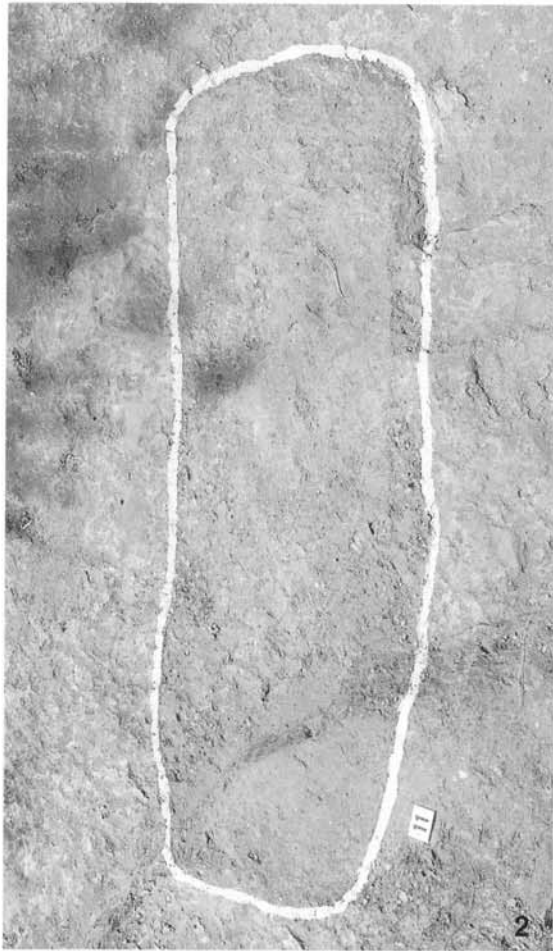
圖版 14. 9호묘 내부 노출 전(1)·후(5) 전경, 토층(2), 유물출토(3, 4)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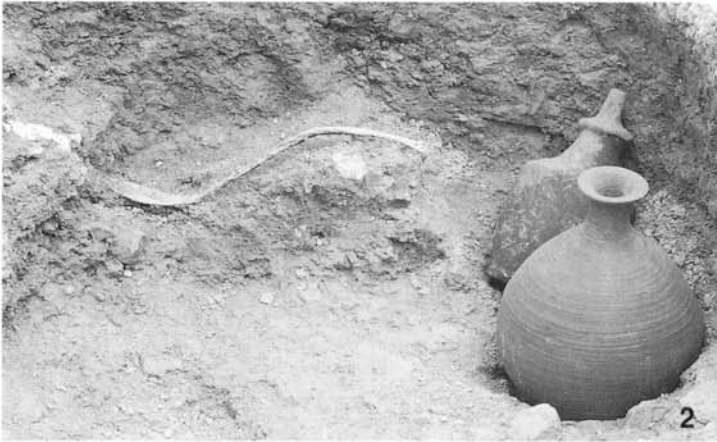
圖版 15. 9호묘 유물출토(1, 2, 4), 바닥노출(3) 상태. 10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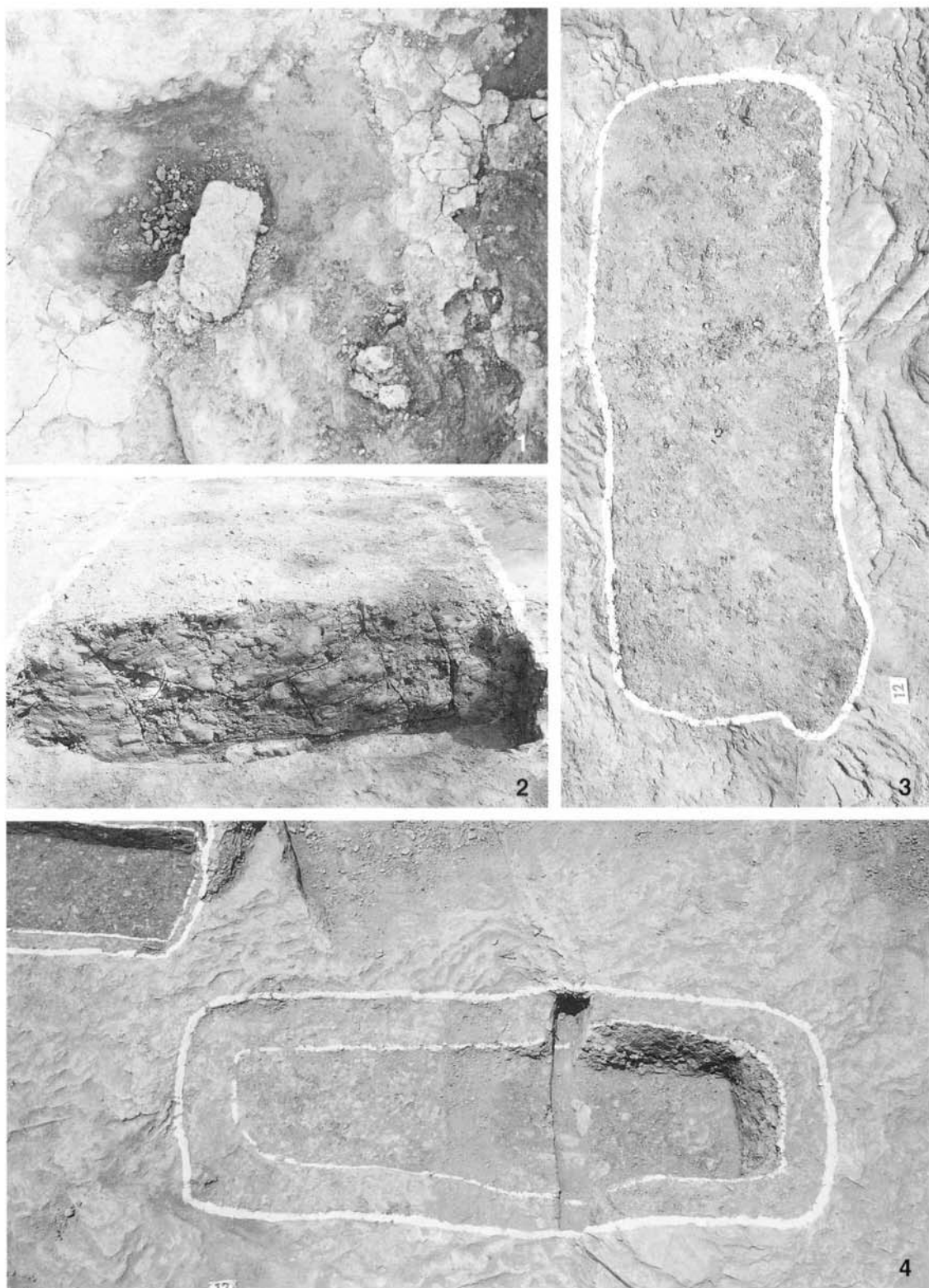
圖版 16. 10호묘 내부 토층(1), 노출 후 전경(3), 유물출토상태(2,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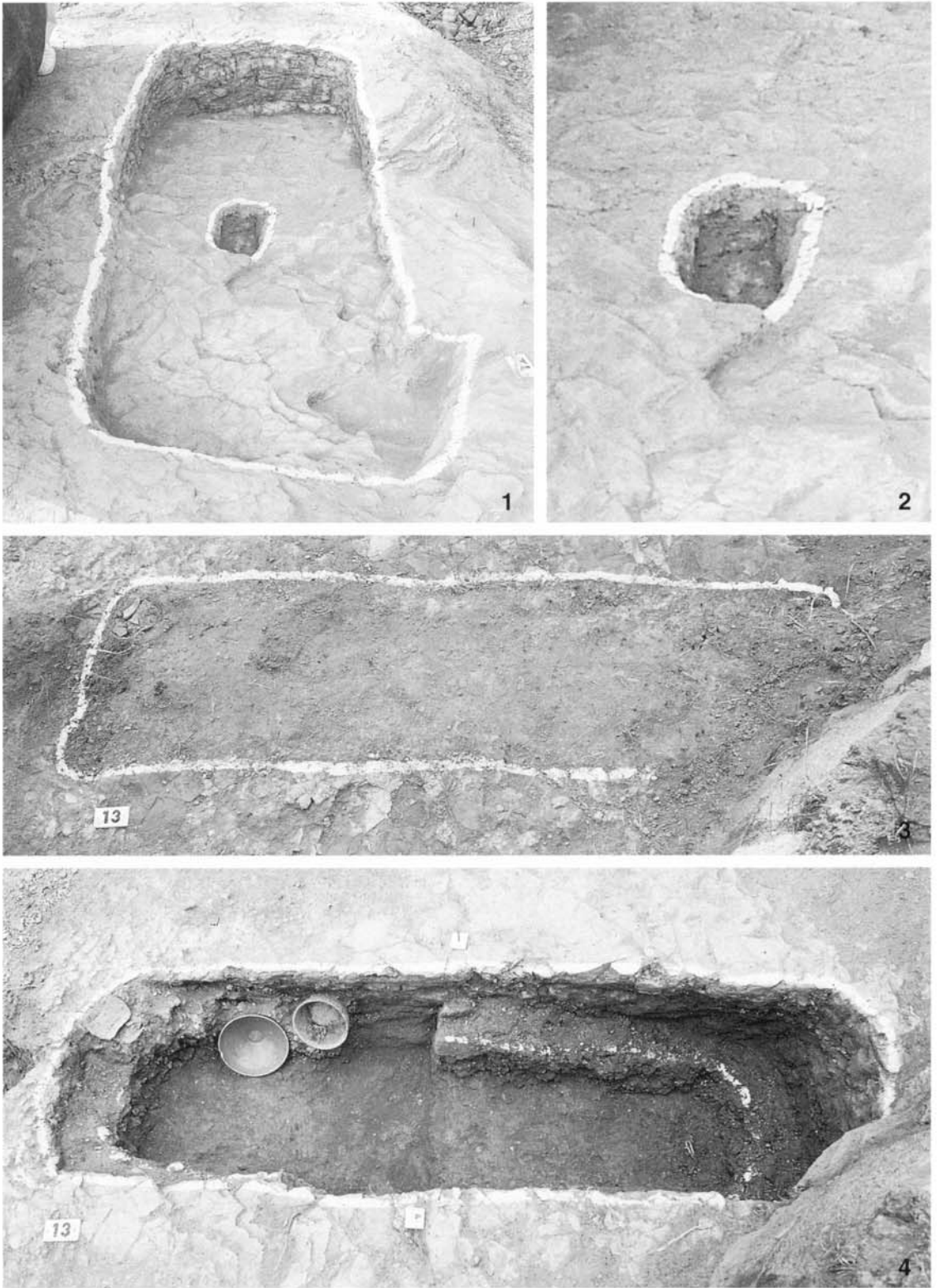
圖版 17. 10호묘 바닥노출상태(1). 11호묘 내부 노출 전(2)·후(3)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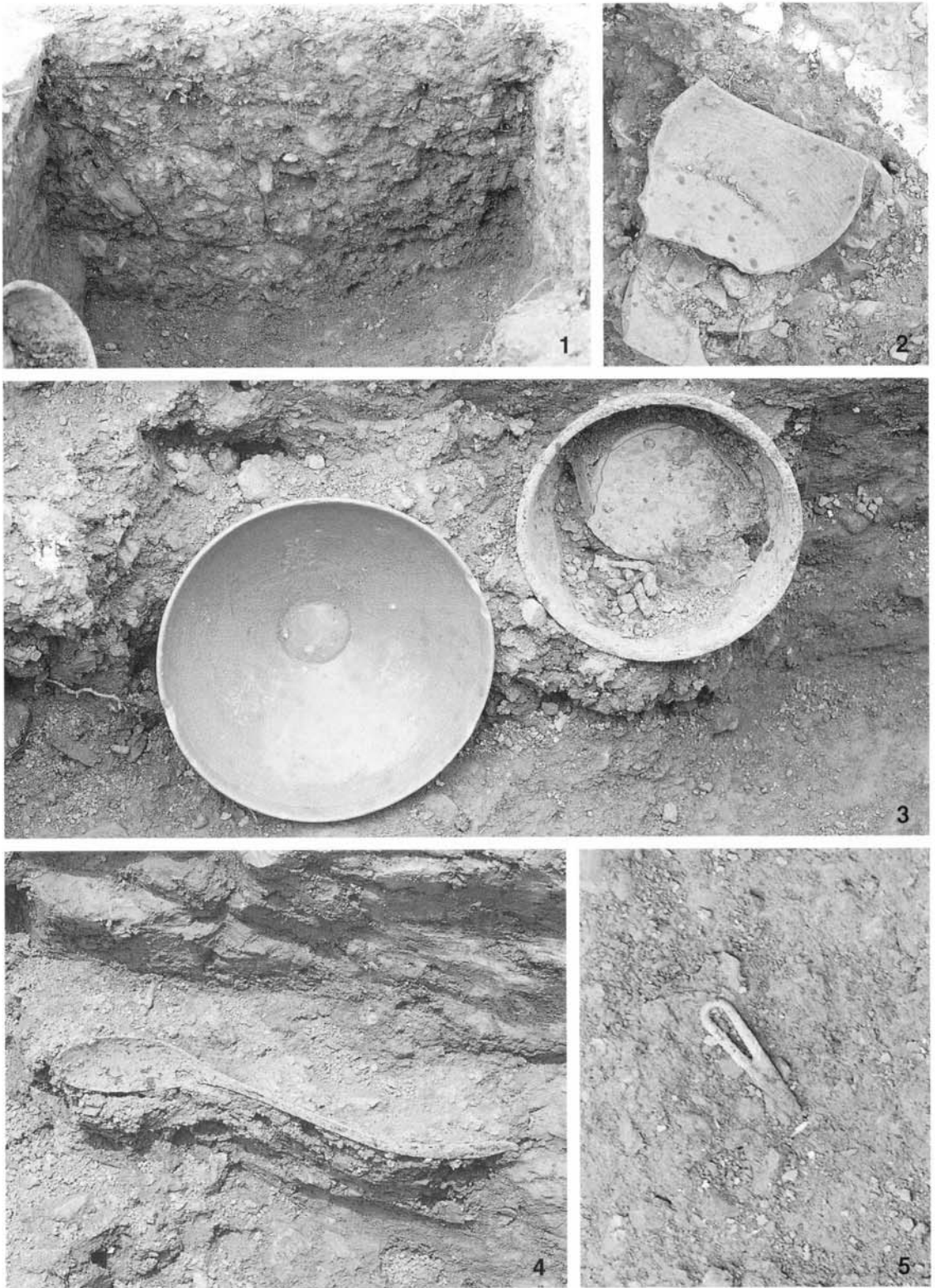
圖版 18. 11호묘 내부 토층(1), 바닥노출(3), 유물출토(2, 4, 5)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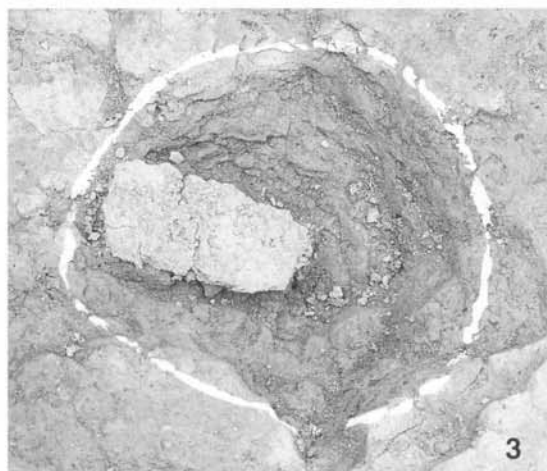
圖版 19. 11호묘 요강과 유물출토상태(1). 12호묘 내부 노출 전(3)·후(4) 전경, 토층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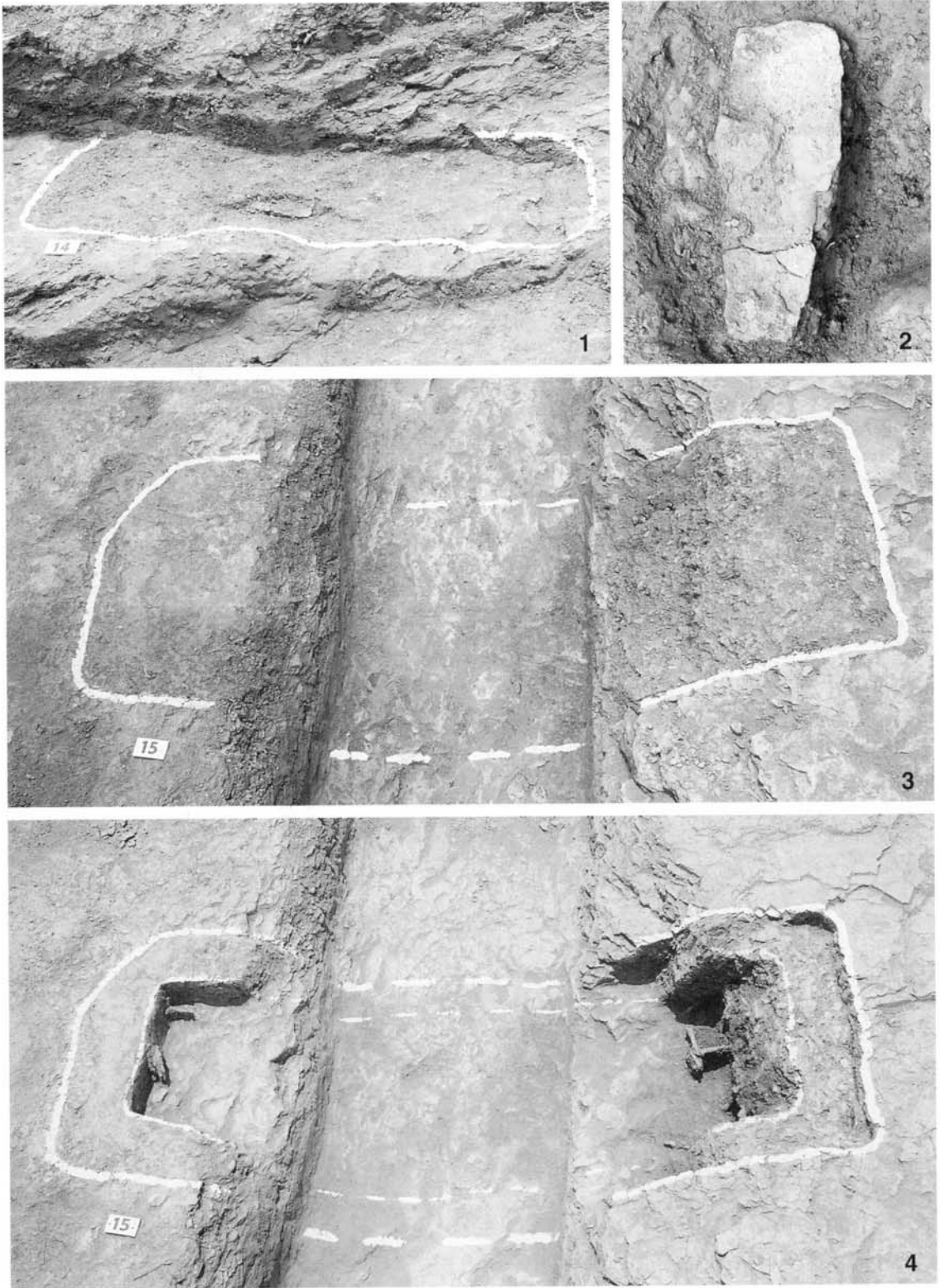
圖版 20. 12호묘 바닥노출상태(1), 요갱(2). 13호묘 내부 노출 전(3)·후(4)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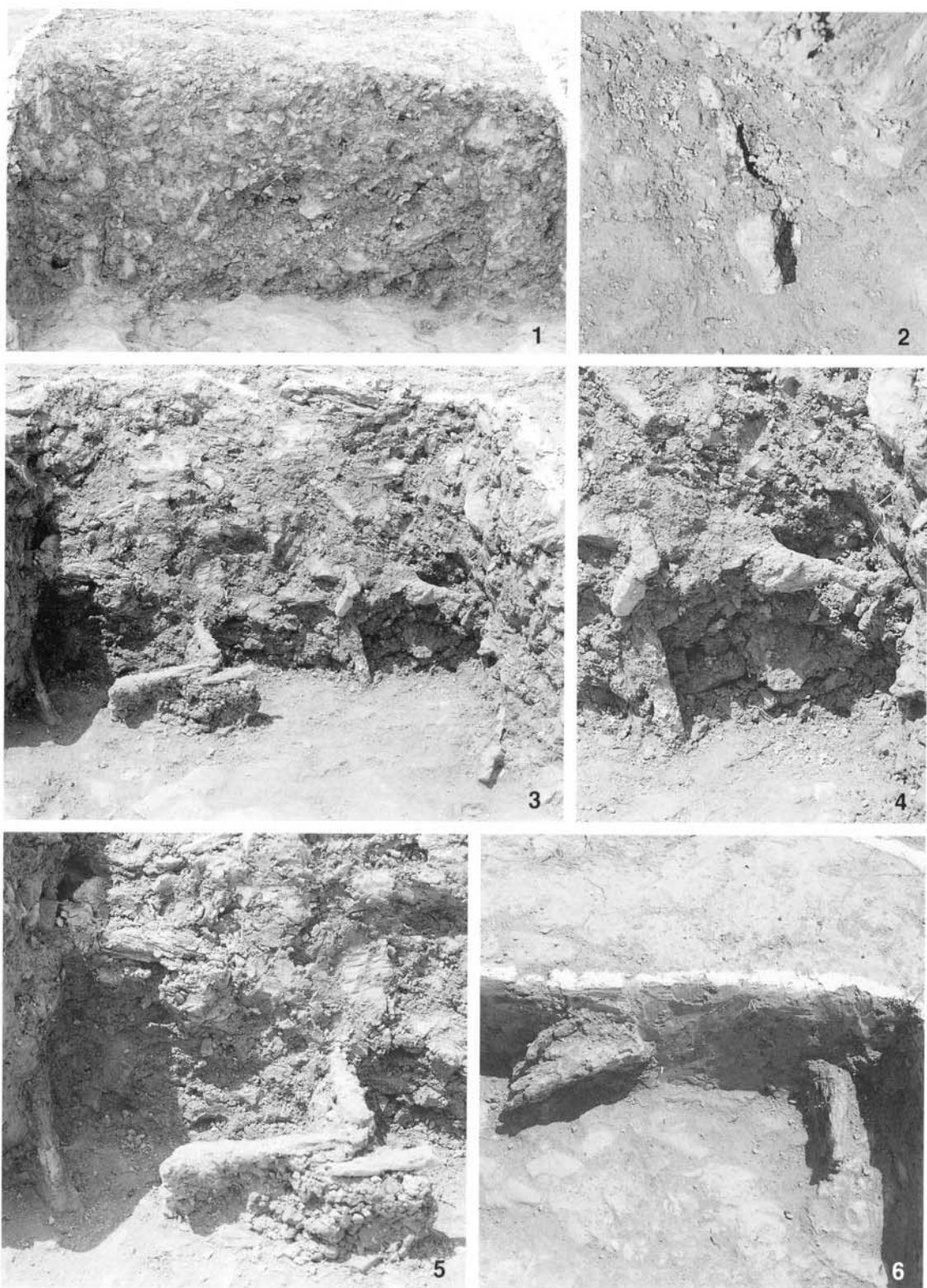
圖版 21. 13호묘 토층(1), 유물출토 상태(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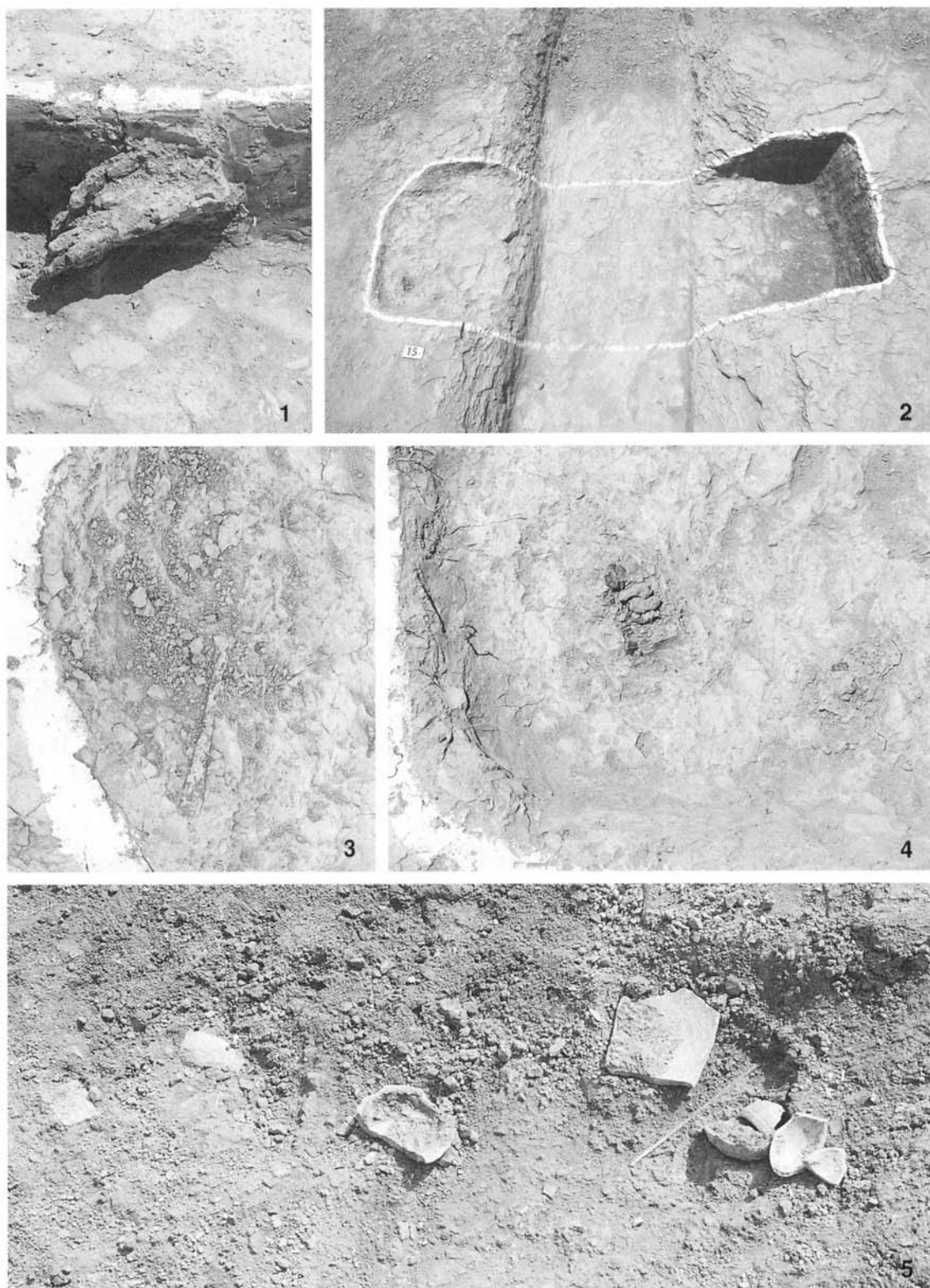
圖版 22. 13호묘 바닥노출(1), 유물출토 상태(2, 3). 14호묘 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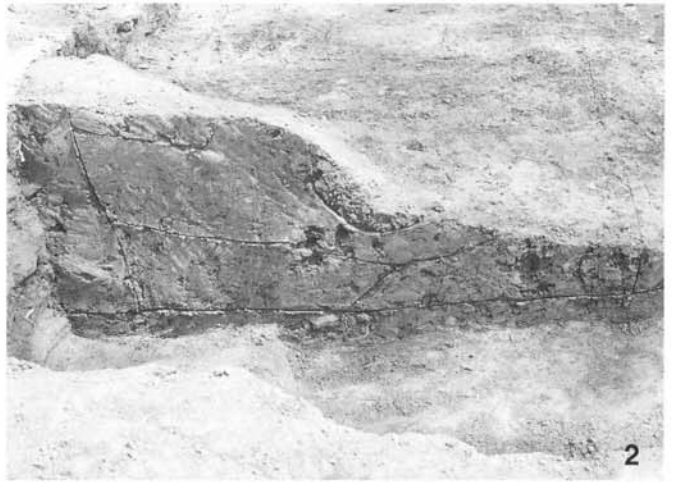
圖版 23. 14호묘 전경(1), 유물출토상태(2). 15호묘 내부 노출 전(3)·후(4)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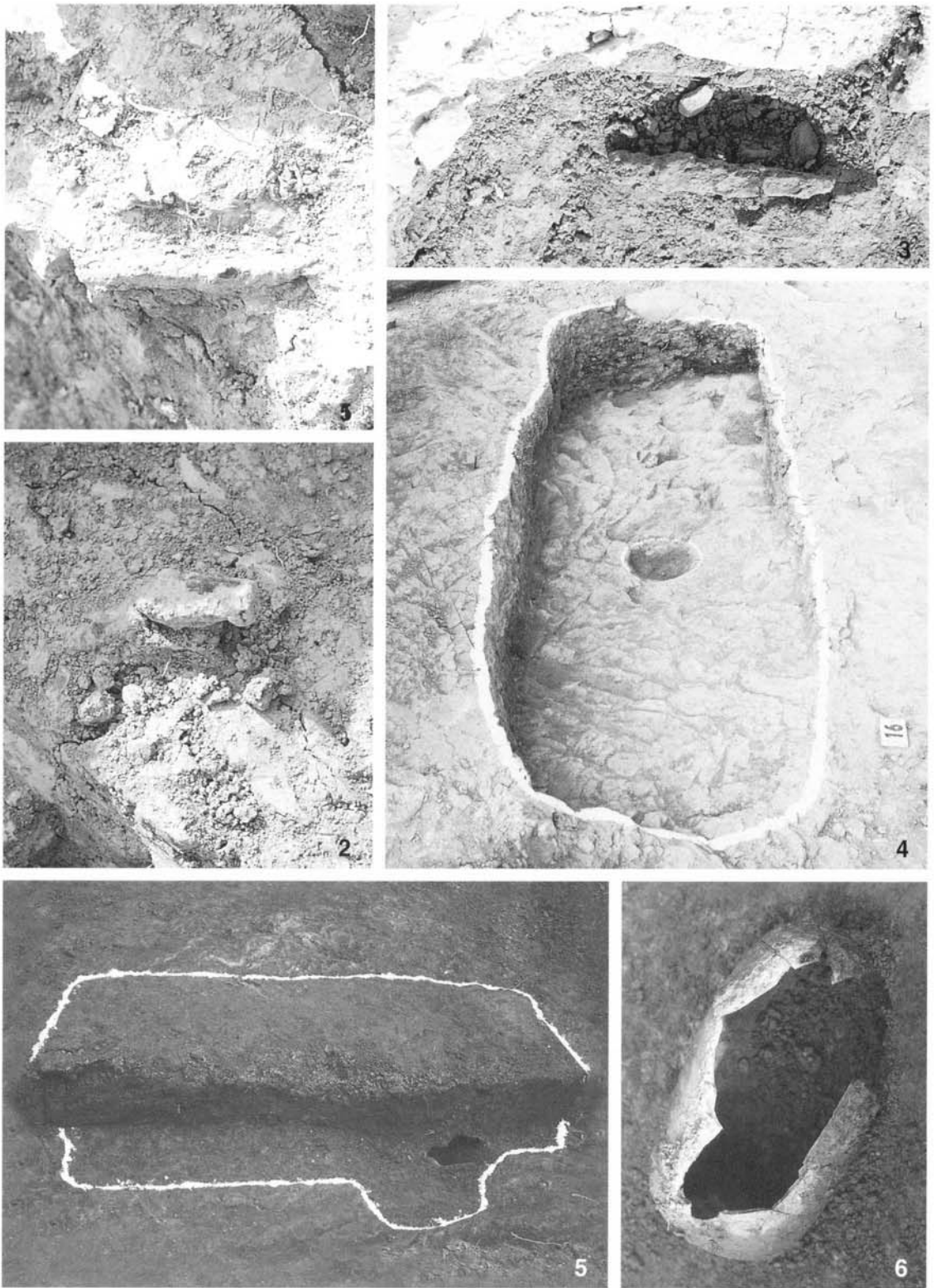
圖版 24. 15호묘 토층(1), 유물출토 상태(2~5:북벽, 6:남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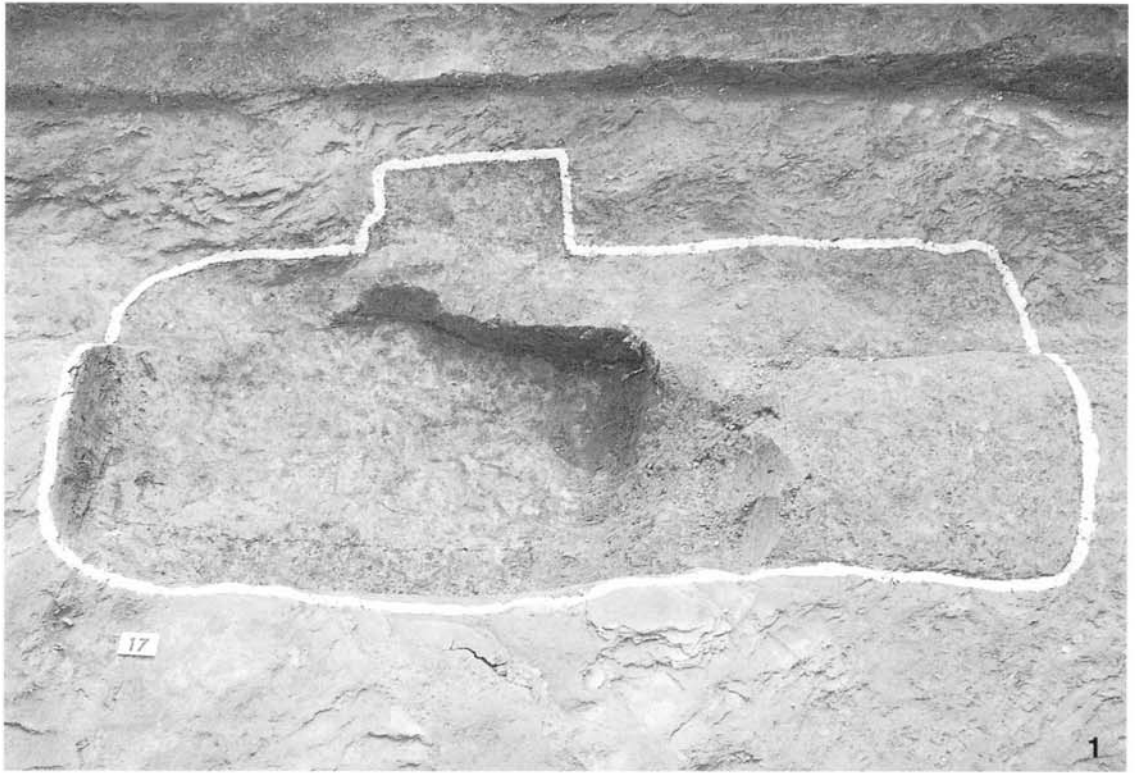
圖版 25. 15호묘 유물출토(1, 3, 4), 바닥노출(2) 상태. 16호묘 최초 유물 노출상태(5)



圖版 26. 16호묘 내부 노출 전(1)·후(4) 전경, 토층(2), 유물출토(3)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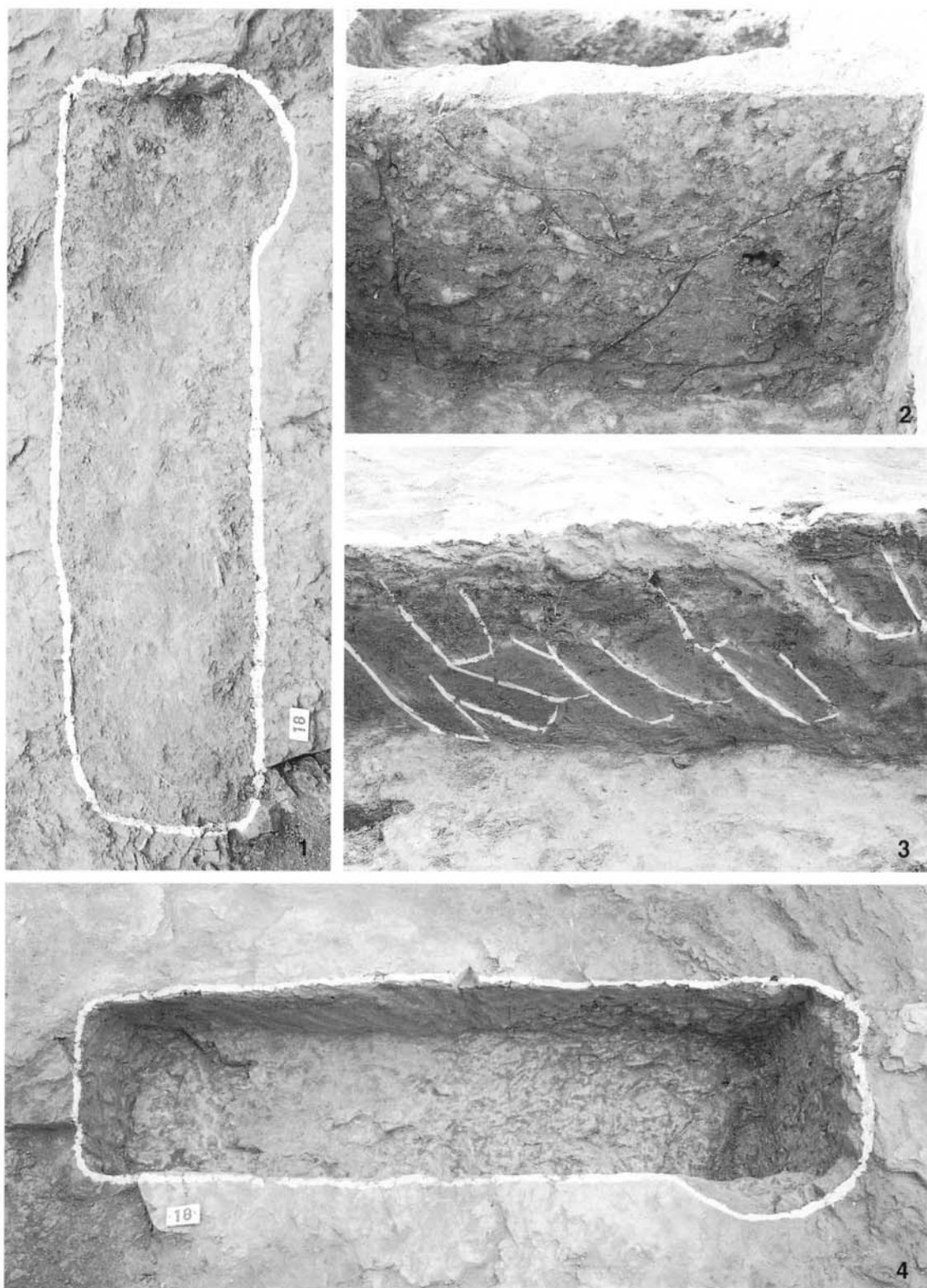
圖版 27. 16호묘 유물출토(1~3), 바닥노출 상태(4). 17호묘 최초상태-시굴(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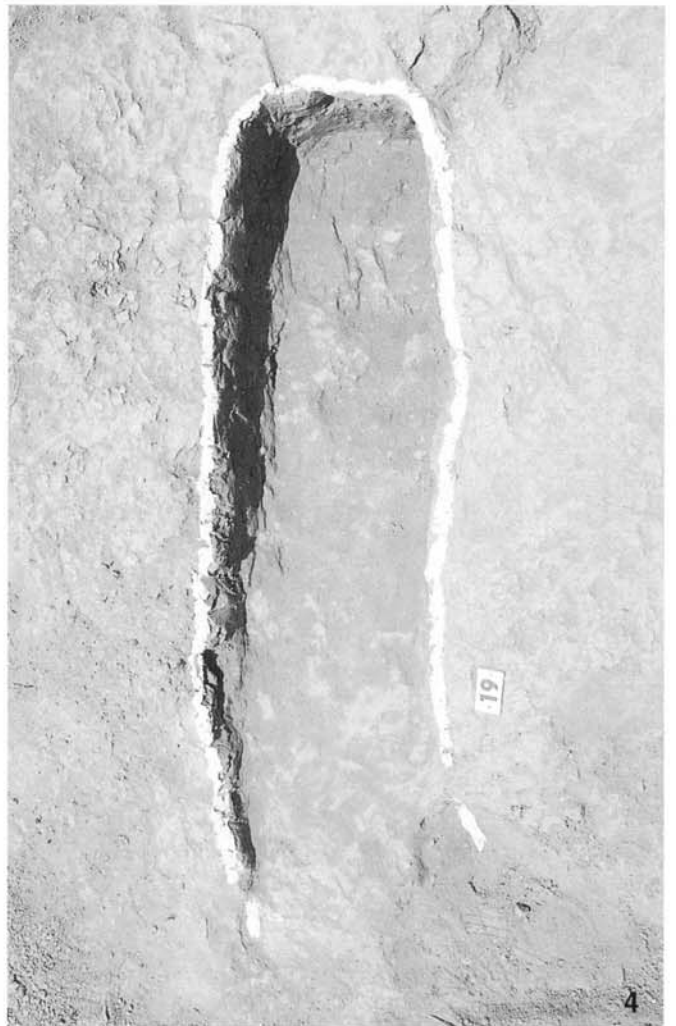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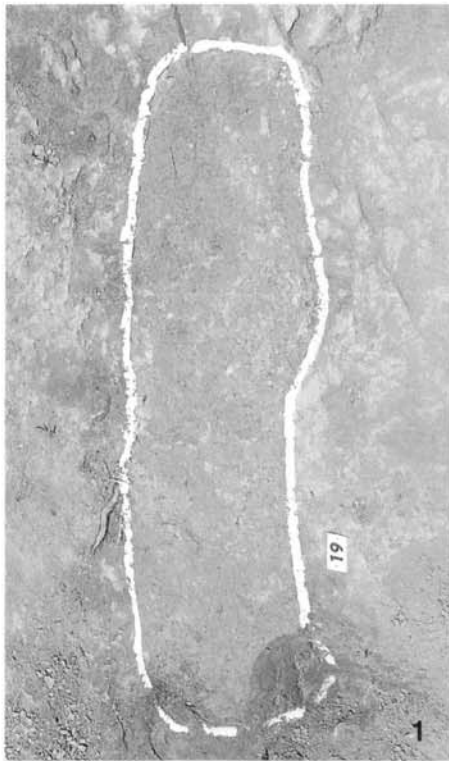
圖版 28. 17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1), 토층상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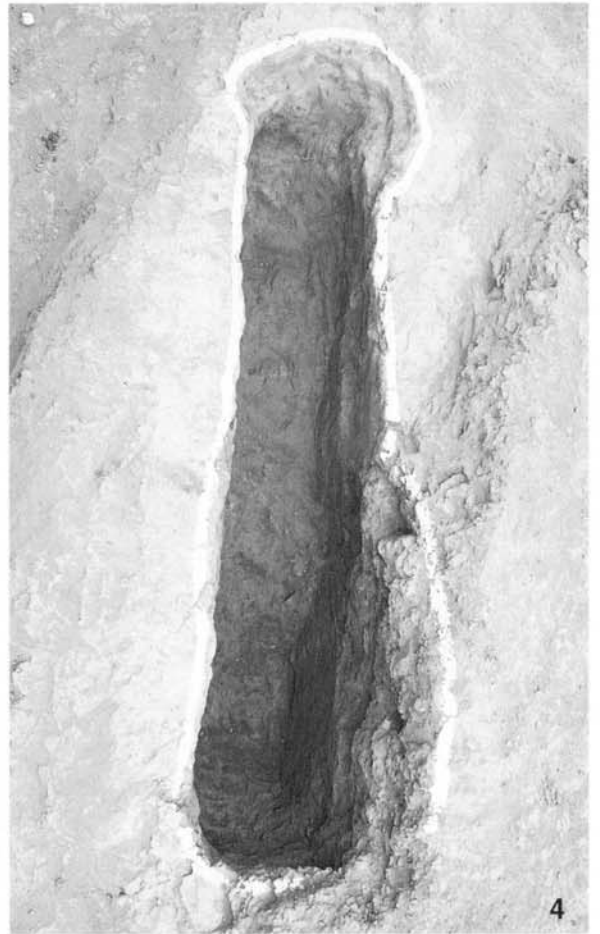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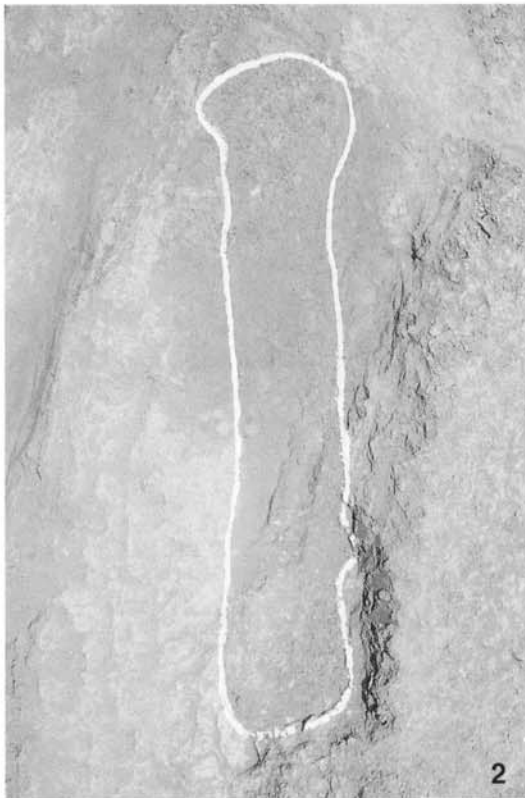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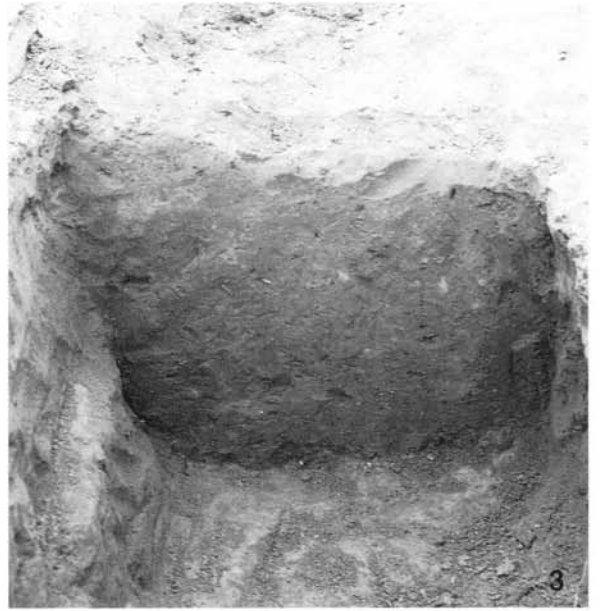
圖版 29. 17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2), 바닥 목관혼(3), 유물출토(4, 5)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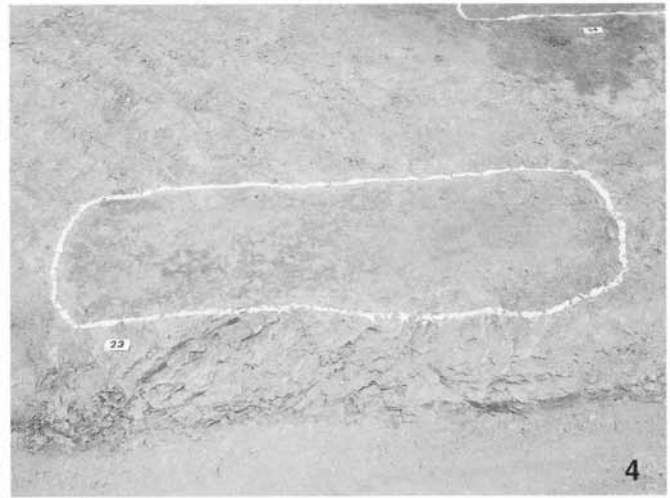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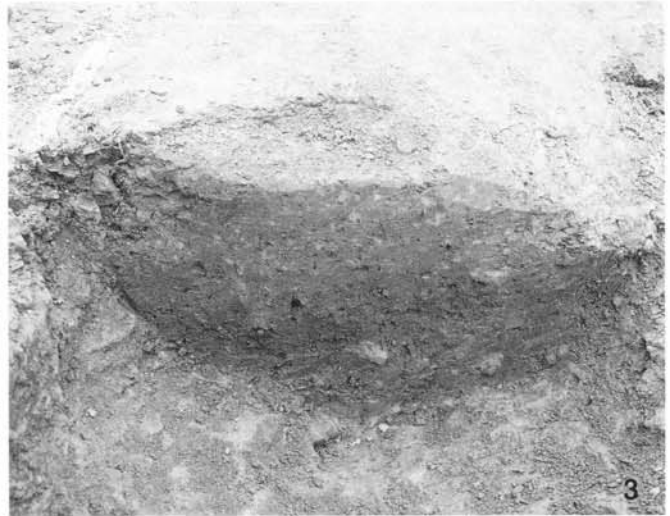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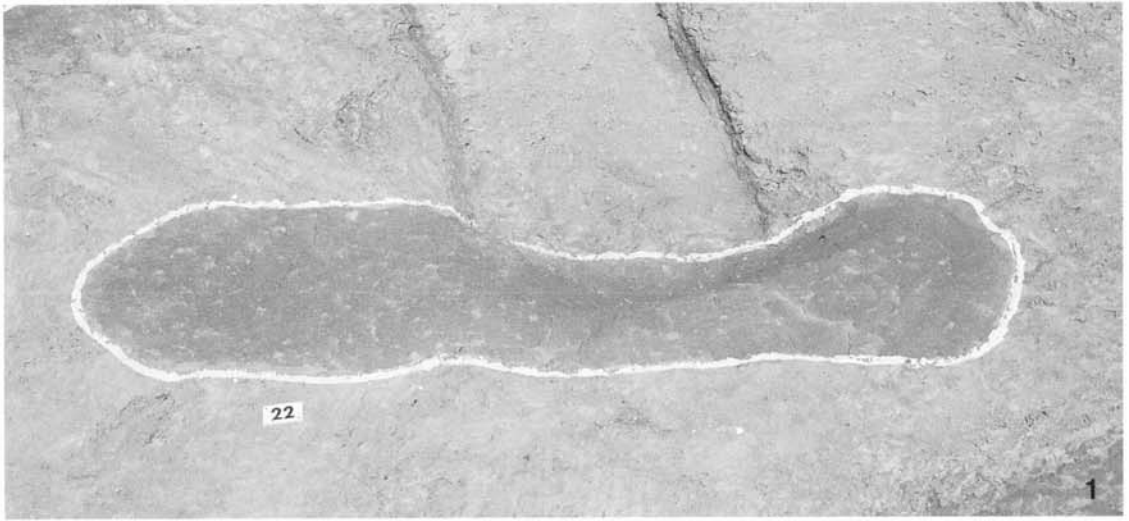
圖版 30. 18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1), 토층(2), 서벽 굴지구?흔(3), 바닥노출 상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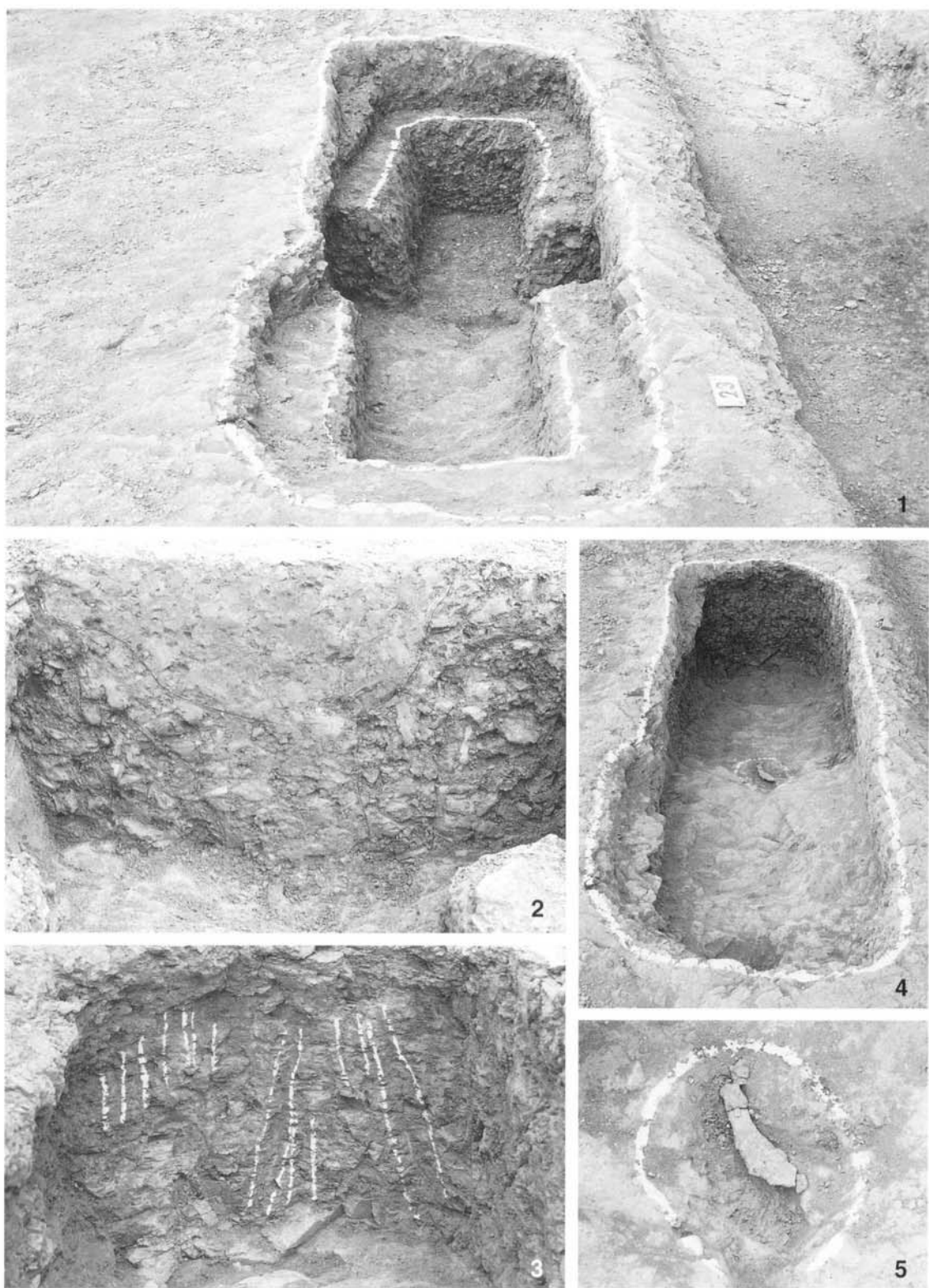
圖版 31. 19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1), 토층(2), 바닥노출(3) 상태. 20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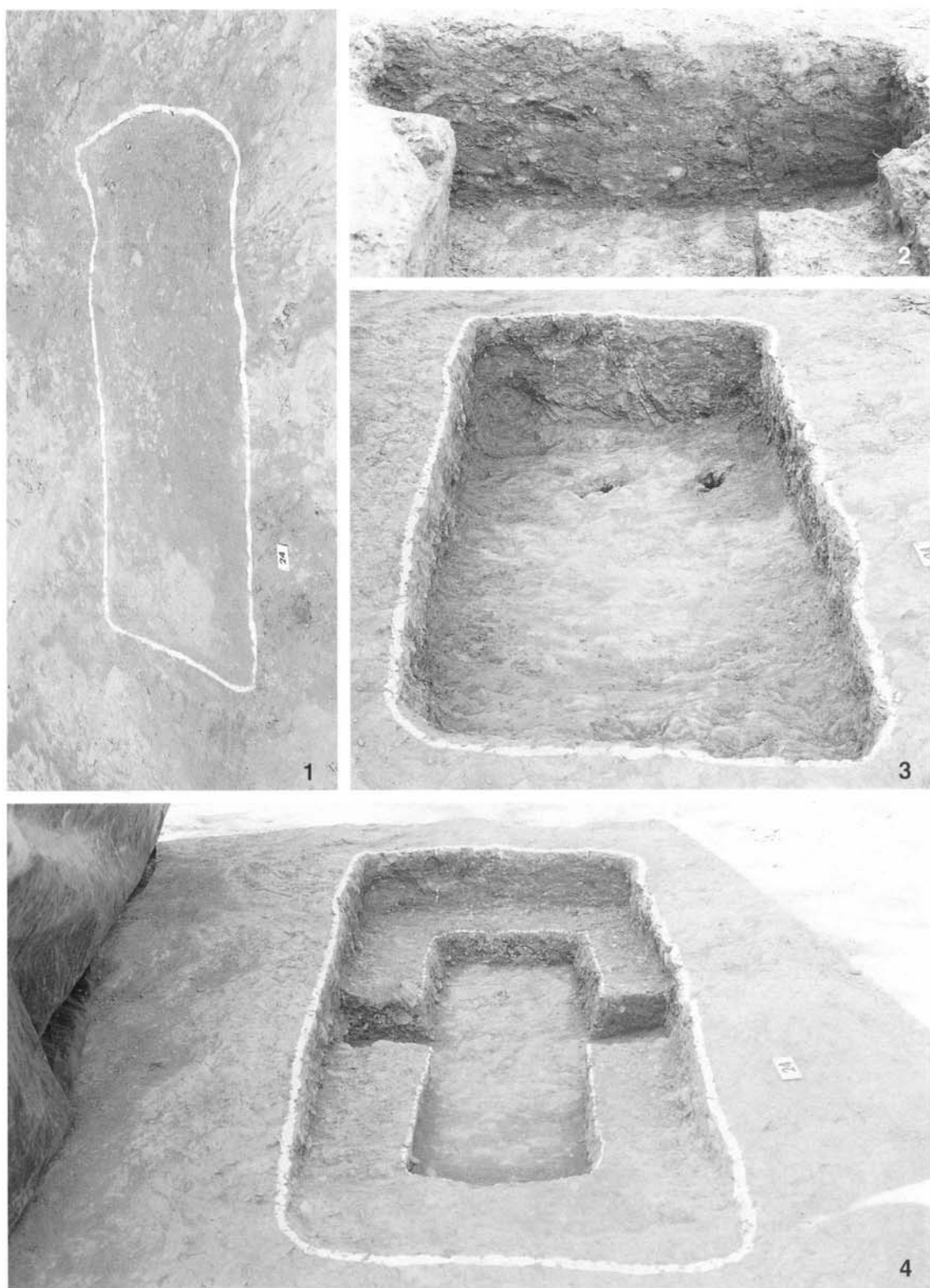
圖版 32. 20호묘 바닥노출상태(1). 21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2), 토층(3), 바닥노출(4)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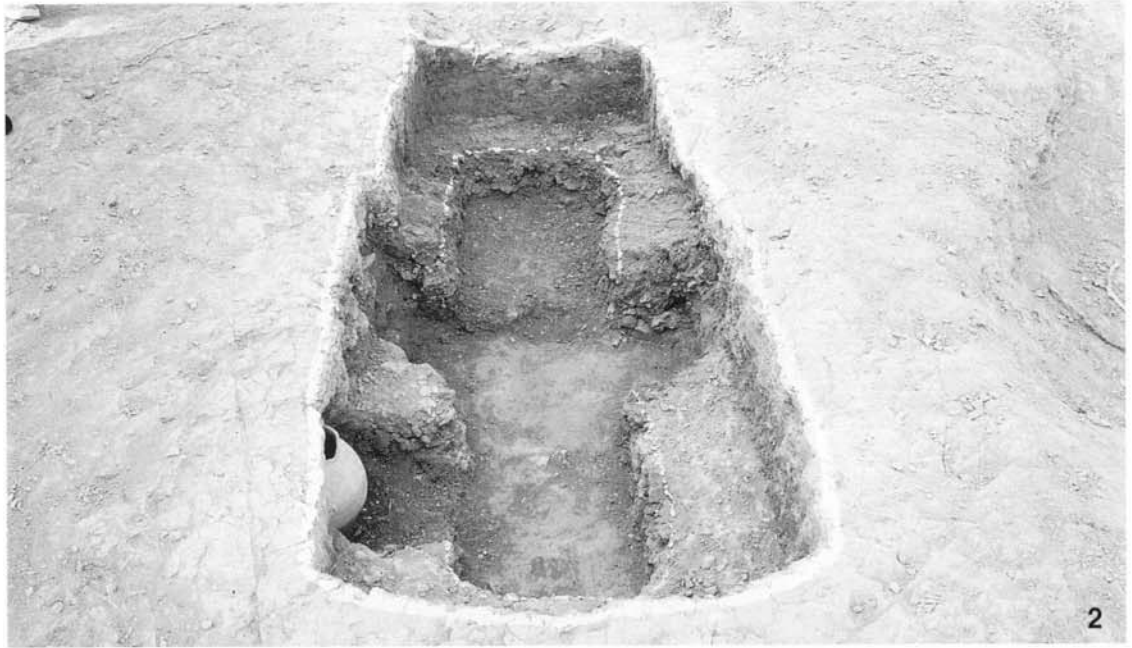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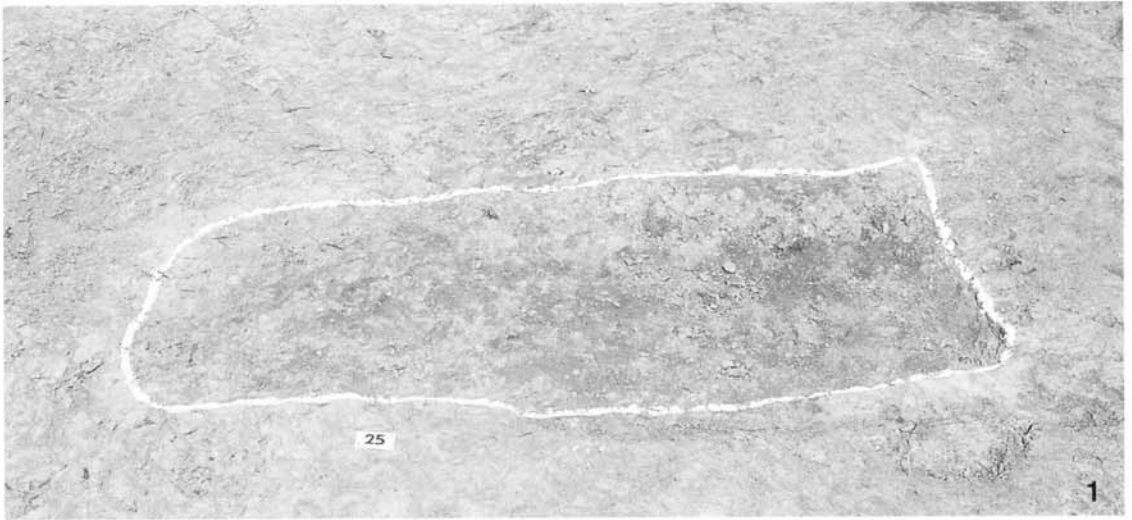
圖版 33. 22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1), 바닥노출(2), 토층(3) 상태. 23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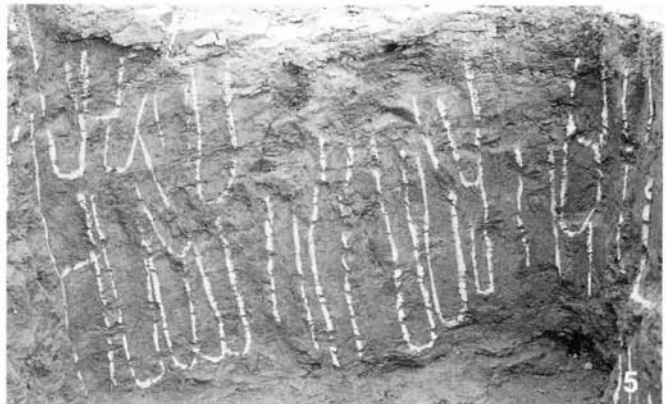
圖版 34. 23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토층(2), 바닥노출(4), 유물출토(5), 북벽 굴지구흔(3)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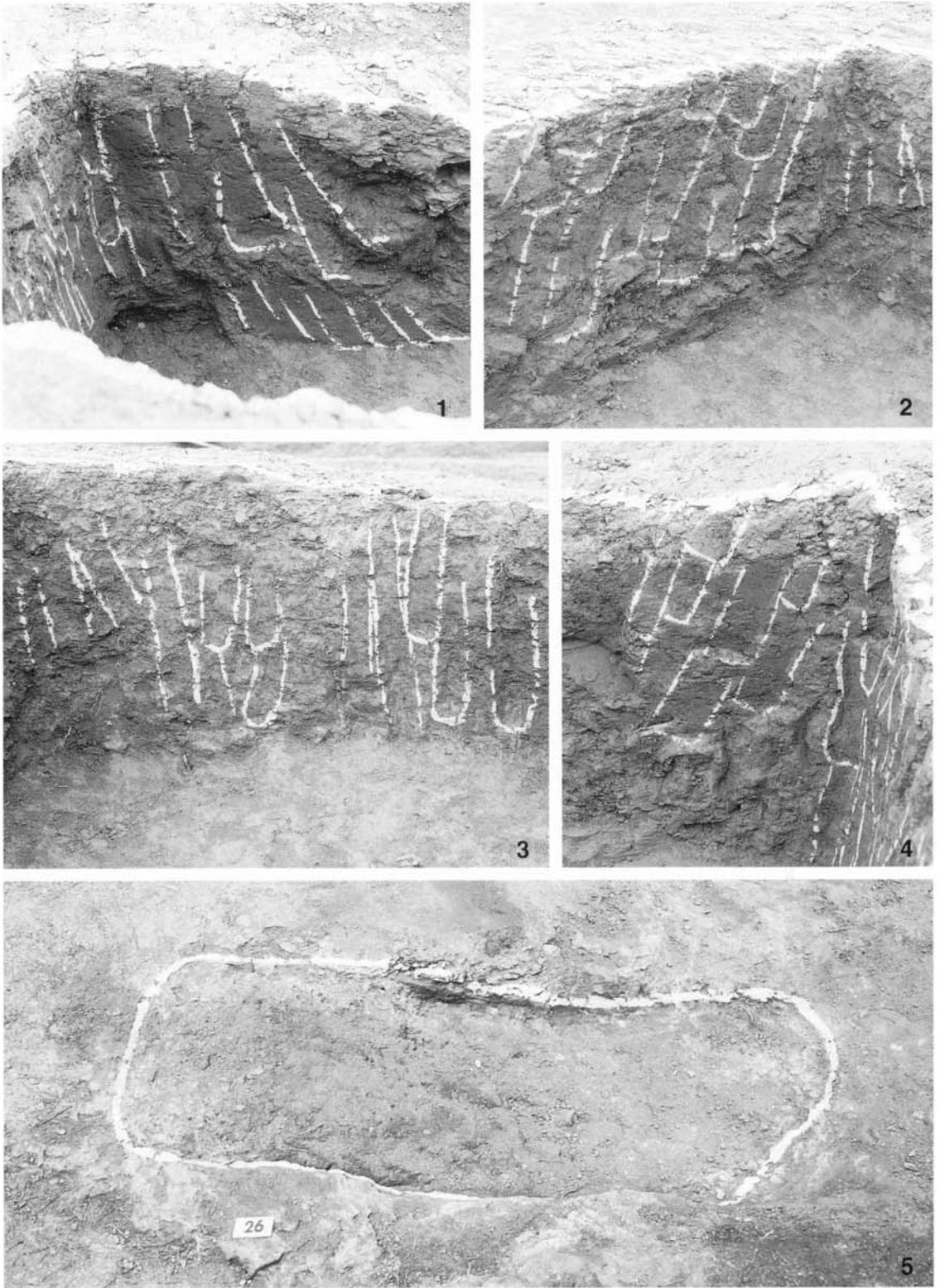
圖版 35. 24호묘 내부 노출 전(1)·후(4) 전경, 토층(2), 바닥노출(3)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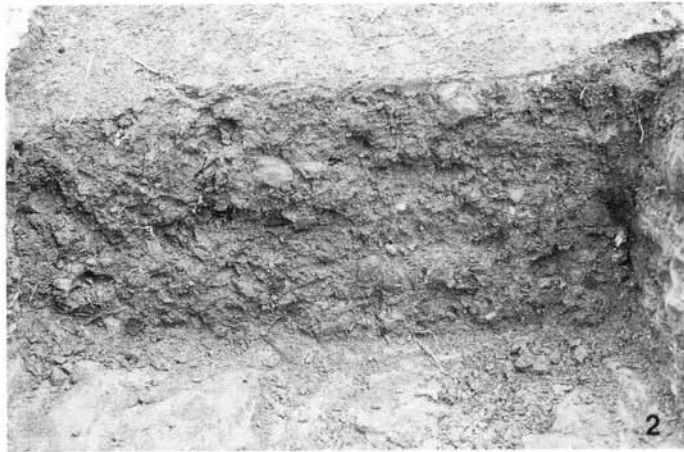
圖版 36. 25호묘 내부 노출 전(1)·후(2) 전경, 토층(3), 벽감내 유물출토(4)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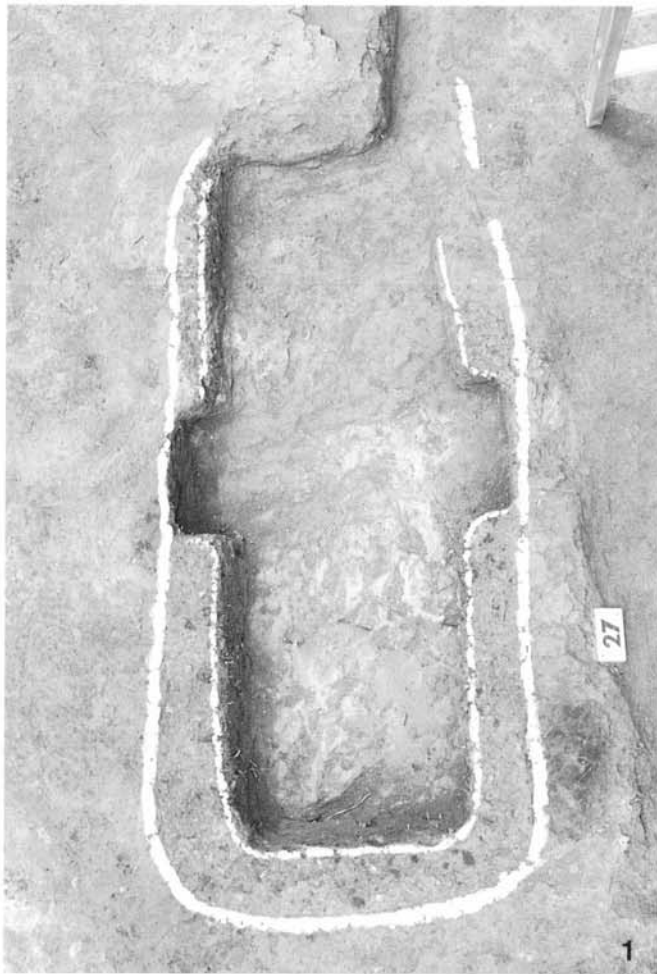
圖版 37. 25호묘 바닥노출(1), 유물출토(2), 위에서 본 벽감내 유물부장(3) 상태, 요갱(4), 북벽 굴지구흔(5)



圖版 38. 25호묘 동벽 북쪽(1), 동벽 남쪽(2), 남벽(3), 서벽 북쪽(4) 굴지구흔. 26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5)



圖版 39. 26호묘 바닥노출(1), 토층(2) 상태. 27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4), 토층상태(3)



圖版 40. 27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 상태(2). 28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4), 토층상태(3)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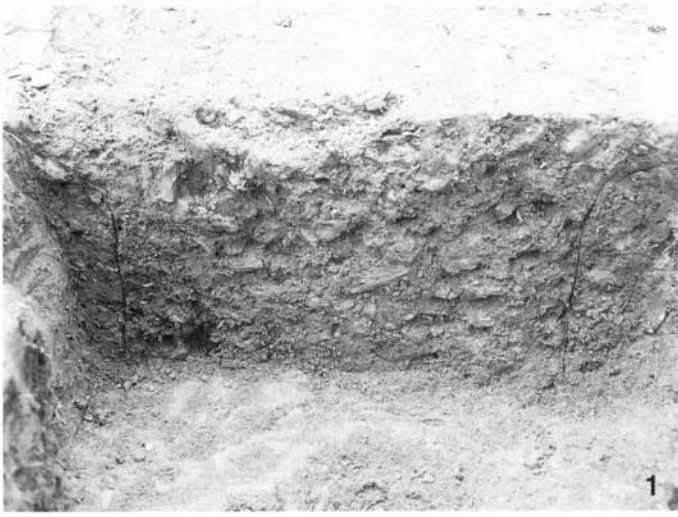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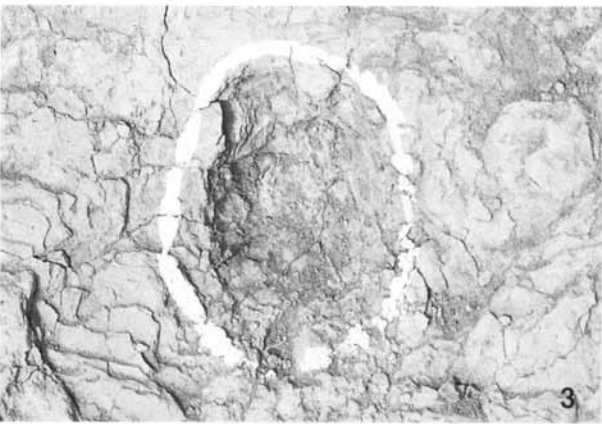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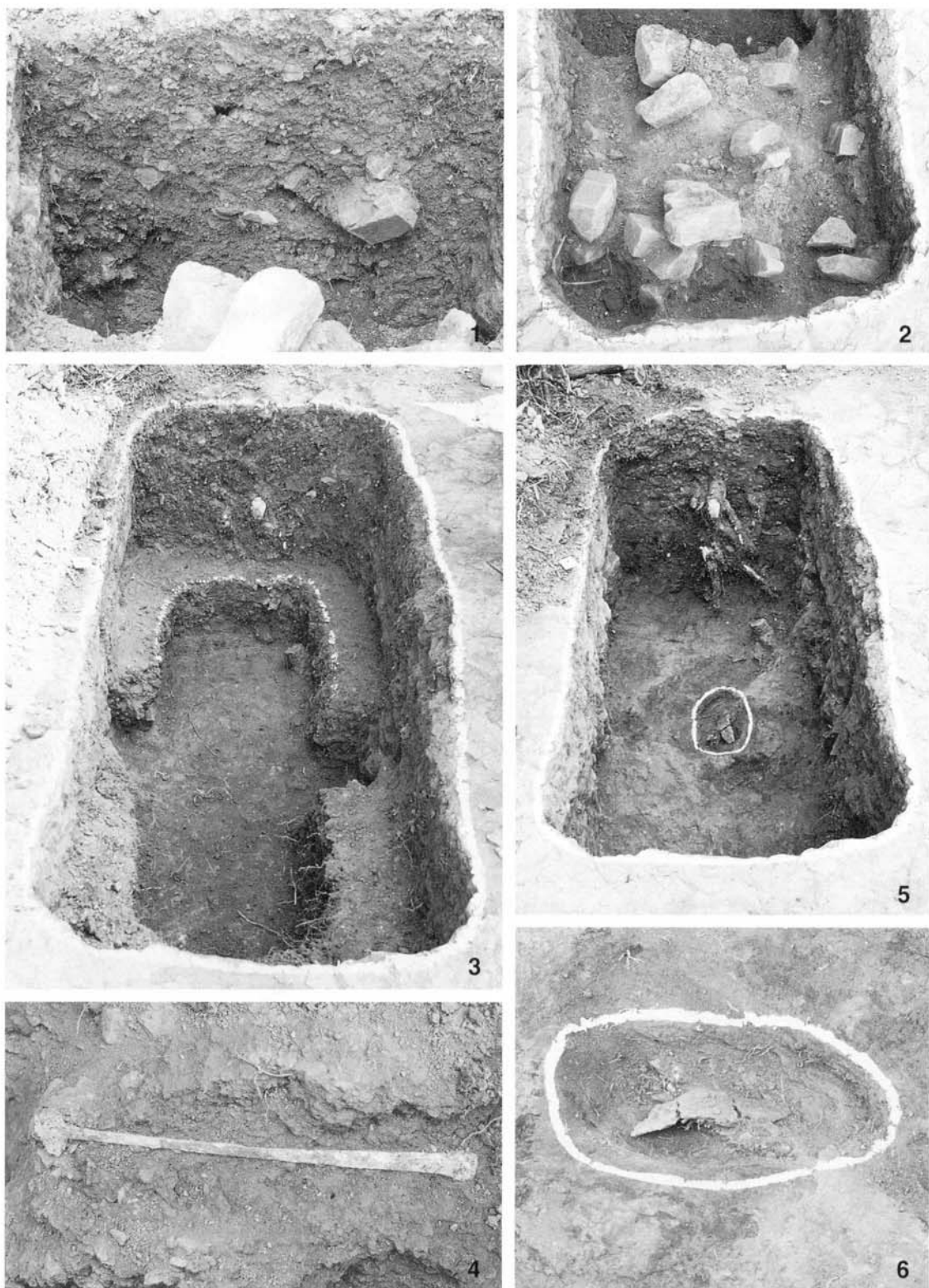
圖版 41. 28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 상태(2). 29호묘 내부 노출 전(3) · 후(4)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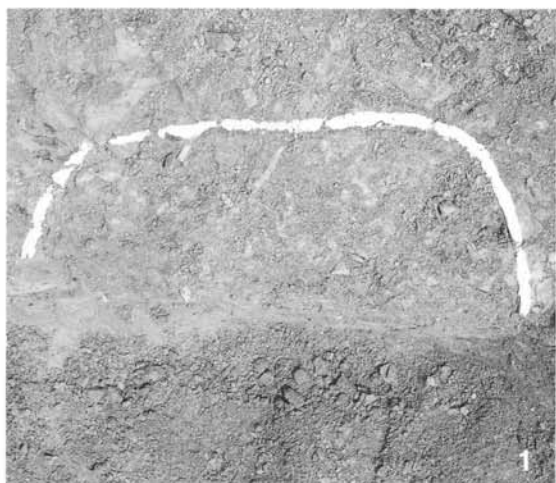
圖版 42. 29호묘 토총(1), 바닥노출(2) 상태. 30호묘 내부 노출 전(3)·후(5) 전경, 토총상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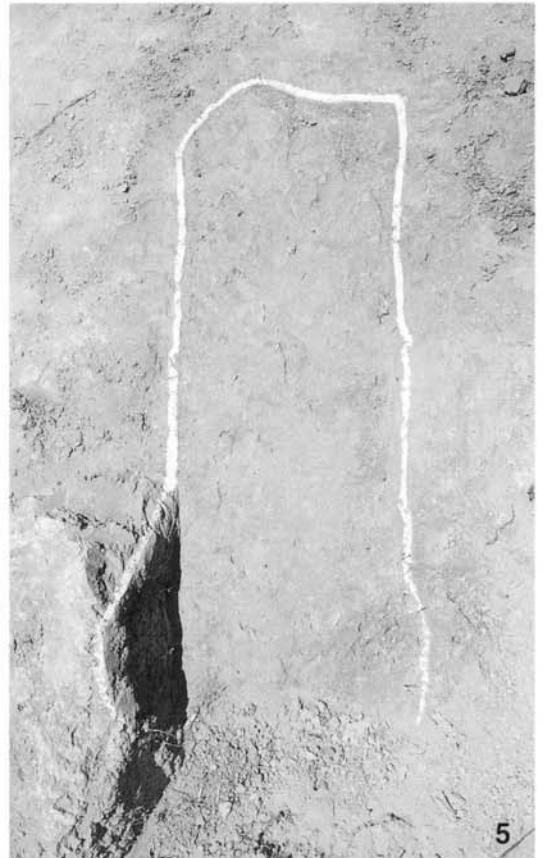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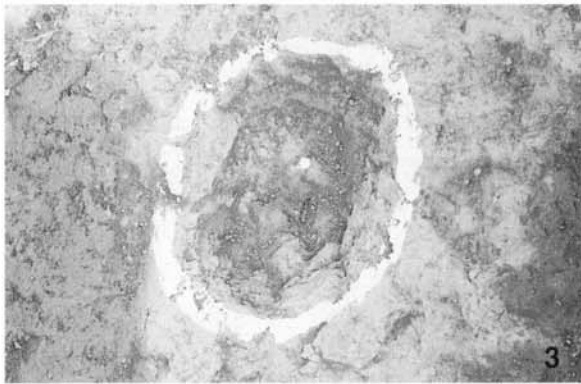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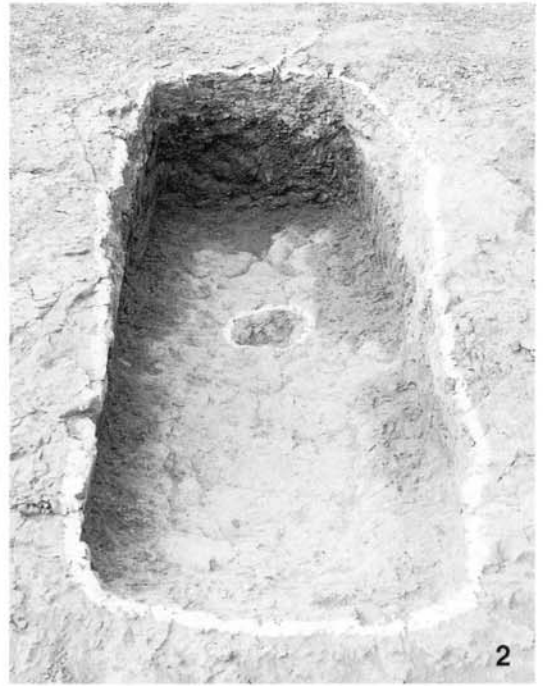
圖版 43. 30호묘 유물출토(1), 바닥노출(2) 상태, 요갱(3), 31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4, 5)



圖版 44. 31호묘 토층(1), 내부 남쪽 적석상태(2), 내부 노출 후 전경(3), 유물출토(4), 바닥노출(5) 상태, 요갱(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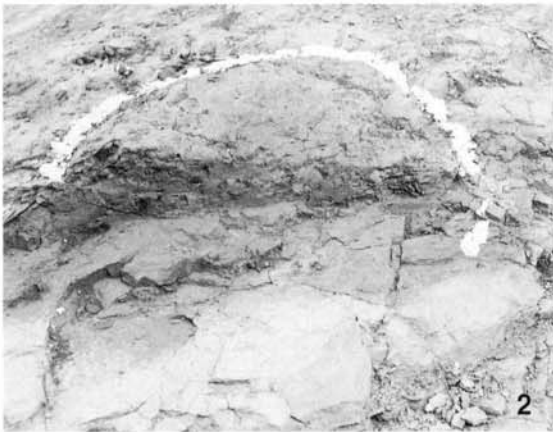
圖版 45. 32호묘 내부 노출 전(1)·후(3) 전경, 토층(2), 바닥노출(4) 상태. 33호묘 내부 노출전 전경(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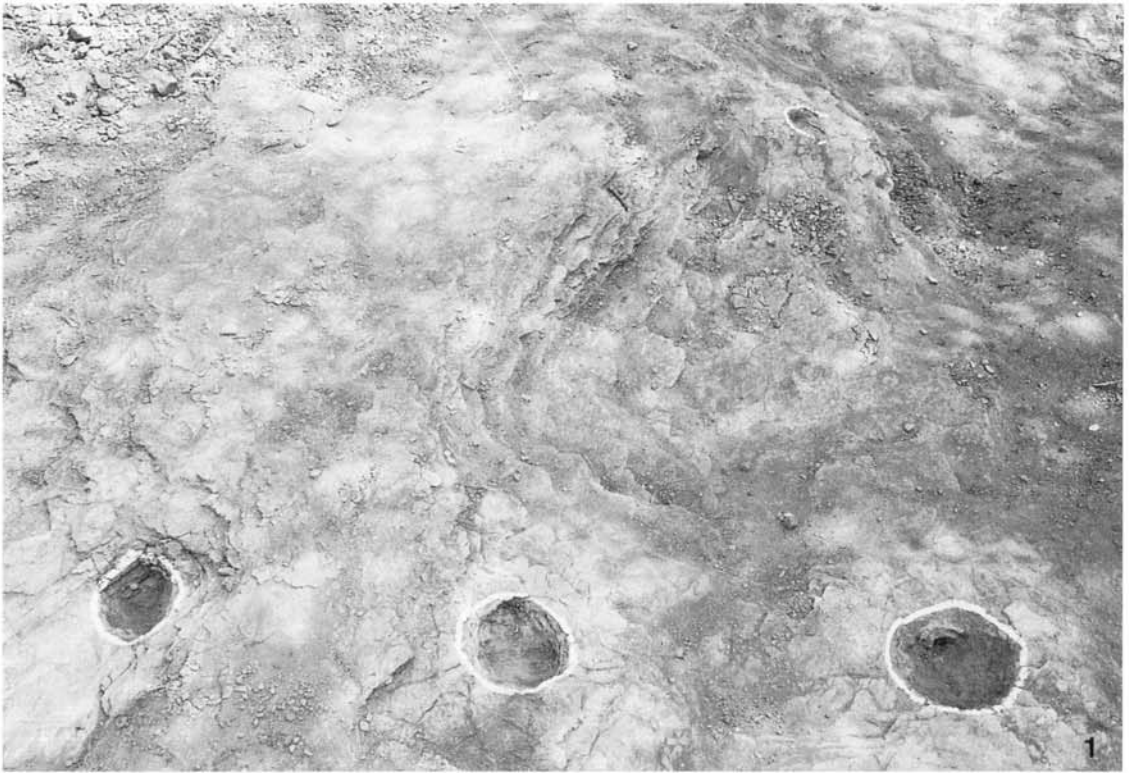
圖版 46. 33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2), 요갱(3) 상태. 34호묘 내부 노출 전 전경(5), 토층상태(4)*



圖版 47. 34호묘 내부 노출 후 전경(1), 바닥노출(2), 유물출토(3), 요갱(4) 상태



圖版 48. 주혈군 전경(1), -1,2,3,4 주혈 내부 토층(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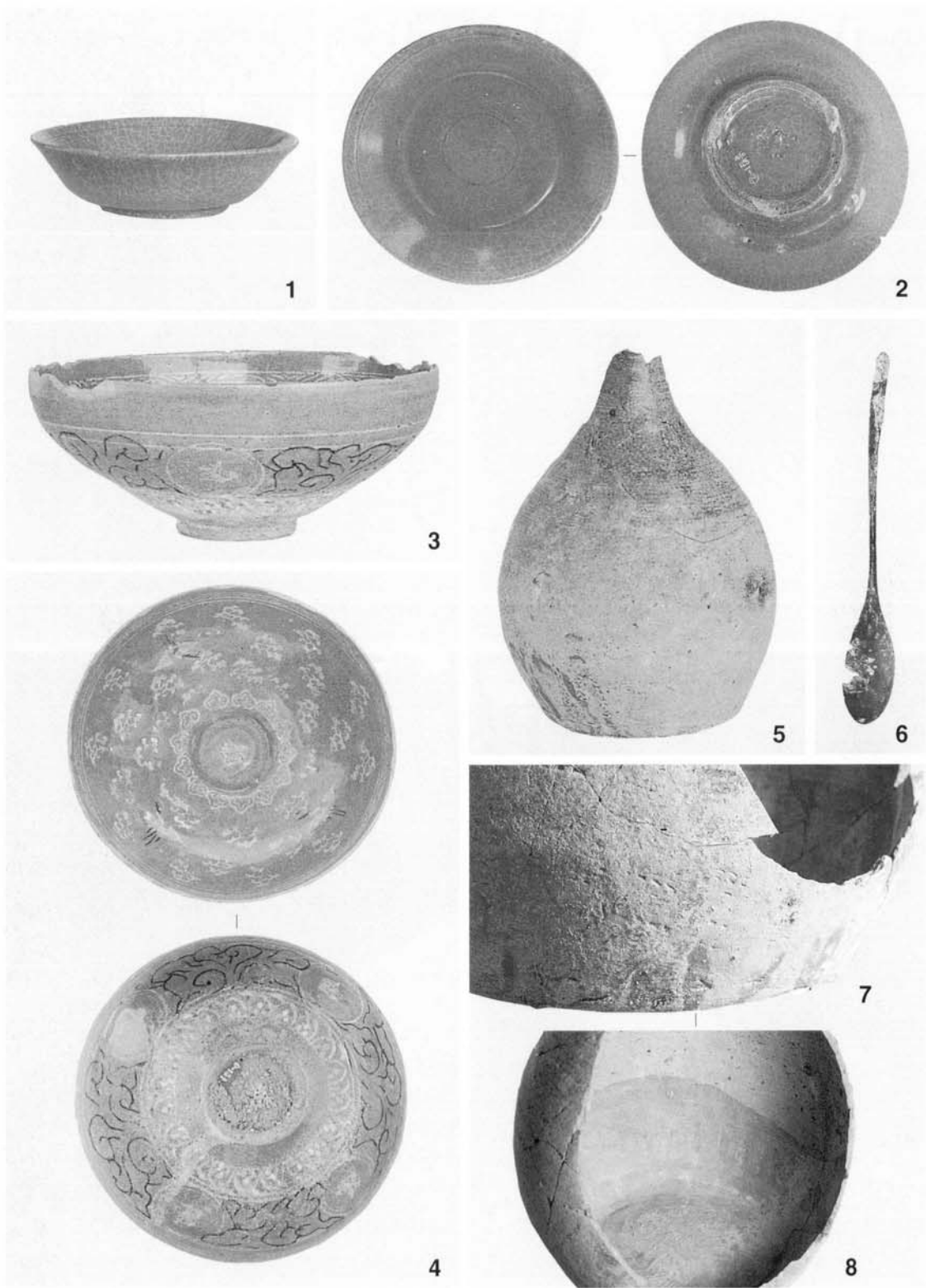
圖版 49. 주혈군 내부 노출 후 전경(1), 23호 남쪽 주혈 내부 노출 전(2)·후(4) 전경, 토층상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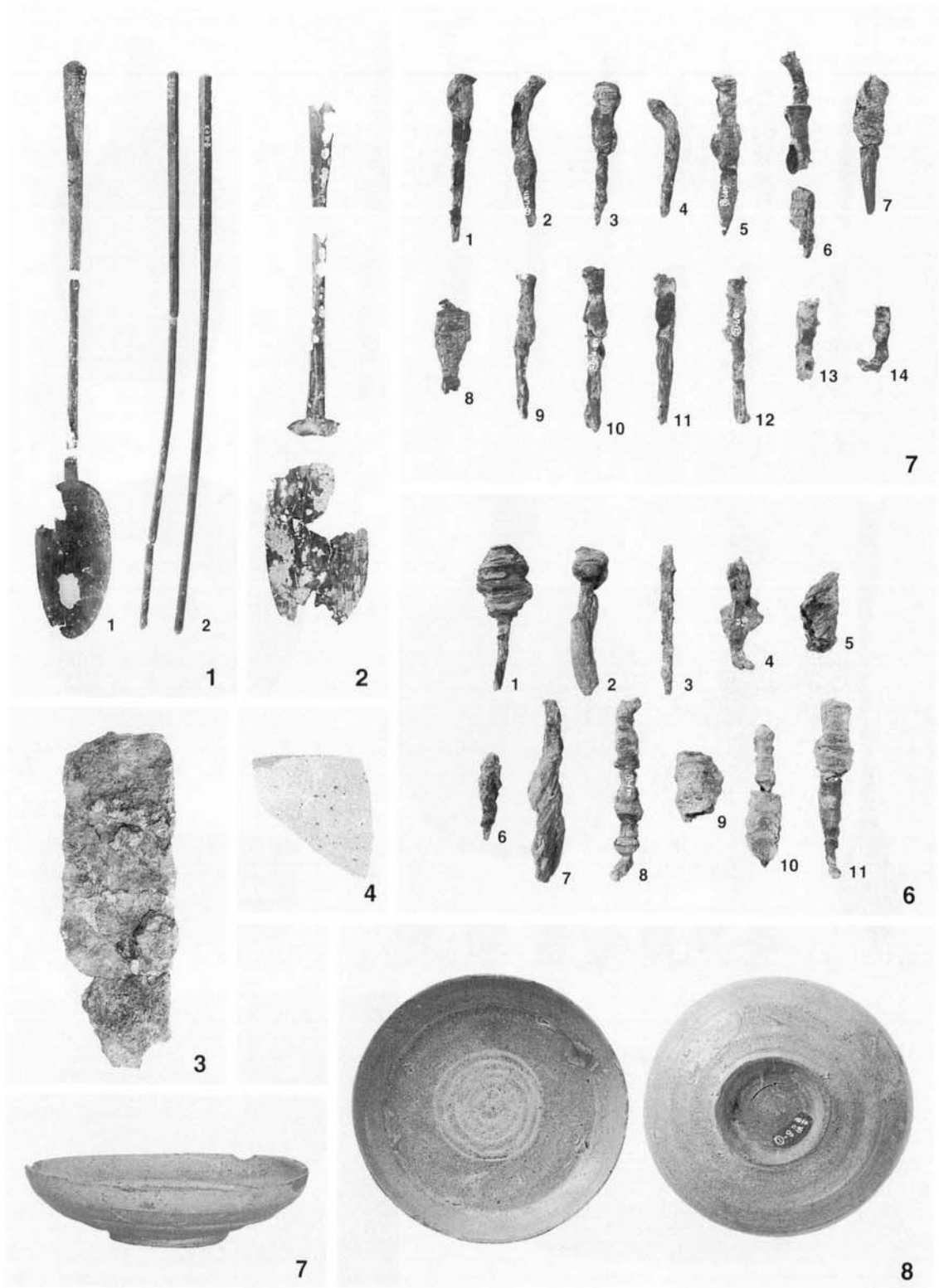
圖版 50. 발굴구역 구릉의 정상부 일대 Trench 설치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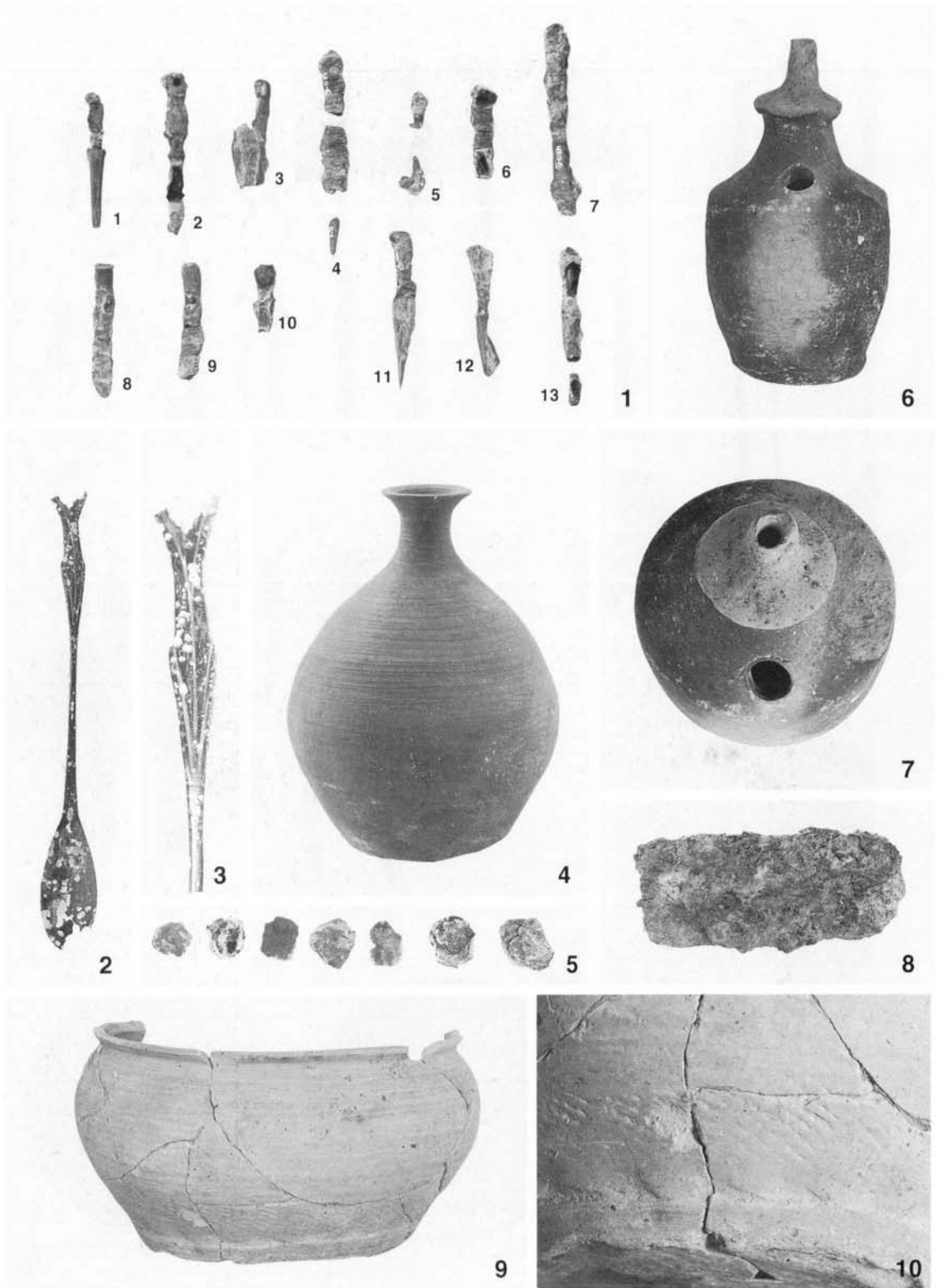
圖版 51. 발굴구역 동쪽(1)·서쪽(2) Trench 조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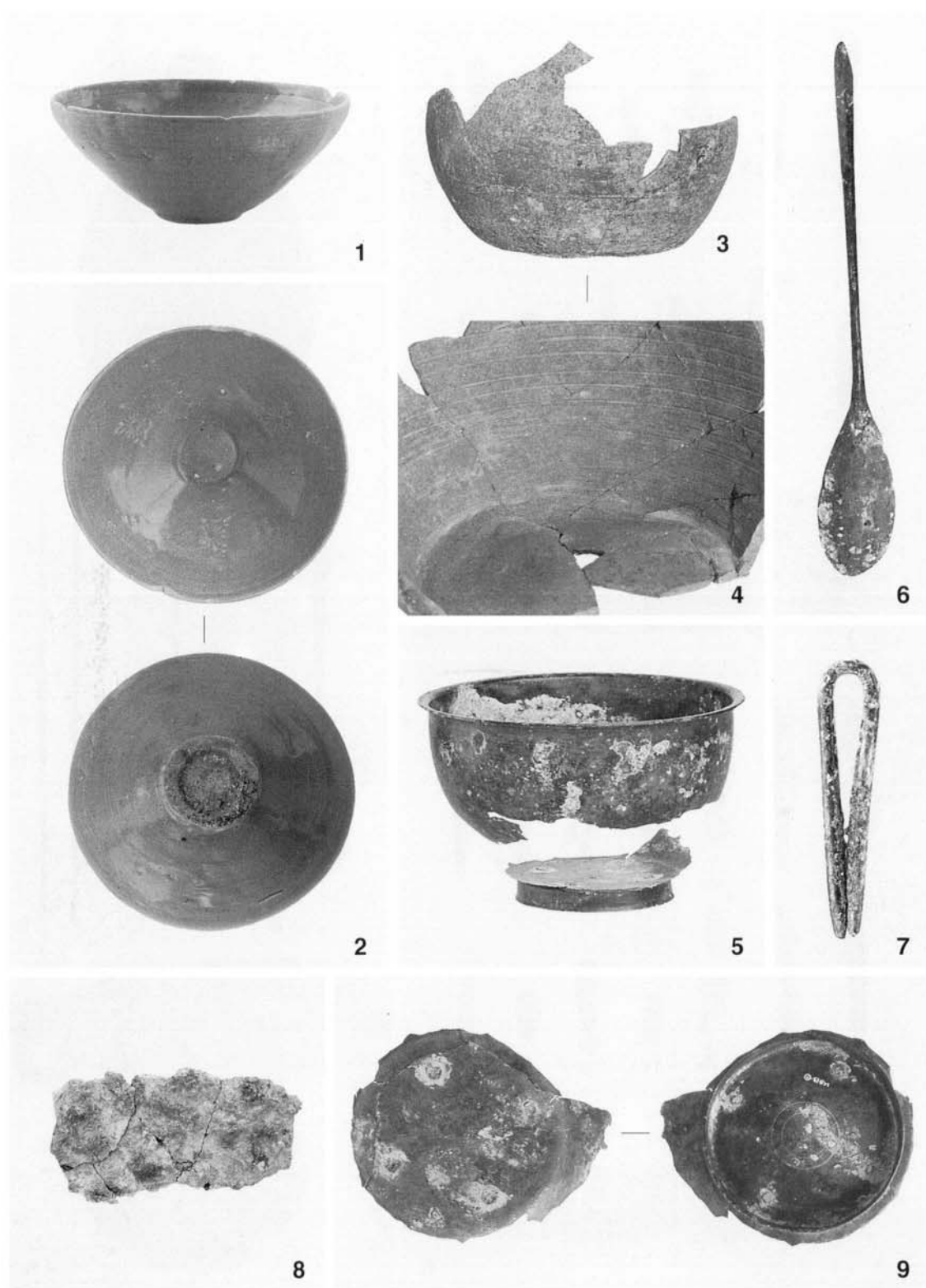
圖版 52. 1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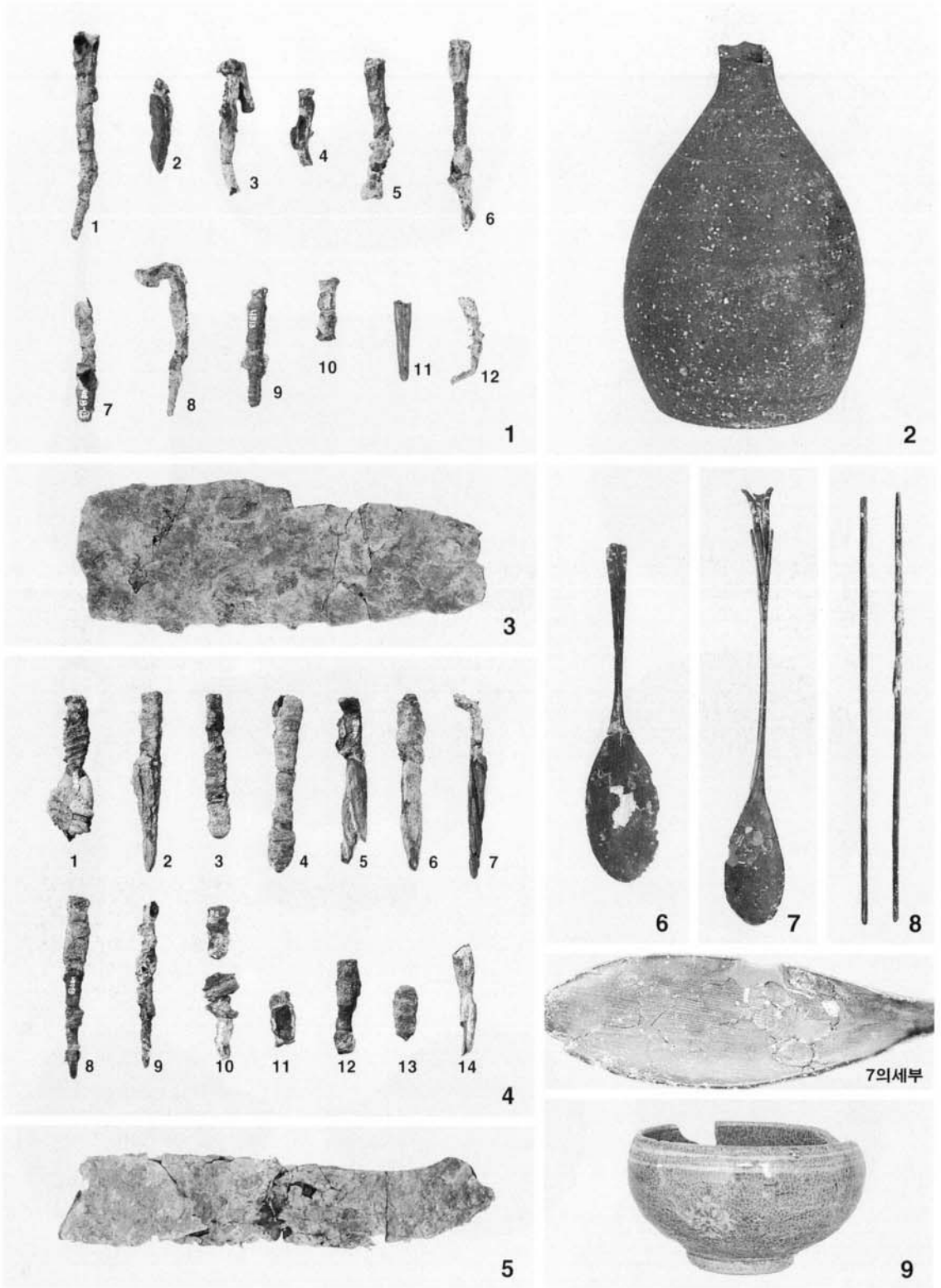
圖版 53. 6~9호묘 출토유물(1·3:6호, 5:7호, 2·7·8:8호, 4·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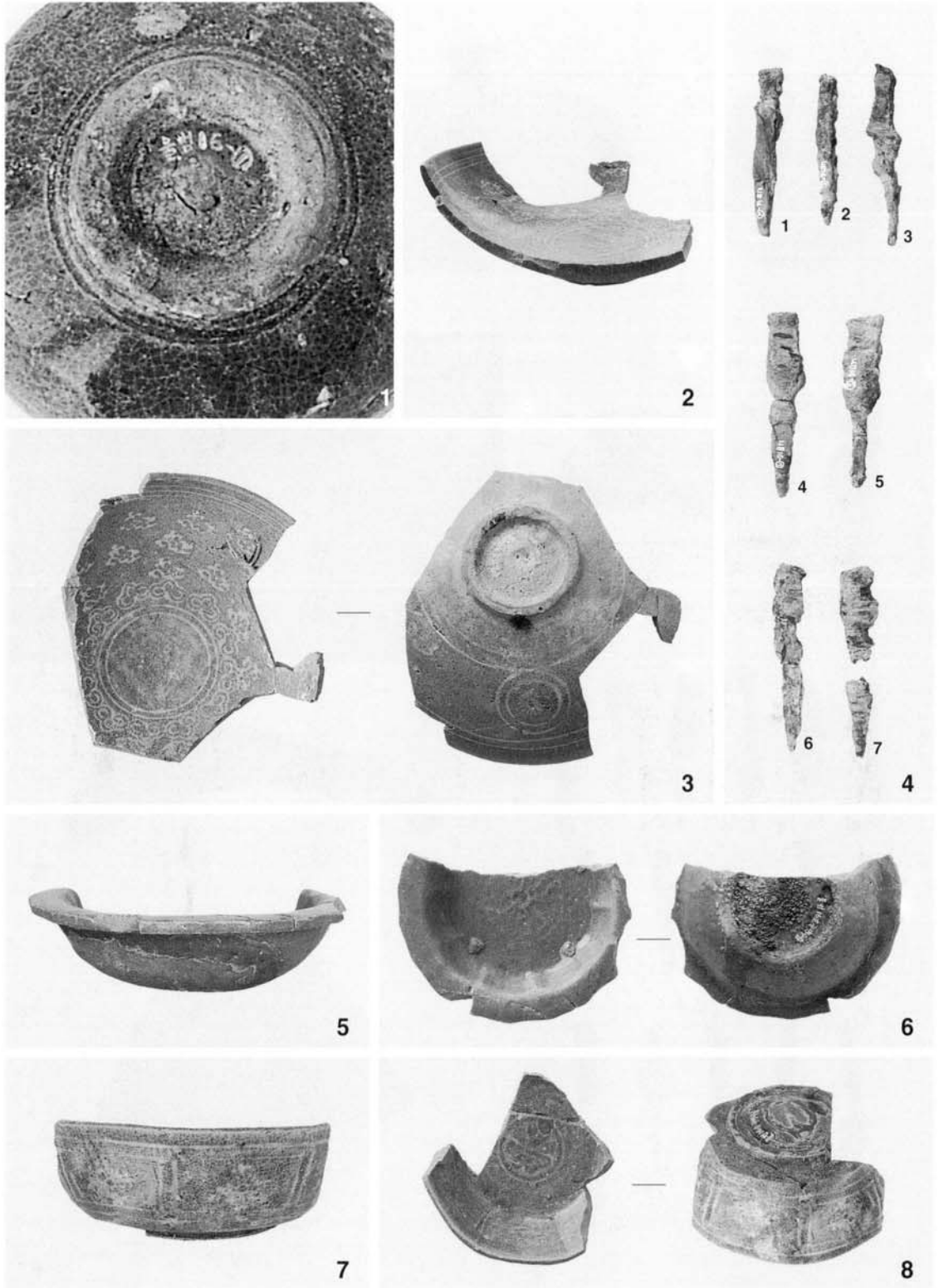
圖版 54. 10, 11호묘 출토유물(1:10호, 2~10:11호)



圖版 55. 13호묘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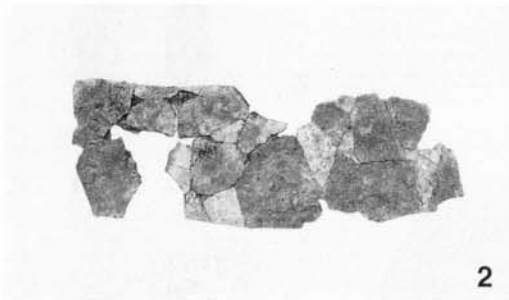
圖版 56. 13~16호묘 출토유물(1·2:13호, 3:14호, 4~6:15호, 7~9: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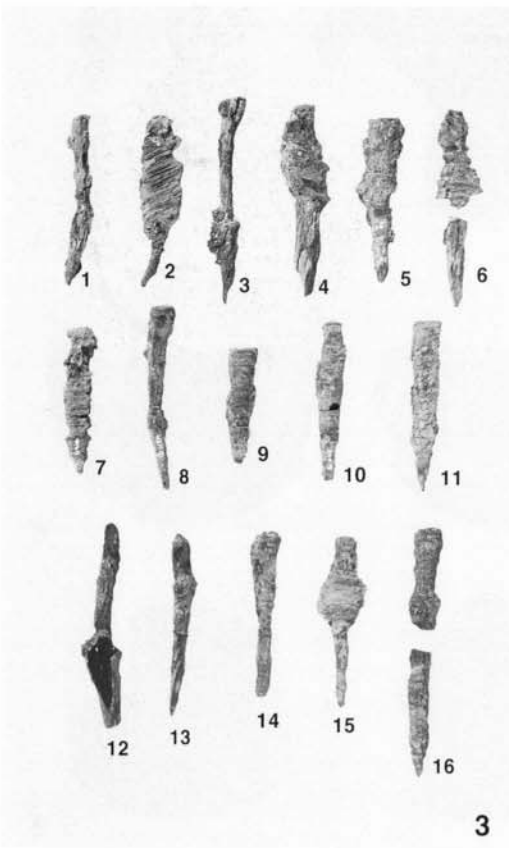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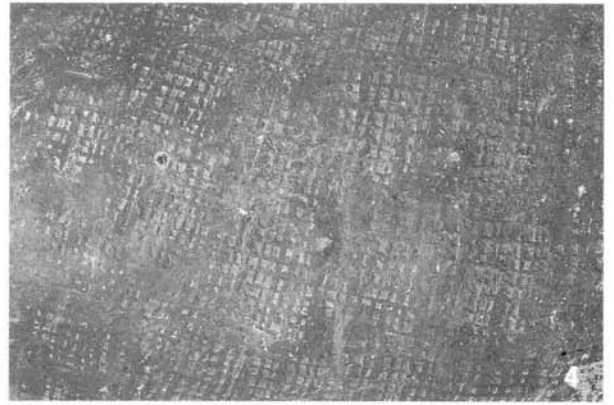
圖版 57. 16호묘와 주변 출토유물(1·4:16호, 5·7호, 2·3·5~8:16호주변)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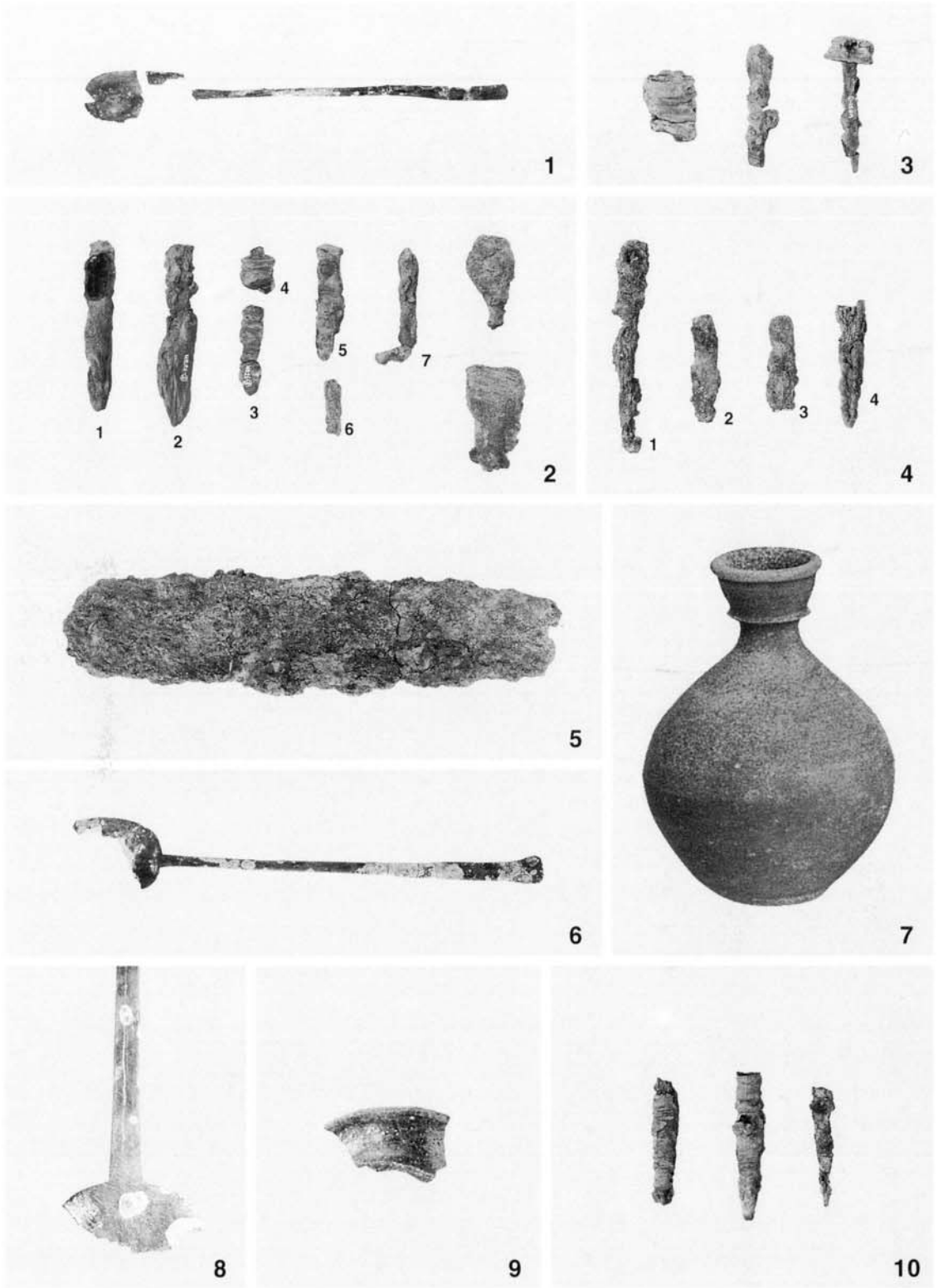


5



6

圖版 58. 17, 23, 25호묘 출토유물(1~4:17호, 5:23호, 6:25호)



圖版 59. 25~35호, 지표채집 유물(1:25호, 2:26호, 3:30호, 4~6·8:31호, 7:34호, 9·10:지표채집)

蔚山大學校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7輯

을산범어유적

2000년 12월 15일 印刷

2000년 12월 27일 發行

編輯.發行 : 蔚山大學校 博物館

蔚山市 南區 無去洞 山29番地

電話 (052) 259-2634

印 刷 : 금양문화 (051) 441-0444
